
고창 동학농민혁명
지역조사 및 구술채록 연구



고창군
2021.12

제 출 문

고창군수 귀하

본 보고서를 『고창 동학농민혁명 지역조사 및
구술증언 채록 연구용역』 최종 결과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12월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최병민

참여 연구진

책임 연구원

정성미 (원광대학교)

연구원

신순철 (원광대학교)

연구보조원

임상민 (원광대학교)

김상민 (원광대학교)

자문위원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진윤식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부이사장 조용호
고창북고등학교 교사 안후상

차 례

I. 조사 연구의 개요

- 1. 조사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 2. 조사 연구의 범위와 내용 7
- 3. 조사 연구의 방법 및 추진 체계 9

II. 무장기포의 현장, 공음면 구암리 구수마을

- 1. 동학농민혁명과 구수마을 13
 - 1) 구수마을의 연혁 13
 - 2) 구수마을의 유래와 경관 15
 - 3) 구수마을과 무장기포 20
- 2. 구수마을 토지 소유 관계와 경제적 실태 25
 - 1) 측량원도를 통해 본 구수마을 25
 - 2) 토지대장을 통해 본 구수마을 30
 - 3) 제적부를 통해 본 구수마을 62
- 3. 구수마을 인구와 성씨 68
- 4. 자료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최경철 71

III. 전봉준의 생가, 고창읍 죽림리 당촌마을

- 1. 동학농민혁명과 당촌마을 77

1) 당촌마을의 연혁	77
2) 당촌마을의 유래와 경관	79
3) 당촌마을과 동학농민혁명지도자 전봉준	83
2. 당촌마을 토지 소유관계와 경제적 실태	86
1) 측량원도를 통해 본 당촌마을	86
2) 토지대장을 통해 본 당촌마을	89
3) 제적부를 통해 본 당촌마을	113
3. 당촌마을 인구와 성씨	116
4. 전봉준의 생가터, 당촌마을 63번지 위치고증	118

IV. 구술채록

1. 전윤오	125
2. 표을중	161
3. 신계원	179
4. 진윤식	200
5. 김용철	219

V. 결론

1. 연구 내용 요약	235
1) 구수마을 1차 사료 분석 및 결과	235
2) 당촌마을 1차 사료 분석 및 결과	238
3) 구술 증언과 분석	240

2. 연구내용 활용 방안	242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244
1) 연구의 의의	244
2) 연구의 한계	245
4. 연구의 과제	247
참고문헌	248
부록	252

표 차례

<표 1> 참여 연구진	3
<표 2> 구수마을 지목별 비율	29
<표 3> 구수마을 지목별 면적	36
<표 4> 구수마을 개인별 전(田) 면적 현황	38
<표 5> 구수마을 전(田) 면적에 따른 필지와 인원	40
<표 6> 구수마을 개인별 답(畓) 면적 현황	42
<표 7> 구수마을 답(畓) 면적에 따른 필지와 인원	45
<표 8> 구수마을 개인별 대지(垞地) 면적 현황	46
<표 9> 구수마을 대지(垞地) 면적에 따른 필지와 인원	47
<표 10> 구수마을 개인별 임야(林野) 면적 현황	48
<표 11> 구수마을 성씨별 토지 소유현황	49
<표 12> 구수마을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51
<표 13> 구수마을 개인별 면적에 따른 필지와 인원	53
<표 14> 구수마을 거주인 토지 소유현황	53
<표 15> 구수마을 거주인 면적에 따른 필지와 인원	55
<표 16> 농가계급 구분	56
<표 17> 구수마을 거주인 전(田) 소출량 현황	57
<표 18> 구수마을 거주인 답(畓) 소출량 현황	60
<표 19> 구수마을 거주인 제적 현황	65
<표 20> 최경칠 토지 소유현황	74
<표 21> 최경칠 소유 전(田) 현황	74
<표 22> 최경칠 소유 답(畓) 현황	74
<표 23> 당촌마을 지목별 비율	88
<표 24> 당촌마을 지목별 면적 비율	92
<표 25> 당촌마을 전(田) 면적에 따른 필지와 인원	94
<표 26> 당촌마을 개인별 전(田) 면적 현황	95
<표 27> 당촌마을 개인별 답(畓) 면적 현황	97
<표 28> 당촌마을 답(畓) 면적에 따른 필지와 인원	98

<표 29> 당촌마을 개인별 대지(垞地) 면적 현황	100
<표 30> 당촌마을 대지(垞地) 면적에 따른 필지와 인원	101
<표 31> 당촌마을 개인별 임야(林野) 면적 현황	102
<표 32> 당촌마을 성씨별 토지 소유현황	103
<표 33> 당촌마을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105
<표 34> 당촌마을 개인별 면적에 따른 필지와 인원	107
<표 35> 당촌마을 거주인 토지 소유현황	108
<표 36> 당촌마을 거주인 면적에 따른 필지와 인원	110
<표 37> 당촌마을 거주인 전(田) 소출량 현황	111
<표 38> 당촌마을 거주인 답(畓) 소출량 현황	112
<표 39> 당촌마을 거주인 제적 현황	114

그림 차례

<그림 1> 추진일정표	10
<그림 2> 청구도 무장지역	14
<그림 3> 해동지도 고창현	14
<그림 4> 구수마을 경관	15
<그림 5> 1917년 구수내 지형도	16
<그림 6> 구수마을 당산나무 추정위치	17
<그림 7> 측량원도 당산나무 추정위치	17
<그림 8> 구수마을 수구막이 시작점(좌측)과 수구막이 잔재(우측)	18
<그림 9> 측량원도 수구막이 위치	18
<그림 10> 구수마을 우물 추정위치	19
<그림 11> 측량원도 구수마을 우물 추정위치	19
<그림 12> 구수마을 무장기포지	20
<그림 13> 무장기포지와 개갑장터	22
<그림 14> 발굴된 동학 검	23
<그림 15> 구수마을 측량원도	25
<그림 16> 공음면 구암리 구수마을 측량원도 도면 19	27
<그림 17> 공음면 구암리 구수마을 측량원도 도면 20	28
<그림 18> 구수마을 지목별 비율 도표	29
<그림 19> 토지대장 구조 예시(구수마을 602번지 전(田) 토지대장)	32
<그림 20> 구수마을 576번지 답(畓) 토지대장	33
<그림 21> 구수마을 568번지 대(垓) 토지대장	35
<그림 22> 구수마을 지목별 면적 비율 도표	37
<그림 23> 구수마을 개인별 전(田) 면적 현황 도표	39
<그림 24> 구수마을 개인별 답(畓) 면적 현황 도표	43
<그림 25> 구수마을 개인별 대지(垓地) 면적 현황 도표	47
<그림 26> 구수마을 개인별 임야(林野) 면적 현황 도표	49
<그림 27> 구수마을 최경철 제적부	64
<그림 28> 564번지 김두섭(좌측)과 573번지 전순서(우측)	67
<그림 29> 구수마을 시대별 항공사진	69
<그림 30> 최경철 거주지 추정 지역	72

<그림 31> 청구도 고창읍 지역	78
<그림 32> 당촌마을 경관	79
<그림 33> 당촌마을 입구	79
<그림 34> 당촌마을 바위백이골	80
<그림 35> 측량원도에서 본 당촌마을 바위백이골 위치	80
<그림 36> 당촌마을 앞 나무	82
<그림 37> 당촌마을 우물 추정위치	83
<그림 38> 측량원도에서 본 당촌마을 우물위치	83
<그림 39> 당촌마을 측량원도	86
<그림 40> 고창읍 죽림리 당촌마을 측량원도 도면 3	87
<그림 41> 당촌마을 지목별 비율 도표	89
<그림 42> 당촌마을 63번지 토지대장	91
<그림 43> 당촌마을 지목별 면적 비율 도표	93
<그림 44> 당촌마을 개인별 전(田) 면적 현황 도표	96
<그림 45> 당촌마을 개인별 답(畓) 면적 현황 도표	98
<그림 46> 당촌마을 개인별 대지(垓地) 면적 현황 도표	101
<그림 47> 당촌마을 개인별 임야(林野) 면적 현황 도표	103
<그림 48> 당촌마을 김학삼 제적부	113
<그림 49> 구지도와 항공사진을 통해서 본 당촌마을 전봉준 생가터 위치 ..	118
<그림 50> 당촌마을 전봉준 생가터 현재 모습	119
<그림 51> 당촌마을 시대별 항공사진	121
<그림 52> 측량원도에서 본 당촌마을 전봉준 생가터 위치	122
<그림 53> 동학농민지도자 참여자 송문수 관련자료-1	252
<그림 54> 동학농민지도자 참여자 송문수 관련자료-2	253
<그림 55> 동학농민지도자 참여자 송문수 관련자료-3	254
<그림 56> 동학농민지도자 참여자 송문수 관련자료-4	255
<그림 57> 동학농민지도자 참여자 송문수 관련자료-5	256
<그림 58> 전봉준 생가 당촌마을 고증 관련 자료-1	257
<그림 59> 전봉준 생가 당촌마을 고증 관련 자료-2	258
<그림 60> 전봉준 생가 당촌마을 고증 관련 자료-3	259
<그림 61> 전봉준 생가 당촌마을 고증 관련 자료-4	260
<그림 62> 전봉준 생가 당촌마을 고증 관련 자료-5	261
<그림 63> 전봉준 생가 당촌마을 고증 관련 자료-6	262
<그림 64> 전봉준 생가 당촌마을 고증 관련 자료-7	263

<그림 65> 전봉준 생가 당촌마을 고증 관련 자료-8	264
<그림 66> 전봉준 생가 당촌마을 고증 관련 자료-9	265
<그림 67> 전봉준 생가 당촌마을 고증 관련 자료-10	266
<그림 68> 전봉준 생가 당촌마을 고증 관련 자료-11	267
<그림 69> 전봉준 생가 당촌마을 고증 관련 자료-12	268
<그림 70> 전봉준 생가 당촌마을 고증 관련 자료-13	269
<그림 71> 전봉준 생가 당촌마을 고증 관련 자료-14	270
<그림 72> 전봉준 생가 당촌마을 고증 관련 자료-15	271
<그림 73> 전봉준 생가 당촌마을 고증 관련 자료-16	272
<그림 74> 전봉준 생가 당촌마을 고증 관련 자료-17	273
<그림 75> 전봉준 생가 당촌마을 고증 관련 자료-18	274
<그림 76> 전봉준 생가 당촌마을 고증 관련 자료-19	275

I. 조사 연구의 개요

1. 조사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조사 연구의 범위와 내용
3. 조사 연구의 방법 및 추진 체계

I. 조사 연구의 개요

1. 조사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 동학농민혁명은 반봉건, 반외세의 농민혁명으로 한국 근대사의 서막을 열었던 역사적 사건임

- 2004년 정부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이루어짐

- 2019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정읍의 황토현 전승일을 기념하는 5월 11일로 정해지면서 동학농민혁명은 완전하게 역사적으로 복권됨

○ 동학농민혁명의 주요 사건에 대한 역사적 인식과 교육의 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고등학교 8종의 한국사 교과서(2019년 11월 27일 검정) 전체에 고창 무장봉기(무장기포)가 '고부 봉기에 실패한 전봉준이 손화중과 힘을 합해 고창 무장에서 일으킨 대규모의 농민 봉기'(1894년 음력 3월 20일)라는 사실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내용이 실림

○ 이에 따라 고창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장소에 대한 관심과 재조명 증대

- 동학농민혁명이 1894년 고부 봉기의 실패 이후 전국적 농민혁명으로 새롭게 출발한 역사적 장소인 ‘무장기포지’가 자리하고 있음
- 구암리 구수마을은 고부 농민봉기가 지역 단위의 민란에서 전국적 농민항쟁으로의 출발점이 된 역사적 사건인 무장기포가 있었던 곳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중요 사건 유적지로 성지화 필요성 대두
- 죽림리 당촌마을은 동학농민혁명 최고의 지도자 전봉준의 출생지 임으로 중요 인물 유적지로 성지화 필요

○ 고창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는 국가지정문화재로 발돋움

- 2021년 무장기포지는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신청 중이며 이에 따른 성지화 사업이 진행중에 있음
- 2021년 전봉준 생가터는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교육 및 역사의 현장 마련을 위해 정비 중에 있음

2) 연구의 필요성

-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을 위해 고창지역 주요 유적지 마을에 대한 단계적 실태조사 필요 대두
- 이에 따라 무장기포지인 구수마을과 전봉준의 생가터인 당촌마을의 원형 모색 필요

○ 고창군 무장면 공음면 구수마을과 고창읍 죽림리 당촌마을에

서 살아온 마을 주민들의 기억과 증언을 토대로 공간의 원형과 과거 삶에 대해 기록 필요

-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마을의 모습, 구술을 통해 확인
- 마을 주민 소장 자료 수집 및 검토

○ 1894년 당시 2개 마을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상황 검토 필요

- 지적도와 토지 관련 자료를 토대로 갑오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마을의 토지소유 현황 파악
- 호적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당시 마을의 인구 규모 및 성씨 추이 파악

○ 동학농민혁명 관련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화 작업 필요

- 마을에 대한 기존 구술 증언 현황 조사 및 새로운 구술 발굴 및 정리
- 마을주민 구술생애사와 마을역사 관련 면담조사 수행
- 고창 전봉준생가터 지번 근거자료 정리

3) 연구의 목적

- 무장기포지 구수마을과 전봉준 생가터의 성지화 및 명소화
- 구수마을과 당촌마을 모습 구체화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장소에 대해 상징성 부각

○ 구수마을과 당촌마을 관련 1차 사료 분석을 통한 당시 마을

의 모습을 실증적 고증

- 구수마을과 당촌마을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상황 조사를 위해 1차 사료 수집 및 분석 시도
- 구수마을과 당촌마을 지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구술 채록 및 정리

○ 이를 바탕으로 해당 마을의 당시 모습 복원과 지역 정체성 규명 및 확립

- 2개 마을 실태 조사를 통해 동학농민혁명 발생 배경과 이에 따른 지역 정체성 규명

2. 조사연구의 범위와 내용

1) 조사연구의 범위와 대상

- 공간범위 : 공음면 구암리 구수마을
고창읍 죽림리 당촌마을
- 시간범위 : 1850년대 ~ 현재
- 조사 기년 연도 : 1920년 전후
- 조사 내용 : 당촌마을·구수마을 사회경제적 상황 조사
당촌마을·구수마을 지역민 및 향토사학자
구술채록 및 지역민 소장 기록물 조사
- 대상자료 : 지적도, 토지대장, 제적부

2) 조사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사회경제적 모습 파악을 위한 마을 단위 기초자료 조사 분석 및 현장 조사
- 토지 관련 자료를 통해 당시 마을의 토지 소유관계 및 관련 사항 파악
- 일제강점기 [측량원도], [토지조사부], [토지대장]

- 지번, 지목, 소유주, 형태, 위치 및 마을 호수, 토지·경지면적 파악 및 연간 생산량 추계 시도
- 호적 관련 자료 중심으로 당시 마을 인구 규모 추이 파악 일제강점기 [민적부]
- 인구 비율 및 성씨 분포, 가족 관계 등 파악 시도

○ 당촌마을·구수마을 지역민 및 향토사학자 구술 채록

- 생애사 및 마을 역사문화자원 관련 이야기 구술 채록 및 정리
- 전봉준 생가 63번지 획정에 관한 구술 확보
- 구수마을 동학농민혁명지도자 관련 구술 및 관련 자료 확보

3. 조사 연구의 방법 및 추진 체계

1) 조사 연구의 방법

○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 1차 사료 수집 및 분석 도표 작성

○ 구술 채록

- 2개 마을 주민 구술 채록
- 구술 검독 및 중요 내용 정리

○ 수집 자료 스캔 부록 첨부

- 동영상 자료 및 수집 문헌자료 정리

2) 조사 연구의 추진 체계

○ 추진체계

〈표 1〉 참여 연구진

직책 (구분)	성명	직급	최종학력 및 전공	업무분담
책임 연구원	정성미	원광대학교 부교수	문학박사 (한국사)	연구총괄 -자료 수집 및 분석 -지역조사 연구 및 집필 -구술 자료 분석 및 정리

연구원	신순철	원광대학교 명예교수	문학박사 (한국사)	자료집 및 분석 -지역 조사 연구 기획 -자료 분석 및 집필
보조원	임상민	원광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	석사과정	자료 수집 및 정리 -구술대상자 인터뷰 -구술 채록 실행 -동영상 촬영
보조원	김상민	원광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	석사과정	자료수집 및 정리 -구술대상자 인터뷰 -구술 채록 실행 -동영상 촬영

○ 추진일정

〈그림 1〉 추진일정표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기초자료집 발간 지원위원회 구성																									
지역민 및 향토사회자 구술채록	본담대상자 선정 및 매뉴얼작성																								
	구술채록																								
	구술채취장소																								
	추가 인터뷰																								
	녹취본 작성																								
	인터뷰 영상 제작																								
	자료집 제작																								
도청 공보홍보단원 및 관련 지역조사 연구	자료수집																								
	자료 분석 및 검토																								
	향토·도청·교정																								
	원고 작성 및 검토																								
최종예 제출 및 착수보고																									
중간보고																									
전문위원 회견																									
최종보고																									
보고서 출간																									

II. 무장기포의 현장, 공음면 구암리 구수마을

1. 동학농민혁명과 구수마을
 - 1) 구수마을의 연혁
 - 2) 구수마을의 유래와 경관
 - 3) 구수마을과 무장기포
2. 구수마을 토지 소유 관계와 경제적 실태
 - 1) 측량원도를 통해 본 구수마을
 - 2) 토지대장을 통해 본 구수마을
 - 3) 제적부를 통해 본 구수마을
3. 구수마을 인구와 성씨
4. 자료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최경칠

II. 무장기포의 현장, 공음면 구암리 구수마을

1. 동학농민혁명과 구수마을

1) 구수마을 연혁

고창군 공음면 구수마을은 1894년 3월 지역적 민란에서 전국적인 항쟁으로 승화시킨 무장기포의 현장이다. 공음면의 북부는 해발고도 200~300m의 산지, 남부는 구릉과 평야로 구분된다. 서쪽은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법성면과 동쪽은 군의 무장면·대산면과 경계하며 면 중앙으로 용수천, 장동천 등의 하천이 지나면서 많은 저수지들이 발달해 있다. 면 소재지는 칠암리이며 구암리를 포함, 12개 법정리를 관할하고 있다.

공음면은 본래 조선시대 무장현(茂長縣)의 동음치면(冬音峙面)·와공면(瓦孔面) 지역으로, 1895년 전주부 무장군, 1896년에는 전라북도 무장군에 속하였다. 1914년에 동음치면과 와공면을 중심으로 이동면·하리면·대제면, 그리고 전남 영광군 도내면·홍농면·진량면 등의 일부 동리를 합쳐 고창군 공음면이 되었다. '공음'이라는 명칭은 와공면과 동음치면의 각 이름을 따 합친 것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호구총수』(무장)에 동음치면과 와공면이 기재되어 있고 두암리·덕암리·북흥리 등의 동리 명이 확인된다. 『여지도서』(무장)에 “동음치면은 관아에서 (서쪽) 10리이다. 와공면은 관아에서 (남쪽) 10리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해동지도』에 무장 읍치 남서쪽에 덕림산과 해창이 묘사되어 있고 동음치면과 와공면이 기재되어 있다. 그 밖

에도 『지승』, 『청구도』 (22층 16면) 등에 두 면이 표기되어 있다.

<그림 2> 청구도 무장지역



<그림 3> 해동지도 고창현



고창군 공음면에 속하는 법정리의 하나인 구암리는 마을에 거북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 구암(龜巖)이라 하였다. 구암리는 1600년대에 경주최씨(慶州崔氏)가 말을 타고 지나다, 주점에서 하룻밤을 묵었을 때 선몽을 받고 이곳에 터를 잡고 살기 시작하면서 마을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1914년 4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따라 덕음리(德音里)·구수리(九水里)·장동리(壯洞里)·성재리(聖才里)·다옥리(多玉里)의 각 일부와 하리면(下里面)의 택동리(宅洞里)와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면(弘農面) 덕림리(德林里) 일부가 병합되어 구암리가 되었으며 장동·마래·성재동·다옥·구격·용흥·구수 등 8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구수마을은 1700년대 중반에 형성되었다.

2) 구수마을의 유래와 경관

<그림 4> 구수마을 경관



구암리는 공음면 북서부에 위치하며 전체적으로 평지를 이루고 있으나, 동쪽에는 얇은 산들이 있다. 북쪽에 있는 두암저수지에서 시작되는 구암천이 서쪽에 있고, 중앙쪽에 장동천이 있다. 관개 시설로는 용흥마을 남쪽에 구암제, 다옥동 남쪽에 남동제가 있다.

공음면 소재지에서 서북 방향으로 3Km 거리에 위치한 구수마을은 구암천 물줄기가 흐르는 곳에 자리 잡고 있다. 구암천은 구암리 일대에서 발원하여 서해로 유입되는 하천으로 두암저수지 일대에서 두암천에 합류하여 남쪽으로 흐르다, 석교리의 창촌마을 앞에서 남서쪽으로 방향을 바꾼 후 칠암천에 합류하고 전남 영광군 법성면으로 접어들어 홍농읍과 경계를 이루며 서해로 들어간다. 이처럼 물 자원이 풍부한 구수마을은 명칭에서도 구수(九水), 아홉 개의 물줄기가 모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1925년 두암저수지가 설치되기 이전 아홉 군데에서 나오는 물로 농사를 짓기에 물로 인한 큰 어려움이 없다

고 한다. 이런 이유로 원래 구수내로 불리다가 구수로 개칭되었다. 구수마을이 물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지명에서도 찾을 수 있다. 살펴보면 19세기 동학농민혁명 당시 바닷물이 석교리에 있는 사창을 거쳐 구수마을 앞까지 올라왔으며 구수 앞에 있는 담을 선창배미라고 부르는데 이는 옛날 조수가 드나들 때 배를 대는 선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림 5> 1917년 구수내 지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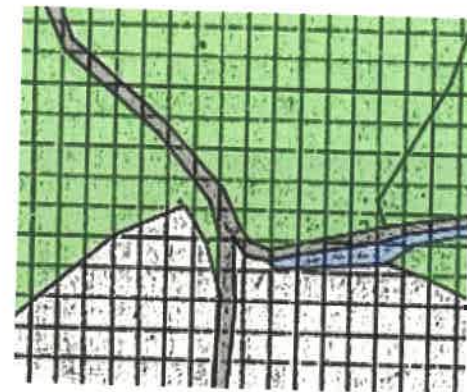
구수마을의 명칭은 구수내 외 마을 앞에 큰 당산나무가 있었다고 하여 ‘당산(堂山)’ 또는 ‘당피’ 라고도 불렸다. 당산나무는 아름답고 팽나무로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당산제를 지내는 마을의 상징이었다. 당시 당산나무는 암수 두 그루가 있었는데 암 팽나무는 크기가 작았으며 22번 국도 개설 전에 마을 사람들이 곡식을 경작하는데 햇빛을 가리어 방해된다고 하여 베어버렸다고 한다. 나머지 한 그루도 22번 국도 개설 과정에서 베어졌고 당산제를 지낸 후 새끼줄을 묶어두던 당산나무 옆의 커다란 입석은 도로공사 때 파묻혀 사라졌

다. 이후 마을의 풍습이었던 당산제도 역사 속에 묻혔다. 현재 그 자리에 뿌리가 살아남아 작은 팽나무가 자라고 있다.

<그림 6> 구수마을 당산나무 추정위치



<그림 7> 측량원도 당산나무 추정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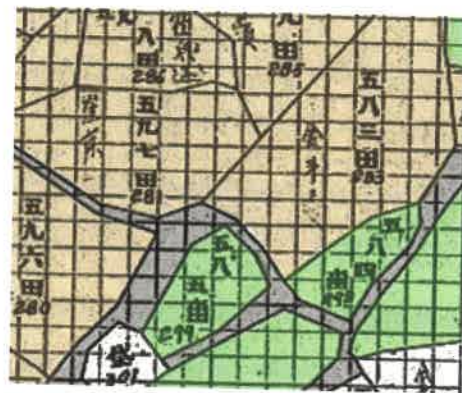
또한 마을에는 수구막이가 있었다고 전하는데 이는 당산나무와는 별개의 것으로 현재 동학농민혁명 발상지 쪽 길로 소나무와 버드나무를 일렬로 즐비하게 심어놓았다고 한다. 수구막이란 마을에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거나 마을의 기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

을 막는 것으로 건물, 탑, 나무 등을 이용하는데 당산마을에는 소나무와 버드나무로 마을을 지킨 것이다. 그러나 그 많던 나무들은 일인들에 의해 없어졌으며 특히 버드나무는 일인들이 게타[下駄]를 만들기 위해 베었다고 한다. 현재 수구막이의 잔재로 보이는 나무 한 그루가 있다.

<그림 8> 구수마을 수구막이 시작점(좌측)과 수구막이 잔재(우측)



<그림 9> 측량원도 수구막이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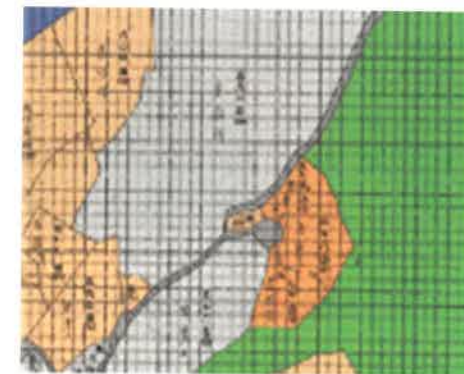
이 밖에 국도 개설 이전, 현 다리 쪽 위치에는 주막이 있어 이곳에서 마을 사람들과 윷놀이, 막걸리 등을 즐겼으며 마을을 지나가는 사람

들의 식사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한다. 주막 옆에는 방앗간이 있었다고 한다. 마을의 식수를 해결하는 샘[공동 우물]은 현재 메워져 전으로 사용되고 있다. 구수마을에는 우물이 하나밖에 없었던 까닭은 구수마을 앞의 하천이 얇아 물을 걸러 식수로 활용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림 10> 구수마을 우물 추정위치



<그림 11> 측량원도 구수마을 우물 추정위치



구적산에서 주민들은 땀감을 얻어 생활했다. 하천의 용도는 다양하여 아낙네의 빨래터이자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었다고 한다. 하천 주

변은 수로 정비사업 이전에는 전으로도 사용하였는데 현재 다리 지역으로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개천을 막아 농작물을 심어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한다. 이 주변은 비가 많이 오면 움이 파여 가물치나 장어 같은 민물고기들이 모였고 이를 잡아 마을 사람들의 먹거리로 활용한 추억이 있다고 한다. 하천 주변은 이처럼 구수마을 사람들 밀접한 생활공간이었으며 지금도 마을 곳곳 땅만 파면 물이 나온다고 한다.¹⁾ 수구막이가 있었던 하천 주변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주요 활동 공간으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3) 구수마을과 무장기포

〈그림 12〉 구수마을 무장기포지



구수마을은 1894년 3월 20일 지역적 민란에서 전국적인 항쟁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된 무장기포가 일어난 역사적인 현장이다. 현재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 고창 무장기포라는 사실이 고등학교 한국사

1) 전윤오 구술 참조.

교과서에 수록되어 그 의의를 더하고 있다.

살펴보면 1894년(고종 31) 1월 고부에서 봉기한 농민들은 군수 조병갑을 축출하고 백산 등지에 진을 치고 머물렀으나, 후임 군수 박원명의 설득으로 3월 초에 해산하였다. 그러나 안핵사 이용태가 고부봉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에 대한 횡포가 극심해지자 무장으로 피신하였던 전봉준 등의 농민군 지도부는 3월 16일경부터 무기를 제작하고 군사 훈련을 시키는 등 재봉기를 준비하여, 3월 20일경 「무장포고문」을 발표하고 재봉기를 선언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봉준은 손화중, 김개남과 연합하여 고부뿐만 아니라 전라도 일대의 군·현에 통문을 보내 각 고을 농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로 인하여 고부 지역에 한정되었던 농민봉기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새로운 국면의 출발점이 되었다. 오지영의 『동학사』에 의하면 무장에서 봉기한 농민들은 백산에서 전봉준을 총대장으로 하는 군사 대오를 갖추고 중앙 정부에 정면으로 저항하는 전국적인 농민전쟁으로 성격이 변하였다고 한다.

무장기포의 현장인 구수마을은 구적산 아홉 골에서 흘러내리는 많은 물이 마을 앞에 모래를 운반하여 쌓아놓음으로써 충적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넓은 충적지는 석교마을 근처까지 뻗어있어 사람들을 모으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구수의 앞 갯골은 측량원도 상으로 일부는 농경지로 활용되고 있으나 뚜렷하게 갯골은 남아있다. 이것으로 보아 당시 포구의 기능이 점점 상실되었지만, 어느 정도는 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구수마을에서 기포한 동학농민군들이 부안면 알피장(난산장)과 흥덕의 사포와 후포를 거쳐 줄포로 진격하게 되는데 이것은 서해의 뱃길을 장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학농민군

의 진격로 상의 포구들은 지금은 그 기능을 상실했지만, 당시에는 손
꼽히는 큰 포구로 상선이 출입하던 곳이었다. 구수포 앞의 석교포와
사진포에는 조창이 있어 농민군의 군수품 물자 조달에도 용이하였다.

〈그림 13〉 무장기포지와 개갑장터



이러한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증명하듯 구수마을(구암리 1344번지)에
서 동학 검이 수습되었다. 이 검은 구수마을 경지정리 공사 중 마을
에 사는 이정봉이 지하 1m 지점에서 단지에 든 엽전과 함께 발
굴한 것으로 전체의 길이가 84cm, 칼날의 길이는 5.3cm의 긴
칼이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²⁾

2) 진기홍, 「갑오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 - 옛 무장 당피」, 『고창의 숨결 - 향토사
료집 3』, 고창문화원, 1998.

〈그림 14〉 발굴된 동학 검



구수마을과 관련한 동학농민군 지도자는 다음과 같다. 먼저 송문수
는 전봉준, 손화중과 함께 구수마을의 집에서 난세에 대처하기 위한
모의를 했으며 동학농민군들을 장사꾼처럼 변복시켜서 몰래 이곳에서
훈련을 시키기도 했다. 전봉준이나 손화중 등이 오면 일부러 난장을
터서 그들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등 지략도 훌륭했던 적극적인 활동
가였다. 송문수는 구수마을(당산지역) 훈련을 책임지는 역할로 1차 봉
기에 앞장섰으며 2차 봉기 때에는 전라도 영광 범성포를 거점으로 활
동하면서 정부 세곡 운반선인 한양호 탈취사건과 동학농민군의 염원
인 전운영과 전운사 폐지에 휘하의 농민군들을 이끌고 활동하였다.
송문수는 영광군 홍농면의 이현숙(李賢淑)이 이끄는 민보군에게 십여
명의 동료들과 함께 체포되어 12월 5일 영광에서 효수되었다. 여러
전투현장을 전전하면서 동학농민군의 실체를 가장 잘 알고 있던 동학
농민혁명 당시 동학농민군 진압 전담부대인 일본군 후비보병(後備步
兵) 제19대대 대대장이었던 미나미 고시로는 송문수를 호남의 대표적
인 동학농민군 지도자 4인 중의 하나로 꼽았다.

동학농민군 고창주는 고창의 대표적인 동학농민혁명 지도자이며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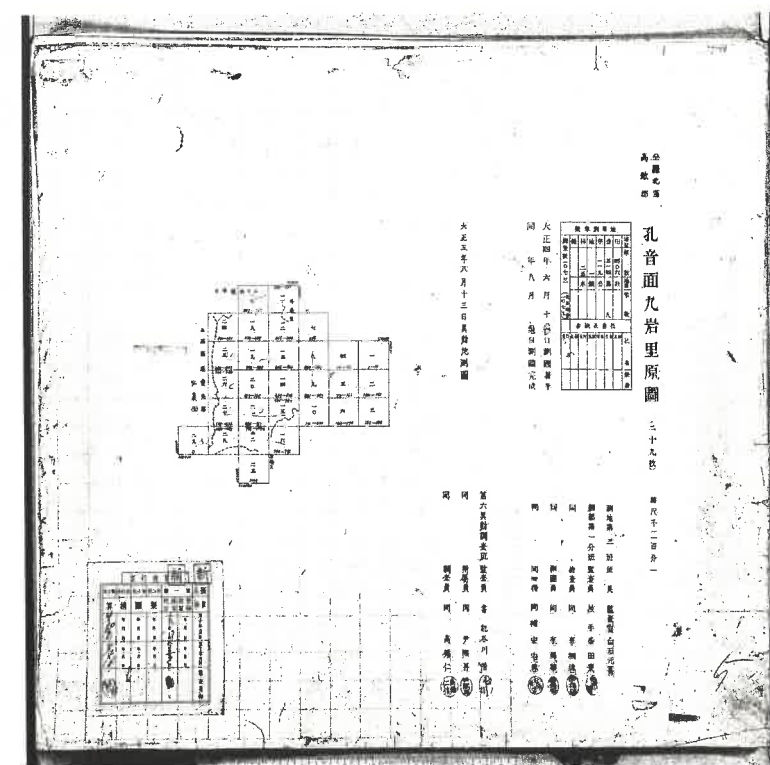
학 접주였던 손화중(孫華仲) 포의 일원으로 무장, 고창 일대에서 송문수·최경칠·문덕중(文德仲)과 함께 활동하였다. 1894년 12월 관군에 체포되어 전봉준(全琫準)·홍낙관(洪樂寬) 등과 함께 서울에 있는 일본공사관으로 압송되었다가 1895년 3월 3일 법무아문(法務衙門)에서 재판을 받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석방되었다. 그 뒤 고향 집으로 돌아오던 중 고부에서 다시 체포되어, 3월 30일 73명의 동학농민군과 함께 무장에서 일본군에 의해 총살당했다. 최경칠(崔敬七) 역시 구수마을 출신으로 송문수·송경수(宋景洙) 형제 및 고순택(高舜澤) 등과 함께 농민 봉기에 참여한 인물이다.

2. 구수마을 토지 소유관계와 경제적 실태

1) 측량원도를 통해 본 구수마을

○ 측량원도 소개

〈그림 15〉 구수마을 측량원도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지번과 지목, 토지 모양, 소출량, 소유주 등 관련 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적원도와 토지대장에서 마을의 모습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 1910년부터

1918년까지 8년여에 걸쳐 총 2천 40여만 엔의 경비로 전국의 모든 택지와 경지에 대해 필지별로 측량을 하고 소유주와 지가 및 지위 등급을 조사하여 토지·임야조사부, 지적·임야원도 등을 작성하였다.

그중 지적도는 1913년 일제에 의해 처음 작성되었으며 이때의 지적도를 지적원도라고 한다. 지적원도는 토지조사사업(1910~1918) 당시 토지조사부와 함께 제작된 도면인 세부 측량원도이다.³⁾

측량원도에는 소유권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다. 본 구수마을의 측량원도에는 지번, 소유주, 지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고창군 공음면 구수마을의 측량원도는 측량 당시의 지목과 소유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본 구수마을 측량원도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와는 20여 년의 시간적 차이가 있지만, 당시의 마을 모습과 크게 변화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측량원도는 1894년 당시의 마을 모습을 알 수 있는 유일한 1차 사료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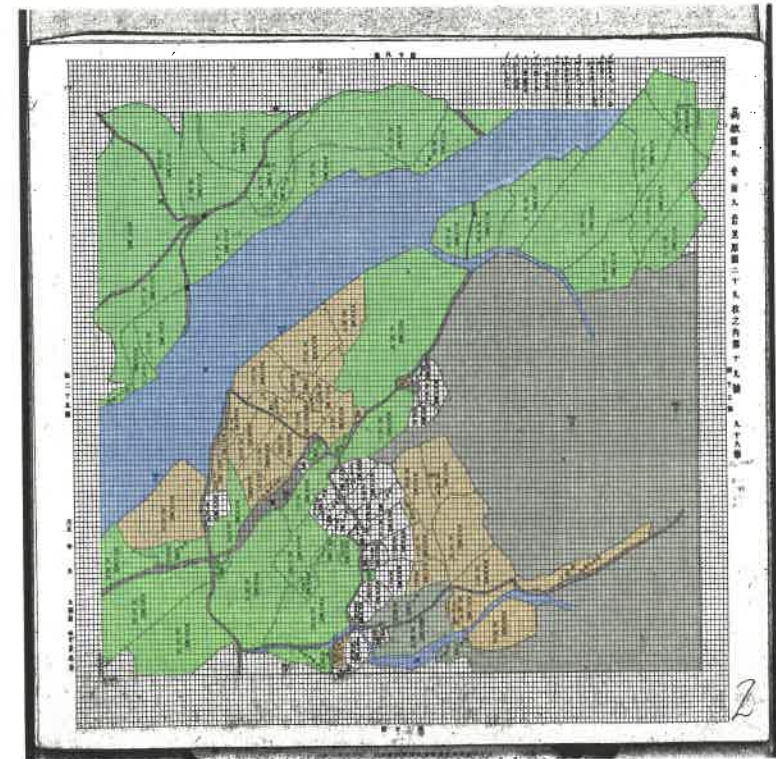
공음면 구암리의 측량원도는 측량을 마친 후 1915년(대정 4) 8월에 완성되었다. 현재 국가기록원 지적아카이브에 D/B 되어 서비스되고 있다. 구암리의 측량도면은 29매로 완성되었으며 본 연구의 대상지인 구수마을은 구암리 19번 지도와 20번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번 지도에는 528~625번지까지의 98개의 지번, 20번 지도는 679~745번지로 67개의 지번으로 총 165개의 지번이 있다. 측량원도에서는 지목과 소유주, 지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측량원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지형 지모이다. 흑백의 지도를 지목별로 색칠하여 한눈에 구별하여 볼 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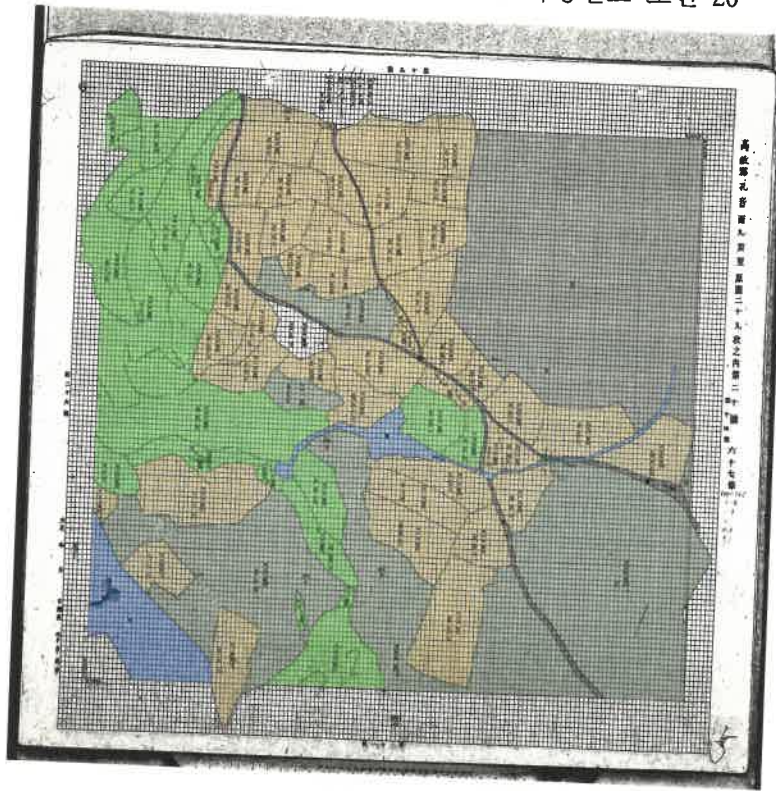
3)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측량원도 남·북한 전지역분 약 78만여 매가 소장되어 활용되고 있다.

구수마을은 2개의 도면으로 작성되었는데 <그림 16>의 도면 19, <그림 17>의 도면 20번이 구수마을의 모습이다. 연두색은 답(畓), 황토색은 전(田), 파랑색은 하천(川) 및 도랑, 하얀색은 대(垓), 짙은 초록색은 산(山)으로 표시하였다.

<그림 16> 공음면 구암리 구수마을 측량원도 도면 19



〈그림 17〉 공음면 구암리 구수마을 측량원도 도면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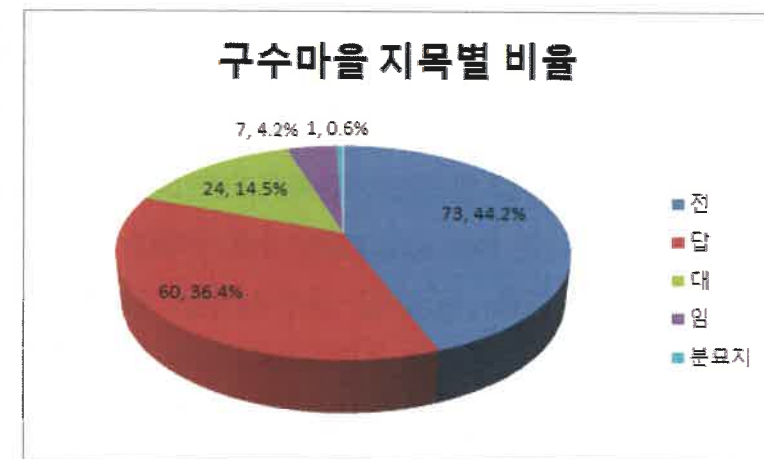
○ 측량원도를 통해 본 구수마을

구수마을은 총 165개의 필지로 구성되어 있다. 필지별로는 전 73개, 답 60개, 대지 24개, 임야 7개, 묘 1개이며, 전 44.2%, 답 36.4%, 대지 14.5%, 임야 4.2%, 묘 0.6%로 구성되어 있다. 임야는 7개의 필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680번지는 국유지이다. 면적별로 살펴보면 답, 전, 대지, 임야 순이다.

〈표 2〉 구수마을 지목별 비율

지목	수	비율(%)
전	73	44.2
답	60	36.4
대	24	14.5
임	7	4.2
분묘지	1	0.6
총합	165	100

〈그림 18〉 구수마을 지목별 비율 도표



전의 위치는 596~604번지, 681~740번지에 집중되어 있다. 주로 임야 주변과 하천 주변에 땅을 개간하여 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700번대 지번 중 707번지와 709번지의 답을 제외하고 모두 전이다. 707번지와 709번지는 전에 둘러싸여 있으나 도랑을 옆에 두고 있어 쌀농사를 짓는 것으로 보인다. 답의 위치는 지적도에서 볼 수 있듯이 528~576, 605~625번지, 707~745번지에 집중되고 있다. 구수마을의 대지는 답과 전을 사이에 두고 14가구가 장방형으로 밀집해 있으며 현재와 큰 변화는 없다. 590번지의 김판동은 하천 가까운 외딴곳

에 살고 있으며 집 바로 위쪽과 옆에는 담과 전을 일구고 있다. 하천 주변의 고수부지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537번지의 최유일도 담과 전을 사이에 둔 도로변 작은 평수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2) 토지대장을 통해 본 구수마을

○ 토지대장 소개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결과 토지대장이 작성되었다. 토지대장에는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조사한 정보와 그 이후 소유권 및 토지에 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 장부 형태였던 토지대장은 1977년 토지대장의 양식이 필지별 카드로 변하면서 은퇴하였다. 따라서 지금은 구대장(舊臺帳)이라고 불리는 이 토지대장은 1914년부터 1977년까지의 토지 관련 정보를 담고 있어 행정 및 기타 자료로 유용하다. 토지대장은 비록 토지 소유 구조를 정확하게 추적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20세기 토지 소유 구조의 변화나 농지개혁의 실태 등에 관한 연구자료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토지대장에는 등록된 사정일(査定日)이 기재되어 있는바 대부분 1914년 9월이다. 따라서 토지대장은 1914년 이후의 토지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⁴⁾ 곧, 토지대장은 1914년의 토지 현황을 알려주는 자료로 일제강점기 토지 관련 연구에 주로 활용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토지 관계를 분석하는 유

4) 토지대장에 등록된 사정일은 대개 1914년 5월 1일이며 대부분의 필지는 1914년 말에 사정된 것으로 구수리의 토지대장 사정일도 1914년 9월이다.

일한 사료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따라서 구수마을의 토지대장은 실증적인 면에서 구수마을 토지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이 자료를 통해 동학농민혁명 당시 마을의 토지 관련 상황과 농민군으로 활동했던 구수마을 출신 고창수, 최경철 등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실증적으로 접할 수 있다. 특히 최경철은 구수마을에 전과 담, 임야와 대지를 소유하여 사례 대상으로도 의미가 있다. 최경철의 토지대장을 대상으로 자료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9〉을 통해 토지대장의 요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단은 지목과 지목의 변화 상황을 보여준다. 2단은 지가(地價)에 관한 내용이며 3단은 토지에 대한 연혁(沿革)이다. 4단은 토지 소유 이전(移轉) 관계와 소유주 및 소유주의 주소이다.

위의 토지대장은 구암리 602번지의 것으로 지목은 전이다. 이후 지목변경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가는 ① 14.16엔이다. 지가조사의 기초자료는 1909~1913년의 평균 수확량이다. 토지등급은 ② 10등급으로 토지대장의 등급정보는 등급설정 당시 해당 필지의 토지 생산성을 보여주는 매우 유력한 지표이다. 특히 이 등급은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작성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인 비교도 가능하다. 곧 1914년 당시 토지등급은 10등급이며 지가는 14.16엔이다. 1930년대 후반 토지 생산성을 알 수 있는 임대가격은 ③ 9.20엔이며 ④ 사정등급은 55등급이다. 1950년대 토지 생산성을 알 수 있는 평균 수확량은 ⑤ 1섬 4말 1되 6홉이며 ⑥ 8등급이다. 1914년 당시 토지등급은 전의 경우 7~11등급 사이에 분포하며 1943년에는 47~60등급에 분포하고 있다. 과세지가는 1910년대 후반의 토지 생산성, 임대가격은 1930년대 후반의 토지 생산성을, 기준수확량은 1950년대 토지 생산성을 알 수 있다.⁵⁾

5) 조석곤, 「토지대장」을 통해 본 토지생산성의 변화(1910~1961) 김제시 죽산면 사례연구, 『농촌경제』 제36권, 제4호, 2013, 7·13쪽 참조.

〈그림 19〉 토지대장 구조 예시(구수마을 602번지 전(田) 토지대장)

⑤ ③											
洞里九岩里 地目地積地價 三五四 一四六 三五四 一四六 三五四 一四六 三五四 一四六 三五四 一四六											
大ロニ 等級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年月日 事件 摘要 住所 所有 氏名又ハ名稱											

정리하면 구암리 602번지의 지목은 전이며 소유주는 최경칠이다. 1914년 당시 토지의 등급은 10등급에 해당한다. 평수는 354평으로 토지가격은 14.16엔이다. 1970년까지 지목변경은 없었으며 1926년(소화6년) 568번지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였다.

〈그림 20〉 구수마을 576번지 답(沓) 토지대장

沓 地目地積地價 七四四〇 三五四 一四六 三五四 一四六 三五四 一四六 三五四 一四六 三五四											
九七六等級一 大ロニ 等級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年月日 事件 摘要 住所 所有 氏名又ハ名稱											

위 토지대장은 576번지에 주소를 둔 것으로 지목은 답이다. 면적은 464평이며⁶⁾ 소유주는 최경칠이다. 이는 지목변경은 없었으며 지가는 74.40엔이다. 1914년대 당시 토지등급은 14등급이다. 1930년대 임대

6) 본 토지대장에는 576이라 기재되어 있는데 1910년대 이 토지의 등급은 14등급으로 과세기준을 근거로 볼 때 면적은 464평이다. 행정담당자가 번지(576)를 기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담당자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표시를 한 후 옆에 평수를 적은 것이, 희미하게 보이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격은 32.55엔이며 사정등급은 66등급이다. 기준수확량은 3섬 9말 5되 2홉로 수확 등급은 17등급이다. 1914년 당시 답은 11~19등급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1943년에는 60~74등급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1910년대와 1940년대 토지등급에는 별 차이가 없다.

〈그림 21〉 구수마을 568번지 대(垔) 토지대장

[illegible]

〈그림 21〉의 토지대장은 568번지의 것으로 지목은 대지이다. 소유주는 최경철이며 토지등급은 7등급이다. 면적은 181평이며 지가는 21.72엔이다. 임대가격은 7.24엔이며 사정등급은 11등급이다. 기준가격은 11등급으로 2,172원이다. 토지가격은 환과 원으로 화폐단위만 바뀌었을 뿐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토지대장을 통해 본 구수마을

● 구수마을 토지 현황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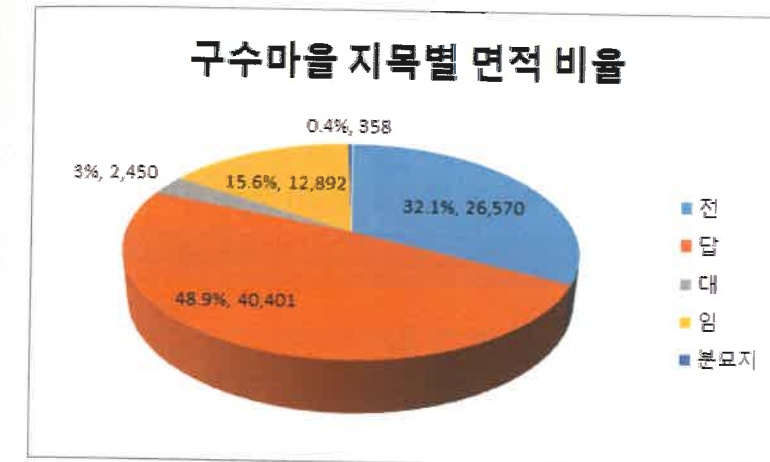
구수마을 측량원도에서 지번, 소유주, 지목이 확인되고 토지대장에서는 여기에 면적, 지가, 토지등급, 임대, 소출량, 소유 이전 관계와 소유주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구수마을의 총 토지면적은 82,671평이며 국유지 임야 6,981평을 제외한 사유지 총면적은 75,690평이다. 국유지를 포함한 비율은 전 32.1%, 답 48.9% 대지 3%, 임야 15.6% 묘 0.4%이다. 사유지만을 대상으로 볼 때 전은 35.1%, 답은 53.3%, 대지 3.2%, 임야 7.8%, 묘 0.4%로 구성되어 있다. 지번을 중심으로 토지 소유주와 지목, 면적, 지가, 토지등급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⁷⁾

〈표 3〉 구수마을 지목별 면적

지목	총합(평)	비율(%)
전	26,570	32.1
답	40,401	48.9
대	2,450	3
임	12,892	15.6
분묘지	358	0.4
총합	82,671	100

7) 이는 1910년대 토지 현황으로 이십 년 전인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구수마을의 사회 경제적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림 22〉 구수마을 지목별 면적 비율 도표



◇ 구수마을 전(田) 현황

구수마을의 전 면적은 26,570평으로 필지는 73개이다. 소유주는 25명이다. 전 소유주 중 구수마을에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18명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7명의 전 소유주는 외지인으로 추정된다. 구수마을 전 소유주의 개인별 전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4〉과 같다. 김재석은 3개의 필지 2,370평, 최경삼은 4개의 필지 2,086평, 김관익은 5개의 필지 2,018평, 최홍중은 5개의 필지 1,829평, 김두섭은 4필지 1,791평, 민보여 6개의 필지 1,692평, 최경철은 5개의 필지 1,587평, 황용채는 6개의 필지 1,519평, 최익순은 3개의 필지 1,347평, 최홍집은 5개의 필지 1,170평, 최홍술은 5개의 필지 1,040평, 최성삼은 3개의 필지 1,004평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1,000평 이상의 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12명이다. 이어 전순서는 2개의 필지 936평, 김정숙은 817평, 박경직은 2개의 필지 700평, 일본인 등촌오랑[藤村五

郎] 2개의 필지 680평, 최상길 2개의 필지 638평, 최치경 507평, 최덕순 465평, 김성운 385평, 김경백 364평, 고양현·최남북 271평, 최정곤 97평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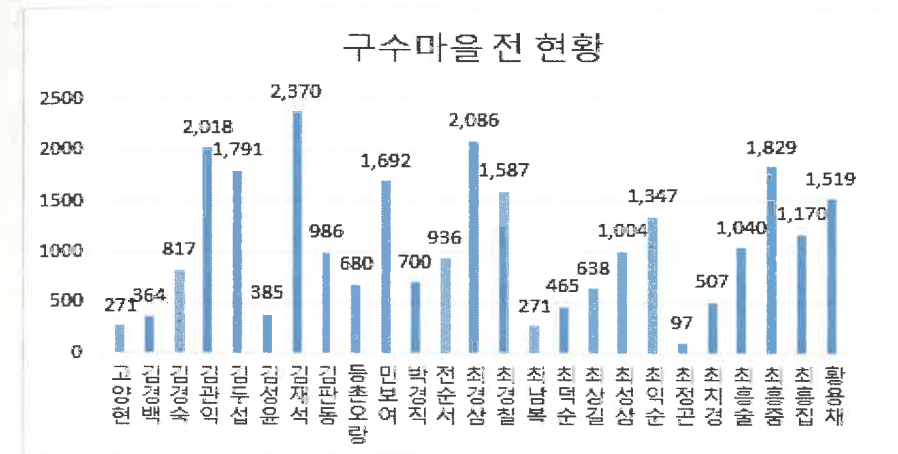
〈표 4〉 구수마을 개인별 전(田) 면적 현황

소유주	전 면적(평)
고양현	271
김경백	364
김경숙	817(2)
김관익	2,018(5)
김두섭	1,791(4)
김성운	385
김재석	2,370(3)
김판동	986(2)
등촌오랑	680(2)
민보여	1,692(6)
박경직	700(2)
전순서	936(2)
최경삼	2,086(4)
최경칠	1,587(5)
최남북	271
최덕순	465
최상길	638(2)
최성삼	1,004(3)
최익순	1,347(3)
최정곤	97
최치경	507
최홍술	1,040(5)
최홍중	1,829(5)

최홍집	1,170(5)
황용채	1,519(6)
총합	26,570

*이하 ()는 필지

〈그림 23〉 구수마을 개인별 전(田) 면적 현황 도표



개인별로 볼 때 가장 면적이 가장 넓은 전의 소유주는 724, 725, 728번지의 김재석으로 2,370평이다. 김재석은 구수마을에 전을 소유하고 있으나 무장면 중거리에 살고 있다. 가장 작은 면적은 588번지의 최정곤의 소유로 97평이다. 최정곤은 토지대장에 거주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구수마을의 대지 소유현황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구수마을에 거주하되 대지는 소유하지 하지 않고 더부살이를 하거나 최씨 일가의 혈족으로 볼 수 있다. 1필지당 가장 넓은 면적은 1,261평으로 728번지의 전이다. 앞선 김재석이 소유주다. 가장 작은 면적은 580번지의 17평으로 소유주는 민보여이다. 일본인의 전도 보인다. 등촌오랑(藤村五郎)은 2필지 680평의 전을 소유하고 있으며 거주지는 영광군 홍농면 을진리이다. 홍농면 을진리는 현재 홍농읍 단

덕리에 속하며⁸⁾ 구수마을과 1.5~2km에 해당하는 거리이다. 이 밖에 최홍집의 주소는 토지대장에는 공음면 석교리로 기재되어 있고 구수마을에 대지를 소유하고 있다. 김정백도 공음면 구수리 다옥마을로 기재되어 있으며 역시 구수마을에 대지를 소유하고 있다. 김재석은 구수마을에 대지를 소유하지 않았으며 토지대장에는 무장면 중거리로 기재되어 있다. 다옥마을은 구수마을과 이웃하고 있으며 석교리도 구암천을 따라 구수마을과 멀지 않다. 따라서 주소지가 구수마을이 아닌 소유주들은 가까운 거리는 직접 경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⁹⁾

1,000평 미만은 13명이며 1,000평 이상은 12명이다. 1,000평 미만 13명 중 500~1000평 미만은 7명, 500평 미만은 6명이다. 구수마을 총 전 면적은 26,570이며 그중 구수마을 거주인의 총 전 면적은 21,154평으로 구수마을 내 전의 79.6%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20.4%는 외지인의 소유이다. 전 면적에 따른 필지와 인원을 정리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구수마을 전(田) 면적에 따른 필지와 인원

전 면적(평)		필지 합	인원 수
2,000 이상		12	3
1500~2000 미만		26	5
1000~1500 미만		16	4
500~1000 미만		12	7
500 미만		6	6
총합	26,570	73	25

8)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영두리, 명주리, 망월리, 대덕리, 관음리, 구사리, 울진리, 단동리를 병합하여 단동과 대덕의 이름을 따서 단덕리라고 한다.

9) 마을주민들의 구술에 의하면 예전에 먹고살기 힘들어 1~2km정도의 거리는 인분, 가축 분뇨, 풀 썩힌 것 등의 퇴비를 지게에 지고 다니며 밭에 거름을 주며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 구수마을 답(査)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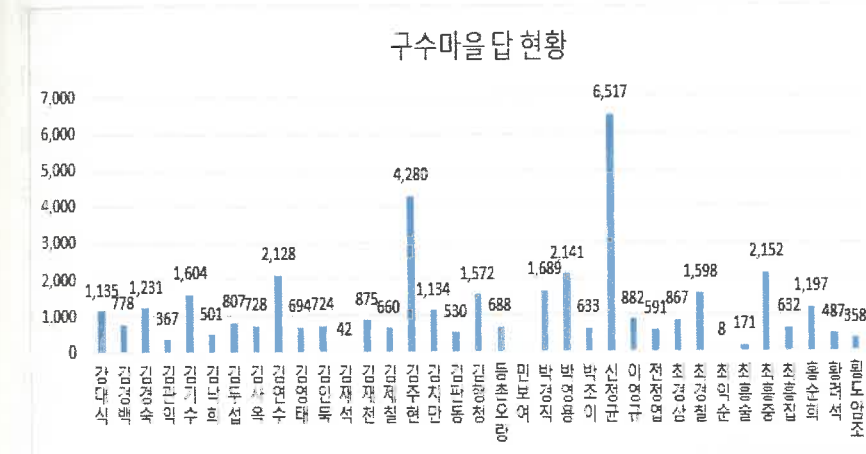
구수마을 165개 지번 중 60개 지번은 답이다. 총면적은 40,401평이다. 소유주는 33명으로 1인당 평균 1,224평에 해당한다. 구수마을의 토지 총면적과 비교하여 볼 때 답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9%이다. 구수마을 답 소유주의 개인별 답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6>와 같다. 신정균은 2개 필지 6,517평으로 구수마을에서 가장 넓은 답을 소유하고 있다. 이어 김주현은 3개 필지 4,280평, 최홍중은 2개 필지 2,152평, 김연수는 2개 필지의 답 2,128평을 소유하고 있다. 김연수는 김성수 동생으로 일제강점기 고창군에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토지대장을 통해 알 수 있다.¹⁰⁾ 박영용 역시 2필지 2,141평, 박정직 1689평, 김기수 1604평, 김행청은 2개 필지 1572평, 최경철은 5개 필지 1,287평, 김경숙 4필지 1,231평, 홍순희는 531·532번지의 2개 필지 1,197평, 강대식은 2필지 1,135평, 김치만은 2필지 1,134평의 답을 소유하고 있다. 1,000평 이하의 답을 소유한 사람은 이영규 882평, 최경삼 3필지 867평, 김두섭 2필지 807평, 김인묵 724평, 김영태 694평, 일본인 등촌오랑 688평, 박조이 2필지 633평, 528번지의 최홍집 632평, 전정엽 591평, 530번지의 김판동은 518평, 황려석 487평, 김관익 367평, 일본인 횡도암조 358평, 539번지의 김두섭 347평, 535번지의 김재천 304평, 544번지의 최홍술 171평, 315번지의 강대식 100평, 540번지의 김재철 87평, 541번지의 최홍중 82평, 김재석 42평, 최익순 8평이다. 개별 필지로 볼 때 가장 넓은 답은 613번지 6,100평으로 신정균이 소유하고 있다. 가장 작은 면적은 712번지의 최익순의 답 8평이다.

〈표 6〉 구수마을 개인별 답(畓) 면적 현황

소유주	답 면적(평)
강대식	1,135(2)
김경백	778(2)
김경숙	1,231(4)
김관익	367
김기수	1,604
김낙희	501
김두섭	807(2)
김사옥	728
김연수	2,128(2)
김영태	694
김인복	724
김재석	42
김재천	875(3)
김제칠	660
김주현	4,280(3)
김치만	1,134(2)
김판동	530(2)
김행청	1,572(2)
등촌오랑	688
박경직	1,689
박조이	633(2)
박영용	2,141(2)
신정균	6,517(2)
이영규	882
횡도암조	358
전정엽	591
최경삼	867(3)

최경칠	1,598(5)
최익순	8
최홍술	171
최홍중	2,152(2)
최홍집	632
홍순희	1,197
황려석	487
총합	40,401

〈그림 24〉 구수마을 개인별 답(畓) 면적 현황 도표



구수마을에 답을 소유하면서 구수마을이 아닌 지역에 주소지 둔 소유주는 12명이다. 김연수는 줄포 건선면 창내리, 강대식은 성송면 암치리, 박경직은 남동리, 박영용 무장면 월북리, 김경숙 무장면 정동리, 김주현 홍농면 덕림리, 김경백 다옥리, 전정엽은 홍농면 덕림리, 김재석은 무장면 중거리, 일본인 등촌오랑은 홍농면 을진리, 황려석은 제주군 구좌면 용두리, 김낙희는 홍농면 덕림리 등이 토지대장에서 확인된다.

답 소유주 34명 중 타 주소 등록인 12명, 구수마을 등록인 12명을 제외한 10명의 거주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구수마을에 대지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꼭 구수마을에 살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구수마을에 대지를 소유하였다고 해서 거주자로 단정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이는 강대식의 경우 구수마을에 대지를 가지고 있으며 745번지의 토지대장에는 성송면 암치리로 주소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고 강대식을 포함하여 구수마을에 대지를 가진 사람들을 구수마을 거주인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구수마을 사람들이 가진 구수마을 내 답 면적은 9,045평으로 전체 답 면적 40,401평과 비교하면 22.3%에 불과하다. 나머지 77.7%는 외지인의 소유로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를 참고하여 볼 때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황려석과 부안 출포의 김연수를 제외하고는 구수마을과 멀지 않은 지역에 사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구수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고(故) 전순서의 손자 전윤오 옹은 제주도에 사는 황려석은 선대(先代)문제로 가끔 구수마을을 방문하였다고 구술하고 있다.¹¹⁾

구수마을의 답 소유현황은 4,000평 이상은 2명, 2,000평 대는 3명, 1,000평 대는 8명, 500~1000평 사이는 15명, 100평 대는 4명, 100평 이하는 2명이다. 답 소유주 34명 중 대지 소유자는 12명이다. 강대식, 김경백, 김관익, 김두섭, 김판동, 최경삼, 최경칠, 최익순, 최홍술, 최홍중, 최홍집, 황용채 등이다. 구수마을 답 면적에 따른 필지와 인원은 다음 <표 7>과 같다.

11) 전윤오 구술 참조.

<표 7> 구수마을 답(畓) 면적에 따른 필지와 인원

답 면적(평)	필지 합	인원 수
6,000 이상	2	1
5,000~6,000 미만	0	0
4,000~5,000 미만	3	1
3,000~4,000 미만	0	0
2,000~3,000 미만	6	3
1,000~2,000 미만	18	8
500~1000 미만	24	15
500미만	5	6
총합	40,401	60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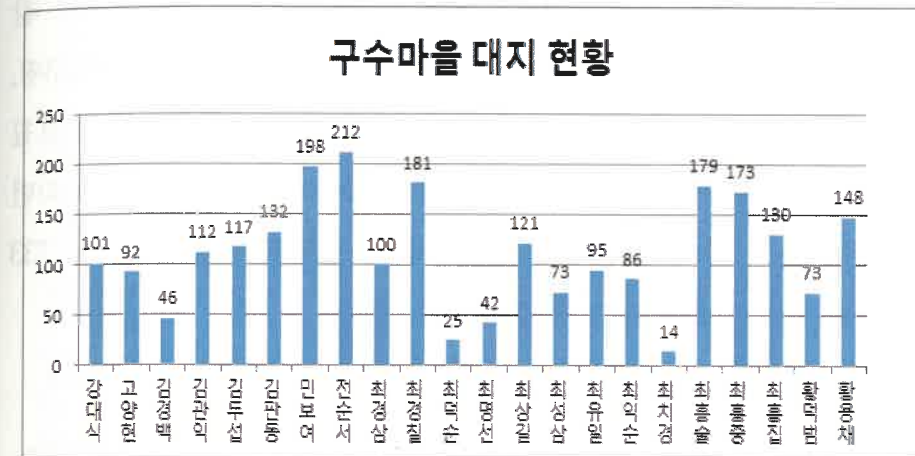
◇ 구수마을 대지(垈地) 현황

구수마을의 대지는 총 2,450평으로 24개의 필지이다. 소유주는 22명이다. 대지 소유주의 개인별 대지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8>와 같다. 577·579 번지, 두 개의 필지를 소유한 민보여와 570·693 번지를 소유한 최홍술을 제외하고는 각 1개의 필지를 가지고 있다. 구수마을의 토지 총면적과 비교하여 볼 때 대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이다. 1인당 평균 111평에 해당한다. 살펴보면 전순서 212평, 민보여 198평, 최경칠 181평, 최홍술 179평, 최홍중 173평, 황용채 148평, 김판동 132평, 최홍집 130평, 최상길 121평, 김두섭 117평, 김관익 112평, 강대식 101평, 최경삼 100평 순으로 확인된다.

〈표 8〉 구수마을 개인별 대지(垞地) 면적 현황

소유주	대
강대식	101
고양현	92
김경백	46
김관익	112
김두섭	117
김판동	132
민보여	198(2)
전순서	212
최경삼	100
최경칠	181
최덕순	25
최명선	42
최상길	121
최성삼	73
최유일	95
최익순	86
최치경	14
최홍술	179(2)
최홍중	173
최홍집	130
황덕범	73
황용채	148
총합	2,450

〈그림 25〉 구수마을 개인별 대지(垞地) 면적 현황 도표



〈표 9〉 구수마을 대지(垞地) 면적에 따른 필지와 인원

대지 면적(평)	필지 합	인원 수
200평 이상	1	1
150~200 미만	6	4
100~150 미만	8	8
50~100 미만	5	5
50 미만	4	4
총합	2,450	24
		22

가장 작은 면적은 최치경 소유의 14평 대지이다. 이어 최덕순 25평, 김경백 46평, 최명선 42평, 황덕범, 최성삼 73평, 최익순 86평, 고양현 92평, 최유일 95평이다. 필지당 가장 넓은 면적은 573번지 전순서 소유의 212평이며 가장 작은 면적은 316번지의 최치경 소유의 대지 14평이다.

◇ 구수마을 임야(林野)현황

임야의 총면적은 12,892평으로 총면적의 15.6%를 차지한다. 구수마

을 임야 소유주의 개인별 임야 면적 현황은 다음 <표 10>와 같다. 구수마을 722번지의 김재석 3,921평, 최홍중은 549번지 423평, 552번지 115평, 562번지 278평 등 3필지 816평을, 702번지의 최경철은 819평, 김경백은 731번지에 355평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 680번지는 국유지로 임야 6,981평이 구수마을에 편입되어 있다. 이외 733번지에는 최춘명 소유의 묘가 있다.

<표 10> 구수마을 개인별 임야(林野) 면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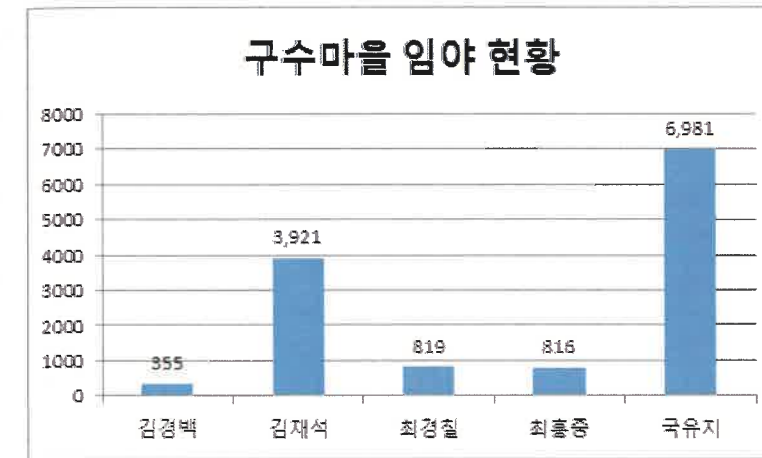
소유주	임	분묘지
김경백	355	
김재석	3,921	
최경철	819	
최춘명		358
최홍중	816(3)	
국유지	6,981	
총합	12,892	358

◇ 구수마을 개별 토지 소유현황 분석

구수마을에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49명이다. 국유지인 임야를 제외한 75,690평이 개인 소유로 확인된다.¹²⁾ 구수마을에 토지 소유자의 성씨현황은 다음 <표 11>과 같다. 김씨(18명), 최씨(15명), 박씨(3명) 황씨(3명), 전씨(2명)이다. 이외 신씨, 이씨, 민씨, 강씨, 고씨, 홍씨,

12) 구수마을 내 국유지 임야 6,981평을 제외한 면적이다.

<그림 26> 구수마을 개인별 임야(林野) 면적 현황 도표



일본인 등촌오랑·횡암도조 등이 있다. 면적별 토지 소유는 김씨 32,069평, 최씨 20,323평, 신씨 6517평, 박씨 5,163평, 황씨 2,227평, 민씨 2,794평, 전씨 1,749평, 등촌오랑 1,368평, 강씨 1,236평, 홍씨 1197평, 이씨 882평, 고씨 363평, 횡암도조 358평이며 성씨의 수와 총면적 크기는 대체로 비례한다.

<표 11> 구수마을 성씨별 토지 소유현황

성씨별	인원	전	답	임	대	분묘지	면적총합	필지총합
강씨	1		1,135(2)		101		1,236	3
고씨	1	271			92		363	2
김씨	18	8,731(18)	18,655(30)	4,276(2)	407(4)		32,069	54
민씨	1	1,692(6)			198(2)		1,890	8
박씨	3	700(2)	4,463(5)				5,163	7
신씨	1		6,517(2)				6,517	2
이씨	1		882				882	1
전씨	2	936(2)	591		212		1,739	4

최씨	15	12,041 (36)	5,428(13)	1,635 (4)	1,219 (13)	358	20,681	67
홍씨	1		1197(2)				1,197	2
황씨	3	1,519(6)	487(2)		221 (2)		2,227	10
등촌 오랑	1	680(2)	688				1,368	3
횡도 암조	1		358				358	1
국유 지	1			6,981			6,981	1
총합	50	26,570	40,401	12,892	2,450	358	82,671	165

그러나 신정균은 예외이다. 가장 넓은 면적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답, 2필지 6,517평을 소유한 신정균은 1필지 면적도 6,100평으로 가장 크다. 가장 작은 면적의 소유주는 대지 42평만을 소유한 최명선이다. 일본인 등촌오랑은 답과 전을 포함하여 1,368평을, 횡도암조는 답 358평을 소유하고 있다. 구수마을 내 토지를 소유한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은 다음 <표 12>과 같다.

<표 12> 구수마을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소유주	전	답	임	대	분묘 지	면적총합	필지종 합
강대식		1,135 (2)		101		1,236	3
고양현	271			92		363	2
김경백	364	778(2)	355	46		1,543	5
김경숙	817(2)	1,231(4)				2,048	6
김관익	2,018(5)	367		112		2,497	7
김기수		1,604				1,604	1

김낙희		501				501	1
김두섭	1,791(4)	807(2)		117		2,715	7
김사옥		728				728	1
김성운	385					385	1
김연수		2,128(2)				2,128	2
김영태		694				694	1
김인묵		724				724	1
김재석	2,370(3)	42	3921			6,333	5
김재천		875(3)				875	3
김제철		660				660	1
김주현		4,280(3)				280	3
김치만		1,134(2)				1,134	2
김관동	986(2)	530(2)		132		1,648	5
김행청		1,572(2)				1,572	2
등촌 오랑	680(2)	688				1,368	3
민보여	1,692(6)			198 (2)		1,890	8
박경직	700(2)	1,689				2,389	3
박조이		633(2)				633	2
박영용		2,141(2)				2,141	2
신정균		6,517(2)				6,517	2
이영규		882				882	1
횡도 암조		358				358	1
전순서	936(2)			212		1,148	3

전정엽		591				591	1
최경삼	2,086(4)	867(3)		100		3,053	8
최경칠	1,587(5)	1,598(5)	819	181		4,185	12
최남복	271					271	1
최덕순	465			25		490	2
최명선				42		42	1
최상길	638(2)			121		759	3
최성삼	1,004(3)			73		1,077	4
최유일				95		95	1
최익순	1,347(3)	8(1)		86		1,441	5
최정곤	97					97	1
최준명					358	358	1
최치경	507			14		521	2
최홍술	1,040(5)	171		179(2)		1,390	8
최홍중	1,829(5)	2,152(2)	816(3)	173		4,970	11
최홍집	1,170(5)	632		130		1,932	7
홍순희		1,197(2)				1,197	2
황덕범				73		73	1
황려석		487(2)				487	2
황용채	1,519(6)			148		1,667	7
국유지			6,981			6,981	1
총합	26,570	40,401	12,892	2,450	358	82,671	165

〈표 13〉 구수마을 개인별 면적에 따른 필지와 인원

면적(평)		필지 합	인원 수
6,000 이상		7	2
5,000~6,000 미만		0	0
4,000~5,000 미만		26	3
3,000~4,000 미만		8	1
2,000~3,000 미만		27	6
1,000~2,000 미만		65	15
500~1,000 미만		17	11
100~500 미만		9	6
100 미만		4	4
총합	75,690	163	49

● 구수마을 사람들의 토지 소유현황

구수마을에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22명¹³⁾이며 나머지 27명은 대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¹⁴⁾ 구수마을에 사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지 소유주 22명의 토지 소유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는 구수마을 거주인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알 수 있는 지표로 전, 답, 임야, 대지에 대한 지목별 현황과 총면적은 다음 〈표 14〉과 같다.¹⁵⁾

13) 개별 소유주는 22명이나 소유주 가족이 있을 것으로 22호로 파악한다.

14) 대지를 소유하고 있어도 주소지가 다른 경우 1명도 구수마을에 사는 사람으로 포함한다. (강대식 성송면 암치리)

15) 구수마을 외의 지역에 거주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수 있지만 본고에서는 구수마을 내 토지만을 대상으로 살펴본다.

〈표 14〉 구수마을 거주인 토지 소유현황

지번	소유주	전	답	임	대	분묘지	면적총합	필지총합
536	고양현	271			92		363	2
537	최유일				95		95	1
538	최경삼	2,086(4)	867(3)		100		3,053	8
545	최명선				42		42	1
547	최홍집	1,170(5)	632		130		1,932	7
548	황덕범				73		73	1
563	강대식		1,135(2)		101		1,236	3
564	김두섭	1,791(4)	807(2)		117		2,715	7
566	최치경	507			14		521	2
567	최익순	1,347(3)	8(1)		86		1,441	5
568	최경칠	1,587(5)	1,598(5)	819	181		4,185	12
569	황용채	1,519(6)			148		1,667	7
570	최홍술	1,040(5)	171		179(2)		1,390	8
571	김경백	364	778(2)	355	46		1,543	5
572	최홍중	1,829(5)	2,152(2)	816(3)	173		4,970	11
573	전순서	936(2)			212		1,148	3
574	최성삼	1,004(3)			73		1,077	4
575	김관익	2,018(5)	367		112		2,497	7
577	민보여	1,692(6)			198(2)		1,890	8
578	최상길	638(2)			121		759	3
586	최덕순	465			25		490	2
590	김판동	986(2)	530(2)		132		1,648	5
693	최홍술				179(2)			
총합		21,250	9,045	1,990	2,450	0	34,735	22

살펴보면 최홍중은 총면적 4,970평을 소유하여 구수마을 내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어 최경칠 4,185평, 최경삼 3,053평, 김두섭 2,715평, 김관익 2,497평, 최홍집 1,932평, 민보여 1,890평, 황용채 1,667평, 김판동 1,648평, 김경백 1,543평, 최익순 1,441평, 최홍술 1,390평, 강대식 1,236평, 전순서 1,158평, 최성삼 1,077평, 최상길 759평, 최치경 521평, 최덕순 490평, 고양현 363평, 최유일 95평, 황덕범 73평, 최명선 42평 순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분류하면 4,000평 이상 2명, 3,000~4000평 미만 1명, 2,000~3000평 미만 2명, 1,000~2000평 미만 10명, 500~1000평 미만 2명, 100~500평 미만 2명, 100평 미만이 3명이다. 주목할 점은 구수마을에 대지 100평 미만을 소유한 최유일, 황덕범, 최명선 3인은 대지 외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구수마을 내 타 소유주의 토지를 소작하고 있는지, 다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표 15〉 구수마을 거주인 면적에 따른 필지와 인원

면적(평)	필지 합	인원 수
4,000 이상	23	2
3,000~4,000 미만	8	1
2,000~3,000 미만	14	2
1,000~2,000 미만	55	10
500~1,000 미만	5	2
100~500 미만	4	2
100평 미만	3	3
총합	34,735	112
		22

구수마을 거주인의 토지면적은 총 34,735평이다. 이는 답과 전, 임야, 대지를 포함한 것으로 구수마을 거주자 1호당 소유면적은 평균 1,579평이다. 거주민 44%가 1,000~2,000평을 소유하고 있다. 살펴보면

1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3인으로 이들이 구수마을 거주민 소유 토지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경작할 땅이 없는 사람, 대지만 소유한 사람은 0.6%이다.

● 구수마을 사람들의 소출별 현황

구수마을 거주인들이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토지인 답과 전은 30,295평으로 1호당 평균 1,377평이다. 구수마을 내 답의 총면적은 40,401평이며 이 중 구수마을 거주인의 소유면적은 9,045평이다. 약 22.4%가 거주인의 소유로 1호당 평균 답 소유면적은 411평에 해당한다. 구수마을 내 전의 총면적은 26,570평이며 거주인 소유는 21,250평이다. 1호당 평균 전 소유면적은 965평으로 약 80%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확물을 얻을 수 있는 답과 전의 거주인 소유면적은 1호당 1,376평이다.¹⁶⁾ 구수마을 사람들의 평균 소유면적으로 볼 때 1정보 미만으로 소농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도 소농(小農)은 일부이며 토지소유가 거의 3단보 미만의 세농(細農)은 31.8%이다. 토지가 없는 호는 13.6%로 이들은 농가의 노역에 종사하며 겨우 생활만 유지하는 궁농

16) 농가계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이승순, 「1920~30년대 전반기 조선의 농가경제분석」, 『사학연구』 119, 2015, 289쪽 참조.

<표 16> 농가계급 구분

	대	중	소	세	비고
지주	20정보 이상	5~20정보	1~5정보	1정보 미만	소유지전부 혹은 대부분 임대
자작농	3정보 이상	1~3정보	1정보 미만	3단보 미만	경작지=소유지
자소작농	3정보 이상	1~3정보	1정보 미만	3단보 미만	경작지=소유지+소작지
소작농	3정보 이상	1~3정보	1정보 미만	3단보 미만	경작지=소작지
궁농	궁핍한 자로서 농가의 노역에 종사하여 겨우 생활유지하는 자				

(窮農)의 처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⁷⁾

조선시대에는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환산하였는데 수확량은 지역 및 토지의 비척(肥瘠)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인 면적 규정은 어렵다.¹⁸⁾ 보편적인 추세에 따라 1결을 3,000평으로 보고 추산하면 구수마을의 답과 전은 총 30,295평으로 약 10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농가 1호당 경지면적은 1,373평으로 평균 0.46결을 경작하였다. 1893년 고창현이 호당 평균 0.8결 정도를 경작하였다는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여 볼 때 구수마을은 호당 0.46결로 고창현과 비교하여 볼 때 56.25%에 해당한다. 이는 거의 반절 가까이 적은 평수에 해당하여 열악한 편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전과 답으로 구분하면 전은 0.32결, 답은 0.13결에 해당한다.¹⁹⁾

<표 17> 구수마을 거주인 전(田) 소출량 현황

지번	소유주	전 면적(평)	등급	소출량
529	김판동	884	9	3.094
546	최흥집	57	9	0.199

17) 구수마을에 토지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다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구수마을 토지만을 대상으로 본 경우이다.

18) 조선후기 결부제의 근간이 된 공법의 이념은 1결당 조[벼] 400두가 생산되도록 결부를 산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재는 소유주의 신분, 요역, 전세 운송비 등을 고려하여 결부를 조정하여 조선 후기 1결의 생산량은 같은 해라도 지역에 따라 크게 달랐다. 1결의 생산량이 지역에 따라 그리고 해마다 크게 바뀌는 것과 달리 1결에 대한 전결세는 언제 어디서나 크게 변하지 않는다. 김건태, 「결부제의 사적 추이」, 293쪽.

19) 기존 이동희의 연구를 구수마을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 후기 보통 벼 800말(쌀 320) 내외, 전은 240말을 수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구수마을 거주인의 소출량을 파악하면 답0.23결, 4.48석(320×0.13), 전(2모작)에서 0.32결, 7.68석(240×0.32)이 생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답과 전의 수확량을 합치면 구수마을은 1년에 호당 12.16석, 12석 1말 6두를 거둔 것으로 파악된다. 이동희, 「동학농민혁명 직전 전라도 고창현 농민들의 경제 형편」, 『전북사학』 제 23집, 189~190쪽 참조.

550	최홍중	62	10	0.124
551	황용채	219	9	0.766
553	최상길	458	9	1.630
554	황용채	312	10	0.624
555	최경삼	311	9	1.088
557	황용채	404	9	1.414
558	민보여	351	8	1.755
559	최홍술	54	8	0.27
560	황용채	155	8	0.775
561	최경칠	175	10	0.35
580	민보여	17	10	0.034
582	최경칠	24	10	0.048
583	김두섭	203	9	0.710
587	민보여	52	10	0.104
591	김판동	102	10	0.204
592	황용채	52	10	0.104
593	최성삼	153	10	0.306
594	김관익	228	10	0.456
595	고양현	271	10	0.54
596	최홍술	155	10	0.31
597	최경삼	136	10	0.272
598	최홍술	71	10	0.142
599	최익순	117	10	0.234
600	민보여	212	10	0.424
601	김관익	117	10	0.234
602	최경칠	354	10	0.708
603	최치경	507	10	1.014
604	최홍중	352	11	0.281
681	최익순	745	9	2.607
682	최경칠	464	9	1.624
683	최홍집	235	9	0.822

684	황용채	377	9	1.319
686	김관익	461	8	2.305
687	최홍술	437	8	2.185
688	전순서	511	8	2.555
689	최홍집	301	8	1.505
691	최홍중	869	8	4.345
692	최경삼	433	8	2.165
694	민보여	818	8	4.09
695	최홍술	323	8	1.615
696	전순서	425	8	2.125
697	김두섭	396	8	1.98
698	최성삼	401	8	2.005
699	최익순	485	8	2.425
701	김관익	440	9	1.54
704	최홍중	95	9	0.332
705	김두섭	660	9	0.231
711	최상길	180	9	0.63
713	최홍중	451	9	1.578
714	최덕순	465	9	1.627
715	최경삼	1,206	9	4.221
716	김관익	772	9	2.702
717	김두섭	532	9	1.862
718	최경칠	570	9	1.995
732	최홍집	274	9	0.959
734	최성삼	450	10	0.9
736	김경백	364	9	1.274
737	최홍집	303	9	1.060
740	민보여	242	8	1.21
구수마을 거주인 전 소출량 총합				76.009
구수마을 거주인 전 소출량 평균				3.454

본 연구의 자료인 토지대장에는 1950년대의 소출량만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토지대장에 기재된 1910년대의 등급을 기준으로 1910년대 전(보리) 과세기준을 적용하여 구수마을 전 소출량을 산출하면 다음 <표 17>과 같다.

<표 18> 구수마을 거주인 답(畓) 소출량 현황

지번	소유주	답 면적(평)	등급	소출량
528	최홍집	63	17	2.528
530	김판동	218	17	0.872
539	김두섭	347	15	2.082
541	최홍중	82	15	0.492
542	강대식	100	15	0.6
544	최홍술	171	14	1.197
565	최경칠	20	15	0.12
576	최경칠	776	14	5.432
581	최홍중	2,070	14	14.49
584	최경칠	41	14	0.287
585	최경삼	48	14	0.336
589	김판동	312	17	1.248
608	김두섭	460	15	2.76
609	최경칠	206	15	1.236
623	김경백	688	17	2.752
707	최경칠	555	9	6.66
712	최익순	8	9	0.096
729	김경백	90	18	0.27
738	최경삼	457	19	0.914
741	김관익	367	17	1.468
743	최경삼	362	15	2.172

745	강대식	1,035	15	6.21
구수마을 거주인 답 소출량 총합				54.222
구수마을 거주인 답 소출량 평균				2.464

구수마을 거주인의 전 소출량은 총 76섬이다. 1인당 평균 3섬 4말 5홉이다. 같은 방법으로 답 소출량을 산출하면 다음 <표 18>과 같다.

구수마을 거주인의 답 총생산량은 54.222로 54섬 2말 2되 2홉이다. 1호당 평균 2.464로 2섬 4말 6되 4홉이다.²⁰⁾ 따라서 답과 전에서 수확된 농업생산물은 총 130.231로 1호당 5.919 곧 5섬 9말 1되 9홉이다. 구수마을 전은 8~11등급으로 100평 보리를 기준으로 8등급은 0.5섬, 9등급은 0.35섬, 10등급은 0.20섬, 11등급은 0.08섬으로 등급에 따른 소출량의 차이를 알 수 있다. 구수마을 답은 14~17등급으로 100평당 14등급 0.70섬, 15등급 0.60섬, 16등급 0.50섬, 17등급 0.40섬이다. 등급별로 10말씩 차이가 난다. 등급이 낮을수록 수확량이 많음을 알 수 있다. 1910년대 전은 7~11등급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답은 11~19등급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²¹⁾

구수마을 거주인의 답과 전을 비교해보면 답의 면적은 전의 42.7%이다. 구수마을 거주인 중 3인을 제외하고 18인은 전을 소유하고 있으며 답을 소유한 사람은 10인이다. 따라서 구수마을 거주인들의 대부분은 구수마을 내의 전을 경작하여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열악한 환경임임 확인된다.

이를 통해 당시 생활형편을 유추하면 다음과 같다. 1912년대 1인당 쌀 소비량이 0.77섬이다.²²⁾ 동학농민혁명 이전 쌀 수출량이 청일전쟁

20) 미기재된 것은 등급과 평수를 고려하여 소출량을 산정하였다.

21) 조석곤, 위의 논문, 17쪽 참조.

22) 국사편찬위원회, 『쌀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나』, 두산동아, 2009. 235쪽, 참조.

직후 진남포·목포·군산·마산·성진 등 개항 시기와 일제강점기보다 많았을 것이라 보기 어렵다. 실제로 1885년~1900년의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쌀 수출량이 꾸준히 증가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²³⁾ 따라서 1894년 동학농민 혁명 당시의 쌀 소비량은 최소한 인당 0.77섬과 유사하거나 더 높았을 것을 예상해볼 수 있다. 구수마을의 평균 생산량은 5.919섬이다. 1호당 6인의 1년 양식만 하더라도 4.62섬에 해당한다. 여기에 각종 세금과 다음 해 파종할 종자 등을 해결해야 한다. 구수마을의 토지소유자 가운데 자작농 외에 자소작농과 소작농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소작의 경우 소작료도 지불해야 한다. 결국, 구수마을 거주인의 토지 소유면적과 소출량으로 볼 때 동학농민혁명 당시 1년 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하였을지가 의문스럽다. 이러한 열악한 경제적 형편²⁴⁾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경제적 배경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제적부를 통해 본 구수마을

○ 제적부 소개

23) 1885년 쌀 수출량은 15,691에서 점차 증가하여 1890년 2,037,868로 약 12,900배, 1894년 979,292로 약 6,200배, 1900년에는 6,325,629로 약 40,000배 증가하였다. 이현창 「한국 개항장의 상품유통과 시장권」, 『경제사학』 제9호, 1985, 129쪽.

24) 무장지역 인근 영광군 입석리 영월신씨가 추수기를 검토한 정승진의 연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한다. 1860년대부터 1894년까지 두락 당 지대량은 계속해서 하락하였는데 이는 1888년의 극심한 흉년을 하나의 이유로 삼고 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기 지대량은 2~3두에 불과하였다고 한다. 이는 수확량이 감소하였다는 것으로 그만큼 농민들의 삶이 피폐했음을 의미한다. 정승진, 「영광 독배기 마을 신씨의 장기동태(1830~1935)」, 『역사비평』, 200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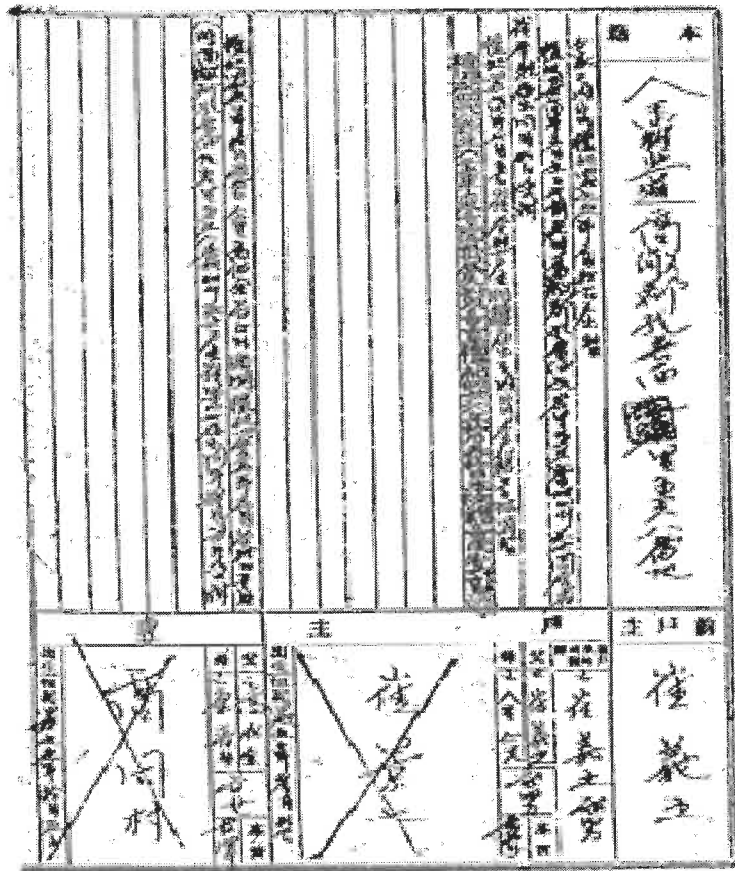
인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은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정치체제나 지니고 있었던 하나의 목표였다. 인구에 관한 장부는 조선 시대에는 호적이라는 이름으로 작성되었다가 광무정권에서는 민적이라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식민지시기에 다시 호적이라는 이름으로 작성되었다. 곧, 민적부(民籍簿)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 국민의 이름을 한자로 바꾸어 기록해 놓은 호적대장을 말한다. 이 제도가 현재 우리나라 호적제도의 기본을 이루었으며, 광복 후 1960년 1월 1일에 호적법으로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09년 작성된 민적부는 근대적 조사방식에 의하여 작성된 최초의 호적대장으로 1910년대의 인구 상황 및 가족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1909년 당시 작성된 민적부는 지금 별도로 보관되어 있지 않다. 지금은 『제적부』²⁵⁾를 통해 관련 사실을 알 수 있다. 제적부를 통해 1909년대 구수마을 인구 관련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27>의 제적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최경철의 것이다. 호주인 최경철의 생몰연대, 전 호주인 부친의 성명과 모친의 성명, 배우자의 성명과 배우자의 생몰연대, 본관, 주소, 제적 말소 사유 등을 알 수 있다.

살펴보면 최경철은 경주 최씨로 구암면 구암리 568번지에 주소를 두고 있다. 1857년(단기 4,190년)에 출생하였으며 1941년(단기 4,274년)에 사망하였다. 최의오(崔義五)의 2남이며 모친은 김심원(金心元)이다. 2살 연상인 장택(長澤) 고씨인 고동촌(高同村)과 혼인하여 슬하에 1남

25) 호주승계, 무후 기타의 사유로 호주와 가족이 모두 제적되거나 말소된 호적은 이를 호적부에서 제거하여 따로 편철하는데 이를 제적부라 한다.

〈그림 27〉 구수마을 최경철 제적부



1녀를 두었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최경철은 37세였으며 자식은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적부에 기록된 장남 태일이 1902년생이기 때문이다. 딸은 1910년생이다. 동학농민군 후손 증언록인 『다시피는 녹두꽃』 26)에는 최경철의 손자인 진옥의 구술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조부 최경철은 1861년생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제적부의 오류, 혹은 후손의 구술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족보 확인이 필요하다.

26) 동학농민혁명 백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다시피는 녹두꽃』, 역사비평사, 1994, 63쪽.

○ 제적부를 통해 본 구수마을 사람들

구수마을 거주인 제적부 현황은 다음 <표 19>과 같다. 측량원도와 토지대장의 지번과 소유주를 근거로 확인된 제적부는 22명 중 15명이다. 나머지 7명에 대한 정보는 지번과 호주의 불일치로 자료를 얻을 수 없어 이를 토대로 구수마을 사람들의 가족 관계를 다음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적부의 호주는 구수마을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소유주이다. 1909년 당시 민적부에 기재된 호주는 현재 제적부에 편철되어 있는바 대체적으로 손(孫)대까지 기재되어 있다. 이를 통해 1894년 당시 구수마을 거주인의 나이와 성씨, 본관, 통혼 관계, 호구 수 등을 짐작할 수 있다.

〈표 19〉 구수마을 거주인 제적 현황

번호	호주	생년	졸년	본관	전 호주	처가	호구 수
1	최**	1893		경주	경*	수원	13
2	최**	1888	?	경주	익*	김해	8
3	김**	1872	?	광산	재*	남원	16
4	최**	1846	?	경주	창*	밀양	14
5	최**	1857	1941	경주	의*	장택	13
6	황**	1865	1969	창원	성*	경주	13
7	최**	1881	?	경주	윤*	김해	4
8	전**	1883	1962	천안	영*	김해	37

9	최**	1861	?	경주	문*	창원	10
10	김**	1879	?	광산	재*	전주	12
11	민**	1873	?	여흥	경*	인동	7
12	최**	1881	?	경주	경*	전주	12
13	최**	?	?	경주	구*		7
14	최**	1881		경주	영*	진주	9
15	김**	1894		경주	도*	진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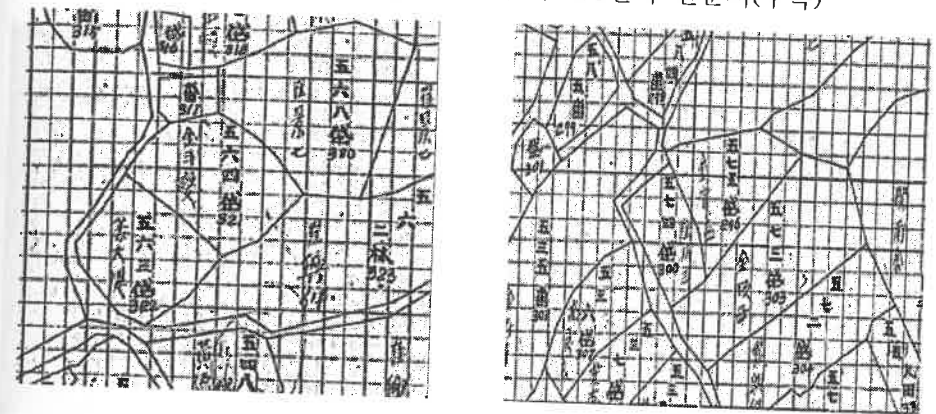
제적부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년월일은 확인되지만, 사망연월일은 알 수 없다. 이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호적의 손실로 인하여 관련 사실을 알 수 없어 기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망연월일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전 호주가 사망하여 호주를 승계한 경우이다. 따라서 사망연월일을 알 수 없는 사람은 1950년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거주인의 성씨 분포와 본관, 그리고 통혼 성씨들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가족의 구성원이다. 살펴보면 아우와 혹은 장모와 가족 구성을 이룬 것을 알 수 있다.

구수마을 거주인의 특징은 성씨별로 살펴볼 때 최씨가 가장 많다. 12명의 거주인 최씨 중 제적부로 확인되는 사람은 9명이다. 나머지 3명의 최씨도 경주 최씨일 가능성이 많다. 이는 537번지의 최유일 부친은 538번지의 최경삼임이 확인된다. 번지에서 알 수 있듯이 측량원

도에서 살펴보면 바로 옆이다. 다음은 김씨이다. 거주인 김씨 4명 중 3명의 제적부가 확인되는바, 564번지의 김두섭은 575번지의 김관익의 형으로 부친은 김재황임을 알 수 있다. 광산 김씨이다. 또한 제적부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573번지의 전순서이다. 천안 전씨로 전영숙의 2남이다. 전순서의 손자인 전윤오는 현재 구수마을에 대를 이어 살고 있다. 6남 1녀를 두었다. 기타 가족 관계 등은 전윤오 옹의 구술에서도 확인된다.

<그림 28> 564번지 김두섭(좌측)과 573번지 전순서(우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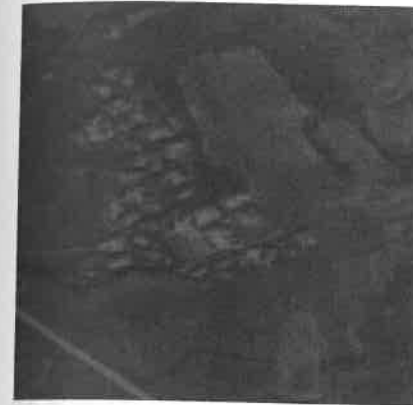
3. 구수마을 인구와 성씨

2019년 구수마을의 인구는 36가구, 주민은 60명이다. 1938년생이신 구수마을 현 거주자 전운오 용에 의하면 1970년대 50여 가구가 살았다고 한다. 당시 1가구당 6인의 가족이 있다고 하면 구수마을에는 적어도 300여 명 이상이 살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²⁷⁾

1950년대부터 10년대 별로 2000년대까지의 항공사진을 검토한 결과 마을의 대지 형태는 변함이 없다. 다만 시간이 갈수록 가옥의 크기가 커지며 수는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이른 1954년의 항공사진에 보이는 구수마을은 초가집이 뽕뽕하게 있어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가구 수가 많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인구도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27) 수집된 제적부에 기록된 가족은 1호당 평균 11명이다.

〈그림 29〉 구수마을 시대별 항공사진



구수마을 1954년 항공사진



구수마을 1966년 항공사진



구수마을 1976년 항공사진



구수마을 2021년 항공사진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에도 큰 차이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1910년대 토지대장과 측량원도에 기재되어 있는 구수마을의 대지를 검토한 결과 총면적은 2,450평이며 대지 소유주는 22명이다. 소유주 22명을 1호로 간주하고, 당시의 출산율 등을 고려하여 1호당 6인의 가족이 있었을 것으로 추산하면, 동학농민혁명 당시에는 적어도 130명 내외의 사람들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당시의 가구 수를 정확하게 증명할 만한 사료는 없다. 당시에

는 작은 초가를 짓고 살다가 폐가가 되거나 현재처럼 건축물을 등기하여 건축대장이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인구 관련 사료인 호구대장도 남아 있지 않다. 다만 대지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한 필지 내에 혈족 간에 모여 살기 위해 별채 등을 짓거나, 혹은 더부살이 등으로 인구수는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적부를 통해 어느 정도 인구 추산이 가능하나 지번과 호주의 불일치, 정보공개 등의 이유로 구수마을 전체 제적부를 확인하기에는 불가능하다. 구수마을 내 대지를 소유한 성씨들은 최씨 12명, 김씨 4명, 황씨 1명, 전씨 1명, 이씨 1명, 민씨 1명, 강씨 1명, 고씨 1명 등이다. 따라서 구수마을 거주인 중 경주 최씨가 가장 많고 이어 김씨, 황씨, 민씨, 강씨, 고씨 등임을 알 수 있다.

성씨의 본관은 경주 최씨, 광산 김씨, 경주 김씨, 천안 전씨, 여흥 민씨, 창원 황씨, 진주 강씨, 해주 오씨, 장흥 고씨 등이다. 이들은 수원 백씨, 김해 김씨, 남원 방씨, 밀양 박씨, 장택 고씨, 경주 이씨, 창원 홍씨, 전주 이씨, 진주 하씨, 진주 강씨 등과 통혼 관계를 맺고 있는데 특히 김해 김씨는 구수마을 17명의 대지 소유주 중 3명의 배우자이며 공음면 장곡리에 세거하고 있다. 창원 황씨는 구수마을과 가까운 석교리의 세거 성씨로 지근거리에서 혼인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4. 자료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최경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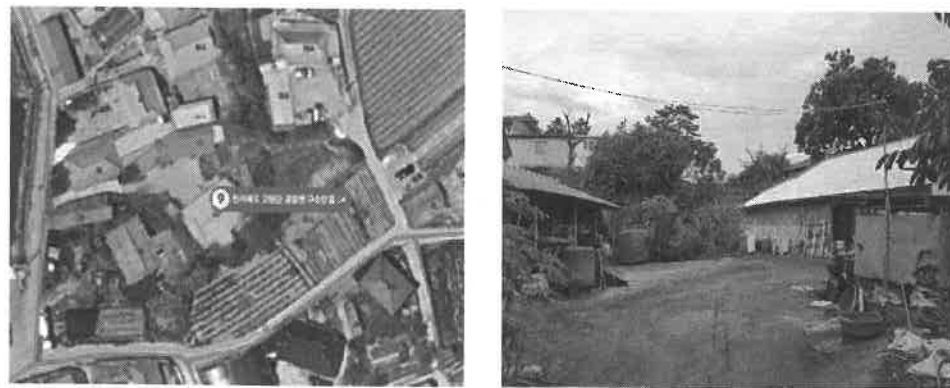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최경칠의 손자 진옥은 부친으로부터 전해 들은 조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최경칠은 9척 장신으로 기골이 장대하고 풍채가 좋았다.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먹고 살만큼의 경제력은 지녔으며, 말을 타고 다녔고 동학농민혁명 당시 굉장한 분이라는 주위의 말들이 있었다고 한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34세로 농민전쟁에 참여하였으며 전쟁 중 창에 찔려 부상을 입고 구수마을에 몰래 들어와 방 아래 굴을 파고 숨어 지냈다고 한다. 당시 여동생이 밥을 지어 날라 목숨을 부지하였다고 한다.

최경칠이 동학농민혁명 당시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동학 접주 임명장이 있었다고 한다. 당시 임명장을 고이 넣어 보관하던 육모상자가 한국전쟁 때 분실되어 조부의 행적을 증명할 자료는 없으며 다만 동네 어른과 집안 어른의 기억과 구술뿐이라고 한다. 최경칠의 외아들 태열은(진옥의 부친) 11세에 결혼을 하였고, 성년이 될 때까지 머슴의 등에 업혀서 서당에 다닐 정도로 집안에서 애지중지하는 외아들이었다고 한다. 동네에서 최경칠은 군자 소리 들을 정도로 평판도 좋았으며 최경칠의 집안에는 손자 진옥이 어렸을 때만 해도 머슴이 있었다고 한다. 진옥의 나이 13세인 1946년에 최경칠은 작고하였다. 한국전쟁 때 진옥의 형이 마을 일을 맡아보다가 빨치산에 가담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낮에는 국군, 밤에는 인공군이 점령하던 시절, 집안의 가세는 기울어져 삶이 피폐했다고 한다.²⁸⁾

28) 최경칠 증손 진옥 구술 『동학농민군 후손 증언록-다시피는 녹두꽃』, 역사비평

이를 요약하면 기골이 장대한 최경철은 큰 부자는 아니지만, 경제적 여력은 있었으며, 34세에 동학농민혁명을 맞아 농민 봉기에 참여하였고 동학 접주 임명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무장에서 동학 접주로서 활동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최경철이 말을 타고 다녔다는 증언으로 미루어 농민군의 중간지도자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혁명 이후 여동생의 도움으로 살아남았고 1946년에 작고한 것으로 정리된다.

〈그림 30〉 최경철 거주지 추정 지역
(현 주소 :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 구수안길 14)



이상의 내용을 토지대장과 제적부를 통해 실증적으로 접근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토지대장을 통해 살펴본 최경철의 경제적 형편이다. 1914년 토지대장에 의하면 최경철은 대지 181평, 답 5필지 1,598평, 전 5필지 1,587평, 임야 819평 등 총 4,185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는 1914년 당시의 토지 소유 기록으로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와 시간적 격차가 있어 경제적으로 더 나아진 것인지, 오히려 동학농민혁명을 겪으면서 경제적 손실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구수마을 사람 중에서는 토지를 많이 소유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 1994년, 63쪽.

1910년대 과세 등급에 의하여 산출된 최경철의 소출량은 답에서 13.735섬, 전에서 4.343섬을 생산하였다. 합하여 18.078섬이다. 구수마을 거주인 평균 소출량 5.919에 비하면 경제적 상황은 3배 이상 좋은 편이다. 최경철은 이밖에 임야 819평을 소유하여 땔나무와 임산물 등을 채취하여 생활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구술의 내용과 같이 3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중농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경철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까닭은 동학사상의 고취, 마을 지도자로서의 역할 등이 있겠지만 향촌지식인의 한 사람으로 앞에서 언급한 19세기 당시 가장 큰 문제였던 쌀을 비롯한 국내산 곡물의 해외유출의 심각성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제적부를 통해 본 최경철은 경주 최씨로 구암면 구암리 568번지에 주소를 두고 있다. 1857년(단기 4,190년)에 출생하였으며 1941년(단기 4,274년)에 사망하였다. 나이 84세였다. 부친 최의오(崔義五)와 모친 김심원(金心元) 사이에 2남으로 태어났다. 2살 연상인 장택(長澤) 고씨 고동촌(高同村)과 혼인하여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다. 장남 태열은 1902년생이며 딸은 1910년생이다. 기록과 구술에서 출생 연도와 사망 연도가 다름이 확인된다. 제적부의 기록에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최경철은 37세로 구술과 3년의 차이가 생기며 사망 연도도 기록에는 1941년이다. 5년의 격차가 있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족보 등 기타 자료를 확인해야 할 것이나, 한국전쟁으로 인해 자료가 소실되어 다시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제적부의 오류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한편, 구술과 제적부가 같은 사항은 부친 태열이 1911년에 결혼하였다는 점, 기타 진옥의 출생 연도 등이다. 따라서 족보나 후손들의 증언을 참조하여 제적부에 기재된 생몰연대 등의 사항은 검증이 필요하다.

〈표 20〉 최경칠 소유 토지현황

소유주	전	답	임	대	면적총합	필지종합
최경칠	1,587(5)	1,598(5)	819	181	4,185	12

〈표 21〉 최경칠 소유 전(田) 현황

지번	면적	토지등급	소출량
561	175	10	0.35
582	24	10	0.048
602	354	10	0.708
682	464	9	1.624
718	570	9	1.995
최경칠 전 소출량 총합			4.343

〈표 22〉 최경칠 소유 답(畓) 현황

지번	면적	토지등급	소출량
565	20	15	0.12
576	776	14	5.432
584	41	14	0.287
609	206	15	1.236
707	555	9	6.66
최경칠 답 소출량 총합			13.735

Ⅲ. 전봉준의 생가, 고창읍 죽림리 당촌마을

1. 동학농민혁명과 당촌마을
 - 1) 당촌마을의 연혁
 - 2) 당촌마을의 유래와 경관
 - 3) 당촌마을과 동학농민혁명지도자 전봉준
2. 당촌마을 토지 소유관계와 경제적 실태
 - 1) 측량원도를 통해 본 당촌마을
 - 2) 토지대장을 통해 본 당촌마을
 - 3) 제적부를 통해 본 당촌마을
3. 당촌마을 인구와 성씨
4. 전봉준의 생가터, 당촌마을 63번지 위치고증

Ⅲ. 전봉준의 생가, 고창읍 죽림리 당촌마을

1. 동학농민혁명과 당촌마을

1) 당촌마을의 연혁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에 속한 당촌마을은 1894년 갑오년 동학농민혁명을 이끌었던 전봉준 장군의 태생지이다. 당촌마을이 속한 고창군 고창읍은 동쪽의 노령산맥에서 발원하는 작은 하천이 읍내 중앙부를 관류하여 서쪽으로 흘러 주진천(舟津川)을 이루어 황해로 흘러든다. 따라서 읍의 동쪽 곡구와 서쪽에 비옥한 평야와 약 50여m 높이의 구릉이 펼쳐진다. 동쪽은 전남 장성군 북일면과 북이면, 남쪽은 고수면, 서쪽은 아산면, 북쪽은 신탄면에 접하고 있다. 완만한 지형과 교통의 요충지로 물산이 풍부하다. 현재 고창군의 행정중심지로 읍 소재지인 교촌리를 비롯해 읍내리·죽림리 등 18개 법정리를 관할하고 있다.

고창읍은 본래 조선시대 고창현(高敞縣) 지역으로 시내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 남쪽은 천남면(川南面), 북쪽은 천북면(川北面)이라고 불렸다. 1895년 전주부 고창군으로, 1896년 전라북도 고창군에 속하게 되었다. 1914년 천남면과 천북면을 중심으로 오동면·산내면·고사면 등의 일부 동리를 합쳐 고창 읍내의 이름을 따 고창면이 되었다. 1935년 오산면의 주곡리·율계리·죽림리 등 6개 동리를 편입하였으며 1955년 읍으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호구총수』(고창)에 천남면과 천북면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관할로 교촌리·노

동리·덕정리 등의 동리 명이 확인된다. 『여지도서』(고창)에 “천북면은 관아에서 (동쪽) 10리이다. 천남면은 관아에서 (동남쪽) 5리이다.”라는 기록이 있다. 『해동지도』에 읍치 남쪽 하천가에 '천남면'이 기재되어 있으며, 읍치 동쪽에는 천북면이 향교와 함께 묘사되어 있다. 그 밖에도 『지승』, 『청구도』(22층 15면) 등 조선 후기 고창 지도에 천남면·천북면·오동면 등이 표기되어 있다.

〈그림 31〉 청구도 고창읍 지역



고창군 고창읍에 속하는 법정리의 하나인 죽림리는 대나무와 소나무가 울창한 경관을 이루고 있다고 하여 죽림이라 부르게 되었다. 죽림리는 울계리, 신월리, 덕정리, 반암리, 구암리, 계산리, 용계리, 운곡리와 함께 1895년(고종 32년) 이후 고창읍 산내면에 속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송천리(松川里)·송암리(松岩里)·신곡리(新谷里) 일부가 병합되어 죽림리가 되어, 오산면(五山面)에 편입되었다. 1935년 3월 1일 도령 제1호에 따라 고창면에 편입되었다. 1955년 7월 1일 법률 제359호「읍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창면이 고창읍으로 승격되면서 고창읍 죽림리가 되었다. 죽림마을은 1450년 광산 김씨, 김남래가 터를 잡았으며 당촌마을은 그 이후 형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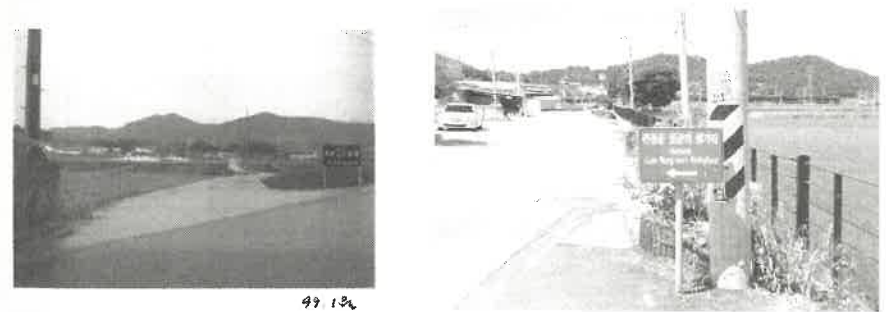
2) 당촌마을의 유래와 경관

〈그림 32〉 당촌마을 경관



죽림리는 고창읍과 아산면의 경계지역에 위치한다. 고창의 물길은 서북쪽으로 흐르며 큰 수계는 방장산 아래의 월곡천, 운월천, 와정천, 석교천, 봉곡천, 정자촌, 두평천, 외천촌, 고수천 등이 죽림리 앞 부근에서 만나 고창천이 된다. 이 고창천과 무장 쪽에서 흘러오는 무장천이 만나 인천강을 이룬다. 죽림리는 고창천을 사이에 두고 죽림교를 지나 도산리와 마주한다. 현재 2001년 12월에 죽림리 동쪽에 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어 당촌마을의 본 모습은 변하였으며 고속도로 아래, 좌우로 죽림마을과 당촌마을로 나뉘어 있다.

〈그림 33〉 당촌마을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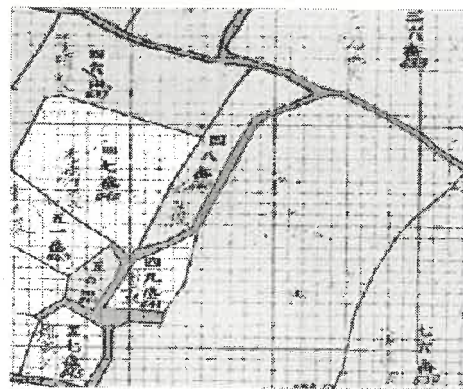


당촌마을의 유래는 서당이 있어 당촌(堂村)이라 한다. 당촌마을과 덕정리 사이 앞 들판은 ‘장고부’라 하며 당촌마을 뒤에 있는 ‘죽림재’와 당촌마을 사이의 들판은 ‘바위백이골’이라고 하는데 옛날 마을주민들이 전을 일구다 바윗돌(고인돌)이 자주 나왔던 것에서 ‘바위백이골’이라 한다고 한다. ‘장고부’와 ‘바위백이골’ 사이의 산등성이 허리는 ‘맥모등(몰매등, 말무덤)’이라고 한다.

<그림 34> 당촌마을 바위백이골



<그림 35> 측량원도에서 본 당촌마을 바위백이골 위치



맥모등에 대한 이야기는 마을주민마다 다르게 전해지고 있다. 향토 사학자 이기화는 이곳을 『임술보』를 근거로 ‘맥모등’이라 하며²⁹⁾ 이곳에 전봉준 장군의 할아버지 묘가 있던 곳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봉준 장군이 처형당한 후 고향마을인 이곳 죽림리 당촌마을에 ‘말무덤’이 세워졌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말 무덤은 말(馬)을 묻은 무덤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나쁜 말(言)들을 모아 묻었다고 가정하는 말 무덤[言塚]이라고 하였다. 마을주민인 이복현 할머니는 무덤에 대해 ‘말무덤’ 또는 ‘몰매등’이라 하면서 일제강점기 일본인과 조선인이 이곳에 묘를 쓰려고 싸우는 과정 중 조선인이 일본 순사의 말을 죽이자 그 조선인을 읍내 숲정이골로 데려가서 공개적으로 죽였다고 구술하고 있다.³⁰⁾ 세월이 흘러 맥모등은 마을주민들의 놀이터, 약속 장소가 되었으나 현재 개간되어 사라졌다.

마을 뒷산에 큰 소나무가 있었는데 이 소나무를 당산으로 삼아 당산제를 지냈다고 한다. 그러나 서해안고속도로가 건설되는 과정에서 당산나무는 베어지고 이후로 당산제를 지내지 않고 있다. 지금은 진입로가 차가 다니는 도로이지만 예전의 마을 진입로는 소나무 밑으로 길이 났었다고 한다. 개천가에는 큰 소나무들이 있었지만,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모정에는 두 아름드리 소나무가 있었으며 그중 하나가 병들어 죽자 다른 나무를 옮겨 심었다고 한다.

29) 22세(碩豐) 자允甫 경술생 묘 - 고창 맥모등 계좌, 배 - 인동장씨 정사생, 이기화, 「전봉준의 가계와 태생설」, 『동학학보』 제8호, 104쪽.

30) 『고창의 마을』 2집, 5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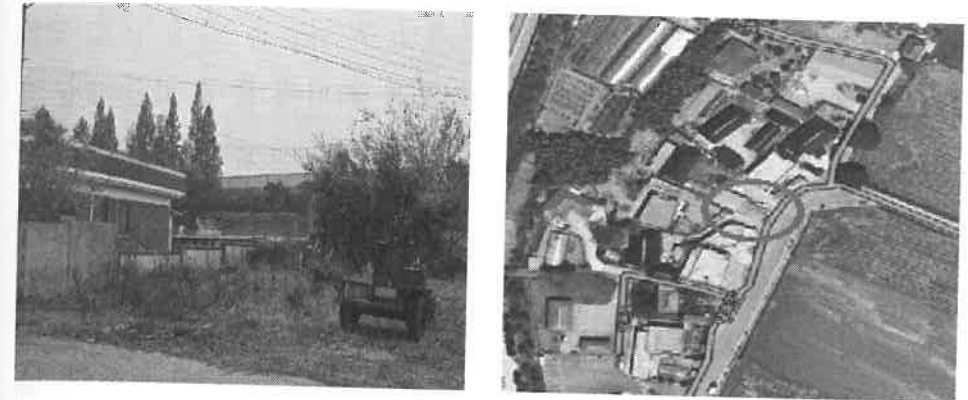
〈그림 36〉 당촌마을 앞 나무



이 나무들이 있는 모정에는 그들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이 자주 모여 먹고 얘기하는 담화의 장소였다. 마을 뒤편에는 호암산의 산맥이 마을까지 연결되어 이곳 산 주변에서 마을주민들은 땀감을 얻어 생활했다. 그러나 현재 고속도로가 나면서 그 자취도 사라졌다. 마을 안에는 공동우물이 있었다. 측량원도 상으로는 50번지와 57번지 쪽으로 현재는 57번지 개인 집에 들어가 있다.³¹⁾ 우물의 수량과 물맛도 좋아 공동식수로 활용하였다. 우물 사이로 흐르는 물은 길을 만들어 토양에 흡수되었고 자연히 미나리깡이 형성되어 먹거리를 생산했다고 한다. 현재 공동우물이 있던 자리는 주거지가 들어서게 되면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당촌마을에는 실개천이 흐르고 실개천을 따라 다랭이답을 경작하였으며 현재 경지정리를 하면서 강의 흐름은 약간 변하였고 따라서 지형도 바뀌었다.

31) 당촌마을 김용철 구술 증언.

〈그림 37〉 당촌마을 우물 추정위치



〈그림 38〉 측량원도에서 본 당촌마을 우물위치



3) 당촌마을과 동학농민혁명지도자 전봉준

당촌마을은 1893년 고부 민란을 주도하고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서 총대장으로 활동한 동학농민군의 최고지도자 전봉준(全琫準)의 생가가 있던 곳이다. 전봉준은 전창혁(彰赫·기창)과 모친 광산 김씨와의 사이에서 1855년 12월 3일 당촌마을 63번지에서 태어났다.

전봉준이 당촌마을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조부인 석풍 대이다. 석풍은 부인 인동 장씨, 그리고 창혁·기성 두 아들과 함께 임실 강진에서 고창 당촌마을로 이주하였다. 석풍은 과거에 뜻이 있었으나 여의치 못했고 생계를 위해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이를 이어받아 아들 창혁도 당촌에서 서당 훈장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갔다. 전봉준은 조부인 석풍의 나이 66세, 부친 창혁(1827~1893)의 나이 29세인 1855년에 태어났다. 석풍은 전봉준 나이 세 살 때인 1857년에 사망하여 당촌마을 맥모동에 묻혔으며³²⁾ 석풍의 차자인 기성은 1860년에 사망하여 당촌마을과 가까운 덕정 회암치에 묻혔다. 따라서 당촌마을로 이주해온 시기는 전봉준이 태어난 1855년 이전 어느 시기로 파악된다.

1861년에는 전봉준의 여동생, 전고개(全古介)가 태어났다. 후일 동학농민군 손여옥의 처가 된 전고개는 동학농민혁명이 실패로 끝나자 여러 절을 전전하였다가 강천사로 피신하여 그곳에서 91세에 세상을 떠났다. 창혁은 봉준이 12세 되던 해에, 부인 언양김씨가 세상을 떠나자 그 이듬해인 1867년 모친과 자식들을 데리고 당촌마을 떠나 고부로 이사 갔다. 이때 부친 석풍의 묘를 당촌 맥모등에서 고부 남부면 진장문 아래 차북리로 이장을 하였다. 당시 전봉준이 살았던 고부의 거주지는 사발통문을 모의한 고부면 신중리 죽산마을로 들어가는 입석리의 진선마을로 추정되고 있다.³³⁾ 이후 전기창은 길지를 찾아 유랑하였고 때문에 전봉준도 전주, 태인 황새마을(18세까지), 고부(현 정읍) 지금실 마을(25세까지)을 거쳐 다시 태인, 고부 등지를 전전했

32) 「병술보」에는 고부 남부면 진장문하 차북리 앞, 「임술보」에는 고창 맥모등 계좌(癸坐)로 기록되어 있다. 당촌 맥모등에서 훗날 고부 남부면으로 이장했던 사실을 족보를 통해 알 수 있다.

33) 송정수, 『전봉준 장군과 그의 가족이야기』, 해안, 2021, 50쪽.

으며 마지막으로 고부군 조소리에서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할 때까지 살았다.

당촌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전봉준은 부친의 영향을 받아 생계를 위해 서당 훈장을 비롯하여 풍수 보는 일, 약장수 등의 일을 했고 때로는 편지를 대필하며 살았다. 경작하는 답은 세 마지기에 불과하여 아침에는 밥을 먹고 저녁에는 죽을 먹는 처지로 수탈당할 물건도 없는 형편이었던 것인데, 이러한 경험은 양반의 후예이면서도 농민들에게 공감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 이 밖에 민중들이 의지하던 풍수, 방술(方術) 및 점복에 능했던 것도 민심을 얻은 이유였다.

당촌마을 주민들은 전봉준은 작지만 늘 대장 노릇을 하는 용맹한 아이로 기억하고 있다. 특히 정월 대보름 때 앞마을 동네 도산리, 앵가리 아이들과 고창천을 사이에 두고 쥐불놀이와 돌팔매 싸움을 할 때는 늘 전봉준이 앞장서 진두지휘하였다고 전한다.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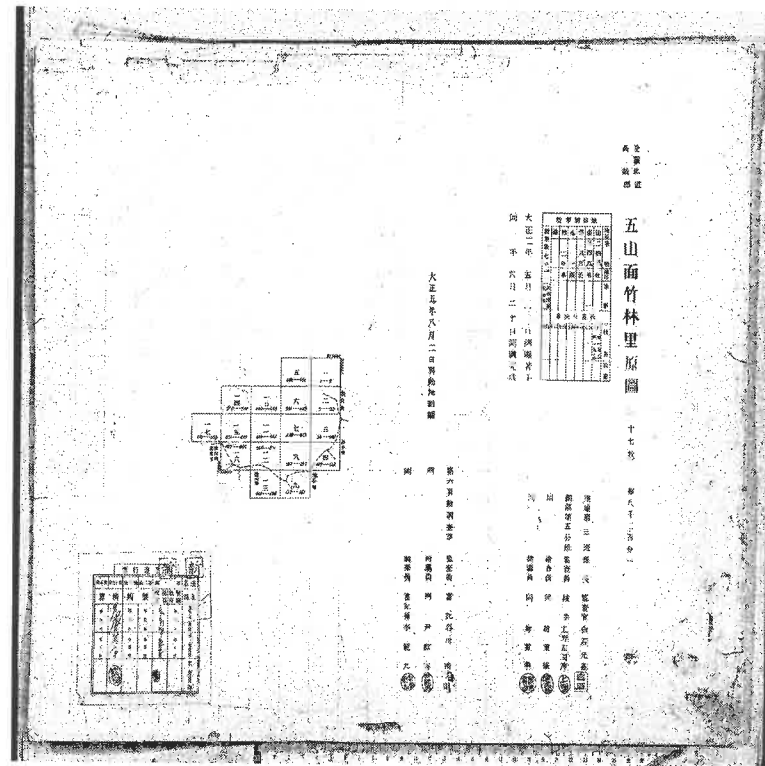
34) 이기화, 「전봉준 가계와 태생설에 대한 재조명」, 『동학학보』 제8호, 99쪽 참조.

2. 당촌마을 토지 소유관계와 경제적 실태

1) 측량원도를 통해 본 당촌마을

○ 측량원도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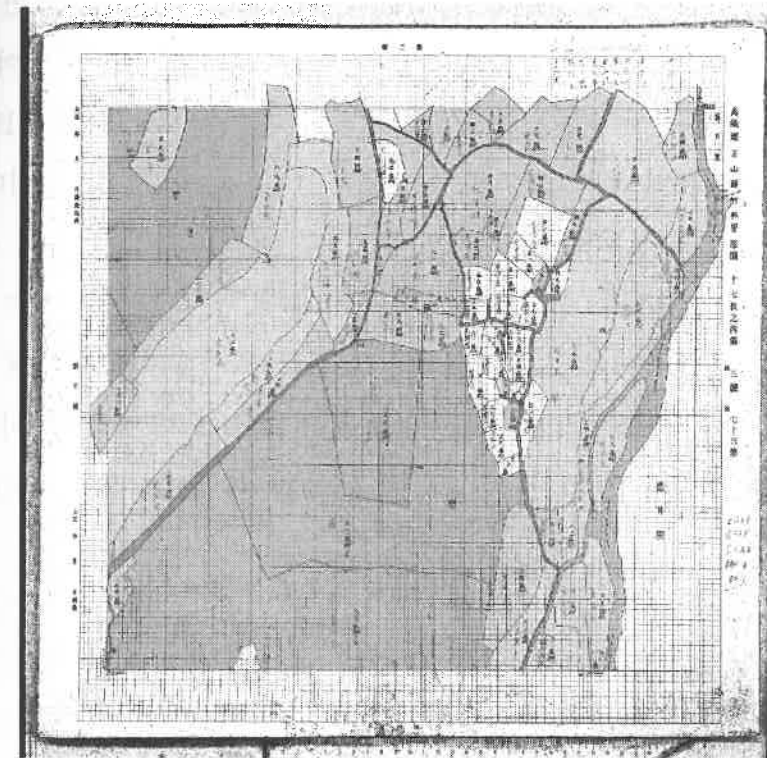
〈그림 39〉 당촌마을 측량원도



고창군 오산면 죽림리의 측량원도는 1915년 6월 측량에 착수하여 8월에 측량을 마치고 다음 해인 1915년 8월에 완성되었다. 현재 국가 기록원 지적아카이브에 D/B 되어 서비스되고 있다. 죽림리의 측량도면은 17매로 완성되었으며 본 연구의 대상지인 당촌마을은 3번 지도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0〉 고창읍 죽림리 당촌마을 측량원도 도면 3



27~106번지로 총 74개의 지번이 있다.³⁵⁾ 지적원도에서는 지목과 소유주, 지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측량원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지형이다. 흑백의 지도를 지목별로 색칠하여 한눈에 구별하여 볼 수 있게 하였다. 연두색은 답(畓), 황토색은 전(田), 파랑색은 하천(川) 및 도랑, 하얀색은 대(垓), 짙은 초록색은 산(山)으로 표시하였다.

35) 28~33번지는 3번 도면에서 제외된 구역으로 마을 범위에서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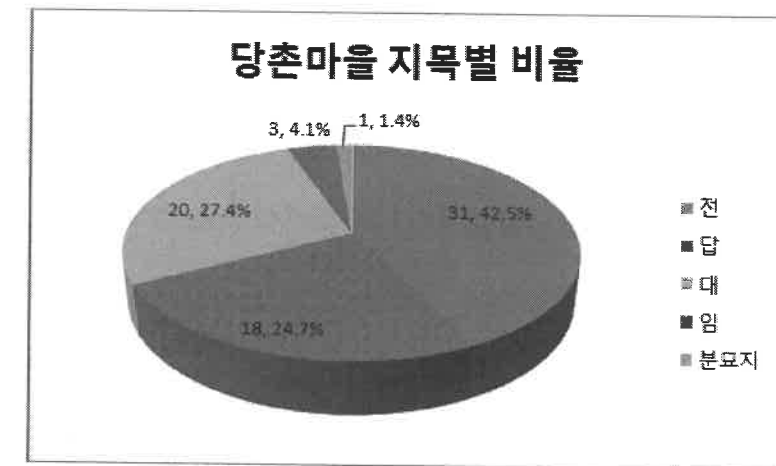
○ 측량원도를 통해 본 당촌마을

당촌마을은 74개의 필지를 대상으로 지목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필지별로 살펴보면 전 32개, 답 18개, 대지 20개, 임야 3개, 묘 1개 순이다. 약 전 42.5%, 답 24.7%, 대지 27.4%, 임야 4.1%, 묘 1.4%로 구성되어 있다. 필지별로는 전, 대지, 답, 임야, 묘 순이다. 토지대장을 통해 면적별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 측량원도를 통해 본 형태와 모습은 대지를 사이에 두고 동쪽으로는 답이, 서쪽으로는 전이 둘러싸고 있다. 마을 앞, 동편으로 신월리와 덕정리를 사이에 두고 개천이 흐르며 대지 가운데에는 동서를 가르는 소로가 있다. 이 소로는 개울과 연결되어 있다.

〈표 23〉 당촌마을 지목별 비율

지목	수	비율(%)
전	32	42.5
답	18	24.7
대	20	27.4
임	3	4.1
분묘지	1	1.4
총합	74	100

〈그림 41〉 당촌마을 지목별 비율 도표



2) 토지대장을 통해 본 당촌마을

○ 토지대장 소개

토지대장은 비록 토지 소유 구조를 정확하게 추적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20세기 토지 소유 구조의 변화나 농지개혁의 실태 등에 관한 연구자료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토지대장에는 등록된 사정일(査定日)이 기재되어 있는바 대부분 1914년(대정 3년) 9월이다. 따라서 토지대장은 1914년 이후의 토지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³⁶⁾ 곧 토지대장은 1914년의 토지 현황을 알려주는 자료로 일제강점기 토지 관련 연구에 주로 활용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토지 관계를 분석하는 유일한 사료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따라서 구수마을의 토지대장은 실

36) 토지대장에 등록된 사정일은 대개 1914년 5월 1일이며 대부분의 필지는 1914년 말에 사정된 것으로 죽림리의 토지대장 사정일도 1914년 8월 10일이다.

증적인 면에서 구수마을 토지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이 자료를 통해 전봉준의 생가지로서 의의가 있는 당촌마을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실증적으로 접할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전봉준은 1855년 12월 3일 이 마을에서 태어나 13세 무렵까지 기거했던 곳이다. 전봉준의 생가터인 63번지의 토지대장을 통해 자료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2〉 당촌마을 63번지 토지대장

土地簿用紙									
洞	地	地	地	地	地	地	地	地	地
里	目	積	積	積	積	積	積	積	積
竹	地	地	地	地	地	地	地	地	地
林	積	積	積	積	積	積	積	積	積
里	價	價	價	價	價	價	價	價	價
地	沿	沿	沿	沿	沿	沿	沿	沿	沿
番	草	草	草	草	草	草	草	草	草
六	六	六	六	六	六	六	六	六	六
三	三	三	三	三	三	三	三	三	三
等	等	等	等	等	等	等	等	等	等
級	級	級	級	級	級	級	級	級	級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二	二	二	二	二	二	二	二	二	二
七	七	七	七	七	七	七	七	七	七
年	年	年	年	年	年	年	年	年	年
月	月	月	月	月	月	月	月	月	月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大	大	大	大	大	大	大	大	大	大
正	正	正	正	正	正	正	正	正	正
三	三	三	三	三	三	三	三	三	三
年	年	年	年	年	年	年	年	年	年
查	查	查	查	查	查	查	查	查	查
定	定	定	定	定	定	定	定	定	定
所	所	所	所	所	所	所	所	所	所
住	住	住	住	住	住	住	住	住	住
所	所	所	所	所	所	所	所	所	所
有	有	有	有	有	有	有	有	有	有
氏	氏	氏	氏	氏	氏	氏	氏	氏	氏
名	名	名	名	名	名	名	名	名	名
又	又	又	又	又	又	又	又	又	又
八	八	八	八	八	八	八	八	八	八
名	名	名	名	名	名	名	名	名	名
稱	稱	稱	稱	稱	稱	稱	稱	稱	稱

〈그림 42〉 토지대장은 전봉준 생가터인 고창읍 죽림리 63번지 토지대장이다. 1914년 3월(대정 3년)에 사정하였으며 지목은 대지이며 92평이다. 소유주는 신곡리의 김학삼이다. 1928년(소화 3년) 소유권은 아들인 김기연에게 이전되었다. 1914년 당시 토지등급은 7등급이며 지가는 11.04엔, 임대가는 3.68원이다. 지가는 화폐개혁 후 11,040원,

등급은 22등급이다. 소유 이전은 1941년(소화 16), 1943년(소화 18), 1944년(소화 19)에 걸쳐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김학삼은 대지 외 당촌마을에 4필지의 전 595평을 소유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후일 63번지 대지를 매도하면서 대지 가까운 92번지의 전 63평을 대지와 함께 매수자에게 매도하고 있다. 이는 차후 63번지 대지 매매 때마다 묶어 매매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 토지대장을 통해 본 당촌마을

● 당촌마을 토지 현황 개요

당촌마을 측량원도에서 지번과 소유주, 지목이 확인되고 토지대장에서는 여기에 면적과 지가, 토지등급, 임대가, 소출량, 소유 이전 관계와 소유주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당촌마을 총 토지면적은 58,047평이며 국유지인 임야와 고창군향교 소유의 답 8,213평을 제외한 사유지 총면적은 49,834평이다. 국유지와 향교를 포함한 비율은 전 24.1%, 답 32.5%, 대지 4.9%, 임야 38.1%, 묘 0.4%이며 사유지만을 대상으로 볼 때 전은 28.0%, 답은 36.0%, 대지 5.7%, 임야 29.9%, 묘 0.4%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4〉 당촌마을 지목별 면적 비율

지목	총합(평)	비율(%)
전	13,967	24.1
답	18,890	32.5
대	2,818	4.9

임	22,156	38.1
분묘지	216	0.4
총합	58,047	100

〈그림 43〉 당촌마을 지목 별 면적 비율 도표



지번을 중심으로 토지 소유주와 지목, 면적, 지가, 토지등급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⁷⁾

◇ 당촌마을 전(田) 현황

당촌마을 전(이하 전) 면적은 13,967평으로 32개의 필지가 확인된다. 당촌마을 전 소유주는 22명이다. 그 가운데 106번지 김운홍은 측량원도에 표시되어 있으나 토지대장이 없어 면적을 알 수 없어 106

37) 이는 1910년대 토지 현황으로 전봉준이 살았던 시기와 40여 년, 동학농민혁명과는 20여 년의 차이가 있으나 당시의 당촌마을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번지를 제외한다. 따라서 당촌마을에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10명으로 파악되어 거주인 따라서 대지를 소유하지 않은 11명은 외지인으로 추정된다. 당촌마을 내 개별 소유자의 면적을 살펴보면 이권찬은 3개의 필지 2,430평, 김경묵은 2필지 1,648평, 나머지 19명은 모두 1,000평 미만의 전을 소유하고 있다. 가장 작은 면적은 39평이다. 500~1,000평 미만 사이가 10명, 500평 미만은 9명으로 총면적과 대비하여 볼 때 당촌마을 내 전 소유자는 1인당 평균 634평의 전을 소유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 25〉 당촌마을 전(田) 면적에 따른 필지와 인원

전 면적(평)	필지 합	인원 수
2,000 이상	3	1
1,500~2,000 미만	2	1
1,000~1,500 미만	0	0
500~1,000 미만	17	10
500 미만	9	9
전 총합	31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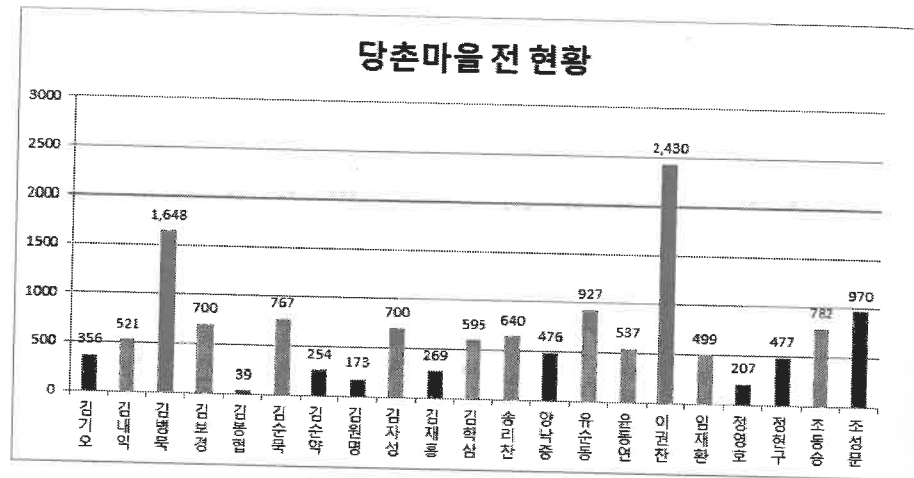
* 106번지 김윤홍 제외

당촌마을 거주인이 가진 당촌마을 내 전 면적은 6,824평으로 전체 전 면적 13,967평과 비교하면 49.8%이다. 나머지 50.2%는 외지인의 소유이다. 당촌마을 전 소유주의 개인별 전 면적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 〈표 26〉와 같다.

〈표 26〉 당촌마을 개인별 전(田) 면적 현황

소유주	전 면적(평)
김기오	356
김내익	521
김병묵	1,648(2)
김보경	700
김봉협	39
김순묵	767
김순악	254
김원명	173
김자성	700(2)
김재홍	269
김학삼	595(4)
송리찬	640(3)
양낙중	476
유순동	927
윤동연	537
이권찬	2,430(3)
임재환	499
정영호	207
정현구	477
조동승	782
조성문	970(2)
전 총합	13,967

〈그림 44〉 당촌마을 개인별 전(田) 면적 현황 도표



개인별로 볼 때 가장 면적이 넓은 전의 소유자는 27, 43, 46번지의 이권찬으로 3필지 2,340평이다. 기록상에 보이는 가장 작은 평수는 66번지의 39평이다. 소유주는 김봉협으로 당촌마을 거주인이다. 27번지 이권찬의 전은 1,533평으로 1필지당 가장 넓다.

◇ 당촌마을 답(畓) 현황

당촌마을 74개 지번 중 18개 지번은 답이다. 고창향교 소유의 면적을 포함하면 답은 총 18,890평이다. 고창향교 소유 966평을 제외하면 17,924평이다. 당촌마을 토지 총면적 58,047평과 비교하여 볼 때 답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2.5%이다.

당촌마을 답 소유주의 개인별 답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27>과 같다. 김성수는 6,318평, 박재근은 3,313평, 이권찬은 3개 필지 2,602평, 서원옥은 2개 필지 1,824평, 김연수³⁸⁾는 2개 필지 600평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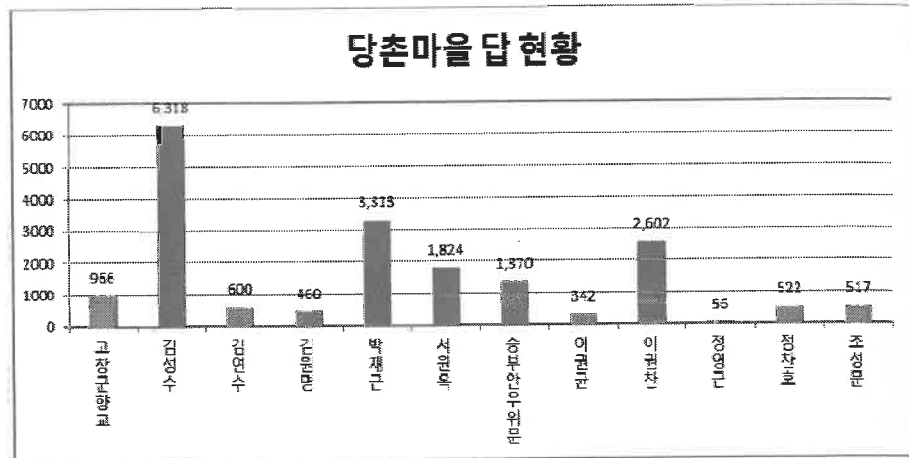
38) 김연수는 김성수의 동생으로 주소지가 김성수와 같다.

소유하고 있다. 이어 정찬호 522평, 조성문 517평, 김원명 460평, 이권균 322평, 정영근 52평 순이다. 김성수는 6,318평의 답을 소유하여 당촌마을에서 가장 넓다. 김성수의 동생 김연수는 2개 필지의 답 600평을 소유하고 있다. 김연수는 구수마을에도 답을 소유하고 있어 일제강점기 고창군에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토지대장을 통해 알 수 있다. 김성수와 김연수는 부안군 건선면 창내리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박재근과 이권찬, 조성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지인이다.

〈표 27〉 당촌마을 개인별 답(畓) 면적 현황

소유주	답 면적(평)
고창군향교	966
김성수	6,318
김연수	600(2)
김원명	460
박재근	3,313(2)
서원옥	1,824(2)
승부안우위문	1,370(2)
이권균	342
이권찬	2,602(3)
정영근	56
정찬호	522
조성문	517
답 총합	18,890

<그림 45> 당촌마을 개인별 답(畓) 면적 현황 도표



당촌마을 답 면적크기 별 필지 합과 인원 수를 살펴보면 다음 <표 28>과 같다. 고창향교를 포함하여, 6,000평 이상은 1개, 3000~4000평 미만은 1명, 2,000~3000평 미만은 1명, 1000~2000평 미만은 2명, 500~1000평 미만은 4명, 500평 미만은 3명이다. 개인별로는 11명이다. 그 중 당촌마을에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3명으로 박재근, 이권찬, 조성문 등이다.

<표 28> 당촌마을 답(畓) 면적에 따른 필지와 인원

답 면적(평)	필지 합	인원 수
6,000 이상	1	1
4000~5000 미만	0	0
3,000~4,000 미만	2	1
2,000~3,000 미만	3	1
1,000~2,000 미만	4	2
500~1,000 미만	5	4
500 미만	3	3
총합	18,890	18
		12(고창향교포함)

당촌마을에 답을 소유하면서 당촌마을이 아닌 지역에 주소지 둔 소유주는 9명이다. 김성수와 김연수는 줄포 전선면 창내리, 서원옥은 제내리, 이권찬·정영근은 덕정리, 김원명, 정찬호는 주소지를 알 수 없으며 일본인 송부안우위문은 김제군 월촌면 봉월리가 주소지임이 토지대장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소유주 11명 중 타 주소 등록인 6명, 구수마을 등록인 3명을 제외한 2명의 거주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당촌마을에 대지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꼭 당촌마을에 살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당촌마을에 대지를 소유하였다고 해서 거주자로 단정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이는 박재근의 경우 당촌마을에 대지를 가지고 있으며 49번지의 토지대장에는 동부리로 주소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고 박재근을 포함하여 당촌마을에 대지를 가진 사람들을 모두 거주인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당촌마을 거주인이 가진 당촌마을 내 답 면적은 6,432평으로 전체 답 면적 18,890평과 비교하면 34%에 해당하다. 나머지 66%는 외지인의 소유로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를 참고하여 볼 때 부안 줄포의 김연수와 일본인 송부안우위문을 제외하면 당촌마을과 멀지 않은 지역에 사는 것으로 보인다. 답의 위치는 측량원도에서 볼 수 있듯이 마을 앞 70번지대에 집중되고 있다.

◇ 당촌마을 대지(垞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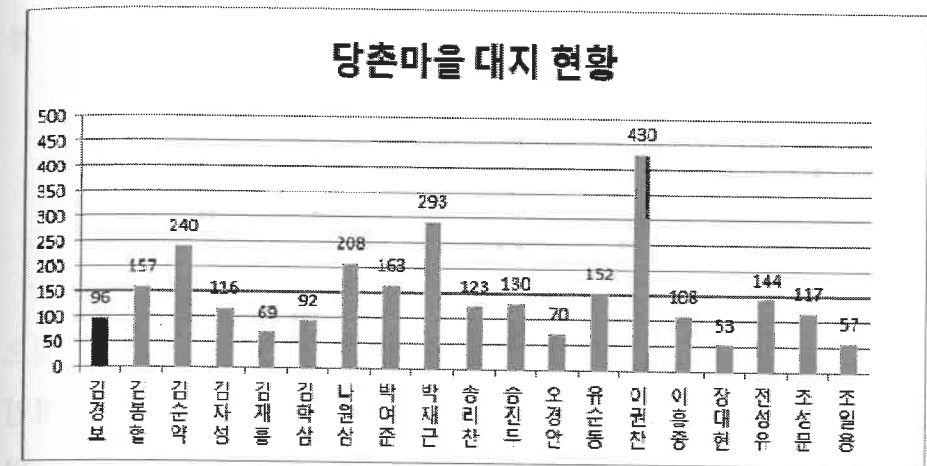
당촌마을의 대지는 총 2,818평으로 20개의 필지를 가지고 있으며

소유주는 19명으로 확인된다. 49번지와 71번지, 두 개의 필지를 소유한 박재근을 제외하고는 모두 1개의 필지를 가지고 있다. 당촌마을의 토지 총면적 58,047평과 비교하여 볼 때 대지의 비중은 약 4.9%이다. 1인당 평균 256평에 해당한다. 당촌마을 대지 소유주의 개인별 대지면적을 살펴보면 다음 <표 29>과 같다.

<표 29> 당촌마을 개인별 대지(垞地) 면적 현황

소유주	대지 면적(평)
김경보	96
김봉협	157
김순약	240
김자성	116
김재홍	69
김학삼	92
나원삼	208
박여준	163
박재근	293(2)
송리찬	123
송진두	130
오경안	70
유순동	152
이권찬	430
이흥중	108
장대현	53
전성유	144
조성문	117
조일용	57
대지 총합	2,818

<그림 46> 당촌마을 개인별 대지(垞地) 면적 현황 그래프



400평 이상은 1명, 200평 이상은 3명, 100평 이상은 8명이며 100평 이하는 6명이다. 면적별로 가장 넓은 평수는 430평을 소유한 이권찬이다. 박재근 293평, 김순약 240평, 나원삼, 208평, 박여준 163평, 김봉협 157평, 유순동 152평, 전성유 144평, 송진두 130평, 송리찬 123평, 조성문 117평, 김자성 116평, 이흥중 108평, 김경보 96평, 김학삼 92평, 오경안 70평, 김재홍 69평, 조일용 57평, 장대현 53평 순이다. 필지당 가장 넓은 대지는 47번지의 이권찬의 대지 430평이며 가장 작은 것은 65번지 장대현의 대지 53평이다.

<표 30> 당촌마을 대지(垞地) 면적에 따른 필지와 인원

대지 면적(평)	필지 합	인원 수
400 이상	1	1
300~400 미만	0	0
200~300 미만	4	3
100~200 미만	9	9
50~100 미만	6	6
총합	2,818	19

당촌마을의 대지는 답과 전을 사이에 두고 20개의 필지, 19가구가 장방형으로 밀집해 있다. 현재 가구 수는 현저하게 줄었지만 대지 형태는 큰 변화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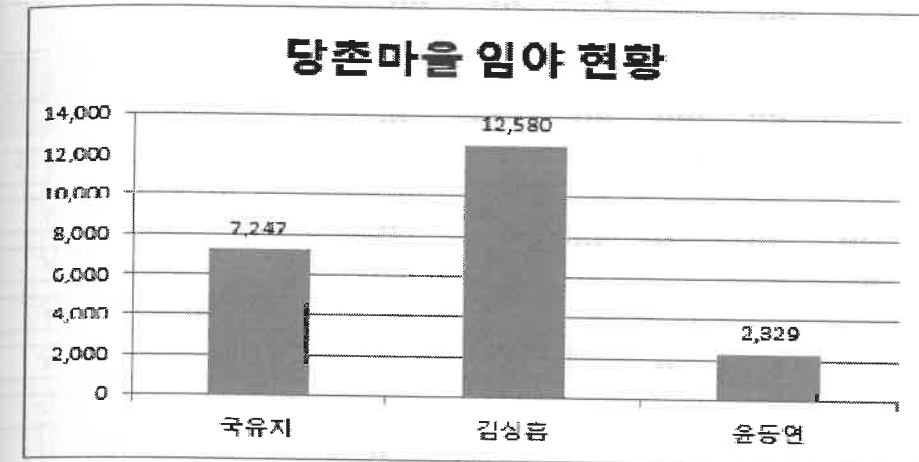
◇ 당촌마을 임야(林野)현황

임야의 총면적은 22,156평이다. 이는 국유지 7,247평을 포함한 것으로 당촌마을 토지의 38%를 차지한다. 당촌마을 임야 소유주의 개인별 임야 면적 현황은 다음 <표 31>와 같다. 개인 소유주는 85번지의 김상흡이 12,580평, 87번지의 윤동연이 2,329평을 소유하고 있다. 이외 93번지에는 216평의 송리찬 소유의 묘가 있다.

<표 31> 당촌마을 개인별 임야(林野) 면적 현황

소유주	임야	분묘지
국유지	7,247	
김상흡	12,580	
송리찬		216
윤동연	2,329	
총합	22,156	216

<그림 47> 당촌마을 개인별 임야(林野) 면적 현황 그래프



◇ 당촌마을 개별 토지 소유현황

당촌마을 내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42명이다.³⁹⁾ 국유지인 임야와 고창향교 소유의 답을 제외한 49,834평이 개인 소유로 확인된다. 당촌마을에 토지를 소유한 성씨를 살펴보면 다음 <표 32>과 같다.

<표 32> 당촌마을 성씨별 토지 소유현황

성씨별	인원	전	답	임	대	분묘지	면적	필지
이씨	3	2,430(3)	2,944(4)		538(2)		5,912	9
정씨	4	684(2)	578(2)				1,262	4
송씨	2	640(3)			253(2)	216	1,109	6
유씨	1	927			152		1,079	2
박씨	2		3,313(2)		456(3)		3,769	5
조씨	3	1,752(3)	517		174		2,443	6

39) 106번지 김윤홍은 작은 전을 소유하고 있지만 면적은 알 수 없기 때문에 통계에서 제외하였다.

					(2)			
전씨	1				144		144	1
오씨	1				70		70	1
나씨	1				208		208	1
장씨	1				53		53	1
서씨	1		1,824(2)				1,824	2
윤씨	1	537		2,329			2,866	2
양씨	1	476					476	1
임씨	1	499					499	1
김씨	15	6,022 (16)	7,378(4)	1,258	770(6)		26,750	27
승부 안우 위문	1		1,370(2)				1,370	2
국유 지	1			7,247			7,247	1
고창 향교	1		966				966	1
총합	41	13,967	18,890	22,156	2,818	216	58,047	73

김씨(15명), 정씨(4), 조씨(3) 이씨(3), 송씨(2), 박씨(2), 유씨(1), 전씨(1), 오씨(1), 나씨(1), 장씨(1), 서씨(1), 윤씨(1) 양씨(1), 임씨(1) 일본인 승부안우위문(1) 등이다. 면적별 토지 소유는 김씨 26,750평, 이씨 5,912평, 박씨 3,769평, 윤씨 2,866평, 조씨 2,443평, 서씨 1,824평, 승부안위문 1,370평, 정씨 1262평, 송씨 1109평, 유씨 1079평, 임씨 499평, 양씨 476평, 나씨 208평, 전씨 144평, 오씨 70평, 장씨 53평 순이다. 성씨의 수와 총면적 크기는 대체적으로 비례하나 윤씨, 서씨 각 명이 4명인 정씨보다 500평 이상 소유면적이 크다.

〈표 33〉 당촌마을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소유주	전	답	임야	대지	분묘 지	면적총 합	필지총 합
고창군향교		966				966	1
국유지			7,247			7,247	1
김경보				96		96	1
김기오	356					356	1
김내익	521					521	1
김병목	1,648(2)					1,648	2
김보경	700					700	1
김봉협	39			157		196	2
김상흡			12,580			12,580	1
김성수		6,318				6,318	1
김순목	767					767	1
김순약	254			240		494	2
김연수		600(2)				600	2
김원명	173	460				633	2
김자성	700(2)			116		816	3
김재홍	269			69		338	2
김학삼	595(4)			92		687	5
나원삼				208		208	1
박여준				163		163	1
박재근		3,313 (2)		293(2)		3,606	4
서원옥		1,824 (2)				1,824	2
송리찬	640(3)			123	216	979	5
송진두				130		130	1
승부안우위 문		1,370 (2)				1,370	2

양낙중	476					476	1
오경안				70		70	1
유순동	927			152		1,079	2
윤동연	537		2329			2,866	2
이권균		342				342	1
이권찬	2,430 (3)	2,602 (3)		430		5,462	7
이흥중				108		108	1
임재환	499					499	1
장대현				53		53	1
전성유				144		144	1
정영근		56				56	1
정영호	207					207	1
정찬호		522				522	1
정현구	477					477	1
조동승	782					782	1
조성문	970(2)	517		117		1,604	4
조일용				57		57	1
총합	13,967	18,890	22,156	2,818	216	58,047	73

개인별 면적으로 가장 넓은 면적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임야 12,580평을 소유한 김상흡이다. 이권찬은 전과 답, 대지를 포함하여 5,426평을 소유하였다. 가장 작은 면적의 소유주는 대지 53평만을 소유한 장대현이다. 일본인 승부안위문은 2필지의 답 1,370평을 소유하고 있다. 당촌마을 내 토지를 소유한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은 다음 <표 33>와 같다.

<표 34> 당촌마을 개인별 면적에 따른 필지와 인원

면적(평)	필지 합	인원 수
6,000 이상	3	3 (국유지 포함)
5,000~6,000 미만	7	1
4,000~5,000 미만	0	0
3,000~4,000 미만	4	1
2,000~3,000 미만	2	1
1,000~2,000 미만	12	5 (일본인 포함)
500~1,000 미만	23	11 (고창향교 포함)
100~500 미만	17	14
100 미만	5	5
총합	58,047	73

고창향교를 제외한 개인별 토지소유를 살펴볼 때 1000평 미만은 42 퍼센트로 대다수 세농임을 알 수 있다.

● 당촌마을 사람들의 토지소유 현황

당촌마을 내 토지면적은 총 58,047평이다. 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는 49,834평으로 답과 전, 임야, 대지, 분묘지 등이다. 당촌마을에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19명이며 나머지 23명은 당촌마을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대지를 소유하지 않아 외지인으로 규정한다. 당촌마을에 사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지 소유주 19명의 토지 소유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는 당촌마을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알 수 있는 지표로 볼 수 있다. 당촌마을 전, 답, 임야, 대지에 대한 총면적은 다음 <표 35>와 같다.

〈표 35〉 당촌마을 거주인 토지 소유현황

대지 지번	소유주	전	답	임	대	분묘 지	면적총합	필지총 합
47	이권찬	2,430 (3)	2,602 (3)		430		5,462	7
51	박여준				163		163	1
52	김순약	254			240		494	2
54	전성유				144		144	1
55	김경보				96		96	1
56	유순동	927			152		1,079	2
57	조성문	970 (2)	517		117		1,604	4
58	송리찬	640 (3)			123	216	979	5
59	조일용				57		57	1
60	오경안				70		70	1
61	이홍중				108		108	1
62	나원삼				208		208	1
63	김학삼	595 (4)			92		687	5
64	김자성	700 (2)			116		816	3
65	장대현				53		53	1
67	송진두				130		130	1
69	김봉협	39			157		196	2

70	김재홍	269			69		338	2
49, 71	박재근		3,313 (2)		293 (2)		3,606	4
총합		6,824	6,432	0	2,818	216	16,290	45

당촌마을 거주인이 가진 답, 전, 대지, 임야, 분묘지 등을 합해 토지의 총면적은 16,290평이다. 이 중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이권찬으로 5,462평을 소유하여 약 34%를 차지하고 있다.⁴⁰⁾ 박재근은 3,606평으로 22.1%, 조성문은 1,604평으로 9.8%, 유순동은 1,079평으로 6.6%, 송리찬은 979평으로 6%, 김자성은 816평으로 5%, 김학삼은 687평으로 4.2%, 김순약은 3%, 김재홍은 338평으로 2%, 김봉협은 39평의 전을 포함하여 1.2%이다. 이하 9명은 대지만을 소유하고 있다. 나원삼은 208평으로 약 1.3%, 박여준은 163평으로 1%, 전성유 144평으로 0.9%, 송진두는 130평으로 0.8%, 이홍중은 108평으로 0.66%, 김경보는 96평으로 0.59%, 오경안은 70평을 소유하여 0.43%, 조일용은 57평으로 0.35%, 장대현은 53평으로 0.32%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권찬과 박재근 2인의 소유토지 면적은 56%로 당촌마을 거주인 토지의 반절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8명이 37.5%를 차지한다. 답과 전 등이 없이 대지만을 소유한 9인의 면적은 약 6.5%이다. 6.5%에 해당하는 무 토지 거주인이 다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이 통계가 곧 경제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마을 내 소유면적으로만 볼 때 마을 거주인 내의 사이에 경제적 격차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촌마을 거주인이 가지는 토지 소유면적은 평균 857평이며,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답과 전에 대한 평균 면적

은 1호당 697평이다. 이는 자작농이나 3단보(900평) 미만을 경작하는 세농으로 당촌마을 사람들의 평균 경제력은 열악하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36>와 같다.

<표 36> 당촌마을 거주인 면적에 따른 필지와 인원

면적(평)	필지 합	인원 수
5,000 이상	7	1
3,000~4,000	4	1
1,000~2,000	6	2
500~1,000	13	3
100~500	11	8
50~100	4	4
총합	16,290	45

● 당촌마을 사람들의 소출별 현황

당촌마을 내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토지는 전과 답으로 총면적은 32,857평이다. 전의 총면적은 13,967평 가운데 당촌마을 거주인이 소유한 전은 6,824평으로 약 48.9%가 거주인의 소유이다. 거주인 1호당 평균 359평에 해당한다. 당촌마을 답의 총면적은 18,890평으로 거주인이 소유한 답은 총 6,432평으로 약 34%가 거주인의 소유이다. 1호당 338평이다. 따라서 수확물을 얻을 수 있는 답과 전의 거주인 소

유면적은 13,256평으로 1호당 697평이다. 답과 전을 합쳐 구수마을과 같은 방법으로 소출량을 계산하면 당촌마을 거주인의 답과 전은 총 13,256평으로 3,000평을 1결로 간주할 때 약 0.441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893년 고창현이 호당 평균 0.8결 정도를 경작하였다는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여 볼 때 1910년대 같은 고창현이지만 당촌마을은 호당 0.441결 경작하여 약 55% 적은 평수에 해당한다. 이를 전과 답으로 구분하면 전은 0.227결, 답은 0.214결에 해당한다.⁴¹⁾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기준수확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7> 당촌마을 거주인 전(田) 소출량 현황

지번	소유주	전 면적(평)	등급	소출량
27	이권찬	1,533	9	5.365
38	김자성	542	10	1.084
39	김재홍	269	9	0.941
40	김학삼	249	9	0.875
41	송리찬	113	10	0.226
42	송리찬	458	10	0.916
43	이권찬	388	9	1.358
44	유순동	927	9	3.244
45	김학삼	81	7	0.526
46	이권찬	509	7	3.308
50	조성문	49	7	0.318
53	김순약	254	8	1.27
66	김봉협	39	7	0.253
68	송리찬	69	7	0.448
72	김학삼	202	8	1.01
84	조성문	921	8	4.605

41) 기존 이동희의 연구의 소출량을 당촌마을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 후기 보통 벼 800말(쌀 320) 내외, 전은 240말을 수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당촌마을 거주인의 소출량을 파악하면 답에서 6.84석(320×0.214), 전(2모작)에서 5.448석(240×0.227)로 이를 쌀로 1호당 12.288말이 생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90	김자성	198	9	0.693
92	김학삼	63	10	0.126
당촌마을 거주인 전 소출량 총합				26.566
당촌마을 거주인 전 소출량 평균				1.398

당촌마을의 전 등급은 7등급에서 11등급이다.⁴²⁾ 실제 토지대장에 기록된 소출량은 26.566으로 26섬 5두 6홉이다.

당촌마을의 답 등급은 14등급에서 17등급이다. 실제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출량은 39.732로 39섬 7두 3홉이다. 따라서 논과 밭에서 수확된 당촌마을 거주인의 총 소출량은 66.298으로 당촌마을 1호당 평균 수확량은 3.489이다.

〈표 38〉 당촌마을 거주인 답(畓) 소출량 현황

지번	소유주	답 면적(평)	등급	소출량
36	이권찬	1,474	15	8.844
48	박재근	195	15	1.17
75	박재근	3,118	14	21.966
77	이권찬	159	15	0.774
78	조성문	517	15	3.102
97	이권찬	969	17	3.876
당촌마을 거주인 답 소출량 총합				39.732
당촌마을 거주인 답 소출량 평균				2.091

3) 제적부를 통해 본 당촌마을

○ 제적부 소개

〈그림 48〉 당촌마을 김학삼 제적부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63번지 김학삼

제적

공용

본 籍 全 羅 北 道 高 城 郡 高 城 面 竹 林 里 六 分 番 地 戶 主 金 學 三 男 正 室 金 正 宜 二 男 金 正 山 女 金 正 淑 戶 主 前 金 學 三 男 正 室 金 正 宜 二 男 金 正 山 女 金 正 淑		戶 主 前
--	--	--------------

전봉준의 생가였던 63번지의 호주 김학삼의 제적부를 사례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김학삼은 광산 김씨로 1857년에 태어났으며 단기 1885년(4218)에 홍덕군 일남면 왕림리 통주 김재관으로부터 분가하여 호주가 되었다. 부친 김정관(金正寬)과 김재관은 형제 사이로 보인다. 이후 1923년 죽림리 63번지에서 사망하여 장남 김기연이 호주를 승계하고 있다. 김학삼은 부인 남양 홍씨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었다. 김학삼이 당촌마을로 이주한 시기를, 분가한 28세인 1885년이라고 볼 때 전봉준이 당촌마을을 떠났던 1867년과 약 9년의 차이가 있다.

○ 제적부를 통해 본 당촌마을 사람들

지적도와 호적대장의 지번과 소유주를 근거로 거주인 19명 중 제적부가 확인된 사람은 10명이다. 나머지 9명에 대한 정보는 지적도와 호주의 불일치로 자료를 얻을 수 없어 이를 토대로 구수마을 사람들의 가족관계를 다음 <표 39>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9> 당촌마을 거주인 제적부 현황

번호	호주	생년	졸년	본관	전호주	처가	호구수
1	박**	1861	?	밀양	치*	평산	13
2	전**	1863	?	천안	종*	광산	4
3	김**	1887	?	진주	학*	김해	무
4	유**	1893	?	고흥	영*	제주	6
5	조**	1871	?	한양	도*	전주	6
6	오**	1874	1952	해주	덕*	순창	12
7	나**	1874	1938	금성	동*	광산	9

8	김**	1857	1923	광산	정*	남양	5
9	김**	1858	?	언양	찬*	나주	5
10	이**	1889	1974	전주	덕*	김해	35

제적부의 호주는 당촌마을 호적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소유주이며 1909년 당시 민적부에 기재된 호주이다. 따라서 1910년대 가족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이를 통해 1894년 당시 당촌마을 거주인의 나이와 성씨, 본관, 통혼 관계, 호구 수 등을 어렵잡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제적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사망 연도가 불분명하다. 이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호적의 손실로 인하여 기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망일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전 호주가 사망하여 호주를 승계한 경우이다. 따라서 사망 연도를 알 수 없는 사람은 1950년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이미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통해 나타난 것이지만 거주 성씨 분포와 본관을 확인할 수 있다. 당촌마을 거주인의 특징은 성씨별로 김씨(6)가 박씨(2), 이씨(2), 송씨(2), 조씨(2), 전씨, 장씨, 나씨, 오씨, 유씨 등이다. 6명의 거주인 김씨 중 제적부로 확인되는 사람은 3명으로 본관은 각각 진주와 광산, 언양이다. 이외 제적부에서 확인되는 당촌마을 거주인 성씨는 각각으로 밀양 박씨, 천안 전씨, 고흥 유씨, 한양 조씨, 해주 오씨, 금성 나씨, 전주 이씨로 각성바지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제적부를 통해 전봉준이 살았던 지번의 평수와 관련하여 마을의 모습을 추정할 수 있다.

3. 당촌마을 인구와 성씨

당촌마을 현 거주자 김용철(1947년생) 구술에 의하면 어렸을 적 약 20여 가구가 살았다고 한다. 당시 1가구당 6인의 가족이 있다고 하면 1960~70년대 당촌마을에는 적어도 120여 명 이상이 살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1982년 당촌마을 현지답사에서 확인한 결과 14가구가 모여 살고 있었다고 한다. 2009년 당촌마을의 인구는 59명이다. 2021년 현재 11가구, 50여 명이 살고 있다.

1950년대부터 10년대 별로 2000년대까지의 항공사진을 검토한 결과 마을의 대지 형태는 큰 변화가 없다. 다만 현대로 올수록 가옥의 크기가 커지며 수는 줄어들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에도 지형의 변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10년대 토지대장과 지적원도의 대지를 통해 알 수 있다. 위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당촌마을의 대지를 검토한 결과 총면적은 2,818평이며 대지 소유주는 19명이다. 곧 20여 호로 축약된다. 당시의 출산율 등을 고려하여 1호당 6인의 가족이 있을 것으로 추산하면, 동학농민혁명 당시에는 적어도 100명 내외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⁴³⁾

현재 당시의 가구 수를 정확하게 증명할 만한 사료는 없다. 당시에는 작은 초가를 짓고 살다가 헐어버리는 등의 여러 이유로 현재처럼 건축 대장이 없으며 대지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한 필지에 혈족 간에, 혹은 더부살이 등으로 초가를 짓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제적부를 통해 어느 정도 인구 추산이 가능하나, 지번과 호주의 불일치, 정보

43) 수집된 제적부의 경우 1호당 평균 9명이다.

공개 등의 이유로 당촌마을 전체 제적부를 확인하여 인구를 추산하기에는 불가능하다.

현재 토지대장 지번의 소유주와 제적부의 호주가 일치되어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호수는 10개이다. 토지대장과 제적부를 통해 1910년대 당촌마을 거주인의 성씨를 살펴본 결과 밀양 박씨, 천안 전씨, 진주 김씨, 고흥 유씨, 한양 조씨, 해주 오씨, 금성 나씨, 광산 김씨, 언양 김씨, 전주 이씨 등 다양한 성씨가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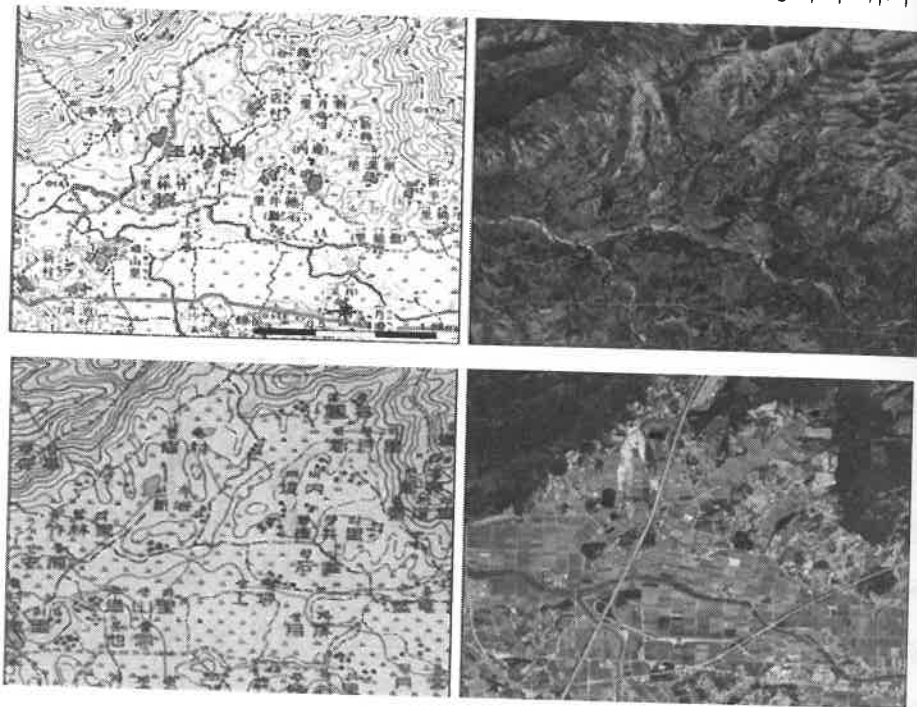
이들은 평산 신씨, 광산 김씨, 김해 김씨, 제주 고씨, 전주 이씨, 순창 박씨, 남양 홍씨, 나주 나씨 등과 통혼 관계를 맺고 있는데 특히 광산 김씨, 김해 김씨 등은 지근거리의 세거 성씨라고 할 수 있다.

살펴보면 김씨, 이씨, 박씨 등 소수의 특정 성씨들이 마을의 주요 토지를 대부분 소유하고 있다. 전봉준 생가지로써 천안 전씨가 갑오년 당시에 전씨 일족이 집성한 마을이었으나 지금은 滅門之禍로 타성만이 남아있다고 이기화 선생은 추측하고 있다. 1910년대 기록에 전씨는 1명이 살고 있어 전봉준의 탄생지라는 이유로 당촌마을의 전씨 일가가 멸문되어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4. 전봉준의 생가터, 당촌마을 63번지 위치고증

○ 위치고증 및 구술

<그림 49> 구지도와 항공사진을 통해서 본 당촌마을 전봉준 생가터 위치



1997년과 1998년 고창군은 동학농민혁명 관련 학술세미나 2차례에 걸쳐 개최하여 이 결과를 『전라도 고창지역의 동학농민혁명』 44)이라는 단행본으로 출간하였고 이 세미나의 준비과정에서 연구자들은 당촌마을 현장을 답사하여 당시 마을주민들의 구술을 통해 고창읍 죽림리 63번지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44) 신순철·이진영·원도연 편, 『전라도 고창지역의 동학농민혁명』, 고창문화원, 1998, 99~103쪽.

<그림 50> 당촌마을 전봉준 생가터 현재 모습



63번지가 전봉준 생가터라는 구술은 이상현(상현, 1936년생, 47번지 거주) 씨로 고인이 된 송태희라는 이웃 노인에게 들었다고 한다. 당시 송태희 씨가 생존했다면 98~99세 정도 된다고 한다. 생가터의 바로 앞집에 살고 있었던 김용철(1947년생, 64번지 거주) 씨도 같은 증언을 하였다.⁴⁵⁾

당시 조사에서 1993년 1월 11일의 현장조사에서 마을에 살던 조병두(1923년생) 씨가 54번지라는 구술이 있었지만 오랫동안 당촌마을 출생설을 주장했고 당촌마을을 여러 번 답사하며 사실을 확인했던 이기화도 여러 구술을 종합하여 63번지가 확실하다고 하였다.⁴⁶⁾ 필자는 2021년 8월 24일 당촌 주민 김용철과의 면담을 통해 전봉준 생가터가 63번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63번지가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한다.

45) 김용철 구술 참조.

46) 원도연, 「동학농민혁명 정신 및 유적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제언」, 『전라도 고창지역의 동학농민혁명학술조사 보고서』, 고창군, (1997. 10. 11) 56쪽. 1993년 1월 11일의 현장조사에서 마을에 살던 조병두(1923년생) 씨가 54번지라는 구술이 있었지만 63번지가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한다.

○ 63번지의 토지대장과 제적부 검토

죽림리 63번지의 토지대장과 제적부를 검토한 결과 1910년대, 63번지 대지 소유자는 김학삼임을 측량원도와 토지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김학삼은 1857년생으로 부친(전 호주)은 김정관이다. 김학삼은 1885년 흥덕에서 이곳 당촌마을로 분가하여 호주가 되었다. 전봉준은 1867년 당촌을 떠나 고부로 갔기⁴⁷⁾ 때문에, 1867년 이후 1885년까지 63번지에 누가 살았는지는 알 수 없다.

토지대장을 통해 이후 63번지 소유 관계를 살펴보면 죽림리 63번지의 보존등기 일자는 1928년 5월 14일이며 소유자는 같은 63번지에 주소지를 둔 김기연이다. 제적부에 의하면 김기연은 김학삼의 장남으로 김학삼이 1923년 사망하여 대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1928년 해당 주소에 건물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당시 건축물대장은 없다. 63번지 토지대장의 소유권 변동 사항을 보면 주변의 다른 토지에 비해 빈번한 점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1945년 이전에 소유권이 3차례나 이전되었음이 확인되는데 1941년(소화 16), 1943년(소화 18), 1944년(소화 19) 3차례 모두 매매에 의한 이전이었다. 해방 후에는 1995년 단 한 차례 소유권 변동이 있었고 1998년에 고창군이 매입하였다.

전봉준 생가터가 죽림리 63번지임을 문헌으로 입증할 방법은 당시의 호구단자나 토지 문서 등이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지만 이를 증빙할 문서는 없다.

국립지리원이 소장한 1954년, 1966년, 1976년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47) 송정수, 『전봉준 장군과 그의 가족이야기』, 해안, 2021, 50쪽.

해당 번지에 건물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51〉 당촌마을 시대별 항공사진



당촌마을 1954년 항공사진



당촌마을 1966년 항공사진



당촌마을 1976년 항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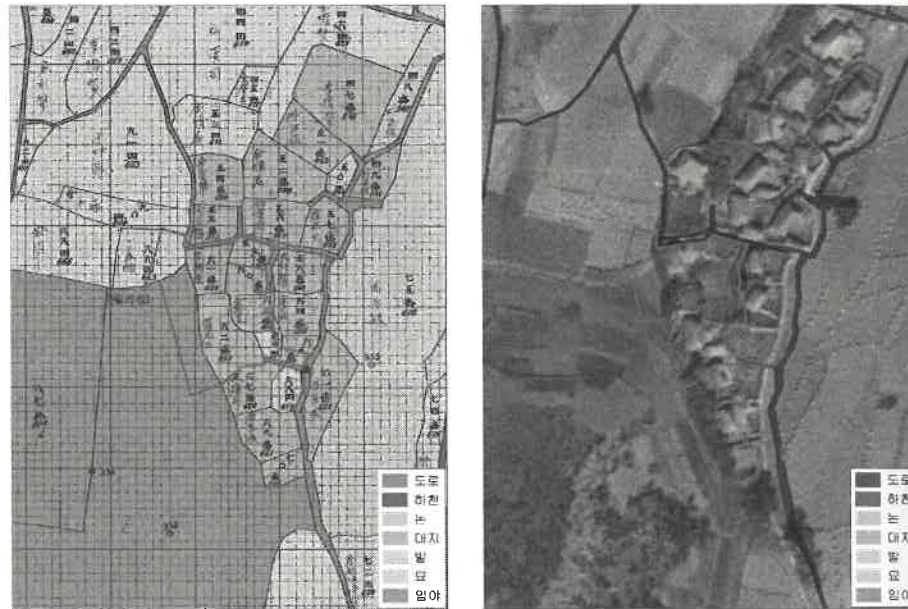
당촌마을 2021년 항공사진

○ 63번지 현황

당촌마을 지역민의 구술과 연구자의 고증으로 63번지가 전봉준 생가터로 확인되자 고창군은 1998년 고창군 죽림리 생가터인 63번지와 인접한 8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였다. 총 9필지로 총면적은 2,813m²이며 주소는 고창읍 죽림리 59번지가 되었다. 곧 59번지로 합병하면서 마치 생가터가 59번지인 것으로 착오가 생

긴 것이다. 이에 고창군에서는 59번지를 63번지로 다시 지번을
 확정하였다.⁴⁸⁾

〈그림 52〉 측량원도에서 본 당촌마을 전봉준 생가터 위치



* 빨강 선은 현재 전봉준 생가터가 위치한 63번지에 해당

48) 신순철, 「전봉준 생가터를 통해 본 역사유적의 보존과 관리」, 『무장기포지의 사적 지정과 역사문화 자원 활용』, 연세대 원주박물관, 111~115쪽 참조.

IV. 구술채록

1. 전윤오
2. 표을중
3. 신계원
4. 진윤식
5. 김용철

IV. 구술채록

1. 전윤오



- 1939년 공음면 구암리 구수마을 출생
- 대대로 구수마을 거주 확인
- 다수의 구술경험 보유

○ 개 요

- 구 술 자 : 전윤오
- 면 담 자 1: 정성미
- 면 담 자 2: 김상민
- 면담주제 : 구수마을의 역사와 동학농민운동
- 면담일시 : 1차 : 2021년 8월 12일 오후 3시, 2차 : 2021년 10월 8일 오후 5시
- 면담장소 : 자택(1차), 자택(2차)
- 면담차수 : 2차

○ 요약

구수마을에 사는 84세 전운오씨는 구수마을의 토박이로 지적원도와 토지대장을 통해 1910년대 당시에 전운오 옹의 선대가 거주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일생을 구수마을에서 거주한 만큼 지금은 사라진 당산나무와 당산제, 마을 우물 및 방앗간과 주막, 서당 등 마을의 옛 모습을 생생하게 증언하신다. 한편 구수마을과 무장기포지에 얽힌 동학농민군 이야기에 관한 것은 이전 고창에서 시행된 구술 작업에서 여러 차례 증언하신 바 있다. 이번 구술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마을 경관 재확인 및 일제강점기 지주 소작 관계, 6.25 당시의 구수마을이 처한 상황과 이와 관련한 가족사 이야기 등 다양한 개인생애사와 마을 현황을 알 수 있었다.

○ 목차

1. <구수마을 당산나무 이야기>
2. <구수마을과 동학농민혁명-고수부지 하천 이야기>
3. <구수마을 성씨와 인구, 그리고 삶>
4. <마을의 변화-새마을 운동>
5. <구수마을과 동학농민혁명-고창주, 최경철, 무장기포지>
6. <구수마을 사람들>
7.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
8. <일제강점기 일본 천기농장 물 독점이야기>
9. <구수마을 지주, 소작관련 이야기>

○ 전운오 구술 전문

면담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연세는 어떻게 되시나요?

전운오: 호적은 39년 2월 1일로 돼 있어요, 근데 원 나이는 팔십 넷이고.

면담자: 네. 선생님 여기 구수마을에 언제부터 사셨는지요?

전운오: 여기서 계속, 여기가 본적이지.

면담자: 본적지요. 선생님께서는 여기에 땅을 소유하고 계시지요? 예전부터 사셨구요, 조부이신 전순서 선생님 성함을 측량원도에서 뵈었습니다.

전운오: 한 3만 평 있지.

면담자: 네. 그러면 저희가 구수마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여쭙고자 합니다. 선생님은 언제부터 이 마을에 사셨는지요?

전운오: 본적지이니 선대부터라고 봐야지요, 아버지, 할아버지, 다 여기에서 사셨습니다.

면담자: 선생님 본관은?

전운오: 천안 전씨

면담자: 전봉준 가계인가요?

전운오: 전봉준은, 그 천안 전씨는 천안 전씨인데

면담자: 저기 파는 다르고.

전운오: 천안 전씨는 천안 전씨인데 전봉준은 문효공파고, 우리는 대제학파요. 광주 대제학파, 파가 틀려.

1. <구수마을 당산나무 이야기>

면담자: 여기 지금 마을에 몇 가구가 살고 있나요?

전운오: 지금 호수는 뭐, 사람은 많이 안 살고. 부부간에 살기도 하고, 혼자 살고 그러는데 한 35가구 되야요.

면담자: 네, 전에는 어떠했나요?

전운오: 한 50가구 살았어요, 70년대 말이라고 해야 되나.

면담자: 저희가 1912년도 측량원도를 조사를 해봤더니 구수마을에 140여 개의 번지가 있더라고요, 물론 대지, 논, 밭 모두 합쳐서요

전운오: 140번지라는 것은 그 토지번호를 말하지, 사람사는 거시기는, 그런데 그때 측량. 일제시대 때 한 건데 이거는, 그때는 거의 토담 쳐 갖고, 방 한 칸, 그런 집이 다 뜯어서 없어져 버리고.

면담자: 네

전윤오: 그거, 열 평이면 또 열 되어 평이야, 그런 식이. 그런 집은 다
떠내려갔는데 그것은 토지 조사할 때 하는 애기지. 나중에 짓
거나 그런 집은 기록이 안 됐지

면담자: 네, 건축 대장, 이런 것들이 없었던 말씀이지요? 등기
를 안해서

전윤오: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집도 모가(초가집)로 계속 있다가,
이제 내가 지어서 등기를 설정했지

면담자: 아, 네

전윤오: 그, 그러니까 그거는 기준을 못 얻었겠더라고요. 그래 한 50
가구 살았다는 것만 생각이 나고. 실제로 그렇지. 그 토지대장
이나 그런 걸 봐 갖고는 잘 기억을 못하것더라고요. 왜 그러냐
면 생겨나 갖고 헐어 버리고, 진 집도 있고. 무지계(형편없이)
해갖고.

면담자: 네, 네

전윤오: 그런 걸 잘 기억을, 확실히 모르겠더라고요

면담자: 네, 그렇죠, 사실 저희가 조사하는 건 1912년도 측량원도지만
그때 가까운 시기인 동학농민혁명 당시가 어땠을까 하는 자료
는 측량원도이므로 그걸 기준으로 삼다 보니 말씀드려봅니다.
사실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지요? 구수마을
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전윤오: 그 당시(동학농민혁명), 그 당시에는 여기가 행정구역이 무장
현 당산이에요, 무장현. 당산.

면담자: 당산나무가 있어서. 당산인가요?

전윤오: 아니 마을 이름이 당산인디.

면담자: 그러니까 마을 이름의 유래가

전윤오: 네, 당산인데. 당산나무도 있고 풍물도 있었대요. 당산 나무
도 있고 풍물도 있었다고. 그런데 당산이라는 그 당 산은 보
통 풍물로, 풍물 위주로 해갖고 윗마을 아랫마을 해갖고 줄
다리기.

면담자: 네. 당산제요

전윤오: 응, 줄 감는 거시기, 돌도 서 있었어요. 이 앞에 가.

면담자: 아 그랬었어요. 거기가 어디쯤이에요. 선생님.

전윤오: 거기 거기가 이 앞에 가 도로 변인데. 22호 국도, 22호 나오
면서 그것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거기가 당산나무도 있었는데
팽나무로 되어 있었어.

면담자: 팽나무였어요? 당산나무가?

전윤오: 네, 그랬는데 22번 국도 나면서 그거 확장을 하면서, 지금 가
면 돌도 없고 도로 어디가 묻혀 있어요, 돌이 상당히 크지, 한
1m쯤 되고. 높이가 한 2m쯤 되는가요. 그런데 거기다가 줄을
감은 흔적도 있고. 줄을 감았었어요. 그러면 그 나중에 이제,
그 이제 자꾸 이제 재정이 없고 그러니까 알아보고 해갖고, 그
것만 그 당산나무하고 당산 돌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여
기 당산에 그도 없고, 숙방산, 안방산 있지. 그런 마을이 있지
여.

면담자: 네, 할아버지 당산 할머니 당산요

전윤오: 그래 할머니 당산이네, 여기는 할머니 당산.

면담자: 그래요. 그럼 돌은 아무튼 당산나무가 있고 돌 옆에 있어 갖
고, 이렇게 묶기도 하고 줄 묶기도 하고 그랬는데.

전윤오: 줄도 감기도 했어요.

면담자: 근데 도로 때문에 나무는 없어지고.

전윤오: 그 나무가 다 없어졌어요. 팽나무 거기가 아람드리 이런 거
있었어요. 수령이 한 300년 이상 된 거,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러는데 다 비어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그때 보상도 조금씩 해
주던데, 그때.

면담자: 22번 국도 건설하기 전까지 당산나무와 줄을 묶었던 돌이 있
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럼 돌이 어딘가 있겠네요? 아니면 누
가 가져갔나요? 도로공사 하면서?

전윤오: 안 가져갔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도로 넣으면서 거꾸로
갖다 묻었는데 못 찾더라고.

전윤오: 누가 그 도로 가져가지는 않았어요.

면담자: 묻혀 있다. 어딘가에?

전윤오: 도로에 묻혀 있어요, 거기가.

면담자: 네, 선생님 구수마을의 당산나무가 가진 의미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전운오: 마을 수호신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그런 걸 많이 했잖아.

면담자: 그러면 동학농민혁명 당시에도 당산제는 지냈겠네요?

전운오: 동학하고는 관련이, 직접 관련 없지만 나 어렸을 적 그랬으니까...

2. <구수마을과 동학농민혁명-고수부지 하천 이야기>

면담자: 네, 구수마을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기포(봉기)의 현장인데요? 기포지가 어디인가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동학군들이 모였다고 하는 곳요, 이 마을에서

전운오: 이 앞에, 지금 다리 있잖아요. 거기가 전부 고수(하천)부지였어요, 고수부지인데 그 나중에 이제 경제 사정으로 인자 마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개천을 요리조리 막고 해갓고 모도 심고 이제 수수 같은 것도 심고 해갓고

면담자: 아, 고수부지를 밭으로 사용했군요

전운오: 밭과 논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경지정리하니까, 사유지, 하천 다 나왔잖아요, 그래갓고 경지정리하는데 감별이 5%밖에 안 먹었어요. 고수부지가 넓어 갓고, 그리고 우리 조그만할 때 이 개천에는 비가 많이 와 갓고, 떠날라가면 흙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가물치, 장어 그런 것이 있죠.

면담자: 흙 흙이 생기면요, 거기예요?

전운오: 근데 매물고지 거기서 올라와 갓고, 여기서 여기 와서 또 거시기 살았어요.

면담자: 그러니까 여기 다리 있는데 거기 말이죠. 여기 천이 있는데.

전운오: 네, 네

면담자: 그럼 옛날과 지금, 큰 차이가 있나요? 지형 변화요

전운오: 큰 차이가 있죠, 밭 만들고 그래 해갓고 했는데, 전부 수로로

다 만들어져. 수로를 만들었잖아.

면담자: 그 구수 마을이 아홉 구자 구수잖아요. 9개 물.

전운오: 네, 네

면담자: 그러면 그 지류가 어디 어디네요.

전운오: 9개 지류, 그 이 우(위)에 저수지로 가면은, 저수지 물 가지가, 지류가 아홉.

면담자: 갈래로 흠어졌다?

전운오: 그랬다고도 하고. 마을에 샘이 9개 있다고 해.

면담자: 마을의 샘이 9개 있다.

전운오: 그것도 그렇게 또 하고 그러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또 동학농민혁명 이후로 구수 마을로 개칭이 됐어요.

면담자: 네, 동학농민혁명 이후로요.

전운오: 네, 그전에는 무장면 당산이었어.

면담자: 네, 그렇군요.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마을의 샘, 오래된 샘. 지금은 다 이제 지하수를 사용해서 전혀 사용을 안하는 건지, 그런 것들은 어떤가 싶기도 하고요, 물이 중요하니까요, 구수 마을에서 식수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전운오: 지금, 지금 거시기, 수돗물 부안 댐에서 오잖아요. 그거 다 먹어요.

면담자: 수도가 없었던 시절, 옛날에 있던 샘들은 지금도 있나요?

전운오: 샘, 있는데 저 동네 샘이 있는데 다 메워서 밭 만들어 버리고.

면담자: 메꿔버렸어요.

전운오: 동네에, 저기 공동 우물이 있었는데, 당시 측량해갓고 공동 우물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메워갓고 밭으로만 사용해갓고 있어요

면담자: 샘이 있었던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전운오: 여기서 가면 그거는 지금 샘 자리는 알 수 있는데.

면담자: 그래요, 선생님. 저 샘 자리 좀 알려주세요

전운오: 거기가 샘이 있는데 지금 차철룡이라는 사람이 메워갓고, 그

거 밭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면담자: 지번 아세요?

전운오: 지번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지적도에는 떨어져 가고 사유지가 되어 있어도, 사유지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공동우물로.

면담자: 공동우물로 있어요? 그 지적도에는, 옛날 지도에 공동우물로.

전운오: 밭으로 되어있는데 지적 번호를 떠면 나오겠지, 그전 지적도로 보면은 나오지.

면담자: 그러면 공동우물이 하나밖에 없었나요?

전운오: 그때는 우물이 인자, 뭐 마을마다 집마다 거, 샘을 타루박(두레박)으로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물을 걸러 먹기 때문이네. 물충은 하천이 알았어요. 네, 하천이, 하천이 지금 지금은 깊은데 다 수로 정리하고 파버렸는데 그전에는 얕으니까 이 마을에 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물을 걸러 먹는 식으로 해갖고, 타루라고도 해서 물을 먹고 살았고.

면담자: 그래서 공동우물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고 한 개 정도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 물이 아무튼 여기가 좋은가 보네요.

전운오: 지금 한 1m, 2m만 파도 물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식수원으로는 사용을 안 하는 거여, 그거 그리고 또 수돗물이 나오기 때문에, 수돗물이 오히려 편리해요.

면담자: 그렇죠. 지금도 땅만 파면 물이 많이 나온다.

전운오: 모래로 다 돼 있어요, 하천이라. 두암 저수지가 막기 전에 갑오년에 시작 해갖고 올진년에

면담자: 두암 저수지요,

전운오: 여기서는 이제 그냥 두암 저수지라고 그래요. 대정리에 있어요.

면담자: 네 도암리. 통상적으로 두암저수지, 여기 마을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대정 저수지고요.

전운오: 지금 현 행정구역으로는 대정리라고.

면담자: 음 대정 저수지고요.

전운오: 대정요,

면담자: 저수지 그다음에 구수 아까 말한 물 해서 이제 물이 풍부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면담자: 그러면 이 마을에 수호신, 아까 당산나무도 있었지만은 각자 마을마다 이렇게 산이 있잖아요. 여기는 어떤 산이 주축이 돼요. 구수마을은?

전운오: 여기는 쉽게 말해서 큰 산이 없죠, 큰 산이 없고 그래갖고 인자 땀감 같은 거 구할려면 저 위, 이 뒤로 가면 구조산이라고 있어요. 구조산(구적산).

면담자: 구적산.

전운오: 구적산요, 그런 데서 많이 구하고. 그 전에는 땀감으로, 산을 헤맸잖아요

면담자: 그렇죠. 지금으로 치면은 기름이니까.

전운오: 연료니까.

면담자: 그럼 길이 막 크게 변하거나 도로 22번 국도 나기 전에 마을 내에 변화된 모습은 없어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하고 비교해서?

전운오: 전부 변화됐지.

전운오: 지금 저거 밭상지 길로 해갖고, 거기서부터 요 뒷등까지 수구맥이 이렇게 해갖고. 나무가 엄청 많아 있었어요.

면담자: 네, 전예요

전운오: 네, 전에, 그런데 그거시 사유지가 아니라 국유지로 편성이 돼 있어서 마을에서 이용을 하느라고 그 측량분들한테, 여기 마을 이제 이용을 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냥 국유지로 떼어놓은 것이 마을에서 이제 관리를 했잖여, 그래, 일제시대 때 그 소나무 같은 거 다 비어가 버리고 또 버드나무, 그 중국 버들이라던가 하는데 그런 게, 이런 게 많이 들어서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 놈들이 그걸 베다 일본 놈들 게따[下駄]로 만드는, 게따 알아요?

면담자: 네, 신발.

전운오: 응 신발. 그거 만든다고 다 베어가고 그랬대요. 그게 또 버드

나무라 가볍고 좋고, 그러잖아. 지금 여기 이 앞에 나가면은 그 고목하고 보존하는 게 있어요. 그래 이장수 군수가

면담자: 그러니까 이 지역은 물도 좋고, 나무도 많았는데 일제시대에 게따 만든다고 베어갔다는 얘기시지요, 자연적 환경이 좋았네요.

전윤오: 우리 조그만 해서(어렸을 때), 그 소나무 같은 게, 조그마한 거 그런 거 안 베어가잖아요. 그 그런 게, 그것이 사유지가 아니고 국유지 같은 건데. 그래. 이제 이런 게 커 갖고 우리 조그만 해서도, 아릅드리 소나무가 엄청 많이 있었어요. 저 저기 밭상지에서부터 군유리의 산까지 거기 공유지가 있어요.

전윤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재미생인데. 그런데 내가 14살인가 다섯 살 먹었어요. 그런데 이 앞에 가면은 석교라고 하는데, 석교에 국창이 있었다고요.

면담자: 국창, 창고요. 나라의 창고 말이죠.

전윤오: 네, 거기가 마을이 지금 창촌마을이에요.

전윤오: 거가 국창이 있었는데 그 메밀고지를 터버리면은

면담자: 네. 메밀고지요

전윤오: 아, 그 불교도래지 거기, 거기를 터버리면 옆까지 물이 들어와요.

면담자: 그 법성포 말이죠. 법성포에 물을 트면 여기 창촌마을까지 물이 들어온다고요.

전윤오: 창촌마을에 국창이 있으니까 배로 실어내려야지. 그거 창촌마을까지 배가 들어왔었어.네. 참 거기서부터 동학농민밭상지, 밭상지라 했는데. 고수부지가 모래로 돼 있고 논밭이 없기 때문에 훈련 같은 거 하는 게 좋지 않나

면담자: 네, 네

전윤오: 그래서 여기, 여기 와서 그러면 마무리를 했는가 봐요.

면담자: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동학농민군들이 여기 창촌마을 창고 공략을 하고.

전윤오: 국창이니까. 식량 조달을.

면담자: 식량, 곧 물자를 확충한 다음에 여기에서 모였단 말이죠. 여

기.

전윤오: 아니, 거기서 모여 가지고 여기로. 야 훈련을 하러 오는데 여기.

면담자: 여기가 훈련지라고요 그럼, 구수마을 앞에 여기가 훈련장소요?

전윤오: 훈련 장소.

면담자: 훈련 장소라고요. 무장 기포 때 낭독하고 이제 전국적인 항쟁으로 가겠다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여 주둔하고 훈련하고 다 했다는 얘기지요

전윤오: 네, 그래갖고 여기 소석재라고 그거 일부는 거고(가고)

면담자: 소속재요?

전윤오: 네, 글로 넘어가는 거지, 신대동 넘어가는, 그 재를 소석재라고 혀 이것을. 그러면 무장현, 무장현이 가타와요.(가까와요)

면담자: 선생님, 잠깐 여기에서 소속재로 넘어가면 신대리가 나온다고요.

전윤오: 네, 신대리는 공음 무장하고 경계지형이여, 일부는 또 해안선으로 바닷가예를 타고 갔다고도, 심원 쪽으로.

면담자: 네, 심원 쪽으로. 그게 기포하고 나서 얘기하시는 거죠? 하고 나서 이렇게 신대리로 갔다.

전윤오: 그 당시 전주성을 함락하러 전투를 하러 가는 거, 그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 저 왕제산에, 왕제산에서 지금 신왕초등학교, 일단 폐교됐는데 왕제산에서 하루 저녁을 잤대. 무장 원님 사는데, 뭐 무장현이라거든.

면담자: 무장관아요

전윤오: 동현이 그게 불이 안 지켜지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아전 허고 동학군허고, 그때 살아 있는 원인이 무장현령허고 무장아전 하고 동학군하고 밀정이 있었다고. 그런 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그 무장현 그때 건물이 지금도 살고(현존) 있잖아. 그런 무장도 성을 지금 보호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49) 구수내→소석재→과실재→무장읍성. 구수내에서 무장읍성으로 가는 길을 말함

가 주로 동학군이 서식할 만한 이가 동학군이라는 거 얘기를 들으면 정부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원을 상대로 했잖아요, 동학군들이, 그런데 이제 정부 양곡이나 그런 것은 동학군은 반대파니까 노략질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역적이지 쉽게 말하면.

면담자: 그렇죠. 정부 측에서 보면.

전윤오: 그때는 역적인데. 그러니까 그 창이 섞여 있으니까 국창이니까 정부 양곡이잖아.

면담자: 네 그렇죠. 정부.

전윤오: 그건 마음대로 사용해도 상관없고. 아전이나 와서 누가 못 오게 하지. 아전이야 동학군한테는 파죽지세로 밀려 갖고 뭐 별 별 떠놓고 하는데 그거.

3. <구수마을 성씨와 인구, 그리고 삶>

면담자: 구수마을에 어떤 성 씨들이 주로 살았나요. 각성바지였나요? 아니면 뭐.

전윤오: 성바지가 여러 개여, 최씨가 제일 많았고.

면담자: 최씨. 또.

전윤오: 전가.

면담자: 전씨. 무슨 전이요. 전, 전씨에.

전윤오: 차씨도 살고 김씨도 살고.

면담자: 김씨요, 대부분 최씨 전씨요, 지금 구수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나요?. 나이 드신 분들은 돌아가시고. 어때요. 이 마을이?

전윤오: 나이 들은 분은 돌아가시고 이제 귀촌이랄까 귀농이랄까, 그런데 오기는 많이 왔었는데 귀촌이라고 그거. 도와주는 단체가 있잖아 고창에.

면담자: 네 그렇죠.

전윤오: 그런데 여기 와서 불이질 못하더라고요, 아니 농사를 지을라고 해도 누가 집을 대여를 해 준다든지 팔기를 하던지 해야

사람이 들어오지, 사는 것도 아니고. 거주지를 제동을 못 하고 그러더라고, 그만 보니까. 그리고 또 팔아야 사고 건이 있어야 행사(行事)를 하지, 사고팔고를 안고, 빈집으로 놓아둬도 안 팔더라고요.

면담자: 네

전윤오: 그래, 많이 왔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여기서 1%는 붙여 갖고 사람들 못 오더라고 그리고 특별한 이.

면담자: 혈연관계나 인적 관계가 아니면은 힘들다 이거죠.

전윤오: 그리고 특별한 뭐, 별어 먹고 살 공장이 있다든지 그러면 모른다, 그런 일들이... 생계 유지할 공장이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힘 들어가고 못 살고 다 팽개쳐지더라고.

면담자: 이게 좀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그럼 선생님은 이제 좀 땅도 가지시고 그러시잖아요, 대체적으로 이 마을 사람들은 살림살이가 어땠어요. 예전에 선생님 어렸을 때요?

전윤오: 객관적으로 빈촌이라고 봐야지, 옛날에는 더 그랬지, 지금은 정부에서 노령연금이니 무엇이니 해서 조금씩 주고 이제 생계 유지 곤란하게 사는 사람들은 단체가 있어 갖고 도와도 주고 그러는데, 그때는 도와주는 거 뭐 그런 것이 없었어요.

면담자: 대개 땅 얼마만큼을 가져야 4인 식구가 살 수 있다든가, 뭐 세금도 내고 밥 먹고 살림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전윤오: 2천 평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그리고 주거지가 있어야지.

면담자: 주거지, 집이 있어야 되고, 땅 2천 평은 가져야 자식 굶기진 않는다는 말씀이죠.

전윤오: 그렇죠

면담자: 아무래도 시골이고 그러다 보니까 농사짓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 토지가 중요하지요, 지금처럼 상업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전윤오: 상업 뭐 거, 상업 기지촌이 있다든지 뭐 그러면은 여기서 사람이 살 수 있는데 농사만 지어 갖고는 뭐 타산이 안 맞잖아, 지금은 소비가 더 많잖아요, 그전보다. 그전에는 계란 같은 것

도 자기가 길러 갖고 나면 먹고 그러는데 지금 다 사 먹는데 뭐.

면담자: 네, 맞아요. 그럼 선생님, 아까 2천 평은 있어야 4인 기준으로 적어도 1년 먹고 사는데 그 땅의 지력이라고 하잖아요. 그 땅이 좀 좋은 땅에서는 더 많이 소출이 되고, 척박한 땅은 조금 나오고

전윤오: 조금, 거기서 차이나, 지금은 경리 정리 돼 갖고. 이 수리안전답이라. 네, 그런 거는 없고 막 그냥 농사 잘 지을수록 많이 나와요.

면담자: 음 그래요, 예전에는 또 뭐 비슷했을까요. 땅 크기하고만 상관있지, 소출량이 크게 차이 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전윤오: 그전에는 금비도 없고, 오줌, 똥이나 그런 거를 주로 있으면 퇴비로 사용하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쉽게 말해서 밥이나 먹고 살라고 그러지. 애들 교육이나 그런 거에 힘을 많이 못 썼었어.

면담자: 교육 관심보다 일단 먹고 사는 게 중요했지요

전윤오: 주거 환경이 월등 해 갖고 하면은 아 애들을 가르쳐야 쓰겠다 그런 건데, 우선 나 배가, 배가 고프는데 뭐 애들 가르치는 걸로 신경을 쓰겠어요, 신경을 쓸려도 재력이 없으니까 신경을 못 쓰지.

면담자: 네. 그러면 이제 이 구수마을은 지금 한 30여 가구가 살고 있고 예전에는 더 많았지만은 뭐, 아무래도 이제 인구가 적다는 말씀이시네요

전윤오: 그래서 떠난 거네요. 다 젊은 사람들은 살 수가 없지 않나. 쉽게 말해서, 자기 부모가 이틀테면 1천 평이나 2천 평 갖고 포도시(간신히) 어떻게 밥이나 먹고 살았는데, 나도 사람이라는 것은 태어나 갖고 클라면은 뒷심이 있어야 크는 거 아니야. 지금은 또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하다못해 친구끼리라도 술이라도 한잔 먹어야 하는 하고, 그런 재력이 없고 쉽게 말해서 땅이나 오전에 가서 (땅을) 파면은 쌀 한 되나 옥수수 한 되나 주면은 그런 거 갖고 우선 먹고 살아야 되

는데, 여기서 공장 집이나 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거기 가서 벌어 갖고라도 어떻게 사는데, 그런게 없으니 살 수가 없으니까 시골을 다 떠난 거요.

면담자: 그러면 지금 마을에서 가장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여기 회관 같은 데 가면 나이 드신 분들이 좀 계신가요?

전윤오: 회관가면 여자분들만 있는데 남자분들은 오도 않고, 최고령자가 나보다 두 살 더 먹은 사람 살아 있지, 여자 할머니들이 지금 나보다 한 살 더 먹은 사람들이

면담자: 보편적으로 여자분들이 더 오래 사시죠.

전윤오: 네, 좀 오래 삽니다. 여자들은 고생 많이 했으니까 오래 살아야지. 옛날보다는 고생 많이 안허지, 지금보다는 예전에 고생 많이 했지

면담자: 예전에 어머니들 참 힘드셨죠.

전윤오: 그리고 남자들이 안 하려고 해도 여자들이 힘을 써 갖고 자식새끼들 먹여 살려야 하고 남편 공경해야지. 또 시부모 공경해야지.

면담자: 그러시네요. 그러면 뭐 보편적으로 여기 평균 연령대가 지금 마을이 그럼 한 50대 60대?

전윤오: 50대 60대는 왜 없어요. 50대 60대는 몇 사람이 있어요. 몇 사람이

면담자: 몇 사람밖에 없어요, 그럼 다 뭐 80대 70대이신가요?

전윤오: 응

면담자: 점점 더 고령화되기도 하지만 실제 젊은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전윤오: 그렇지.

면담자: 선생님, 여기 이 마을에 아까 당산제를 했다고 하는데, 구수마을 당산제외 마을행사에 대해 기억하시는 것이 있나요?

전윤오: 그전에는 당산제 했지요

면담자: 네, 그전에는 했고 요즘요, 명절 때 혹시 뭐 특별히 이 지역에서 하는 관습이라든가?

전운오: 그런 것도 다 말살되고. 지금 전부 말살. 이웃사촌이란 말이 전부 다 말살됐지.

면담자: 이 구수마을의 전설이나 뭐 효녀, 열녀 이야기나 아니면 광대들의 이야기 같은 거 들으신 애기 없어요? 이 마을과 관련해서

전운오: 마을에는 광대는 없고 광대는 저 도암(두암) 거기서 이제 광대, 광대라고 한 사람이. 이 그놈은 어린 애들이나 뭐 하면 뭐 빌려 다니는 무당, 여자 무당이 있지 그런 사람은 있었는데, 이 마을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고 보통 평민으로 해갖고, 평민으로 해갖고 자기 양심을 지키고 사는 것 뿐이야.

면담자: 네, 저 집안은 예전부터 조금 좀 뭐랄까, 좀 뼈대가 있는 집안이다. 혹은 이 집은 기와집이었다 하는 집은 없었어요?

면담자: 마을에서, 향교 출입을 하고. 그놈은 향교 갔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잘했으니까 효자비 세우더라고

면담자: 여기 효자비 있어요?

전운오: 효자비 있어요, 저희 마을. 저 밖에 가면.

면담자: 마을 밖에

전운오: 마을 마을이었어요,

면담자: 마을 밖에, 정확히 어디인가요?

전운오: 네 여기서. 큰 도로로 나가면 좌측으로. 첫 번째 집이 두 번째 집이 가면.

면담자: 집 안에 있어요. 효자비가? 집 밖에 있죠.

전운오: 밖에. 그냥 육안으로도 볼 수 있어

4. <마을의 변화-새마을 운동>

면담자: 선생님 기억하시는 어렸을 때, 여기가 좀 추억의 공간이었다 하는 그런 공간은 어디인가요?

전운오: 그런 거 없고, 집이 그전에는 도로도 없었고, 박통 박통 때초가집도 없애고 좁은 길도 넓히고 해갖고 도로가 다 지금 마을길이 조성돼 있고 그렇게, 그, 그게 박통 때.

면담자: 새마을운동 때요

전운오: 새마을운동 때 전부

면담자: 조성이 됐다, 그전에는 길도 없었고요

전운오: 그냥 샛길로 적당히 다니는 거야

면담자: 네, 샛길로 다니셨네요, 뭐 교통수단이나 그 밖에 변한 것은요?

전운오: 그때서 이제 경운기, 또 박통이 있고 경운기도 절반으로 해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게 그 전에는 뭐 기계도 없고 발통기는 있었어요

면담자: 발통기요

전운오: 개인이 소유를 해도 개인이 쌀 몇 되 받고 해갖고 찢어주고 그런 거요.

면담자: 그럼 이 마을에 정비소나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전운오: 정비소가 저 여기 건너가면 다리도 위에 가(위쪽) 물방앗간이 있었어요, 다리 위에

면담자: 다리 위에. 지금 다리 있는 위예요? 거기에 물방앗간이 있었어요?

전운오: 물방앗간에서 저수지 물을 사용해놓고 방아로 금세 찢고 그랬어.

면담자: 네, 농사를 지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생계가 전부 농사하니까. 다 손으로 뭔가 해서 드셨을 거 아니에요.

전운오: 그것이 주식이고. 그것이 사람 사는 데 제일 필요한 거잖아.

면담자: 네, 방앗간이 중요하지요, 여기는 오래된 상점. 점방이라고 그러죠. 오래된 가게는 없었어요?

전운오: 점방이라고. 그 방앗간 앞에 가, 거거. 방앗간. 지금 다리 있는 데가. 주막이 있었어요.

면담자: 주막요. 네 주매. 주막에서 밥도 먹고 막걸리 한 잔도 하고. 또 뭐. 옛날에 저

전운오: 옷도 놓고, 주색잡기도 하고, 그런 집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은 허용이 안 되잖아요

면담자: 주막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 딱 하나. 그러면 뭐 이 마을

사람만 이용한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용했겠네요

전운오: 그렇지. 옛날에 저 22번 국도가 확장되기 전에는 버스도 다니고 했는데. 소로로

면담자: 소로. 네 작은 길. 네,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는 소로, 사람이 모이니까 주막도 거기 있고, 사람이 모이면 아무래도 지금으로 치면 담화의 장소가 필요하지요

전운오: 네, 그렇다고 봐야죠.

면담자: 그럼, 여기에서 멀리 안 나가고 생필품들을 구입할 수 있는 시장이랄까, 어디로 다니셨어요. 여기에서는

전운오: 여기는 법성포

면담자: 법성포 시장으로 가셨어요.

전운오: 법성포 그때는 시장이 안 서고 법성포가 굴비로 유명했잖아요.

면담자: 네, 네

전운오: 그 생선 종류는 법성포 같은디, 가서 고기 사고, 여기서 해리, 해리 장터가 이렇게 물물교환 장터랄까, 그때 그렇지 포묵 그 전에는 포묵이 비쌌잖아, 그런 걸 그 해리 시장에서 팔고 그랬어

면담자: 아. 선생님, 선생님 기억에 지금은 보편적으로 밥 한 그릇 사 먹으려면 7천 원 8천 원이라고 할 때 당시에는 선생님 어렸을 때 물가는 어땠나요?

전운오: 시장이나 가야 사 먹지, 이런 데서는 그냥, 그냥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밥 한 그릇 주는 정도였지, 옆에 사람이나 한동네 사람이라도 오면 같이 밥 먹고 그러지, 마을에서는 도움 받고 그러지, 팔기나 그러지는 않았어, 그리고 박통 이후로, 라면 같은 건 나오면 라면 끓여주면 끓여준 값 얼마 받고, 음식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 허기 달래주는 식으로, 그러고 살았지.

면담자: 네, 예전에는 인심이 참 좋았어요, 그래도 반 한 끼 사 먹으려면 그때는 가격이 얼마나 됐을까요?

전운오: 그건 잘 모르겠는데, 막걸리 한 되 먹으면, 쌀 한 되 값 바꿨

는디

면담자: 그랬어요. 막걸리 한 되 값이 쌀 한 되 값요

전운오: 그 정도 줬을거여.

면담자: 옛날에는 주금이라고 해서 술도 못 빚게 했었잖아요.

전운오: 네, 뭐 우리도 술, 농사지으면서 술만 먹다 벌금도 많이 보고, 여기는 또 정읍 세무서에서 나온 건데.

면담자: 정읍?

전운오: 정읍 세무서가 있잖아요.

면담자: 정읍 세무서 관할인가요?

전운오: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뭐, 지금도 관할은 정읍 세무서.

면담자: 그런가요.

전운오: 그럴꺼예요.

면담자: 네, 옛날에는 큰 집이 있었던 건 아니고 단지 최씨의 효자각 정도 있었고, 오래된 집도 있었지만 기와집은 없었네요, 그리고 주막도 있었고 대개 22번 국도 확장되기 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하천부지고요

전운오: 네, 고수부지가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거기서 놀기가 좋아서, 그 천변이 공유지니까 자기가 이렇게 해서 삼으로 일하게 되든지, 서로가 경작 해갖고 그때도 면사무소에서 행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를테면 소득세를 내라 할까 그런 것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심하게 하지를 않았어요.

면담자: 그게 결국 나중에 사유지가 됐나요, 그게.

전운오: 사유지가 지금은 다 돼버렸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경지정리를 하는데 사유지라고 그럼 공유지가 사유지로 다 변해버렸죠, 공유지는 쉽게 말해서 면사무소 같은 데서 관리하고 이제 공유지가 떨어진 경우에는 환경청이나 어디서 관리를 하지만 그 관리 안참여. 웬만하면.

5. <구수마을과 동학농민혁명-고창주, 최경철, 무장기포지>

면담자: 그러면 이 마을의 장점이라고 할까요. 이 마을이 예를 들어서

교통의 요지랄까 아니면 이 마을이 가지는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전운오: 좋은 건 없어요.

면담자: 거점 공간, 이 주변에서 이 마을을 거쳐야만 어디를 가야 된 다거나 지리적 요충지라든가, 왜냐하면 당시 동학농민군이 여 기에서 모였다는 것은 그런 의미도 포함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냥 고수부지, 여기 천변이 넓어서만 모였을까요?

전운오: 훈련을, 훈련을 하기가 좋아 많이 모였다는 거, 또 석교창이 있어 마을 사람들이 협조 안 해도 동학군들이 가져오지, 자기 들이 노략질을 했든지, 자기들이 가져오는 거지, 주민들이 협 조를 할 수가 없지, 끼어도 안 주고 쉽게 말해서 같은 동학군, 마을 주민하고 동학군하고 같아요. 틀리지

면담자: 네, 아무래도 이 마을에서 기포를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마 을과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전운오: 아니,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여기 출신이 참석한 사람들은 있는데, 여기 고창주라고.

면담자: 네, 고창주요

전운오: 그분이 저 비, 비석 그 비, 비석에 있는데, 이 마을에 살았어 요, 마을에 살았는데 지금은 용대로 이사가서 살고, 상하면 용 대 마을이에요. 용대마을로 이사 갔어요. 그 후손이

전운오: 고남수

전운오: 그리고 최...누구던가, 최경칠

면담자: 최경칠요

전운오: 최경칠이가 동학군에 참석했었는데, 이 마을 출신이에요. 후 손이 여기 이 마을에 살아요.

면담자: 지금요. 후손이 여기 살아요

전운오: 그런데 최경칠이가 이기화 문화원장이 책자를 발행했는데 『다시 피는 녹두꽃』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이기화가 초기 문 화원장이었어요, 그런데 이기화 씨가 문화원장 초기 여기 문화 원장이 있었는데 여기 공원을 이제 설립 해갖고 이제.

면담자: 여기 공원을 이기화 선생님이요

전운오: 네, 그때가 초기였어, 그때 그 사람들이 이제 힘도 쓰고, 비도 만들고 그랬지

면담자: 최경칠 후손은 혹시 성함이 누구신지 아세요.

전운오: 최일동

면담자: 최일동. 현재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이분은

전운오: 한 30 됐을걸.

면담자: 어 젊은 사람이네요

전운오: 네, 귀농해서 살아요.

전운오: 일동이 증조할아버지요, 최경칠이, 지금 할아버지는 자기 아 버지는 최명수고

면담자: 최명수씨는 돌아가셨어요?

전운오: 진즉 돌아가셨지요.

전운오: 비석 앞에 집이 최경칠집이여.

면담자: 비석 앞에 2층 목조집요, 옛날부터 살았던 집인가요?

전운오: 여기서 이 안에서 살았는데, 아 이 새로 와가지고. 새로 지었 지

면담자: 지금은 누가 살아요, 최경칠집은요

전운오: 전태평이가 살아요, 그 앞집하고 처남남매 간이있어.

면담자: 아 앞집하고 처남남매, 최경칠 집하고.

전운오: 그래서, 그 일 들으면 여동생이 방 밑에다 굴 파가지고 가뒀 두고 치료해줬지, 최경칠을, 방통 밑에다 굴 파가지고

면담자: 굴 파가지고요, 동학농민혁명때요, 그때 잡으러 오니까

전운오: 동학군에 갔다가 부상당해서 왔잖아. 그래 거기서 치료 해갖 고, 나와 갖고 이제 나중에 평정되니까 안 잡아가잖아. 그래갖 고, 그 집은 없어지고 다 바뀌었지

면담자: 전태평이라는 분은 지금 연세가?

전운오: 팔십 먹었지

면담자: 고창주, 최경칠 말고 또 당시 동학에 참여했던 이 마을 인물 은 누가 있을까요?

전운오: 그런데 이 옆집(전운오 옹 옆집)도 동학에 참석을 했는데 다 허물어버리고, 그러고 무장현에서 나와갔고 불질러버리고. 다

쫓아내버리고 그랬어, 옆집도 그때 참석했었는데 불 질러버리고 쫓겨나 버리고 그랬어, 도망가고.

면담자: 거기는 무슨 성 씨였어요

전운오: 그건 모르것어, 참석을 했는데

면담자: 동학농민혁명에 참가했기 때문에 관군에 의해서 불 질러 졌다는 말씀이시지요?

전운오: 불 질러버리고, 그 집 불 지를 정도면, 그 미리 도망갔지, 그럼 막 도망가버리고. 그때

면담자: 네, 잘 알겠습니다.

면담자: 선생님, 고수부지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해주세요

전운오: 요 고수부지가 그 훈련하기가, 훈련하기가 좋지

면담자: 당시 고수부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요? 형태는요?

전운오: 석교로부터 한 200m 간격이 전부 하천으로 돼 있고 모래로 다 깔려있으니까. 그전에 비 오면 저수지가 없을 때. 비오면 저 물이, 저수지 물 지금 가뉘 놓은 저수지 물이 전부 지나가니까 싹 쓸고 가잖아, 그러면 모래밭이지. 그러니까 이제 몇천 명이 모여도 관계가 없지. 그러니까 그런 장소를 채택해서, 근디 우리 할아버지 말을 들어보니까.

면담자: 네

전운오: 여기 건너서 그전에 조총 있잖아. 조총은 이를테면 탄환을 앞에서 넣어갖고, 그리고 하정으로 불 질러 갖고, 거, 그런 것도 갖고 다니고.

면담자: 네

전운오: 장수는 말 타고 다녔대요, 그리고 그 조포인가, 뭐 포, 그런 것도 있었는데 여기서 쏘면 저 건너 산, 여기서는 그 산 이름이 덕림산인데, 여기서는 마래산이라고 그래요. 마래. 말의 뒤에 있다고, 마래산, 말이 왔다고, 총을 쏘면 그 산에 가 평평 불덩어리가 떨어졌대, 그것이 조포인가

뭐 또 그 옛날에 총 있잖아요. 그전에는 조총인지, 포수들이 갖고 다니는데 앞에서 탄환을 넣고 또 화약을 넣어 갖고 쿵쿵 췌어가고, 거기다 화심이 있어야 또, 사실 뭐 팔뚝에다 달고

다니는데 화심이 뭐신거니. 그전에 숨있잖아, 옛날에 8.15 해방되고 나서 성냥이 발견되고, 그 전에 화심, 그것 보고 화심이라고 그러더만. 그걸 총구가 총구는 앞에 있고, 총구 안에 이를테면 그 화약에다 대면은 멀리도 나가고 지금 총보다 멀리도 나가고 유효 사거리가 아주 좋대요. 그랬다고 그러는지, 그것은 내가 그 총을 사용한해서 모르는데, 그 총 같은 것은 동학군이 이제 여럿이 모였으니까 만들었겠지, 그전에는 다 만들어

6. <구술마을 사람들>

면담자: 조부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전운오: 전순서

면담자: 토지대장에 전순서씨가 있었어요

전운오: 573번지야, 573번지가 전순서 대지로 있어. 그런데 미등기지

면담자: 미등기요, 그때 집은 어땠을까요. 선생님 조부님 사셨던 집의 크기는 얼마 정도 됐을까요. 혹시 할아버님이 사셨던 생활이나 당시의 이야기 것들이 있으면 기억나는 것 말씀해 주세요

전운오: 집이 사 칸이. 사 칸이야

면담자: 네 칸요, 네 칸 집에 식구가 얼마나 되셨어요. 할아버지 형제 분들요

전운오: 할아버지 형제는 사 형제

면담자: 사 형제. 부모님 다 계시고. 당시에 그럼 여섯 분이 네 칸집에서 사셨네요.

전운오: 예전에는 열다섯도 살았어요, 할아버지 자식들, 아들딸은 칠남매, 할아버지 형제는 사 형제였고, 그러니까 아버지 형제는 일곱이지, 우리는 원래 여기서 산 것이 아니라 장동에 큰 집이 있었어요. 형님이 그래 장동서 살다가 이사왔지

면담자: 그럼, 여기는 대대로 할아버지 대부터 계속 사셨어요?

전운오: 응

면담자: 직업은요? 농사지으셨어요?

전운오: 농사지었지

면담자: 선생님 어렸을 때는 서당 다니셨어요? 집에서 공부하셨어요?

전운오: 초등학교는 당겼지, 그때 국민학교라 그랬는데, 공음초등학교.
100주년도 넘었지, 기념행사도 했어

면담자: 결혼은요?

전운오: 그때는 뭐 결혼이야 주로 중매지, 연애도 했고, 중매는 옆에
아는 사람이 친척끼리, 마을사람이랑 그 소개 해갖고

면담자: 결혼식을 어떻게 하셨어요. 옛날에는 그냥 구식 결혼.

전운오 부인: 저 양반, 결혼날자 받았는데 군대가서 안 왔어

전운오: 결혼날자에 못 오고, 휴가 잡아서 나왔지, 사모관대도 쓰고,
근데 사진도 안 찍었어, 1960년대 결혼했지, 날자도 몰라, 논산
훈련소 갔다가 포천 중대를 갔었는데, 군대 휴가 나와서 결혼
한거여,

7.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

면담자: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은 있으신지요?

전운오: 한국전쟁도 요즘 사람은 기억 못허지. 나이 먹은 사람들이나
기억허지, 저 남녀 동동권이라 해갖고 상놈들 업신여긴다고 해
갖고, 뭐 재력이 좀 있다고 그래갖고 권리 행사하고, 그런 사
람들 갔다가 군, 경찰이나, 여기는 뭐 인민군도 오도 안 했어.
여기는 인민군 오도 안 하고 고창으로 해서 영광으로 그냥 공
음중학교 마당에서 저녁만 먹고 영광으로 그냥 인민군들은 갔
는데 지방에 뭐 빨치산이란 것이 있잖아요. 그 새끼들이 정치
한다 해갖고 많이 죽여버렸지.

면담자: 한국전쟁 때는 피해는 없었고요.

전운오: 그거는 인민군들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사람들이 들어 왔는데,
그냥 그냥 고창으로 들려갖고 보행으로, 그 차도 못 타고 다니
고, 다리 도로도 다 끊어버리고 그래갖고 보행으로 해갖고 운
동장에 와갖고, 무기 든 놈들 오니까, 주민들이 밥을 저녁밥을
해 줬다던가. 지들이 해결했는가는 모르는데 영광으로 가고.

그냥 그것이 쉽게 말해서 인민군들이 점령군이지. 그런데 그것
들은 그냥 지나갔는디, 빨치산이란 새끼들이 행정한다고, 공간
이 있었잖아요. 저 신대리로 올라가는 공간. 그 공간에 빨치산
놈의 새끼들이 행정한다고 해갖고 주민들 많이 죽였잖어, 그
6.25때 전쟁이 일어나고 한 열흘 만에 와부렸잖아요, 그때 이
제 박헌영이가 게릴라 포섭을 해놔줬요, 인민군이 이룰테면 게
릴라지. 그것들이 마을에 박헌영인가 그놈이 마을마다 다니며
자금주고 포섭해놓은 사람들이 있었잖아. 옛날에 그놈들이 행
정한다 해갖고 조금 깔락깔락하고 생사를 지가 쥐고 밥이라도
먹고 사는 사람들은 잘못했다 해갖고 데려다가 많이 죽여부렸
잖어. 이 건너 마을에서도 일곱 집이 몰살해버렸어요.

면담자: 건너 마을요?

전운오: 그리고 그 명예 지서장, 명예 이장, 면장 같은 사람이 있었잖
아요. 지금도 명예 이장 면장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갖다
죽여 버리고 그러고, 빨치산들이 그랬어요, 좌익은 이룰테면
거시기, 빨치산이고 우익은 대한민국 행정기관에 속하는

면담자: 아까 말씀을 잠깐 하실 때 상놈들 말씀하셨잖아요, 상놈들,
그 상놈들이라면 어떤 사람들인가요?

전운오: 무당보고 상놈이라고 했다니까.

면담자: 그러니까 무당이 신분이 낮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당시
무당들이 행세를 했다는 말씀이네요

전운오: 그렇지, 그렇지 그놈들이 빨치산들하고 같이 행세를 했지 그
놈들이, 그놈들이 이룰테면 그 빨치산들하고 같이 토지 분배라
고 했잖어

면담자: 그래요, 선생님 주변에서 실제로 보셨어요. 아니 선생님 어렸
을 때지만 당시 기억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전운오: 내가 열 서너 살 먹었지. 우리 작은아버지도 그때 한 명 죽었
는데, 전정철이라고. 잡혔다가 주재소에 잡혔다가, 데려다가 고
문 막 하고, 구덩이 파고, 밀어 넣어갖고 죽였더라고.

면담자: 그럼 이 마을에서 피해당한 사람이 많았나요?

전운오: 이 마을에서 네 사람, 구수마을에서 네 사람 죽었는데.

면담자: 건너마을은 일곱 집이 몰살당했고

전운오: 그랬는데, 우리도 죽일라고 했는데, 구두한테 이틀테면 들어 보면 박헌영이한테 포섭된 사람이 있잖나. 그런 사람이 이틀테면 그들한테 그 잡어다가, 뭐 죄목 묻고 어떻게 해갖고 혼방쳐 분하는 사람이 있잖여, 그게 그 사람은 이틀테면 얘기했지 그 사람이 와갖고, 이 구수내 사람들은 가만히 두어라. 그런 식으로 얘기 해갖고 살았어. 그럼, 안 했으면 염라대왕 봤었어. 그리고 우리 작은아버지 이거 그 양반이 전정철인디 빨치산 하나 때문에 죽었어.

면담자: 혹시 일제강점기 때 징용이나 징병 간 그런 얘기는 못 들어 보셨어요?

전운오: 우리 작은 아버지 4명이 갔었는데

면담자: 어디로 가셨나요?

전운오: 몰라, 규슈 탄광이니 뭐시기 하는데 7형제 중 4명이 갔지, 다 살아는 왔었는데 여기서 이제 생계가, 자녀분들도 다 떠나버렸어요, 서울로 다 가버렸어.

면담자: 구수마을 사람들의 상장례는 어떠했나요?

전운오: 생활이 운택한 사람이나 제사 같은 거 분명하게 지내고 그러지만 운택허게 살지 못하면 적당히 떡이나 그런 거 해갖고 지내고, 그러고 제례 같은 것은 좀 준비를 하고, 제례를 하는 그 것이, 이제 제사를 지내면 그 말 옛날 유교식으로 지방도 써붙이고,

면담자: 네

전운오: 계명독축이라고 해갖고. 닭이 2시나 3시에 울지. 닭이 울면은 축을 읽으라고, 그리고 제사가 원칙이 제삿날이 죽은 날이 아니야 그 이튿날, 죽은 날 다음날이야, 죽은 다음 날 쓰지, 그날로 안 써요. 이튿날이지

면담자: 선생님, 지금은 많이 변했죠.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초저녁에도 지내고, 또 지내지도 않고요

전운오: 지금은 뭐 자기들 마음이고, 그 전은 유교를 숭상했죠.

면담자: 결혼이나 집안 행사가 있으며 마을 잔치 같은 것도 하셨지요?

전운오: 그런 것도 있지요. 형제간들이나 사촌 간 마을에서 살면은 밥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나물 같은 것도 미리 좀 기르고 떡도 하고 그러니까 먹을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다 모이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또 처음 오잖아요. 있으면 옆에 이웃사촌이라고 좀 나눠 먹고 우리도 밥도 먹고, 그랬지

면담자: 장은 어디로 다니셨나요?

전운오: 법성포, 해리, 개갑장터가 옛날에 있었어요, 개갑장터가 장곡에 효자, 효자비가 있는데 하마비가 있어. 그 효자가 법성으로 고기를 사러 왔어요. 효자를 위해서 무장원이 그 장을 세웠어요. 그런데 장이 오래 안 가고, 얼마 가다가 끝나는가 봐. 그러게 장터라는 거 우리도 알기는 알아요.

면담자: 그럼 개갑장이 섰다가 없어졌는데 존속 기간이 오래지 않았다는 얘기죠.

전운오: 그렇죠, 원(수령)이 세태하고 일제 말에는 원이 다 세태하고 행정을 일본이 했잖아요, 장선(열린 시기) 때는 몰라요

면담자: 마을에 풍물꾼은 없었나요?

전운오: 그 장구 뭐 풍물, 뭐 장구 치는 사람도 당산제 안하면서 사라지고, 아, 장구치는 사람이 술집에 가서 장구도 치고 허더라고. 그런데 소리꾼이 그 사람, 장구 치는 그 사람만 불러왔지. 그 장구가 소리가 맞는다고. 그 사람만 불러오고 왔어.

면담자: 이 마을에 살았어요. 그 장구 치는 사람이? 혹시 성함이

전운오: 최장건이라고, 진즉 죽었지, 다옥에 가면 정기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창 장구재비 문화재요, 그러면 지금 해보라면 못현대, 지금은 가락 수가 틀린다고, 지금은 속도가 빠르고, 즈그는 늦대. 그 사람은 장구 치는 속도가 늦어, 지금은 박자 가락이 빠르고, 그 사람 다옥동살아, 다옥동, 구암리 다옥동이라고 오른쪽부터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서 살어

전운오: 지금 뭐, 그 사람들은 문화재라 해갖고 70만 원인가 80만 원씩 나온단데.

면담자: 네

전운오: 지금은 저 아산이지, 국악원이 생겼지.

면담자: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종교는 없으시죠?

전윤오: 유교 사상 뭐 이런 거지 뭐.

면담자: 혹시 여기 선생님 이 마을에 옛날에 서당은 없었나요? 공부했던 곳요

전윤오: 거시기, 여기 옛날에 유교 서당으로, 서당 있었지, 여기 우리 집 앞에 집이 있었는데 다 허물어 버리고, 거기서 서당 공부도 하고 그렇고

면담자: 선생님 어렸을 때 서당이 있었어요?

전윤오: 학교 다니기 전에 서당 다녔지 그 시절에, 그러니까 한 뭐 그래서 40년대 정도에 1940년대 50년대지,

면담자: 그럼 서당 하시던 선생님. 훈장 선생님 성함도 기억하시나요?

전윤오: 김재왕 씨라고 무장 옥산에서, 진사 초시를 한 분이야. 공음 대정이 집인데 여기서 서당도 했지, 호는 해은이여

면담자: 여자들이 모이는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빨래터, 우물터이겠네요?

전윤오: 마을이, 여기는 저 하천이 있어서 빨래는 거가 해

면담자: 여자는 하천에서 빨래하고 남자들은 아까 주막에서 모여서 잡기하고 그 외에는 공공장소라고 할까요. 그런 장소는 없었나 봅니다.

전윤오: 그런 건 없어.

전윤오: 마을은 확장만 좀 됐지, 옛날 그대로여, 변한게 없어

8. <일제강점기 일본 천기농장 물 독점이야기>

면담자 2: 여기 혹시 일본 사람이 있었는지, 일본인 소유 농장에 대해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요

전윤오: 일본 사람요? 여기 천기농장이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저수지도 막고 저거 매물고지, 불교도래지 거기도 막았거든. 그래갖고 여기 저수지 물은 그냥 법적으로 다 빼갔지. 그때는 해독이 났잖아, 물이 계속 들면 들어가고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소금기가 위로 올라오니깐 여기 물을 빼다

가 그 천기농장으로 전부 가져갔어. 그리고 여기는 52정보인가를 물을 주기로 하고 막았는데. 지들께 급허니까 그 천기농장에 직원들을 전부 배치 해가지고, 뭐 여기는 저수지가 없을 때는 보(淤)가 있잖아. 보에서 물을 대야 되는데, 그들이 보를 지켰어. 지켜 갖고 물을 걸러 다 빼가고. 그래가지고 여기 사람들은 농사를 8.15 해방 전에는 못 지었어. 잘

면담자 1: 물이 없었군요, 해방 전에는, 이제 일본이 패망하고 가면서 천기농장도 없어졌지요

전윤오: 한국사람이 사니까. 한국토지니까. 이제 물은 마음대로 지금은 저수지를 전라남도에서 관리해 여기는 지나가는 물이라, 조금 52정보만 되고, 해독 때문에 물을 계속 댔어, 그래 지금 그 매물고지가 가면 전천후 농장으로 해갖고 물을 뿜어 올리는데가 있어

면담자 1: 네 전천 후

전윤오: 농장을 물을 뿜어 올리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품으면은 여기 삼당리까지 물이 올라와

면담자 1: 삼당리요?

전윤오: 석삼자 삼,

삼당리까지 물이 올라온다고

면담자 1: 네, 물이 들어온다는 거죠.

전윤오: 이 경우 농장이 밑에다 물이 다 내려가면, 그래 더 올려서 전천후 농장에 있잖아.

면담자 1: 네 매물고지, 아까 말씀하신 불교도래지, 법성포가 여기에서 가깝지요

전윤오: 조선시대 거기 군량 거기

면담자 1: 거기 창고가 있었어요

전윤오: 세금 실어가는

면담자 1: 네

면담자 1: 뭐라고 했어요? 거기를.

전윤오: 석교

면담자 1: 석교, 석교는 아까 창고였고, 법성포에도 창고가 있다니까

요. 법성포에도

전윤오: 법성포에 가봤지

면담자 2: 네

전윤오: 그 터까지 다 가봤고. 조사해봤지

면담자 2: 그러셨어요

전윤오: 그러면 거기 문화원장이 이야기도 해 주는 게

면담자 1: 영광.

전윤오: 영광 세곡은 그 법성포에서 일을 했던가 봐. 왜, 그 문이 그 수로가 있으니까 배로 실었다고.

면담자 1: 네, 그러면 지금 그 바닷가 이쪽에 법성포 거기도 위쪽에 있었겠네요. 해창이

전윤오: 바닷가에

면담자 1: 제가 거기를 얼마 전에 갔거든요, 법성포창, 거기 조사를 하려고 답사를 다녀왔는데 번지가 현재 바닷가 위쪽이고, 그 곳에 해창터라는 이정표가 있었어요, 언뜻 생각하면 일반인들은 바닷가 쪽에 해창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바닷가 평지 쪽은 굴비판매장만 있고 실제 해창터는 바닷가 위에 있어서, 개발로 지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적지 위치를 고증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윤오: 맞아. 그 창이 거기에 있어. 그때 나 조사가서 들었는데, 그 창에다가, 근데 그 문화원장이 그때도 이야기를 했을 거라 물어보니까 여기 문화원장이니까 가서 물어보더라고. 그거 저기 굴비 장사에 있는 데는 매립해서 저기 집을 짓고, 그 안길, 안길위에 있던 창이 있었다고 그리고 그 집이 지금도 있다는데.

9. <구수마을 지주, 소작관련 이야기>

면담자 2: 혹시 여기서 머슴 같은 것도 부렸었나요?

전윤오: 머슴은 우리 아버지 때

면담자 1: 네, 선생님 아버지 사셨을 때, 그때 시기요, 한국전쟁 때 뭐 머슴이 다 없어졌다고는 하잖아요, 선생님 어렸을 때에는 머

슴이 있었네요

전윤오: 나중에도 없는 사람은 남의 돈 받고 여기저기 일하러 다니는 것보다 한집에서 사는 게 나았잖아

면담자 1: 네

전윤오: 그 후로는 뭐지. 남의 집살이 하는 사람들?

면담자 2: 왜냐하면 여기, 천본막동(天本莫同)이라고 있는데 천본이 여기 전씨 집인대요?

전윤오: 응 천본막동이라고 있어. 이를테면 증조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형제간이야

면담자 1: 아까 말씀하신 조부님 순서 선생님의 동생이신가요?

전윤오: 형제 관계지

면담자 2: 그러니까 같이 토지를 물려받으신 분이

면담자 1: 아마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토지대장 보시면 아마 좀 기억을 나실 거네요.

전윤오: 다 알지, 내가

면담자 1: 혹시 김관익, 김관익씨 후손은 누구지? 혹시 서철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기 집 안에 서 씨, 구수마을에 서 씨 있어요?

전윤오: 서씨는 모르겠는데 남자 서씨는 없어.

면담자 2: 땅을 받았다가 다 전씨한테 물려줘요, 전체를 다 산 걸로 나와요

면담자 1: 서씨가 다 샀대요. 서철영요

전윤오: 서철영이가 들어보면, 법성 사람인데

면담자 1: 법성 사람이예요?

전윤오: 법성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서철영이 땅을 팔 때, 우리 집에서 인수했나 봐.

면담자 1: 네, 인수하셨군요

전윤오: 그냥 공짜로는 아니고, 서철영이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땅은 지주 이름이야, 그 사람 애길 들어보면 법성서, 뭐 돈을 많이 벌었는가 봐.

면담자 1: 땅도 사고 다시 넘기고 자기가 농사를 못하면, 여기 보니까

제주도에 있는 사람도 여기 땅을 소유하고 있는 걸로 나오
던대요?

전운오: 김영환인가? 황영환인가?

면담자 1: 황씨, 황씨 맞아요

전운오: 황영화⁵⁰⁾

면담자 1: 그 사람이 제주 사람인 건 확실히 아시네요

전운오: 제주도 사람이여, 그런데 그 사람이. 선재[선대]를 치료
당기더라고. 선재 치료 당겨. 선재가 일년 치 대금

면담자 1: 아 선대

전운오: 선재, 선재(선대의 사투리)

면담자 1: 선재라고 불러요? 옛날에 토지를 임대 해주고 세를
받는 것어요?

전운오: 부지를 관리하면은 내가 농사지어 먹고

면담자 1: 얼마 받는 거, 고지⁵¹⁾ 세금

전운오: 그것 보고 선재라고

면담자 1: 선재라고 그래요? 선재. 먼저 돈을 받는 거네요?

전운오: 아니 먼저 지어 갖고, 농사지어 갖고 선전. 농사를 잘 지었으
면 돈을 더 받고 농사를 못 지었으면 조금 받고.

면담자 1: 선생님 이게 소작이잖아요, 소작을 준 거잖아요.

전운오: 그렇지, 소작

면담자 1: 소작인이죠. 그러면 황영원이 땅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님
지주네요? 땅을 소작을 준거잖아요. 집이 제주도고 여기 구
수마일에 토지를 가지고 있고

전운오: 그렇지 소작이지

면담자 1: 그럼 여기 사는 다른 사람한테 땅을 일구라고 빌려준
거죠?

전운오: 뭐 그렇지

50) 토지대장에는 소유주가 황려석으로 전운오 웅 어렸을 때는 황영환이 자손일 수
있다.

51) 고지란 논 한 마지기에 값을 정하여 모내기부터 마지막 김매기까지의 일을 해 주
기로 하고 미리 받아 쓰는 값. 또는 그 일. 가난한 농민이 농번기에 이르기 전에
식량을 대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

면담자 1: 그러면 선생님 그때 당시에 소작료가 얼마였어요?

전운오: 한 섬씩

면담자 1: 한 섬? 한 가마니?

전운오: 아니 두 가마니

면담자 1: 지금은 두 가마니, 옛날엔 한 섬?

전운오: 54kg 두 가마니.

면담자 1: 54kg 두 가마니요? 옛날에 80kg 아니었어요? 한 섬
에?

전운오: 그때는 54kg이었어

면담자 1: 54kg 두 가마니가 한 섬이죠. 한 석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한 섬이라고 하죠?

전운오: 섬은 가마니가 아니고, 섬은 네 짚을 엮어서 망치는 거고, 가
마니 이게 새끼 꼬아 갖고 이거 치는 것이 가마니고, 섬은 짚
으로 엮는 거여.

면담자 1: 옛말에 빈 섬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 말 있잖아요.

전운오: 그러게 섬은 짚으로 엮어갖고 한정이 안 돼 있어, 갖고[그래
서], 많이 담으려면 많이 크게 하면 돼, 그런데 가마니는 한 가
마니만 담게 만들었잖아.

면담자 1: 아, 한 가마니만 딱딱하게 그게 54kg지요?

전운오: 54kg지

면담자 1: 한 가마니, 그럼 그 당시에 얼마의 땅을 빌려 소작을
해야 두 가마니를 받아요?

전운오: 200평

면담자 1: 200평 기준으로

전운오: 응. 대개 200평. 200평 먹고. 여기는 한 마지기라 그래.
만 데는 150평도 하고

면담자 1: 네

전운오: 지역마다 틀려

면담자 1: 그 한 마지기 200평을 소작인한테 주면 한 해에 두
가마니의 쌀을 세금으로 받았냐?

전운오: 아니 나락으로

면담자 1: 네, 나락으로 받았죠. 나락으로 그렇죠.

전운오: 나락으로

면담자 1: 나락으로 받는다.

전운오: 가져갔어, 가져가서 지들끼리 찢는겨, 자세히는 그전 모르고

면담자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는 대개 그럼 논농사를 지었네요, 밭농사 혹은 보리농사도 지었지요?

전운오: 밭농사도 있지, 그 전에 보리 해갔고, 보리는 주로 주식으로 하고 쌀은 이제 세금으로

면담자 1: 세금으로 내고

전운오: 세금 내고, 쌀이 비싸니까 돈을 받기 위해서 팔고

면담자 1: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쌀 것 먹고, 돈 되는 것은 팔고

전운오: 보리는 싸니까

면담자 1: 싸니까 먹고.

전운오: 그래갔고[가지고] 어른들은 쌀밥 드리고쌀 따로 하고, 보리 따로 밥허지, 어른들은 이제 조금, 어른이라고 대접해 준다고

면담자 1: 그러니까 제주 사람은 지주였고. 여기 땅을 가지고 소작을 주었네요

전운오: 지주여, 그거 제주 황영화라는 사람이 나 어렸을 적에 선제 치러 오더라고

면담자 1: 그러셨어요

전운오: 그러면 그때도 아이루라는 것이 있어요, 아이루

면담자 1: 와이로[わいろ]요? 뇌물 같은거?

전운오: 아이루 쥐가지고, 넘겨주는 거지, 그러면 닭 한 마리 잡아주면 조금 감해주고 이제 그래. 안 하면은. 혼자 멜 만치 매고

면담자 1: 네

전운오: 그런데 우리 집이 그 황영화라는 사람이 오더라고, 오면은 우리 집에서 자고 가고 그러는데 닭도 한 마리씩 잡아주고

면담자 2: 네

전운오: 그랬었지. 그 황영화라는 사람은 우리도 내가 봤어. 그러니까

지금은 기억에 다 잊어버렸어.

면담자 1: 그래도 다 기억하시네요,

전운오: 그 사람이 사갔고, 선재를 계속 소작권을 주는 거여

면담자 1: 계속해서요

전운오: 그래도 네쁜 놈은, 소작권을 뺏아 갖고 네쁜 놈한테 주고, 미운 놈은 뺏어버려

면담자 1: 네 그랬어요, 일제강점기 때.

전운오: 일제강점기, 그래

면담자 1: 그러니까 지주소작제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 서철영이라는 분이, 왜냐하면 오히려 조선시대에는 소작을 주면 관습적으로 계속 짓게 했어요. 그런데 일제강점기는 근대라는 개념으로 뭔가 자유롭게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을, 그러니까 오히려 소작인들이 더 힘들고 지주의 힘이 더 세지게 되고, 그랬지요

전운오: 지금도 그래

면담자 1: 지금도 그래요, 그때는

전운오: 그전에도 그랬어, 그전에도. 그러면 지주가 마음에 안 들면 소작권을 뺏어버려

면담자 2: 근데 약간 다른 게, 진짜 황 씨. 제주도에 황 씨가. 서철영 있으신 분은 전씨 가을 인수하기 전에 이 땅을 가지셨던 분이요

전운오: 지주. 법성 지주라는 거

면담자 2: 이분한테서 이 전씨 가문이 땅을 산 거였고 제주도에서 여기에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황 씨. 그 선제 받아 온 사람이 황 씨.

면담자 1: 황 씨. 선재 받으러 온 사람이 황 씨, 그 사람이고 여기는 이제 전씨, 전운오 선생님. 이쪽 가문에서 이전에 땅을 매입했다는 거지. 서철영으로부터, 그래서 서철영이 선재 받으러 온 걸 기억하신다.

전운오: 서철영이는 상환감으로 우리가 주고, 소작권이 있고 저작권이

면담자 1: 저작권이 있고. 저작권으로 자기 땅으로

전운오: 그건 상환량에 의해서 저작권이 된 거고 그러면 상환량을 한 자리 일 답이니 해갖고 일 답으로 얼마 한 답으로 얼마 하면은 그 사람한테 일들을 이승만이가 해결을 했지. 이승만이가 대통령 때일니까(농지개혁)

면담자 2: 네

전운오: 옛날에 그랬어, 저작권있는 사람이 몇 사람 없었어.

면담자 1: 자작농이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소작농이

전운오: 소작농은 그러면 돈 있는 놈이 이제, 돈 없어도 자기가 좀 세력이 있으면 그때 금융조합이잖아. 금융조합에다 설정을 하라고 자기 앞으로. 그러면은 이전을 안 해도 거주지, 거주지 설정하고 하잖아, 돈 주고 그러면 등기 설정하면 선지 받아 갖고 다 해결을 안 하는 거지. 그러면 자기 땅이 돼버리잖아.

면담자 1: 네

전운오: 설정을 해갖고, 그러니까 토지 설정을 하면 돈 몇 푼 주고, 잡은 놈이 설정을 한다고

면담자 1: 네, 네

전운오: 그렇게 하면 자기 땅 되는거지

면담자: 오랜 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2. 표을중



- 1941년 공음면 용산마을 출생
- 1988년 현 공음면 소재지 입거
- 고창 공음면 향토서적 집필

○ 개 요

- 구 술 자 : 표을중
- 면 담 자 1: 정성미
- 면담주제 : 공음 마을의 역사 및 동학운동이야기-무장기포지와 송문수
- 면담일시 : 1차 : 2021년 10월 8일 오후 2시 30분
- 면담장소 : 자택
- 면담차수 : 1차

○ 요약

남다른 애향심을 가진 표을중씨는 공음지역 마을을 직접 답사하시고 책을 직접 집필하실 정도로 열성적이신 분이다. 공음면의 지리적 이점과 관련 역사문화를 소개해 주셨으며, 특히 동학

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주셨다. 그중 구정마을 천안 전씨 천석꾼이 동학농민군에게 주먹밥을 공급했던 이야기, 경계를 썼던 자리에 남은 옷판바위 등의 이야기가 흥미롭다. 또한 송문수에 대한 자취를 찾기 위한 그 동안의 과정과 노력에 대해 말씀해주셨다. 결과적으로 송문수는 용산마을 출신이며 여산 송씨이고 이와 관련한 증손들의 통교 이야기는 흥미롭지만 실지 노력한 만큼 관련 기록물이 있거나 무덤의 자취를 증명할 수 없어 안타깝다. 그 밖의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당시의 일화 또한 생생하게 들어볼 수 있었다.

○ 목차

1. <공음 마을 이야기>
2. <무장기포 관련 이야기-천석꾼과 옷판바위>
3. <송문수 이야기>
4. <일제강점기 시절 이야기>
5. <한국전쟁 이야기>

○ 표을중 면담 전문

면담자: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표을중: 표을중입니다.

면담자: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표을중: 지금 팔십 한 살이요.

면담자: 계속 여기 공음에서 사셨지요?

표을중: 네.

면담자: 선생님 선대(先代)에도 여기 공음면에서?

표을중: 네.

면담자: 네,

1. <공음마을 이야기>

표을중: 원래 이웃 마을이 내 고향인데, 거기 거기서 살다가 여기 오니까 여기로 이사한 지가 얼마 안 돼요, 88년도에 왔어요.

면담자: 그러세요, 그럼 이 마을이 정확하게 명칭이 무슨 마을?

표을중: 여기는 공음면 소재지이고요, 저는 용산에서 살다가, 용산마을에서 살았어요.

면담자: 용산마을에 사셨다가 지금 이곳으로 오셨는데 지금 이곳 지명은요?

표을중: 이곳은 공음 소재지이고 원래 지명은 진목정이에요.

면담자: 진목정이요?

표을중: 네, 참나무재라고 해가지고 참나무 진 자를 써서 진목자. 그 옛날 어른들 말씀이고. 왜냐하면, 이게 그래서 이 참나무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뭐 중간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나무, 참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도로까지 다, 가로수도

면담자: 네, 여기가 참나무가 많았다고 해서 참나무 마을. 진목정이군요.

표을중: 공음 소재지가 상평와 하평으로 나뉘었어.

면담자: 네, 선생님 여기에서 무장기포지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표을중: 여기서 4km도 못 돼요. 한 3.5키로인가..?

면담자: 그러면 여기는 옛날에 고창읍에서 기포지로 가는 길목이네요.

표을중: 그렇죠.

면담자: 네, 무장기포지도 가깝고, 여기는 면내 진목정이고. 뒤쪽으로는 용산마을이네요.

표을중: 네.

면담자: 이제 또 내려가면 이제 그 구수마을이 있고.

표을중: 구수마을은 이제 상하쪽으로 가야지.

면담자: 네.

면담자: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은?

표을중: 그냥 농사꾼이지.

면담자: 선생님께서 마을에 관한 책도 내셨어요,⁵²⁾ 마을의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표율중: 동기라는 것은 내가 사실은 잘 알지는 못했고. 이제 들은 풍문이라든가 또 살다 보니까, 그 역사 속에는 너무나 물어가기에는 아까운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전라북도에서 고창군처럼 문화유산이 많은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뭐냐

면담자: 네

면담자: 선생님이 기억하시는 동학 농민 관련한 이야기나. 혹은 여기 마을에 대한 생활사 이야기, 이런 것도 하나씩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율중: 네, 사실은 우리 지금 전라북도에서 남원이나 이제 유래가 제일 많은 곳은 사실은 전라북도 고창이에요. 1개 군에 3개 성(城)이 있는 군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저 고창에는 맨 처음에 무장 읍성이 생기고, 그 다음에 고창 장사성⁵³⁾이 있어요. 상하면에 장사성, 근데 장사성은 잘 안 오는데. 역사에 보면 장사성이 있었는데. 여기 이쪽에는 그 영광군에 많이 속해 있었어요.

면담자: 네.

표율중: 그래 가지고 보다 보니까 마을 지명이라든가, 이것도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원래는 그거였어요. 이걸 책을 쓰는데 한 마을에 세 번 정도는 가야봐 돼요, 책으로 그냥. 나도 안 봐요. 자기네 마을이 안 들어가면 (책을) 안 봐, 그래서 봄, 가을, 여름에 이렇게 해야 하는데, 혼자하기는 너무나 벅차서 어떤 친구에게 부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책 보는 사람이 있더냐고, 한마디로 거절해서 사실은 그만두게 된 거네요. 그래 가지고 자료만 남겨놔었는데,

52) 김한오, 표율중, 신계원, 김영철, 『공음, 걸음마다 천년의 이야기』, 도서출판 기억. 2015.

53) 상하면사무소 뒤 동남쪽에 있는 장사산 정상에 산성 터가 있고 성터 부근에 많은 자연 석재들이 흩어져 있으며, 『신증동국여지승람』 무장조와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성곽조에 “옛 장사는 지금의 치소[무장]에서 북쪽으로 20리에 있다. 석성 터가 남아 있다[古長沙 在今治北二十里 有石城址].”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때 그 이강수 군수님이 그 자료를 가져오라더만요, 문화원에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내가 뭐 내놓으라 할 글도 아닌데, 거절을 해버렸었어요.

그래 군수님들 집에 자주 오시고 해서 그걸 잘 알아. 그래서 팔각정을 짓게 된 동기도 그 군수님이 협조를 해줘서 짓게 됐고, 한 4km가 거의 되는 한 시간 40분 정도 걸어야 돼요 이 마을 저기를 둘러보면, 그런데 용산마을이라는 데가 지금 팔각정 지어진 곳이 이 7개군 땅을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곳이에요.

면담자: 네

표율중: 그래서 한때는 광주 포대 사령부에서 거기다가, 기포 기념도 만들어놓고 했었는데 동학군들이 거기서 숙영을 했다고 그러니까, 일본군들이 와가지고 태평양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무엇 때문에 여기서 숙영을 했나. 그렇게 조사를 한 결과 여기가 군사 요충지였어요.

면담자: 네

표율중: 그래 가지고 지금, 사실은 이 마을 바로 뒷산에 가 토굴이 스물두 개가 있습니다. 스물두 개가 있고 빵카(병커)가 두 개나 있어요.

면담자: 병커요

표율중: 병커라는 것은 시멘트로 해서 견고하게, 네 폭탄이 떨어져도 안 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굴이 있었고 아 여기 있어, 그렇게 해놔는데 이 공음지역이 고창군에서 문화유산이 제일 많은 곳이에요.

면담자: 네

표율중: 네 ,그래서 산 아래에 또 가면은 뭐냐 그 전방후원분 고분⁵⁴⁾이 있어요.

면담자: 네

표율중: 그 책에 다 해 놔습니다만은 고분도 있고. 일본 분들이 일본에서 대학교 교수들이 10명이 본다고 해서 몇 차례씩 알아요.

54) 공음면 칠암리

네 그래서 거기도 이번에 복원해서 다 좋게 해놨는데.
 여기에 보고 함평으로 가요 그분들이. 그래서 지금 고창에 있는 아산
 고분보단 훨씬 오래된 곳이라고 그러더나. 그분들이
 면담자: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은 공음이 군사적, 지리적 요충지라는
 말씀이지요
 표을중: 네
 면담자: 공음면에 아까 일곱 개의 여러 마을이 있다고 하셨죠.
 표을중: 네,

2. <무장기포지 이야기-웃판바위>

면담자: 선생님 말씀은 공음지역은 군사적 요충지여서 동학농민혁명
 당시에도 똑같은 지리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표을중: 네. 여기서 지금 바다가 아주 가까워요. 그냥 올라가면 바다
 는 막 기포지도 그렇고 공음에가, 지금 젊은 분들은 잘 모르는
 데,
 면담자: 네
 표을중: 포가 있었어요. 네 석교포라고, 석교포가 있었는데 동학군들
 이 기포지에서 그 포고문 낭독을 하고.
 면담자: 네
 표을중: 거기에서 배를 타고 곶소를 거쳐서 정읍으로 갔던 거네요
 면담자: 네, 부안을 거쳐서
 표을중: 네, 그래서 거기가 좀 다니다, 그 갈대밭이었는데, 이 기포지
 가 갈대밭이었어, 구수마을이라는 데가.
 면담자: 네
 표을중: 그래 가지고, 그 정부군하고 이렇게 육지로 걸어가면 정부군
 하고 다툼이 생기니까
 배를 타고 그렇게 가고
 면담자: 아 배를 타고요?
 표을중: 네, 일진은 지금 그 동학정 세운 곳인데 그 길로 온 거네요.

면담자: 네
 표을중: 거기 와가지고 거기서 일진으로 이진으로 가는 거네요
 면담자: 네
 표을중: 무장 읍성을 칠라면은 이진으로 넣어 가지고
 표을중: 왕자산이란 산으로 일진이 가고. 바로 무장이 바로 보이는 왕
 자산이 있어요
 면담자: 왕제산이지요? 호산봉 말이지요?
 표을중: 왕제 임금 왕 제자 왕제산. 그래 가지고 그 일진이 태우면 바
 로 뒤쫓아 가라고 했던 것이 이제 용산에 지금 동학정 세워진
 그거에 대해서 숙영을 했던 곳이에요
 면담자: 그러면 왕제산에서 숙영을 했지요? 일진이
 표을중: 네, 네
 면담자: 그 다음 이진은?
 표을중: 일진은?
 면담자: 동학정에서
 표을중: 네 동학정 거기에서, 용산마을 뒷산에 거기서
 면담자: 네
 표을중: 일진이 패하면 무장읍성 새로 가지고 패하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바로 협조를 해가지고 안다투고, 그 대신 그 동
 학군이 몇 명인가 되는가, 모르겠는데 그 밑에 가 그 구정마을
 이라고 있어요.
 면담자: 네
 표을중: 구정마을이라고 있는데 구정마을에 그 옛날에 천석꾼이 살았
 대요. 그런데 거기가 전씨 집성촌이에요.
 면담자: 구정마을이요?
 표을중: 네 구정 신대, 그 바로 가, 신대고 구정인데, 천안 전씨 같은
 집안이고 그러니까 다른 데는 안 되니까, 내가 그 천석꾼 그분
 한테 주먹밥을, 부탁하면 어른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절대로
 내일 먹을 밥을 개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아침
 에 전령을 보내서 몇 개 해달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 점
 심 겸 아침이지, 뭐 밥이나 제대로 먹겠어요? 그래도 보통 한

3~400개를 만들었습니다. 가게에서. 그래서 거기서 협조를 많이 얻고, 그래 지금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가 옷판 바위라고 해요. 그리고 그 고개 보고 옷판 고개라고

면담자: 옷판 바위가 구정마을에 있단 얘기에요?

표을중: 아니, 아니 산 정상위, 동학정 가는 길에

조용호 : 용산가는 길목에...

표을중: 그래가지고 거기 옷판 바위가 왜 옷판 바위냐 하면 동학군들이 숙영할 때 지금 같으면 보초를 안 서겠어요?

면담자: 네

표을중: 할 일이, 지금 놀이기구가 없으니까 거기서 옷을 놀았던 가봐, 그래서 지금도 사실 옷판이 새겨져 있어요. 그 사이에가

면담자: 아 그래요? 숙영지에 옷판 바위가 있다. 천석꾼의 도움을 받아서 주먹밥을 갖다 먹었다는 말씀이군요

표을중: 일꾼들 시켜서, 네 이렇게 갖다 먹었다고 그래요.

면담자:그럼 무장기포와 관련하여 왜 구수마을에서 기포 하였을까요?

표을중: 바로 바다가 가깝고 또 거기가 전씨가 거기서 살았어요. 그게 전봉준 장군이 그걸 계기로 해서

면담자: 구정마을에

표을중: 네 그랬던가 봐요

면담자: 그러니까 어떤 인적 · 물적 자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시네요

표을중: 인과관계 그런 거라든가. 맞다고는 제가 할 수는 없는데, 그런다면. 석교창포(石橋倉浦)라는 그 거기가 바로 바로 보여요. 한 1~2km도 못 될거요, 네, 기포지에서. 돌아가면 2km 그냥 가면 1km 남짓 돼, 보여 거기 마을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가기도 좋고 고부로 가기도 좋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던가 보죠.

3. < 송문수 이야기>

표을중: 그래서 우리 마을에 가 송문수

면담자: 네, 송문수

표을중: 네, 송문수 씨가 많이 나오는데 그분은 족보에도 이름이 안나오고, 내 그걸 그 무슨 말 뭐라나

면담자: 동학농민군지도자 송문수 씨가 여기 출신이세요?

표을중: 우리 마을 출신이죠.

면담자: 용산마을?

표을중: 네, 어른들 말씀 들어보면, 네 지금. 그 양반이 생존해 계신다면 아마 백 한 오십 됐을 거네요. 근데 그분은 그 거기도 따라다녔데.

면담자: 어떤 어른이 송문수를 따라다녔다고요 어렸을 때?

표을중: 그럼 못 오게 하고 그랬다고

면담자: 자기는 어렸고. 지금 생존하셨으면 150살이라 하면 지금 그럴겠네요. 2020년, 네.

표을중: 그랬는데 그, 그분이 딸만 하나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사실은 손(孫)들이 있어요.

면담자: 송문수 씨의 딸이 하나 있다고요?

표을중: 네, 지금 저기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손들이 있는데도 그것이 없는 거로 돼 있어.

손이 없는 걸로, 근데 그걸 바로 잡아주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것이. 그래 저기 저 진회장님(진윤식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장)도 나하고 같이, 그걸 바로 잡아주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안 되더라고

면담자: 네

표을중: 근데 집도 있고, 지금 근데 그때는 가명을 많이 썼던가 봐요. 왜냐하면 삼족을 멸하니까 그 집안이 완전히 망할라했나봐

면담자: 그러면은 그 송문수 그분 집을 아시나요?

표을중: 바로 여기 우리 마을 살던 마을이에요, 그런 집도 그대로 있어 지고

면담자: 집도 그대로 있고

표율중: 지금 집은 비어 있습니다마는, 그 손들도

면담자: 어쨌든 이 구수마을과 가까운 곳이고 집도 현장성이 있고, 토지대장이나 제적등본 등을 확인해 봐야겠네요

표율중: 제적등본, 이미 다 해볼 거 다 해봤어요.

면담자: 그래도 없어요?

표율중: 안 돼요, 송문수씨가 나오더라는 근데 내가 한 번은 거기를 가니까 그 마을을 가니까 그 마을에 가 내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갔더니 노인 양반이 나보고 뭘을 겁나게 내놓고, 책 같은 걸 내놓고 불을 지르려고 하면서 나보고 뭐 아니다,(움직이심)

면담자: 뭐든지 자료 좀 보시게요

표율중: 가니 자료는 송문수씨에 대한 그래 가지고 가서 보니까 고창에서 만나자는

편지가, 딱 요만한 벽지 같으면 요만한 것밖에 안 돼요.

면담자: 누가요?

표율중: 누구라고 안써졌어요, 고창으로 오라는 그 ‘송문수 아비야’, 해가지고 써져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 책은 족보고 안노인 양반이. 저기 이 책은 족보고 이 편지를 꼭 두시요, 이거는 송문수 씨 앞으로, 당신네 할아버지 앞으로 온 편지요, 그것만 있었어도 자료가 돼. 맨 처음에, 그랬는데 족보에다 두었는지 어디로 착실히 두었는가, 어쨌든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네요. 그 족보를 이제 아들이 서울에서 사는데 말하자면 송문수 씨 네로 한다고 하면 증손자지. 그리로 보냈는데 그 자료가 없어져버렸어. 그것만 있었어도 되는데

면담자: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 송문수 씨는 손이 없다고 했는데, 그 선생님이 살던 용산마을에. 송문수 집들도 그런데 거기 그 마을에 어떤 집에서 그런 자료가 나왔다는 얘가지요? 그렇죠?

표율중: 그 집에서

면담자: 송문수 집에서, 집에서 자료가 나왔는데. 그럼 아까 그 증손이라는 분은 송문수 증손이라고 그랬는데 후손이 있다는 얘기

잖아요.

표율중: 있죠. 근데 아까. 근데 딸만 하나 있는 거로 되어가지고, 딸은 이제 나이 오래 먹었으니까 돌아가셔버렸고, 증손이 그래가지고 거기다 나 지금 고창 초등학교 교편 생활하다 지금 어디. 저쪽으로 어디로 갔다 해. 아이, 증손이 들이에요. 그때 아들도 송재철 씨라고 아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다 숨겨버렸던 모양이에요, 그런데다가 그 묘를 보니까 묘에도 송문수씨라고 나와 있들안해

면담자: 지금은 동학혁명 가담한 사람분들 참여자 등록까지 하는데, 그 증손은 그런걸 안하셨나봐요

표율중: 어디, 그런 데 신경을 안 써 버리니까

면담자: 그래서 증거가 없다는 얘기죠? 성도 바꾸시지도 않았는데요

표율중: 그러게 지금 증거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죠, 후손도 후손은 있지만.

조용호: 나타나도 족보에도 없고, 제적부에도 없으니까 사실이 기라 해도 유전자 검사할 수도 없고 하니까, 아네 안 나타나버리는 거죠.

면담자: 아까 그 무덤에는, 송문수는 빈 무덤이나요? 혹시

표율중: 빈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창공고에 그 옛날에 한번 그 저기 저 망치 무장에 망치, 네 거기에 한번 고창에 공고에 해가지고, 그때는 텔레비가 없을 때니까 방송에 한 번 나오더라, 용산사는 송문수. 근데 용산에서 산다고도 안 했고, 지금, 지금 현재 나온 결론으로 본다면 당산리라고 해가지고, 그 기포지 거기서 살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 근데 자료를 찾는다 면은 내가 사실은 또 여기 장성까지. 가면서 내가 그 자료를 수집할 수도 없고, 그거 애들 보고 하라 해도 안 되, 내가 또 그 호적계장님한테 부탁해 가지고 그 자료를 준비하려고 보니까, 안 나와, 왜냐면은 그 일본 시대 때 이후로 그전에 돌아가신 양반들은 제적부에 안 나온다고 하네. 제적부에 안 나온대.

면담자: 네, 그 저도 지금 제적부를 지금 받아서 봤는데, 지적도나 토지대장에 나오는 소유주만 관련해서 나오니까. 그 전대는 안나

와요,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 당시는 한 20여 년이 지났고, 자손의 이름을 정확히 알아서 고창군이나 관련 지역의 협조를 얻어 일일이 대조해서 찾는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표율중: 네 그래요. 그것도 그렇게 해보니까 다른 데 범성사람한테 그 친척 되는 분한테 혹시라도 이 윗대에서 이렇게 쪽 내려 오는 게 있나 해서 한번 가봤지. 거기도 잘 모르고 그 옛날에 그 무엇이나 땅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하면은 그 토지 소유자로는 나왔을랑가 모르는데, 거기까진 내가 뭐 조사를 못 하고

면담자: 선생님 말씀은 이제 송문수라는 사람의 태어난 곳도 알고 있고, 그 자손들도 있는 걸 확실히 아는데, 증거 자료가 없고, 그들도 나서지도 않고 어렸을 때라. 그래서 그 후손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방계 자손을 쫓아가려고 하지만 족보가 없으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동학농민운동 참여자 송문수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다, 그러면은 관의 협조를 얻어 뭔가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봐야겠네요

표율중: 그렇게 나오면 몰라도, 왜냐하면 진윤식씨하고 저하고도 그걸 어떻게 저기 해보려고 다 찾아보고 별짓 다 했어요. 그 양반도 고생 많이 했어, 진윤식씨

면담자: 그러면 이따가 그 송문수 선생님, 그 살았던 곳은 가깝다고 그러셨죠?

표율중: 바로 얼마 안 돼

면담자: 그럼 그곳을 한 번 가서 사진도 찍고 자리도 확인해보겠습니다. 기록으로 남겨야 선생님 말씀을 보태고 또 나중에 연구할 수 있는 자료가 될테니까요,

면담자: 그럼 송문수에 대해 기록으로 남겨 놓으셨나요?

표율중: 안해 났어요

면담자: 동학 농민 혁명 참여자 중에 송문수가 살았던 곳. 생가이자 성장지라는 점, 무장기포에 참여를 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으니까 더 조사가 필요하고 기록으로도 남겨놔야 할 것 같습니다.

면담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뭐 구수마을에?

조용호 : 네, 증손자 증손자

면담자: 증손자가, 아들은 송진철. 송진철이고

표율중: 아들은 한 분이었는데. 네 돌아가셔서버렸고, 손자가 둘. 증손자가 저 그럼 증손자는. 지금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하나는 형제였는데 한 분은 여기서 안 사니까 모르겠고, 큰 손자. 큰 손자 아들이 둘이에요 둘

면담자: 증손자가 두 분요

표율중: 지금 인천서도 거시기, 비행기 정비하고 있고 하나는 여기서 교편생활하고, 고창 초등학교 선생

면담자: 근데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손자들도 적극적으로 하면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조용호 : 그를 찾아 가지고 혹시 족보라도 있나.

표율중: 그거 다 했지, 다 해보는데 까지 했지, 그런데 안되니까 이대로 하려고 하다가 힘겨워서 말아버렸는가 봐. 그게 이제 이거를 기관에서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면, 혹시나 모르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면담자: 네. 그렇군요

조용호: 어디 송씨예요?

표율중: 여산

조용호: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오게 되면 1943년도에 태평양 전쟁 때 패하나까 이쪽을 방어하기 위해서 일대에 땅굴을 20~300개 파죠,

표율중: 그래서 여기가 과연 군사 요충지구나 하실 거네요. 산에 올라가서 보면은

면담자: 네네

4. <일제강점기 시절 이야기>

표율중: 사실은, 여기 있어도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옛날 어른들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 여기도 학원농장 밑에 함박산55)

이라고 있어. 거기서도 동학군하고 싸웠지만 근데, 근데 그... 일본군을 이야기하든, 그 옛날에 이기화 씨, 그때 아마, 그. 그 양반이 원래 일본 동경대학을 나왔지만. 그래, 가지고 일본 사람들을 우리가 일본 사람이 일본 사람이라고는 안 해. 근데 일본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이야기하면 성질을 막 내버린다고, 그래서 사실은 내가 그 거시기를 안 가버린 거네요

면담자: 고창고보만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기화 선생님

표율중:네?

면담자: 고창고보

표율중: 그랬던가. 아니 일본서 하여튼 저기를 했어. 어떻게 됐든, 그 래 가지고 일본 사람들을 나쁘게 이야기를 하면은 아니 성질을 낸 양반이 그 양반

면담자: 의병도 연구하신 분이신대요

표율중: 그래서 내가, 내가 그 양반과 다투고. 우리보다 다 선조들도 그렇게 고생, 나 어렸을 때도 어떤 일이 있으면. 일본 사람들이 이 이 손가락을 뺏으러 왔어. 그러니까 내가 그때, 네 살인가 먹었어요. 네 살, 그랬는데 아침 밥 먹는데 손가락을 뺏어가려고 일본사람이 온거야, 그때 할머니가 먹던 손가락을 얼른 뺏어가지고 치마 밑에 넣어버린 거요, 그러니까 내가 손가락을 달라고 막 울고 난리를 친거예요.

면담자: 네

표율중: 네 살 먹은 것이 뭘 다 알겠어.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 와가지고, 일본 순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는, 애기 손가락 주라고. 그래서 치마 밑에서 꺼내 줬지, 그래서 내 손가락을 주니까 내가 안 울었다는 거네요. 근데 그 사람들도 사람인지라. 할머니가 뺏어 가지고 치마 밑에다 감춘 것을 그걸 뺏어가겠어? 그래, 우리 마을에 순사가 무궁화 두 개짜리가 살았대요. 그래, 그 양반이 늘 나를 데려다가 그 손이 없었던가 봐. 그래 가지고 퇴근하면 나 데려다가 안아주고 사탕도 주고 막 그런 거는 내 기억이 나.

55) 나주 함박산 전투를 말하는 것 같음.

5. <한국전쟁 이야기>

면담자: 네, 선생님 연세랑 비교해 보니 그 대략 일제강점기 말기 태평양전쟁 딱 그때가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 혹시 이왕 얘기 나온 김에 한국전쟁과 관련에서도 혹시 뭐 생각하시는 애깃거리가 있어요?

표율중: 한국전쟁은 10세, 내가 10살 먹었으니까 충분히 알죠.

면담자: 네, 마을과 연관해서 혹시 그런 얘기는 없을까요.

표율중: 마을... 많체, 이야기 할라하든

면담자: 아무래도 여기 고창이, 특히 영광 고창이 심했지요?

표율중: 사실 고창이 학살사건이 제일 많은 곳이고 더구나 공음이 제일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등산로를 여기 할 때, 그 자리에다가. 공계, 자기 무덤 자기가 판다고 그런 속설이 있잖아요.

면담자: 네

표율중: 삼으로 거... 저... 묶어 갖고 가가지고, 그 자리를 삼으로 파게 해가지고. 지금 달덕 고개 거기서 한 어... 100m도 다 안될거여. 거기 올라 가면은 이렇게 굴이 파져 있어 무덤. 이렇게

면담자: 거기가 어딘가요? 정확히

표율중: 여 공음 여기, 여, 고개, 달덕고개라고 해. 일명 달덕고개

면담자: 달덕고개요?

표율중: 그런데 거기다 내가 위령비를 세우려고 했어, 그래 가지고 우리 돈 들여서 저 등산로를 순 우리 돈 들여 가지고 17만 원 했어요, 그때 35만 원씩 할 때요, 세 사람이 우리 좋은 일 하자고 등산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비를 하나 세울라고 했어. 그런데, 한이 서린 곳이라고. 내가 저기 해가고 마을에서 고생했다고. 마을 공음면 청년회에서 돈 100만 원을 주더라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전부 스댕(스텐)으로 해서 안내 표시판을 굴마다 다 했어. 1번, 2번, 해가지고. 그러면서 거기다 세울라니 어떤 노인 양반이 그래, 나보고 좋은 일을 하는데 도와도 못 줄 만정 내가 자네한테 이런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네마는 자네를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네, 딱 그더

라고, 그래서 뭘 말씀요? 하고 여쭙봤더니, 사실은 그때 무렵에 데려다 죽인 사람이 지금 살고 있어.

면담자: 아

표율중: 살고 있다는 거네요. 지금

면담자: 그럼 데려다 죽인 사람이 당시 어떤 사람이었어요? 경찰? 좌익?

표율중: 경찰이 아니고 자유대, 당시

면담자: 아.

표율중: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손이라든가, 후손이 있는데 저거 알면 쓰겠냐, 그 안 세웠으면 쓰겠네, 그서 사실은 작파하고 그 자리가 한이 서린 곳이라고. 지금 쓴 말이 있어. 스댕으로 만들어서

면담자: 인공 때 특히 고창 지역은 뭐 낮은 우익, 밤에는 좌익할 정도로 좌우익에 희생된 사람이 많았잖아요, 양쪽 다 피해를 입었을텐데요, 선생님 말씀하신 건 정말 무기를 들지 않은 그냥 민간인들을 잡아다가 학살한 거지요

표율중: 그렇죠. 뭘 죄인지도 모르고

부면장 : 가... 가족끼리, 가끔 마을 사람들이 한 거야.

마을 사람끼리. 그렇지.

면담자: 네

표율중: 마름사람들, 얼굴 다 아는 사람들, 그때 사실은 남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완장을 채우니까, 그때 남의 집살이 한 사람이니까 내력을 잘 알꺼 아녀, 그래 또 팔시도 많이 받았겠지. 그때만 해도 배고픈 시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저런 걸 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표율중: 우리 마을에서만 100여 명 이상.

면담자: 아... 그래요 용산마을에서만?

표율중: 네, 애기까지 뭐..할 것 없이

면담자: 근데 그거 요즘에 과거사 진상위원회에서 다 조사했지요, 그래도 이렇게 구술, 말로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자료로 남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때 겪으셨던 분들도 연세가 이제

점점 드시면서 잊혀져가니까요

표율중: 근데 그거 뭐. 사실은 뭐. 이런 데 누가 조사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조사는 알도 못해. 그리고 저기 저... 뭐시나 선산에 위령탑 세울 때, 거... 한 100여 명 속에서 한 사람이 딱 살았어. 한 사람이, 그때 어리니까, 외갓집으로 이제 피신을 시킨거여, 그게 우리 마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전주 북중, 전주 농고 나왔어. 그래 세 집, 일곱 집 사람을 한테로 모아 가지고, 공음의 임판성씨 하면은 유족회 회장으로 유명한 분이요.

면담자: 한국전쟁 희생자 유족회장요?

표율중: 네, 한국전쟁 유족회 회장, 그래 가지 그런 분이었는데, 즈그 큰아버지하고 조카 하나 하고만 살았어. 그랬는데 그 양반이 돌아가시고 임판성씨랑 그 양반 돌아가시고, 임성연이라고 지금 살아 있어, 지금 저 남은 게, 그... 저기 가서

부면장 : 그분도 여기 사신대요?

표율중: 아니 그거 사는 게 아니라 요양원, 아 효자병원, 그랬는데 그가 전주 북중 그때만 해도 그 사람이, 84살인가 먹었는데, 그 사람이 뭘 아냐면, 서럽게 죽은 우리 부모 손주들 뼈따구 파는 거, 그거 앓는다고 안 해버린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거 뭐 자랑이라고 하냐고, 해야 되거든, 근데 안 해. 그리고 사실은 그 한국전쟁 때 희생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 저기 하라고 하니까 그... 알도 못해서. 안헌 사람도 많아.

부면장 : 우리 어머니도 선산 학살 사건⁵⁶⁾의 직접 목격자였는데

면담자: 선산이요? 네.

표율중: 선산이 그거 엄청나게

면담자: 어디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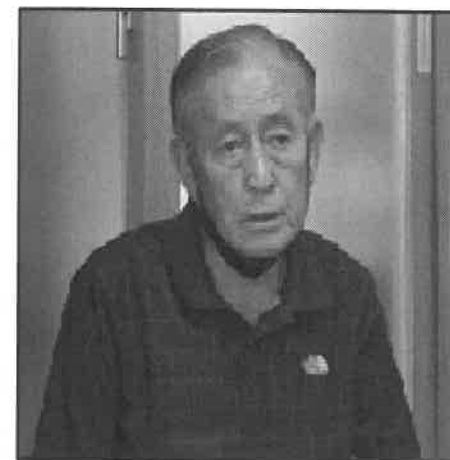
56)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 선동리 선산마을 민간인 학살사건을 말함. 1950년 12월부터 1951년 3월까지 전라북도 고창군 일대에서 국군 제11사단에 의해 민간인이 집단으로 희생되었는데, 인근 지역 피난민과 마을 주민 등 최소 273명이 희생된 것으로 밝혀진 사건이다.

표을중: 공음면

부면장 : 신선 선자 뒷 산자 선산 지금도 우리 어머님이. 지금도 네. 지금도 철모만 나오고 싸움만 나오면. 야 텔레비 돌려라. 그제 한 번은, 우리 한번 텔레비전을 못 봐. 근데 근데, 그 사람이 그거 하라고 하면 마음 아파허졌어요. 그런 입장은, 또 이해가 가요. 우리 어머니가 군복만 나오면 채널 돌려버려. 근데 옛날에 전우라는 프로 얼마나 보고 싶어요. 녀(남)의 집 가서 봤어요.

면담자: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3. 신계원



- 1945년 전라남도 영광 출생
- 결혼 후 공음면 군유마을 입거
- 고창향토문화연구원 활동

○ 개 요

- 구 술 자 : 신계원
- 면 담 자 1: 정성미
- 면담주제 : 공음면 군유마을과 구수마을의 역사 및 동학운동 이야기
- 면담일시 : 1차 : 2021년 08월 12일 오전 11시
- 면담장소 : 자택
- 면담차수 : 1차

○ 요약

스무 살에 영광에서 공음면 군유리로 이사와 50년이 넘게 거주 중인 신계원씨는 고창향토문화연구소의 회원으로 공음면을 담당하고 계신다. 마을의 역사와 전통문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마을조사 등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신계원씨는 마을이름의 유래나 우물, 그리고 동학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셨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정려각에 관련된 이야기부터 70년대 초까지 이어지던 당산제에 대한 이야기, 군유리에만 15개 정도가 있던 마을우물이 이제 공음면을 통틀어 14개밖에 남지 않아 아쉬움을 전한다. 아울러 지금은 사라졌지만 샘굿이야기, 마을 이름 이야기 등 마을 전반에 관해 들을 수 있었다. 이외 동학에 관해서도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용산 신대리 구정마을에 천안전씨들이 모여 살았고, 전치관이라는 천석꾼이 있어서 동학군이 훈련을 할 때 물자를 보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 효자 김길을 위해 열린 개갑장터가 동학군들이 모이는 장소가 될까 두려워 결국 개갑장터가 닫힌 이야기 등이다.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수집하고 추적하는 고창향토문화연구원 신계원씨는 고향마을에 대한 깊은 애정과 끊임없는 헌신을 보여주고 계신다.

○ 목차

1. <공음면 군유마을 성씨와 정려각, 당산제 이야기>
2. <공음면 구수마을 이야기>
3. <한국전쟁 관련 이야기>
4. <공음면 마을 가게, 주막 이야기>
5. <공음면 구수마을 무장기포지-훈련지 이야기>
6. <공음면 노인정 및 기타 마을 이야기>

○ 신계원 구술 전문

면담자: 선생님 사시는 곳은 어디신지요?

신계원: 원래 영광에서 살다 스무 살 먹었을 때에 왔어요, 여기, 공음면 군유마을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50년은 넘었지.

면담자: 그럼 군유마을에서 계속해서 사시는 거네요

신계원: 네, 사실 이 동네에서 결혼해서 계속해서 여기에서 살았습니다.

1. <공음면 군유마을 성씨와 정려각, 당산제 이야기>

면담자: 아 네, 그럼 여기 성씨들이 각성바지인가요?

신계원: 지금은 다 그래요.

면담자: 어떤 성씨들이 있었나요?

신계원: 옛날에는 진주 정씨가 한 과반수 이상 차지했어요. 그리고 나주 오씨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러 성바지가 사는 거야.

면담자: 마을의 유래나 언제 어떤 성씨들이 이 마을에 오게 되었는지, 당시 마을 모습을 알 수 있는 것들은 있는지요

신계원: 그 전에는 금성 배 씨가 설계했다고 그래요. 마을을, 근런데 이제 많은 것들이 변해서 유물이 남아 있거나 그런 건 없고. 진주 정씨, 나주 오씨 후에 경주 최씨가 들어와 가지고, 저기 하국마을에 정려각, 효자각이 있었지

면담자: 효자각요

신계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확실히 기억은 안 나도 관리를 안하고 있었으니까. 태풍에 무너져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손 최후식이라는 사람이 현판은 정자각, 그 정자, 그 뭐시기 그 정각, 효자가 그 현판은 최후식이라는 사람이 뜯어다 보관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 마을에 살아요. 그 사람이

면담자: 아아, 그럼 그분 집안의 정려비를 받았나요

신계원: 그분이 여기 출신은 아니고 저기 공음면 덕암 출신인데 그것도 확실치 못해요. 지금, 여기 출신은 아니라도 자기 가문의 효자각이었어. 현판을 뜯어 지금 여기 마을로 이사 와서 살고 있어요.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면담자: 정려각이나 이런 것들은 한 번 마을조사를 했을 거 같습니다.

군지나 읍지에 정려각 등은 기재가 되었을 거 같습니다. 고창 문화원 전 원장님이신 이기화 선생님을 뵈었는데 혹시 관련 자료에 대해 아시는지요

신계원: 지금 흥덕에 계신단 말이야, 문화원 이사도 쪽 해왔고

면담자: 선생님께서요?

신계원: 네네

면담자: 아 그럼 잘 아시겠네요

신계원: 또, 그리고 거시기 뭐냐 고창 향토문화 연구원에서 공부도 했어요, 그런데 해마다 조사는 하고 있는데 책자화 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12월에 그 1년 동안에 채집한 글들을, 그중에 하나를 택해 가지고 연구발표 하나 하는 건 책으로 나오는데, 1년 내내 연구한 건 제대로 다 안 나와요,

면담자: 그럼 연구물은 있나요?

신계원: 부탁드리면 자료는 다 나와 있을 거네요.

면담자: 그렇지 않아도 문화원 갈려고 하거든요. 근데 문화원에 자료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마을에 스무 살 때 들어오셔서 살면서 역사에 관심도 가지고 참여도 하셨는데 특히 정려각 같은 것도 있었다, 그 다음에 성씨들이 살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기억나는 것은 없으신지요

신계원: 그리고 정려각이 그 뭐 여기가 거기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진주 정씨 효자각도 있어요. 진주 정씨 효자각..

면담자: 네, 그 외 다른 문화유산이나 뭐 생활에 관한 얘기 뭐든지. 선생님 저기 살면서 기억하시는 것들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신계원: 당산제요,

장재인: 언제여 70년 71년도 72년도, 72년도 그때까지 72년도까지 당산제를 모셨어요.

면담자: 당산은 어디에 있나요?

신계원: 멀미동이라는 데가 있고, 또 하군에 가서 또 할머니 당산 있고, 멀미동이라는 데는 할아버지 당산, 그러니까 할아버지 당산, 할머니 당산이 있었어요, 당살피라고 하는데, 71년도부터

까지던가. 그때 계속 해마다 그렇게 당산제를 모시다가.

면담자: 해마다 모셨나요?

신계원: 네 해마다 모시는데. 줄을 인자 들어 가지고, 세 개로 꼬고 또 그 세 개가 3개가 또 9개가 되지. 그렇게 해서 크게 꼬아 가지고, 이제 이쪽 위에는 상군, 아래쪽은 하군 그래요. 그런데 그쪽에 이제 그 보통 어느 당산제나 줄다리기를 할 때 동부 서부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상군 하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면담자: 네,

신계원: 그래서 그렇게 제사를 계속 모셔오다가 자꾸 생활화가 이제 그 농경사회에서 산업화로 가면서 마을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제 숫자적으로도 그런 당산제 모시기가 힘들어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간에서는 여기 이 형님 같은 분(김재인 마을주민)도 당산제 안모시니 이런 큰 병이 왔다고 그러니까.

면담자: 네

정재인: 허허

신계원: 같이 당산을 모시려고 해봐도 자원이 부족해, 인자 그때는 양쪽에 다 농악도 준비되어 있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자꾸 자원이 부족해지니까 농악 칠 사람도 적어지고, 줄꼬기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하니까 당산제를 못 모시게 됐지.

면담자: 그래요. 당산제를 하려면 자원과 지원이 필요하겠네요

신계원: 어려워요, 지금은 전부 60대 애들이 제일로 젊은 사람들이고, 저희들도 젊은 층에 들어가요. 지금

면담자: 네

신계원: 지금 우리가 77세가. 몸은 부자연스러우면서도, 허허

정재인: 지금 당산제를 그렇게 할라 하고 이거 안 되는가 봐요, 군에서 와서 해주기는 해줘,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해줘도 못해요

신계원: 줄다리기는 우리뿐만 아니라 선동리 선산 마을, 얼마 전까지도 그런 큰 행사를 했는데 지금도 당산에다가 줄을 감더라고

요, 거기는 전래되어 가지고 선소리 후소리 소리도 있고 그래서 제집에 가면 다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면담자: 아 자료요, 선생님 댁에 한 번 가서 자료 좀 봐도 괜찮을지요
신계원: 네, 좋습니다.
신계원: 당산제도 그렇고 특이할만한 것은 우리 마을에 해리 금평 마을에 살던 분들이 자기네들은 이제 진주 정씨라고 했는데 사실은 진주 정씨가 아닌데, 당골 당골이 남자 당골이 정씨인 줄만 알지. 명정, 죽었을 때 명정을 써 붙여놨는데. 진주 정씨라고 써붙였어요, 그랬는데 그건 확실한 것은 모르겠고 배상녀라는 안부인이 당골 노릇을 하고 다녔어요. 그 자료도 있습니다.
제가
면담자: 네, 당골에 대한 자료가 있군요
신계원: 책자로 있지요, 그거는 우리 마을 당골만 아니고. 이 주변에 당골이라는 재인이, 재인아이들이 재인들과 함께 먹고 살기도 하고 그랬지요.

2. <공음면 구수마을 이야기>

면담자: 재인하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 동학농민 당시에 손화중이 이끄는 부대 중에 재인들이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곧 재인들로 구성된 부대가 있다고 합니다. 전투 및 집강소 활동도 했구요, 혹시 관련사실에 대해 들으신 이야기가 있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재인하면 당시 신분제 사회에서는 갈등도 있었을 거 같습니다만
신계원: 그럼, 그 사람들이, 동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신분 타파도 하려고 했으니까, 재인들이 따라왔겠지요, 활동도 했을 것입니다. 손화중이 원래는 정읍 사람이잖아.
면담자: 네, 정읍 출신 맞습니다. 고창에서 주로 활동을 했구요
신계원: 우리 공음면에 저기 송운동. 송운동은 지금은 송운마을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도 또 상당히 들어가는 데가 손화중이 왕

래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면담자: 접주들끼리 모여서 회의한 장소인가요? 공음면은 기포가 일어나는 곳이고 손화중의 활동지이지요, 공음면에 여러 마을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 마을이 군유 마을이고 무엇보다 구장기포지인 구수마을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군유리하고 구수내하고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신계원: 7키로, 7, 8Km는 돼
면담자: 아 그래요. 이제 구수마을에 연세 드신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전운오 씨라는 분에 대해 아시는지요?
신계원: 84세, 그분이 제일로 많이 먹었을 거네요. 나하고 다섯 살 위, 정도 됐을 거네요
구수마을, 거기가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그 마을 앞에까지 나룻배가 들락거렸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 가면 논배미가 선창배미도 있고
면담자: 선창배미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계원: 선창배미는 배가 이제 안 들어오고 개답을 해가지고 선창, 그 배가 거까지 왔다는 거에서 선창배미도 있고, 뭐 갈치배미도 있고
신계원: 그래서 저기 동학을 연구하시다 보면 저기 법성에, 이제 거기 을진포라는 얘기를 들으셨었어요?
면담자: 네, 을진포요
신계원: 새목, 새목포라고 하지요, 지금은 새목이라 갖고. 이상하게 이름들을 붙여갖고 부르더라고요. 을진포라고 그래요. 한문으로 한자로 새을 자(乙)를 써서, 그래서 거기 댐을 막으면 댐이란 다, 독을 막아버리면서 공음면은 장곡 해로, 해로 불리고. 지금 한세동 석교, 석교포는 그거 창이 세창이 있었으니까, 그 세창을 털기도 했대요, 동학군들이.
세창이 창촌이라는 마을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거기까지 나룻배가 인자 석교는, 아래쪽으로. 그래서 거기까지 배가 들락거렸고, 거기 구수내 앞이 옛날에는 뭔가 하고 한 그, 퇴적해가지고 갯배이라는 일종의 갈대밭? 침전해갖고 갈대가 많이

갈대밭이 넓었대요. 그래서 기포 당시 2천 명, 3천 명이 거기 모일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었대요. 그리고 그 아까 석교포의 세창에서, 세창에서 곡식도 훔치고, 또 공음면에 그 석교리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근데 그 개갑 장터라고

면담자: 네, 개갑장터요

신계원: 그게 김 길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네 저 옛날에 난신 김 길이라고 아니고 같은 성함인데도 길자를 같은 쓰면서도 이분은 효자 김길이라니까. 안동 김씨, 김 길요, 그분을 위해서 전라감사가 시장을 열게끔 해줘서. 개갑장터가 열렸다고 해요, 그런데 폐장된 해수를 누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동학혁명이 일어날 때가 1894년인데, 그 후로 이제. 이 사람들 때문에 시장도 없애야 쓰겠다 해서 시장을 없앴다고 해요

면담자: 사람이 모이니까 시장을 없앴군요

신계원: 사람이 모이니까 못 모이게 하고 시장을 없앴다. 그리고 이제 김 길이라는 분이 살아계실 때 자기 아버지, 선친이 그 꿩고기를 좋아했다고 해갖고 그 안진머리 시장이라고, 안진머리. 거기가 해리랑 시장이 있었어요. 그때 이게 눈이 많이 오면, 제사가 겨울철이든가요. 그래갖고 눈이 많이 와서 못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효성이 부족해서 시장에 못 가게 하려고 눈이 많이 왔다고,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동안에 그 석양에 꿩이 한 마리 날아 들어서 그걸로 용케 제사를 모셨다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이제 감찰사한테 전해져서 시장을 열게 해줬다고 해요,

면담자: 공음에 사는 김 길이가 해리까지 장을 가야 했던 상황이었는데 눈이 많이 와서 제사를 못 모시게 되니까 감사가 그 효열을 알고 개갑에 장을 열어줬다라는 얘기죠.

신계원: 그 얘기를 왜하냐 하면요, 동학군들이 그 세창도 들어서 먹을 것이 생기지만 일용품들이 부족하잖아요. 이제 짚신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농기구 중에 낫도 있고, 연장들이 그런 시장에 나오니까, 그래

서 시장을 이용하고 하니까, 동학군들한테 유리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시장을 폐지했다, 그런 얘기에요, 체계적으로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면담자: 아닙니다. 체계적인 말씀이십니다. 혹시 관련하여 다른 이야기는 없는지요, 예를 들어 피치에는 손화중 도소가 있는데 장날을 이용해서 사람들과 만나고, 물품도 구입하면서 사람들을 모았다고 합니다.

신계원: 아 피치요? 원광대 정하진이란 분은 거기 출신이에요. 정년하셨어요.

면담자: 네, 저는 이제 얼마 전에 동학 유적지 조사를 갔는데 영광에 법성진에도 세창이 있었어요. 동학농민군이 법성진창도 습격해서 물자를 모았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흔적들을 좀 더 본격적으로 살펴보고 표지석도 좀 설치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계원: 아까 말씀드린 을진포는 사실 법성이 아니라 홍농 땅이에요, 거기 세창이 있고 또 법성에 또 세창이 있고, 법상 세창은 처음 나주까지 다 이렇게 요리 왔었다고 그래요.

면담자: 네, 홍농에 을진창이 있고 법성포에 법성창이 있었다는 얘기 말씀이죠.

신계원: 그런데 그 마을 변천사를 얘기했는데 아까 구수내, 구수내가 당산, 당산골이라고도 해요, 거기가 아주 아주 당산이 크고 그랬어요. 새마을 사업 때 공음 상하간 도로, 포장공사 시, 도로를 넓히고 포장하고 하는 사이에 나무가 걸려서 그때 당산나무를 베어버린 거네요. 68년도부터가 했는데. 아니, 아니, 그때는 70년대 초라고, 그리고 공음면에 칠암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칠암리가 바위가 7개가 있다고 해서 칠암리인데 그 바위가 보통 바위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고인돌이에요, 고인돌, 그런데 그것도 새마을 사업 때 몇 년도인지는 몰라도 7개를 전부 다, 그걸 없애려면 이제 포크레인으로 구덩이를 깊게 파고 밀어 넣으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없애버렸는데 얼마 전에 그 마을 출신 부군수가 왔었어요. 김인호라는

김인호 부군수가

신계원: 남자요. 김인호 그분이 부군수로 와가지고, 자기 마을 복원 사업을 해야 쓰것는데 그걸 찾아내고자 했지요, 그런데 못 찾죠. 깊이 파고 물어버리고 온 것이라,

면담자: 네, 고창에 고인들이 많지요

표율중: 아까 거시기, 갈대밭이 2, 3천 명이 모일 수 있는 면적은 그런 거라든가 그 지금은 전부 농토로 바뀌었죠.

면담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당산나무가 있어서 당촌마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신계원: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당촌이라고도 했는데, 구수내라는 그 말 뜻은 그것도 아홉 개 물이, 아홉 줄기 물이 사방으로 모여서 그쪽 마을로 모여드는 형국이에요.

면담자: 이제 당산나무를 대신해서, 또 거기는 당산제를 지내거나 그러지는 못했겠네요.

신계원: 그런거 없어졌네. 지금 우리 마을같이, 제가 스무살 먹었을 때, 여기 올 때만 해도 200여 촌이 넘었어요. 200호가, 여기 군유리가요,

정재인: 고창에서 두 번째로 크대요

면담자: 지금은요?

신계원: 지금은 한 100여 겨우 남았다고만, 외지인들이 지금 이사를 많이 오는 편이에요

정재인: 왜, 그때는 당산제 지낼 때는 당산 지내고, 보름 경에 쥐불을 갖고 이 마을을 맨 돌아다녀요.

신계원: 우리도 우리 마을을 한 바퀴 돌아가면 10리가 넘는다고 그랬어요.

정재인: 그러고 나서 이제 가다가 가출을 다 한거예요, 형님은 진사까지 하셨어요.

면담자: 진사까지 하셨어요. 형님이.

신계원: 2015년도에 진사반에 들어가 4주 동안 공부하고 시험 봐가지고, 제가 동학을 전공으로 않지만 자료와 동학에 대해 자료가 많이 있어요. 지금 책이 나와. 이진영 신순철 이런 분들이 낸

책도 있고, 동학 100년사, 이런 책도 있고.

면담자: 집 안에서 내려오는 기록물은 없으신가요?

신계원: 그런 것은 없어요, 공부하면서 모은 잡지 같은 거지 뭐

면담자: 지금까지 구수마을의 경관, 특히 2,3천 명이 모을 수 있는 그런 터와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군유리와 지금 7, 8킬로 되는 곳이 구수 마을이니까 어차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다 보시고 서로 또 연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구수마을이나 이쪽 마을 관련 전설이나 민담, 이런 얘기는 없나요? 아까 효자 얘기 말고.

신계원: 우물도 제가 한 4, 5년 전 있는가에 조사를 해봤는데요. 우리 마을 공동우물만 해도 열 서너 개, 15개 정도 되었어요. 우리 마을만.

면담자: 군유리만요?

신계원: 네, 그런데 공음면 전체를 지금 조사를 해본 결과 14개나 밖에 안 돼요. 공동우물이,우리마을 우물은 다 없어져 버렸어. 우리는 한 개도 없어.

면담자: 군유리 공동우물이 다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15개나 됐는데 지금은 공동우물이 없고공음면에만 지금 현재 있는 것이 14개란 말씀이신가요?

신계원: 지금 현재 현존.

정재인: 그때 샘이 있을 때는 저 농악도 치고 샘도 짹 다녀가고 그랬어.

신계원: 샘굿도 치고 막 그랬어요. 그때는 그 거시기 당산제 모실려면 거리 농악도 치고 샘 다니면서 샘굿도 쳐주고 다 그러고 다녀. 우물이 지금 제일로 보존이 잘 되어 있는 마을이 두암리 원두암은 10개나 있잖아.

면담자: 두암리, 원두암이요?

신계원: 말 두자(斗), 말 두자. 바위암자(巖)요, 바위가 많다는 거야. 한 말, 두 말(斗) 할 때.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거기가, 그리고 그 대표적으로 또 용수리의 석정마을 가면, 석정(石井)이 말 그대로 돌, 돌 샘. 그런데 거기는 복원 사업 하면서 잘못돼 가지고

둘레석을 쌓는데 밖에다 우물 밖에, 그게 잘못 돼가지고 거기다 치구, 또랑을 조금 많이 내서 물을 양쪽으로 빠지게 해야 되는데, 벽에서 물이 스며들어가면 바닥이 이끼가, 저어기 들어가기에 힘들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 다시 공사를 해야여. 거기는 석정은 유명한 것이 피부병도 낫는다고.

면담자: 용수리. 그러면 물 수에, 용 용자를 쓰나요?

신계원: 공원 밑에 가 저수지가 있어요. 예전 저수지라고 하는데 사실상, 근데 그게 사실은, 용수 땅도 상당히 많이 들어 있대요. 저수지 땅이, 그래서 거기가 용수라는 말이 물이 좋기 때문에 저수지를 만든게 된 거고. 일제 때, 일제 때 막

면담자: 이 용수리를 샷갓부, 샷갓붕이라 하지 않았나요?

신계원: 샷갓붕.

면담자: 용수리에 있는 산 앞이 샷갓같이 생겼다해서 샷갓붕이지요, 용수 마을이 풍수가 좋아 사람들이 살기가 좋다고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손화중이 접장들과 회의를 하였다고 하셨어요

신계원: 거기는 이름도 모르는 절터가 하나 있어요. 용수리, 그 절터 내가 그걸 누구한테 전화해 보면 알겠습니까마는 번지까지 다 알고 이제 조사를 한 건 있는데 작년에도 그걸 조사를 했고.

면담자: 맞아요, 용수리에 절터가 있었다고 했어요, 선생님, 그 조사 자료는 갖고 계신가요?

신계원: 지금 열른 찾기가 힘들 거네요. 그런데 거기는 그, 뭐라 해야 되지, 사리탑, 공음리 절터가 서너 개 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 용수리에 있는 절터는 사리탑이 남아 있어요. 칠암리 용산 마을에 절터가 있어요. 그거는 그 미륵불을 마을 사람들이 옮겨다가, 당산나무 옆에다가 집을 짓고 그 안에다가 모셔놓고 집을 지어 버렸어, 절터가 있고 그런데 거기 절 이름을 몰라요.

면담자: 칠암리 용산마을의 미륵을 옮겨 각을 짓고 모셨다는 말씀이지요

신계원: 또 구수내 가서, 뒷마을에 그 상좌골, 상좌는 무엇이나 하면

은 이제 저도 몰랐는데 조사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 말하자면 제자를, 제자 중에 그 거시기 수제자를, 이제 보좌라고 그래요. 이제 그런데 거기서 사찰에서는 상좌라고 나오더라고요, 여러 스님 제자 중에 제일 우수한 제자를 상좌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상좌골이라고 해요. 지금도

면담자: 구수내 뒷마을, 상좌골에 절이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신계원: 맞아, 거기에도 절이 하나 있어. 지금은 터도 없지, 표시도 없고. 예전리에 오리절이라는 데가 있고, 오리절이라고 하는데 이름은 오리절이라고 부르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명이 또 미륵골이라는 데가 있는데 미륵이 혹시 있냐고 물어봤더니, 저 87세가 되는 선배님한테 물어봐도

면담자: 그분 살아계세요?

신계원: 그. 바로 그 옆에 동네인데도 미륵불을 보지를 못 했다고.

그런데 촌명이, 이름이 미륵골이요. 지금도

면담자: 미륵골이니까 미륵부처가 있었겠다 라는 말씀이지요?

정재인: 부르기를 그렇게 부르니까 지금도

신계원: 그런데 지금은 지금 두, 세 가구가 남아 있는데 다 빈집이래, 사람 하나도 살지도 않는대요.

면담자: 공음면 어디인가요?

신계원: 미륵, 미륵골. 건동리 하건 마을 속에

면담자: 이제 마을조사 속에 다 나오긴 했겠지만 이제 공음면에 대해서 ?

신계원: 대충 다 나오는데 예전에 유재영 선생님 책에 대략 다 나왔어, 예전에 익산까지 쫓아다녀 얻어왔네, 절에 대한 지명. 전라북도 것이 이렇게 두꺼워요.

면담자: 이 지역분도 마을조사하시잖아요. 그리고 고창에 대한 조사는 이병렬 선생님도 하셨어요, 이병렬이 원래 줄포사람인데요. 초등학교서부터 자기 아버지가 그때는 고창에 가야 인물 된다고 초등학교부터 고창으로 보냈대요.

면담자: 선생님, 그러면 지금 공음면을 대상으로 절터와 샘이랑 기타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고 당산나무 얘기도 해 주셨는데, 구

수마율이 예전에 비해서 달라진 것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계원: 지금, 그러니까 70년대 초에 공음 상하 간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당산나무도 없어지고, 길이 마을 앞에 났다는 것, 그거하고 또 거시기 그 동학농민운동 기포지의 상징탑, 상징탑을 햇불이 짝 비치는 것 같이 만든 그런 걸 또 이제 많이 변했잖아요. 지금이니까 그렇지. 옛날에 그런 마을을 우리가 가보고, 그러면 우리 마을은 실제요, 상군에서 그쪽에서 초상이 나오면 저 아래 마을 하군에선 모르고 그쪽에서 초상이 나면 그 사람들은 모르고. 그래서 지금은 특히 여자들은 더 모르지. 뭐 왕래가 없으니까. 그리고 마을이 우리 마을은 이렇게 쪽 그 선창마을 방향으로 이렇게 쪽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더 더군다나 지금은 그냥 휴대폰이 있고 전화 있고 막 그래 가지고, 금방 초상이 나오면 누가 어쨌단다 하고 소문나 버리는데, 옛날 수가 그렇게 많이 살면서도 래왕이 없고, 그 지역만 알고,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럼 그거는 크게 변한 걸 모르죠.

면담자: 그러면 교통의 중심은 어디라고 봐야해요?

신계원: 공음면이요? 소재지죠, 공음 사거리죠.

3. <한국전쟁 관련 이야기>

면담자: 네, 선생님께서는 45년생이신데 사시면서 한국전쟁 등을 겪으셨던 세대이십니다. 이 지역과 관련한 사실들에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신계원: 많죠, 그거야 다 일일이 말할 수가 없어요.

면담자: 네

신계원: 지금. 옛날에 그 빨갱이 그 사람들이 그 신고를 못했어요, 그 쪽에다 진실과 화해 여기에 신고를 못했어, 그 사람들은 이제 적대 세력이라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들도 전부 신고를 해요, 왜 그러냐면 국가가 치안 문제라든가 모든 것이 부재했기 때

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났다 해가지고, 죽인 놈도, 피해자 쪽도 전부 신고를 해요, 지금은 다, 이제 잘 아시겠지만 고창군의 6.25때, 학살당한 위령탑이 공음면 선동리 선산 마을에 있습니다. 고창군에서도 공음면하고 상하, 그쪽이 수가 제일 많고요. 피해자가, 그건 이제 고창군 14개 읍면인데 공음 상하만 피해가 많았어요, 그 중에서 많다고요, 그런데 그, 왜 거기 가서 거기가 그렇게 됐냐면은, 선산 포위 작전이라고 해가지고.

면담자: 선산 포위 작전요

신계원: 선동리 선산 마을이에요. 선인봉이라고 이제, 선인봉. 거기가 산이 높지도 않아요. 나지막한 산인데 그쪽으로 전부 이제 피난민들이 군경 합동 작전에 그쪽으로 모이는 거네요, 그래 가지고 거기다 소탕 작전을 해버린 거지.

정재인: 제일 늦게 끝나는 거야.

신계원: 그때 선산마을 포위 작전에 피해자가 엄청 생겨버렸지, 그 선인봉라는 것은 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산이에요. 선인봉 선산. 신선 선자, 인은 인의예지 할 때 인자.

선인봉, 그 산이 나지막한 산인데, 그쪽으로 우선 피하기가 좋잖아요. 이렇게 높은 산으로는 피하기 어렵고. 그래서 그쪽으로 썩 모이고 하는데, 포위, 그냥 군경, 군인하고 경찰하고 이렇게 썩 포위를 해갔고, 이렇게 오프라 들어가지고 거기다 다 모아놓고 거기서 빵.

4. <공음면 마을 가게, 주막 이야기>

면담자: 네, 총살했다는 거지요? 빵하니까 생각하는데 왜 물건을 파는 곳은 점방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상점, 슈퍼마켓 이렇게 말하는데 마을에도 예전에 이런 가게들이 있지 않았나요?

신계원: 우리 마을은 조그마한 시골 마을이라든가 요새 근대화가 상당히 귀한 미장원도 있었고.

면담자: 네 언제. 80년대 70년대 60년대?

신계원: 아니 80년대, 미장원도 있었고 지금 이발관이 두 개나 있었

고, 농협 창고도 있고, 또 주유소도 생겼고 지금도 있지만은,
그 점방도 두, 세 개가 있었죠.

정재인: 지금 하나도 없어.

면담자: 지금 하나도 없어요?

신계원: 지금은 뭐 식당에 가지만, 우리 마을에 주막이 있었지, 아마
열 몇 군데 있었어요, 마을마다 주막은 있었을 거여

면담자: 주막요

신계원: 열 몇 군데 있었다그래요.

면담자: 아 그래요? 옛날에. 4, 50년대 60년대요?

신계원: 아녀, 70년대까지, 그런데 그 주막은 저기 이제 당시에 사람
들이 어느 곳인지를 따질 것도 없이 저 위에서부터 저 밑에까
지 왔다 갔다 하루에 두 번만 왔다 가면 나 오늘 마흔 잔 먹
었네, 이러고, 술은 막걸리나.

5. <공음면 구수마을 무장기포지-훈련지 이야기>

면담자: 그럼 혹시 구수마을의 주막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신계원: 구수마을은 잘 모른다니까요, 거기 구수마을이, 아까 말씀드
리다 말았는데 갈대밭이 한 2, 3천 명이 모일 수 있는 면적이,
거기서 모산이라는 산을 넘어가면은 신대리 구수마을 구정이
라는 마을이 있어요.

면담자: 네 구정마을, 거기가 저기잖아요

신계원: 신대에 가면은 지금도 그러지만 천안 전씨들이 지금, 전봉준
이 그래서 여기 오게 된 거네요.

면담자: 전봉준이 고창으로 온 거는 바로 용산 신대리의 천안 전씨들
이 세거해서 이쪽으로 왔다는 말씀이지요

신계원: 신 신대리 구정마을에 그때 한 100여 호가 살았대요, 그래 가
지고 전부 천안 전씨 그리고 구정마을이 아홉 구자. 샘 정자
구정이에요. 그래서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하면 공동 우물이
9개가 있었다 이거네요, 100여 호니까, 그런데 지금은 샘이 보
존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지금 그 마을이요, 완전히 폐촌되어

가지고, 집은 두 채 가호 남아 있는데, 폐촌되어 가지고 사람
하나도 안 산대요. 거기 마을에 만석꾼이 살았어요. 전치관이
라는 1800년대 후반, 전치관이 효자, 효자 정려각이 있어요, 지
금도 보존돼 갖고 있습니다,

면담자: 네, 혹시 전봉준에 관한 얘기를 들으신 것은 있으신지요?

신계원: 당촌마을하고 구정마을하고 거리가 있지, 여기 우리, 우리 집
앞에 표지판을 보면, 교통 표지판을 보면 고창까지 22킬로거든
요. 고창을 어디다 기준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데다가 또
거시기 우리 마을로 봐서도 그러는데 또 고창 군청을 기준한
다고 하더라도 저 전봉준 생가까지 가려면은 한 4킬로 가까이
될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랬는데 구정마을이 거기 간다면 거기
도 그 정도 될 거요. 그럼 한 25킬로에서 27킬로 선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대충.

공음면 칠암리 용산. 용산마을이에요. 근데 그 산이 요충지라니까요.
그러니까 밑에 이제 구수마을을 기포지로 정하고 많은 숫자를
모이게 하려면 아까 그 갈대밭이 너른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모인 것이고.

면담자: 네, 그러면 훈련도 구수마을 갈대밭에서 했을까요?

신계원: 훈련은 사실은 그쪽에서 훈련을 못 하죠

면담자: 그런데 지금은 무장기포지가 훈련지라고 되어 있는데, 훈련은
못했을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신계원: 그렇게 해도 그것은, 우리 추측에는 그래요. 들판에서 갈대밭
에서 이렇고, 거시기 하겠어요?

면담자: 그럼 훈련지가 어디하고 생각하시는지요?

신계원: 구적산, 그거는 이제 용산하고 연결된 산이에요. 근데 그쪽이
가면은 산이 아주 높지도 않고 해발이 얼마인지를 모르겠습니
다마는 산들이 좋아요. 그래 가지고 그쪽에 요소요소 훈련을
할 수 있는 장소들이 있어.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구정은 자
기 일가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음식조달을 하기가
쉬웠으니까, 거기서 했을 가능성이 많고, 최종적으로 이제 기
포하면서 이제 그 많은 숫자가 움직일 수 있는 장소를 모이다

보니까 구수내가 채택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 생각이고 일종의 허허벌판에서 그때 훈련을 하겠어요? 거기에서 훈련을 하면 적극적으로 말기고(못하게 하고) 또 읍성에 고발하고 그러죠

면담자: 지리적으로는 여러 상관관계로 봤을 때 구정마을에서 물자를 배달받을 확률도 많고 사람들이 모여 훈련을 하면 신고당할 수도 있단 말이지요

신계원: 그때 당시 1894년이니까. 그 무렵에 전치관이라는 만석꾼도 있었고, 그리고 그 마을이 보편적으로 탄 마을에 비해서 그때 당시 부유했었지요

면담자: 네, 구정마을이요

신계원: 그러니까 거기서 산 하나만 넘으면 우리가 쉽게 산하나 넘지, 거기 구수내까지 가려면 상당히 멀어요. 또 산길로 산 넘어서 구수내까지 가려면. 그리고 고부에서 시작된 것은 음력 1월 달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고창의 기포 당시는 4월 25일로, 23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아는 사람이, 근데 그렇게 한 3개월 차이가 지죠.

면담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치관이라는 만석꾼도 있었고 물자를 조달받을 수 있었다. 인적 물적 자원을 조달받을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신계원: 거기도 그러니까 구정마을에 보호수가 당산나무가 있고요. 옛날에 당산을 모셨고, 원신대 거기도 보호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신대리, 지금 신대리가 네, 3개리가 되는데. 전부 전씨들이에요. 문효공파, 타성 씨들이 지금은 들어와서 사는데 그 사람들이 연고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다 거기 거기, 여손들이나 취객, 사위, 신대 전씨들은 상하에서 와서 터를 잡았어요.

정재인: 상하에서 전씨들이 왔던가.

신계원: 상하에서 와가지고 그쪽으로 와가지고 설계를 했다는, 마을을 이뤘다 이거네요.

6. <공음면 노인정 및 기타 마을 이야기>

면담자: 네, 혹시 연세가 드신 분들을 알 수 있을까요

신계원: 노인정, 공음은 45개 군리인데 노인정이 전부 하나씩 다 있어요. 물론 이제 노인정은 회관으로도 사용하고 이제 그렇죠. 그런데 회관으로 했을 때는 노인정을 앓고, 회관만 했을 때는 정부 보조가 하나도 없는데 노인정으로 이름을 바꿔서 신청을 해놓으면은 물론 이제 노인 회원들을 올려야죠. 신고할 때. 그러면 이제 식량도 조금씩 주고. 또 연료비를 조금씩 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45개 정도가 있어요.

면담자: 아. 네, 회관에 가면 어르신들 찾아볼 수 있을까요?

신계원: 노인정을 가봐야, 노인정을 가봐야 알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도 문화원에서 계속 해마다 향토문화 연구위원이라고 해가지고 연구를 해요. 그러고 내가 공음면 책임연구원이라고 되어있고, 몇 사람이 있는데 누구 하나도 협조 안 해주고 이름만 걸어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정비가 되야는디 안 되고 있고, 저 혼자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해보는데, 저희들이 이제 거 우물 같은 것도 전부 번지도 알아야 되는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집이 이제 상군마을인데 지금 길은 하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하군 2길이에요. 여기가 1길이 2길. 하군 2길에 1번지라고 합시다. 그 옆에 우물이 있는데 거기 그래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그렇고 그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샘 깊이는 얼마 그런 거, 그거 조사를 했었지. 그런데, 이런 걸로 우리가 실물이 있는 디만 가서 찾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니까 번지는 정확한 번지를 댈 수 없어도. 그렇게 해서 올리는데, 기록을 해주는데. 이게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전해져 오는 얘기라든가, 설화라든가 네를 들어 그런 조사할 때 참 막연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면담자: 네,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안계셔서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신계원: 네, 지금은 네를 들어서 아까 선창배미 제가 말씀드렸는데 선

창배미라든가 그런 것들도, 지금은 경지정리가 다 되어 버려 가지고, 현대화 되어 버리니까, 뭘 옛날에 수랑배미, 물이 막 나서 들어갈 수가 없는 논이 수랑배미라고 그래요.

면담자: 수랑배미요?

신계원: 수랑배미 수랑. 근데 수랑배미를 그냥 수랑배미라고 불러요, 그렇게 수랑배미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다 없어져 버렸어, 지금은 전부 경지정리하고, 이게 지하수 뿔아 써버리고. 그러니까 지표수가 자꾸 깊어지잖아요. 그 수랑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 가지고 그런 걸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면담자: 네

신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공음면 건동리 하건 미륵골이라는 마을이 미륵골이 촌명은 미륵골인데 그 미륵이 존재한 사실이 없대요. 지금 90세가 다 된 분이

정재인: 거기 사람들은 다 모른다.

신계원: 대원씨한테 물어봤거든. 모른대 그 바로 그 옆 동넨디, 그런데 그게 없대요. 그 부분. 90살이 다 되시는 분이, 촌명은 남았는디 없다 그래요

면담자: 네 그러시네요. 그러면 이 군유 마을 같은 경우는 최고령자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신계원: 지금 87세, 87세.

면담자: 아직도 옛날처럼 마을공동으로 품앗이도 하고, 마을끼리 단합 대회도 하고 그러는지요

신계원: 그런 게 없어졌어요. 지금은 외국인 아니면.

정재인: 농사를 못지어.

신계원: 농사를 못지을 정도로, 저는 지금도 농사 조금 하거든요. 아침에 나가서 8시까지. 그럼 하루종일 노는 거예요. 고창에 나가면 고창 읍내 사람인 줄 알아요.

면담자: 네. 그 밖에 마을과 관련한 말씀 해주세요

신계원: 그리고 광대, 아까 얘기하다 말았지. 배성녀, 하군에서 살았어요. 그분의 그런 게 원래는 해리 금평애가 그런 당골, 배씨들이 많이 살았대요. 지금도 그것을, 그 지역을 별로 아는 사

람이 많아요. 그런데 현대화되고 지금 장어 키우는 양어장도 있고, 그런데 옛날에는 고쪽에서 왔다고 그래요.

면담자: 아무래도 바닷가에 있으니까, 그런 좀 신(무당) 굿거리도 많았겠네요.

신계원: 그것도 자료가 책에 있어요. 김경식 군장대 교수 퇴임하신 분인데 그분이 고창군청에서 거시기 해갖고 책을 쓴 것이 있어, 거기에서 보았는데 저도 잘 모르는데 금평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면담자: 그럼 주로 농업에 종사하시지요?

신계원: 학원농장이라는. 거긴 총리 지내신 진의중 씨가 개척한 땅이 거든요.

면담자: 혹시 그럼, 옛날 고택 이런 건 없을까요

신계원: 공음면에는 고택이 없어요, 고택으로 지정된 것이 없어요.

면담자: 오래된 집, 이런 것은 있나요?

신계원: 여기, 여기. 저 거시기 도봉사 그런 거

면담자: 도봉사

면담자: 사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느 문중의 사우인가요?

신계원: 그러니까 진주 정씨.

신계원: 용수리에 가서 청천사가 있고

신계원: 이거는 공음면입니다. 진주정씨는 군유리, 청천사 그것도 사우, 저 칠암리 갑촌에 도암서원.

면담자: 도암서원 그건 어느 문중 사우인가요?

정재인: 안동 김씨.

신계원: 안동 김씨. 아까 용천리, 청천사는 달성 배씨

정재인: 다 오래됐지.

신계원: 정자는 문헌에 나와 있는 거만 몇 개 있거든요.

면담자: 또 아까 효자 말고도 또 알려진 인물은 없을까요

신계원: 효자각이 지금 뭐 도암서원에도 효자각이 있고. 김 길, 거시기 선동리 해정의 양채룡 효자, 그리고 거시기 선동리 옥산

신계원: 옥산에 설씨 부인 열려각. 칠암리 용산에, 조 무신데 잊어버린 거야. 거기 부부가 효자 효부네요.

4. 진윤식



- 1945년 고창 해리면 출생
- 1994년 동학사업 참여
- 고창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이사장

○ 개 요

- 구 술 자 : 진윤식
- 면 담 자 1: 정성미
- 면담주제 : 동학기념사업회 활동 참가 이유 및 동학농민혁명과 송문수 이야기
- 면담일시 : 1차 : 2021년 10월 8일 오후 3시 30분
- 면담장소 : 무장기포지
- 면담차수 : 1차

○ 요약

고창 동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지내시는 진윤식씨는 일찍이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신 분으로 동학기념사업회 사업에 투신하신 이후로도 활발히 활동하셨다. 특히 직접 발로 답사하셔서 작

성한 논문 「동학농민혁명 진격로 고찰」과 논문과 송문수 뿌리 찾기 과정에서 작성한 메모 등은 진윤식씨가 동학연구에 얼마나 헌신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진윤식씨는 그간 동학기념사업회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소회와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점 및 추후의 연구과제를 말씀하시며 동학에 대한 큰 애정을 보여주셨다.

○ 목차

- 1.<지역사회 활동 참여 이유 및 시기>
- 2.<구수마을 경관 이야기>
- 3.<구수마을 동학농민혁명농민군 이야기: 송문수, 최경칠, 검 발견이야기>

○ 진윤식 구술 전문

면담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진윤식: 진윤식

면담자: 네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여기 고창에서 오래 사셨지요?

진윤식: 고창이었죠, 여기가 출생지죠.

면담자: 네, 해리가 출생지신가요. 선대부터 고창에 계속 사셨어요?

오랫동안 선생님께서는 이 지역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기념사업 일도 맡아 보시고 계시지요

진윤식: 네, 기념, 기념 사업회 이사장일을 맡아 보고 있습니다.

면담자: 지금 연세가?

진윤식: 1944년생이니깐. 네 지금 76이 되었네요

1.<지역사회 활동 참여 이유 및 시기>

면담자: 선생님께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지역사회에 이런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57) 1986년 전북 고창에서는 소작농들의 '소작답 무상양도' 투쟁이 일어났다. 당시

진윤식: 원래 1988년도에, 아니 1987년도에 삼양사 토지투쟁⁵⁷⁾이라고 해서

면담자: 삼양사, 김연수요?

진윤식: 그 말하자면 임대농 경작인들이

면담자: 소작인들이요

진윤식: 소작인들이 적어도 한 50년 이상을 임대료를 내고 저기 했으니까 이제는 무상으로 양도를 해줘라, 라고 하는 이제 큰 계보가 있었는데 거기에 조금 옆에서, 이제 곁들여서 보기만 좀 했었고. 그리고 나서 88년도 2월에 이제 해리면 농민회가 결성이 됐어요.

진윤식: 그러면 이제 농민이, 이제 다 농사꾼이니까 당연히 농민 조직이 필요하죠.

이제 나가봤더니만 특별히 회장 하겠다는 사람이 좀 마땅치 않고, 그러길래 내가 하겠다고 그렇게 한 다섯 번을 제가 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는 1988년도, 80년대 말 90년대 초, 저기 전두환 노태우 정부 시절이었지요

진윤식: 많이 농민들이 아 농민뿐만 아니라 저항도 했고 또 농민들의 이제 수세 투쟁이라든가 토지투쟁도 있었고. 그런데 그때 토지투쟁은 다행히 완전 무상은 아니더라도 1,881원씩으로 하고 이제 가격이 이제 저기를 했는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고창군의 농민회가 조직이 되고, 그때 이제 해리면 농민회장으로 시작을 하면서

진윤식: 1994년도. 그때 이제 농민회 활동도 악착같이 했었죠, 뭐 서

삼양사의 간척농지를 경작하고 있던 소작농들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농지개혁법이 제정(1949년 6월)될 당시, 삼양사의 간척지가 토지개혁 대상이었지만, 삼양사는 미간척지라는 이유로 누락시켜 개인이 부당하게, 소유하고, 수십년동안 불법으로 소작료를 받아왔다고 주장하며, 삼양사 간척답을 소작인들에게 무상으로 양도해줄 것을 주장했다. 이 투쟁을 계기로, 88년 3월부터 충남서산의 금은농장, 전남 영광의 학파농장, 신안의 송의농장 등 전국 각지에서 소작농들의 소작지 양도투쟁이 벌어졌고, 1988년 9월 전국토지무상양도 대책위원회가 결성됐다. 우리나라 현대농민운동사에서 힘없는 소작농들이 대지주인 삼양사라는 거대기업을 상대로 싸워 승리한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을 전주할 것 없이. 그랬는데 이제 1994년도 동학 백주년 행사를 이기화 원장님이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전주에서 이제 신순철 교수라든가 민족민주운동 세력들이 주도해서 했잖아요.

진윤식: 그때 이제 이기화 원장님이 우리 사무실에 오셔서 그때 이제 고창군 농민회 이 부회장을 할 텐데. 저기 고창군 농민회에서 좀 행사에 같이 도와달라고 하셔서 그때 우리 오교만 회장하고 나하고 둘이서 이사로 참여해서 백주년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면담자: 오교만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진윤식: 오교만 회장. 그때 오교만 회장, 고창군 농민회 회장님요

진윤식: 나는 이제 그때 부회장을 고창군 농민회 부회장으로 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동학 기념사업회에 이제 받을 들여놔요. 그런데 처음에는 여기에서 위령제 행사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면담자: 저기 기포지에서요

진윤식: 기포지에서 초기에 그것도 행정이 무슨 뒷받침도 없고. 다만 이제 공원 면사무소에서 조금 그때 행정에서 돈 조금 아마 줬을 거네요. 아마 그때 그렇게 해서 이 행사를 키우고, 이제 94년도에 그렇게 하면서 나도 농사가 많고 바쁘다 보니까 열심히 못했는데, 2005년도 그 특별법이 제정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저기를 했죠. 그 기념일 제정 동학 농민혁명 기념일 제정 관련해서 이제 학술 학회가 시작이 됐었잖아요. 네 그게 가을부터, 9월 달부터인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제가

면담자: 그러네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창 농민회 관련 문제 등 어려운 시기마다 주도적으로 나선, 그런 고집 이런 게 있어서 오늘날까지 오시지 않았나 싶어요, 선생님께서 지금 동학농민혁명 관련해서 입문하신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는데 동학농민혁명 관련 행사 등에 참여하시면서 느낀 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다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진윤식: 그러니까 이제 쪽 하다 보니까, 제가 한 10여 년 동안 한문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한문 공부라고 하는 것은 성리학 중심의 학문입니다. 우리 교수님이 아주 철저한 성리학자로서 의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나 같은 경우는 이미 농민운동을 했고 동학에 접해서 인간 평등이라든가 보통 사람들이 민주주의 권리 주장이라든가

진윤식: 이런 것. 또 이제 소위 저기 동학교, 지금은 이제 천도교로 바뀌었습니다만 동학 교회 교리 자체가 인내천 사상이고 사인여천이고 그러잖아요.

진윤식: 그 성리학자들의 사상에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소위 말해서 양반이라든가

또는 세도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일반 평민들은 또는 일반 천민들은 말하자면 온전하게 봐주지를 않았던 그 사회가 그렇게 됐었잖아요. 계급사회가 되가지고 그러는데, 그 틀을 깨기 위해서 동학 농민혁명이 기본적으로 일어났는데 결국은 동학농민혁명이 패하고 나니까 그러면서 뭐 일정 시대를, 일정 압박 시대를 거치고 어찌고 하면서 다시 그 옛날에, 물론 이제 민주화는 됐다고 하지만은 과거에 세도가들의 의식은 변함이 없더라고요

진윤식: 그래서 그 연장선상이 지금도 농민 말하자면 동학 농민혁명이 기본적으로 실패를 했어도 어느 정도는 역할을 했거든요, 민주화하는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동학 단체 관련 단체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유공자로 서훈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디서 막혀있냐면은 그 소위 말해서 유림 세력. 이 사람들의 틀에 막혀서 안되고 있어요

면담자: 네

진윤식: 왜 그랬냐 하면은 지금 보훈처에, 소위 말해서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면 심사위원들이 과거의 유림 세력들이 그대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옛날에 소위 말해서, 무슨 현감이라든가 어떤 관직에 있었

던 사람들이 농민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든가 피해를 입었다는 그런 얘기들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진윤식: 이런 것만 자기네들이 앞세우지, 실질적으로 국가 국민들의 평등사상이라든가 같이 살아가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면담자: 네

진윤식: 그게 그래서 그 틀이. 그 틀이. 그분들이 스스로 저기 과거에 모든 것은 물론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사실은 농민군들이 죽임을 당한 사람보다도... 아,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몇십 배, 몇백 배가 많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과거에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상황하고 기본적인 뿌리에 있어서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라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느껴온 실체입니다.

면담자: 선생님이 쓰신 「동학농민혁명 진격로 고찰」이라는 논문을 제가 아주 잘 읽었었어요. 왜냐하면 연구자들은 앉아서 그냥 사료만 보고 그러는데 선생님께서는 직접 답사하시면서 관련 사항들을 글로 쓰셨더라고요. 이렇게 실증적으로 동학농민혁명 관련 연구하시고 참여하시고 그러시면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밝혀져야 되겠다하는 것들이 있나요? 혹은 잘못 알려져 있거나 그런 것들이 있다가, 혹은 뭐 뜻깊게 뭔가 이런 성과가 있었다거나, 고창 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이 세간에 잘 알려졌어도 이런 부분들을 부각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진윤식: 근데 그 진격로 글 쓴 것은 사실은 그거. 저기 논문 형태로 나오기는 했지만은 논문 수준은 아니죠. 논문 수준은 아니고 다만, 네 이제 거기에서 두 가지 핵심 사항이 있는데. 하나는 옛날 사람들이 걸었던 그 길을 이제 정확하게 밝혀냈다는 거, 그것에 대한 의의가 있고, 하나는 무엇을 내용적으로 봐서는 무엇을 제기하나 하면 4대 정의하고 12개 기율이, 무장에서 같이 나왔거든요. 분명히 그러는데 그게 마치 따로 분리되어 가지고, 백산에서 나온 양으로, 나도 처음에 모를 때는 그냥 백

산 행사 때, 초기에 갔었거든요.

진윤식: 백산에서 4대 명의, 12개 조 호령 낭독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내가 저기를 하면서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사실은 처음에 포고문도, 포고문도 기포지에서 나왔다고는 않고 여시외봉에 무장 읍성을 점령하고. 여시외봉에서 발표를 했다고 그렇게 나왔거든요.

면담자: 처음에 누가요?

진윤식: 그건 이기화 원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면담자: 지금은 무장기포지로 밝혀졌지요

진윤식: 응. 아니 그러는데, 그런데 그게, 그 자료를 보니까. 그 우리 고창 지역에 동학 관련 사료 총서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여시외봉을 점령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고, 또 다른 자료를 끼워다 붙인 것이, 이제 여시외봉 다음에 이제 포고문 기록에 나와 있어요. 응 사료총서에 보니까. 그러니까 마치 농민군들이 여시외봉을 점령하고 나서 포고문을 낭독을 했다. 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저기를 했는데

진윤식: 그 뒤에 뭐 『오하기문』이라든가 다른 여러 자료에서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서 나오고 저기에서 나오고 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잘못된 오류이고 아,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무장기포가 1985년도에 신용화 교수의 글에 의해서 처음에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 학술 논문으로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학자들이나 그 조금 알지. 일반인들이 동학 관련 무슨, 동학하면 정읍 고부 봉기, 황토현 승전만 알고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진윤식: 무장기포가 완전히 누락되고, 이제 배제된 그런 상태였는데 그 이후로 이제 신용화 교수나 노영필 교수 등이, 이제 『수록』을 근거로 또는 이제 신용화 교수는 「전봉준 공초록」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이렇게 다 밝혀내고 그랬거든요.

진윤식: 그런다고 봤을 때 어쨌든 지금은 이제 동학 농민혁명 무장기포가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과서에까지 기재되고 그랬으니까 이제 많은 부분이 저기 했습니

다만 내가 저기 하는 과정에서 가장 또 이제 아팠던 부분이 이제 기념일 제정입니다.

면담자: 기념일요

진윤식: 기념일이 정읍으로. 이제

진윤식: 넘어간 부분은 그런데 일정 부분 이제 정읍 사람들의 지금까지 의식은 정읍이 전부인 것으로, 무장기포는 아네 생각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몰매 맞을 각오로 말하거니와 무장 기포는 없다고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는데 이런 저런 연유로 해서 또 이제 정치적으로 결국은 이제 정읍 쪽으로 넘어갔는데

진윤식: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아픈 것도 있지만, 우리 고창에서는 무장기포가 이제 올바른 역사에 편재되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펍 다행이고, 참 앞으로 우리의 책임과 책무가 크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 <구수마을 경관 이야기>

면담자: 선생님, 무장기포 현장에 왔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여기서 좀 떨어진 곳에 사시지만, 동학 연구하시면서 여기 자주 왔다 갔다 하시고 또 연구하시면서 무장 구수마을의 옛 모습이랄까, 구수마을에 대해 설명해 주실 것이 있는지요

진윤식: 아니요. 마을에 대해서는 네 거의 아는 게 없고, 또 다만 이제 송문수 관련해서는 이제 이따가 이제 별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내가 왔을 때는 이미 상황이 거의 다 정리가 되고

진윤식: 다만 이제 원래 이쪽에 물길, 물길 이것하고 이쪽에도 물길이 좀 있고 그러는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여기 옛날 그 소나무, 소나무 큰 게 하나 있었거든요

면담자: 당산나무 수구막이 말씀인가요?

진윤식: 어. 아니 아니, 아니 수구막이 역할도 같이 했을지는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길의 여기가 수구막처럼 해가지고 저 밑에

까지 쪽 연결됐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쪽에는 이제 팽나무 같은 거 오래된 나무 있고 그런데 이쪽에도 소나무가 많이 있었대요. 근데 내가 활동했을 때는 여기 한 그루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가. 그러는데 이 물길을 돌리면서 여기를 양쪽을 다 막아버리니까

진윤식: 말하자면 물 빠짐이 안돼 가지고, 결국은 죽어버렸거든요.

면담자: 정확한 위치가. 여기 소나무. 어디

진윤식: 여기 국기 봉 위쪽에

면담자: 국기 봉 위쪽에

진윤식: 여기, 여기 가운데쯤 더

면담자: 비하고 국기 봉 가운데 사이

진윤식: 네 네 네. 거기서 조금 네.

면담자: 오른쪽. 여기네요, 바로 여기

진윤식: 네. 여기 큰 소나무가 있었다. 큰 큰 소나무. 하여간 100년 이상 묵은 소나무도 멋있었는데.

면담자: 그럼 동학농민혁명 당시에도 있었겠네요. 백여 년 전이니까.

진윤식: 원래 있었던 소나무인데 이 물길을 여기를. 원래 물길이 양쪽으로 해서 이렇게 쪽 하니 저기 있었어요. 이제 그걸 메꿔버리니까 물 빠짐이 안돼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나도 봤는데, 그것을 내가 나도 내 농사하고 할 일하고, 어찌다, 한 번씩 와서 보면 저게 없고 죽어버렸네요

면담자: 제가 선생님 뵙기 바로 전에 공음면 면장님과 부면장님을 포을중 선생님 댁에서 뵈었는데요, 그 부면장님 말씀은 감나무가 있었는데 그 말목장터 감나무처럼 여기도 그걸 잘해서 상징화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라며 아쉬워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부면장님 말씀하시는 감나무가 이 소나무는 아니겠죠. 여기도 옛날에 감나무가 있었을 까요?

진윤식: 몰라. 있는 거는 모르는데. 감나무는 내가 봤을 때는 없었거든요.

없었고 다만 소나무 한 그루가 그 소나무 사진은 지금 어딘가 지금 있습니다.

면담자: 어딘가. 어디예요?

진윤식: 아니 우리 집에, 그전에 전주기념관 이은영 관장이 줬던가.

하여간 그 표용삼 선생님이 찍은, 그 자료를 한 번 줘서 있는데 하여간 나한테 어딘가 있습니다. 집에 서류가 이제 하도 넘쳐서

면담자: 선생님댁의 자료는 언제 기회 되면 보여주세요, 목록만 작성해도 의미가 있을테니까요

진윤식: 네, 시간 만들어 봅시다

면담자: 소나무 말고 구수마을 경관이나 마을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진윤식: 원래 저 위에 여기가 저. 지금 냇가가 있잖아요. 저 위에 원래 두암 저수지가 없었어요, 이제 두암 저수지가, 1925년도에 일본인들에 의해서 두암 저수지가 막아졌는데, 네 그거 없을 때는,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 위에도 한 600m, 거기서부터 모래사장이 시작이 되는 거네요

면담자: 저쪽에 들어온 두암 저수지는 동학농민혁명 당시에는 없었고

진윤식: 아니, 일단 저기는 있는데 냇가 흐르는 물 있는데

면담자: 막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진윤식: 그렇지요, 저수지는 좀 위에 있고. 근데 그 저수지도 왜정 때는 없었죠. 1925년도에 막아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이전에는 물이 여기 토질이 저기 황토하고 모래에 섞인 이런 흙이거든요. 그래서 비만 오면은 모래가 엄청나게 깔여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가 이 구수가 아홉 구, 물 수, 자를 쓰잖아요. 말하자면 아홉 골에서 물이 내려온다고 해서 구수거든요.

진윤식: 그러면 이 안에 골짜기 있는 물이 여름에 비 오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오면은 저 위에 한 600m 전에서부터 모래사장이 시작되지요. 저 밑으로 한 600m 그러니까 모래사장만 길이가 한 1.2km 정도. 물론 넓이는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고, 보통 웬만한 정도라고 하면 중간 정도. 잘하면 한 100m 넓이는 그런 정도로 저기로 있었고 이제 저 아래쪽에 가서 그 모래사장이 좋았던가 봐요.

진윤식: 그래 가지고 여름이라든가 단오 때라든가 약장사들이 온다든가, 단오 때 씨름이나 저기를 한다든가 추석 때 놀이라든가, 하여간 그런 놀이터 형태가 돼 있을 때요. 이 길 아래쪽에.

면담자: 네, 그러면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기포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어쨌든 훈련도 하고 여기서 수련도 하고 그랬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그 범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진윤식: 그러니까 아까 길이는 그 정도 되고 넓이는 옆으로 넓이가 한 100m, 길이는 1.2km. 1.2km. 저 위에서부터 석교 가는 중간까지

면담자: 네

진윤식: 그러니까 그 중간에. 넓은 데는 100m가 훨씬 넘는 데도 있겠죠. 좁은 데는 뭐 10m, 20m도 될 것이고 위에는, 그래서 평균 잡고서 한 100m 정도 넓이로. 이게 누 천 년 동안에 비가 오고 모래를 쓸어다가 이 덮고 덮고 한 것이, 그런 연유로

3. <구수마을 동학농민혁명농민군 이야기>

면담자: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동학농민혁명 관련하여 농민군 지도자인 송문수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진윤식: 송문수가 이 마을에 살았다고 그러는데, 김홍섭의 기록에 보면은 송문수가 이 마을 출신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이 마을인지 여기서 아까 용산 출신 모르겠지만 용산이 여기도 얼마 안 되잖아요. 거기 출신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옛날에 여기 송 씨가 한 집, 한 집 살기는 했었대요. 그 송씨가 송문수인지 아닌지는 모르지.

면담자: 그때 전운오 선생님이 얘기했던 저기에 숨겼다는 그분은 최경칠, 최경칠씨.

진윤식: 그리고 저 저 저기. 칼 장검. 장검은 저 집 바로 뒤쪽에

면담자: 저 저 노란 집

진윤식: 파란 파란색 집. 그 뒤쪽에. 거기에서 나왔고

면담자: 그럼 차철수 씨라는

진윤식: 아니야, 아니야, 백용만. 집

면담자: 백용만

진윤식: 지금 거기가 한 50대에서 60대 정도 되는데. 그 친구가 저거

지은 지는 지금 한 20년에서 15년에서 한 20년정도 되요, 집 지은 지

면담자: 수구막이 위치, 당산나무 위치 등 말씀해 주셨는데 또 다른 것이 있는지요

진윤식: 당산나무는 지금도 저쪽에 하나는 있습니다

면담자: 아까 이제 소나무 있었던 곳은 저기고, 추정 우물지는요?

진윤식: 아 우물. 저기쯤 되는가 보구만.

면담자: 저기 정도 되는 거고. 구수마을은 한 20여호 사는 마을, 그렇게 큰 마을은 아니죠.

진윤식: 20호 넘습니다. 이게

면담자: 20호 넘나요?

진윤식: 몰라. 지금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 본데 20호 넘습니다, 원래는 더 큰 동네였었는데

면담자: 그러면 이제 동학농민혁명 당시, 그러니까 19세기 후반기 마을에는 우물이 있어야 하고, 또 방앗간 같은 것도 있었나요? 마을에 뭐가 있었을까요?

진윤식: 방앗간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진윤식: 그 부분은 이제 전운오 선생한테 좀 물어봐야

면담자: 네, 저는 이제 마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어쨌든 기포지, 기포가 될 수 있었던 조건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진윤식: 네, 모래사장.

면담자: 넓은 모래사장과 또 기타 필요한 물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조직이랄까요

진윤식: 근데 물자는 이게 내가 농민운동을 해봐서 아는데 물자다 무엇이다 또 이제 어떤 분은 여기 천안전씨 문효공파가 있었다고 하는대요

면담자: 천석꾼이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진윤식: 나는 그거 전혀 아니라고 늘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운동권 사람들이 전씨 찾아다니면서 운동 안 해요. 의지가 맞는 사람들끼리, 뜻이 있는 사람들끼리 하지. 종씨라고 해서 저기 오고 뭐 하고 전혀 그것도 이제 혹시 옛날에 그 양반들이

진윤식: 자기네들 좋은 일이 있어서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이 가능하죠. 생각해 보시오. 전봉준은 여기 할아버지 대에 들어서 전봉준이 열세 살에 나갔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걸어 다니는 시절에 여기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겠어요? 아이, 그것도, 전봉준 집안이 좀 무슨 세력이나 있고, 관직이라도 있다고 하면 혹시 찾아다녔을지는 몰라요. 아니면은 이쪽이 뭐 그런 것이 있다거나, 그래서 그리고 또 농민군 초기에 저기 했을 때 기록에 전 씨가 거의 없습니다. 전씨도 아까 송문수라든가 송경찬이라든가 다른 분들은 수없이 나오는데, 거의 없습니다

면담자: 네

진윤식: 다만 이제 바다 물길이 여기까지 들어왔다고들 얘기하더라고요, 그 전운오씨가, 그러는데 바닷물이 여기까지 들어 왔다고, 근데 평소에 물이 여기까지 올 것은 아니고 말하자면 저수지, 아니 바다 끝자락이 되서 갈대밭이 되고 이제 그런 형태

면담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송문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진윤식: 저기 내가 그 송민수 때문에, 송문수 뿌리를 좀 찾으려고, 사료총서하고 이제 그게 또 국역 총서 있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그 송문수 관련해서 조사를 다 했거든요.

면담자: 네, 조사과정이나 관련된 상황이 담긴 자료가 있으시지요

진윤식: 아니 내가 내게. 아마 저기가 있을 거네요. 저 뭐지. 찍어 가지고 다니는 거

면담자: usb요, 파일 저장 장치요

진윤식: 맞아, usb에 저장해 놓았지요, 아무튼 결국은 송문수 뿌리는 찾지는 못했는데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은 다 이렇게 기록해놓았지요[관련 한글 자료 보여주시면서-부록에 첨부]

면담자: 네, 이게 중요해요.

진윤식: 그런데 저기, 그렇게 찾다가 보니까. 어떤 송 씨를 만나 혹시 저기가 진짜 했는데 거기도 사실은 아닌 것 같아. 하여간 이분들 내가 다 그때 당시 찾아다니면서

면담자: 네

진윤식: 저기, 내가 저 아래 석교 마을에 김채용 씨를 만나가지고 저

기를 했거든요

진윤식: 가만있어, 이 양반이 무인생 무인생이니까

진윤식: 삼십팔 년생이 무인생 아닌데,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임오 계미 갑신

진윤식: 위로 여섯 살, 38년생, 6살 맞는가

면담자: 무인생이라고요

진윤식: 근데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아, 이거 저 송문수 찾으려고 별군 데를 다 다녔는데. 음, 여산 송씨가 아닌 것 같아. 여산 송씨가.

면담자: 네

진윤식: 여기 한번 봐보시오(수첩 기록을 보여주시면서). 2014년도 7월 30날인데,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송재선은 어머니

면담자: 선생님, 고생하셨네요

진윤식: 어머니. 황수남 씨 그때 당시에 71살이야, 면담을 했는데 이 양반이, “문세야. 문세야 송문세야. 너네 군사 어디 두고 지하장골에 묻혔느냐”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는데 이 양반이 이제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할아버지들한테 들은 민요조 노래라고 그래, 말하자면 아까 나 부르는 식으로 뭐 그렇게밖에 부를 수 없제. 그래 가지고 형제간에 말 타고 다니며 활동을 했다고. 근데 아까 저 저기도. 그 표을중 선생님도 말 타고 다니면서 뭐 했다고 얘기하죠.

면담자: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송문수 생가와 그 딸과 증손들 찾으려고 했는데 그게 없고. 뭐 힘들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산마을이 송문수와 관련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윤식: 그런데 용산마을하고 거기서 내려오면은 소재지 건너편에, 건너편에 동네. 거기가 다. 예산 송씨 집성촌이거든요. 그래서 장동마을, 여기 조금 가면 이제 그 장동마을 골짜기를 지하장골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이제 장동마을 어떤 친구한테 물으니까 장동마을 앞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고 장동의 나삼주라고 하는 이 친구, 농민회 같이 활동했던 하는 이 친구가 이

제 마을 앞 한 부분이 지하장골이라고 한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러나 석교의 김채용 씨는 지하장골이 지하장골이 아니고 그
냥 지하자골, 말하자면 기와장을 말하는 것이라고, 여기서 우
리 여기 전라도에서는 그 뭐야. 기와를 지하라고 하고 그러거
든요. 그래서 그냥 지하자골이라고 하는데, 그 어원은 알 수
없다고, 2016년 2월 16일. 그래서 자택에서 이제 그 얘기를 들
고 2017년 6월 20일 석교마을 김남용 씨. 남용 씨는 김채용 씨
형님이요. 1934년생 지하자골 확실히 지목해 줬지, 공음면 석
교리 31번지 일대 큰길에서 석교마을 들어가는 소로 왼쪽으로
약간의 골짜기

진윤식: 그래서 지하장골은 한번 저기 했으니까 만일 필요하시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송문수가 아까 지하장골에 누웠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묘를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원 묘는 거기
가 아니고 장동마을 뒤에, 혹시 한 번이나 안 가보셨어요.

면담자: 네, 안가봤어요

진윤식: 거기 저기 옛날에 이진영 선생 또 원도연 선생이라든가, 신순
철 교수. 네 이렇게 같이 가지고. 그 묘지를 확인한 적이 있었
어요. 네, 그래 가지고 나중에 또 이제 한번 오셔가지고. 신순
철 선생님하고 같이 그 현장에 갔었거든요. 갔는데 그 묘지있
는 자리가 전부 다 지금은 대밭이 우거져버렸고

진윤식: 그나마 이제 길 집 뒤에 길 있는 밑에 묘가 있었는데. 말하자
면. 길을 내면서 흙을 파서 묘 위에 그냥 다 덮어버려 가지고
봉분이 없어져 버렸어

면담자: 아, 그렇군요

진윤식: 봉분이, 그래서 이것을 그런데 이제 그 묘를 한 번 그 발굴을
해보고 싶은데. 발굴을 해도 뒤통리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요.

면담자: 네, 이따 한 번 가보시지요

진윤식: 그러잖아요. 그리고

면담자: 묘의 주인과 그 후손이 있어야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은대요

진윤식: 그러니까 하다못해 후손이 있다든가 뭘 해야 하는데, 후손도
없지.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발굴하려면 또 발굴 허가 내야 되
잖아. 허가를 낸다고 치더라도 거기에서 뭐 뼈라도 나옴라고
보면은 그것을 어디다가 다시 이장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
요. 그 대책이 안 서더라고

면담자: 그러니까 어쨌든 어디든 실제로 송문수의 시신이 있었을 것
이다, 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럼 아까 표을중 선생님은 허묘라
고 말씀을 하시던대요

진윤식: 아니. 아니 허묘 아니에요

면담자: 그래요. 아까 허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진윤식: 네. 그러게 거기서는 그렇게 했는가 모르는데, 아까 내가 준
자료를 보면은 그 이현숙이, 그 범성포 진이잖아요. 근데 같이
저기 저 저기 신안 앞바다까지 갔다가 범성 아니 영광 와 가
지고, 뭐 트집 잡아 가지고 송문수를 거기서 쏘아 죽여버렸거
든요. 그리고 나서는 송문수의 머리를 자르고 관에다가 갖다
바치니까, 아이고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얼마
안 가서 그게 탄로가 나. 저놈은 동학군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
다가 변절해가지고 저기했다는 거야. 그러는 그 과정이 거기
다 나와. 내가 전부 다 찾았어요

면담자: 네. 이제 선생님이 이제 동학 연구하시면서 무장지역 동학접
주였던 송문수라는 인물에 대해 후손도 찾아보고, 묘도 한번
찾아보고 그런 연구 활동을 좀 하시는 과정 중에 이런 문제점
에 봉착이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중요한 거는 지금이라도 송문
수에 재평가 되어야 되고 더 고창지역의 동학을 알리기 위해
서라도 연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진윤식: 그런데 이제 9월 2차 봉기 있잖아요.

면담자: 네

진윤식: 2차 봉기는 이제, 이제 좀 뺨뺨기는 됐는데, 과장은 됐지만
어디에서, 누가, 몇천 명,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 청송에서
송문수가 5천 명인가를 동원했다, 그런 기록도 나오고 그러거
든요. 네 그러는데 이제 어찌 됐든 그럴 정도로, 초기에도 여

기에서 이제 최초로 만난 것이 저기잖아요. 전봉준이 여기 와 가지고

진윤식: 손화중, 김성철, 정백현, 전봉준 이렇게 네 사람이 만나잖아요. 그 과정에 이제 김성철은 아직은 나이가 그때 이제 스물한 살인가 되는데도 아직 어리다고 해서 이제 옆에서 이제 저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2월 19일에 이제 신촌마을에서, 신촌마을에 김홍섭이. 아 김성철이 집에서 열세 사람이 다시 만나서, 손화중을 설득시켜서, 이제 동의를 받잖아요.

진윤식: 그래 이제 그럴 정도로, 말하자면 송문수가 깊이 관여하고 활동했는데도, 어쨌든 여기에서 기포한 것은 첫째는 여기 장소성이 좋았고 훈련을 한다든가, 그리고 송문수라고 하는

이쪽에 이제 중간 지도자가 있었고, 그런 과정이 결국은 여기에 말하자면 기포지가 형성되는 요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저기 뭐 법성면 진량면 용현리 대밭에서 대나무를 베어다가 죽창을 만들고 여기 석교포 여기 가가지고, 쌀 60가마를 쌓아놔는데 그 것을 탈취해 왔다라든가 그런 저기가. 저기는 이제 석교 창이에요, 근데 혹시 석교창 가보셨어요

면담자: 네, 안 갔어요. 그냥 지나치기만 했어요

진윤식: 창 있던 자리에

진윤식: 거기만 이따가 한 번 한 번, 그 송문수 묘자리도 한 번. 가서 보시고.

면담자: 네

진윤식: 그렇게 하고. 이제 내가 하여간 2005년도 이때부터 행사라든가 회의라든가 할 때 늘 저기 하는 학술 발표라고 하는 자료는 이제 쪽 저기 해놔는데, 물론 이제 선생님은 이제 대부분 다 있겠지만은, 이 혹시 또 다른, 저기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 보면은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은 송국채 씨. 이분이 원래 이 근처에 살았던 분이예요. 그러는데 이 양반이 여산 송씨거든.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석교 이쪽에서 살다가 이제 법성 그쪽으로 이사를 간 양반인데 이 양반이 그때 당시에

84살인가 드셨어.

면담자: 그 당시가 언제예요? 선생님이 조사하실 때가 84세이시면 지금은 살아 계신가요?

진윤식: 그러게, 아마 이 돌아가셨을 거네요. 음 하여간 2014년 전후, 인자 그 무렵 돼요 송국채 선생님이 이사 가셨는데. 그런데

면담자: 법성으로요

진윤식: 그가 여산 송씨인데. 여기서 이제 시제 모시면은, 이 집안들끼리, 이제 송문수 애기도 이제 가끔 나오고 그랬데, 그랬는데 말하자면 목은 잘려서 서울로 가고 이제 몸만 여기 와서 이제 묻혔다. 이런 이제 식으로 저기를 했는데. 그러는데도 말하자면 자기 집안이라는 얘기는, 자기 같은 성씨라는 얘기는 못 들었다 이거네요

면담자: 혹시, 바꿔 생각하면 우리 집안에 화가 당할까 봐 얘기를 안한건 아닐까요?

진윤식: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의미로서

면담자: 네, 여산 송씨는 아닐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진윤식: 아니, 자기 자신의 같은 동성은 아니라고. 동성이라는 얘기는 못 들었다고. 그런데 여기에 주 성씨들이 여산 송 씨거든요, 그리고 은진 송 씨는 고창 읍내 도산에서 우리 해리까지 온 것이 전부네요. 은진 송 씨는 더 이상 다른 데 간 데가 없고. 이쪽으로도 없고. 저쪽에 무송현 성송 쪽에 가면은 그 신평 송씨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은 있는데, 거기를 그쪽이라 내가 찾지를 못했어요.

면담자: 네

진윤식: 그리고 또 이제 진천 송씨가 여기 장성에 가면 있는데, 진천 송씨도 내가 정식으로 제대로 조사는 못했고

면담자: 네, 송문수에 관한 얘기는 아까 무장기포지에서 중간 지도자로서 의미가 굉장히 있는데 아직 규명이 제대로 안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진윤식: (자료를 보여주시며) 855-4. 녹색 부분이 송문수의 묘지로 추정을 하였으나, 석교리 김채용 씨의 증언은 그곳이 아닌 전중

근 씨 집 뒤쪽이라고 한다.
 면담자: 선생님 이것도 사진 제가 찍어도 괜찮을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럼 현장으로 가보시게요

5. 김용철



- 1947년 고창읍 당촌마을 출생
- 20대 객지생활을 하다가 36살 무렵 당촌 마을 재정착
- 다수의 구술경험 보유

○ 개 요

- 구 술 자 : 김용철
- 면 담 자1: 정성미
- 면 담 자2: 임상민
- 면담주제 : 당촌마을의 역사와 동학농민운동
- 면담일시 : 1차 : 2021년 8월 24일 오전 10시
- 면담장소 : (1차) 당촌권혁문화센터
- 면담차수 : 1차

○ 요약

김용철은 1947년생으로 당촌마을 출신이다. 그의 아버지는 아산면 출신이었으나 당촌마을로 이사한 후 김용철을 포함 오 남매를 낳았다. 그는 객지 생활을 하다가 36살 무렵 다시 당촌마을에 정착하였다. 김용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은 전봉준 생

가터 바로 앞이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와 마을주민은 전봉준에 대한 이야기를 어린 김용철에게 들려주었고 그는 아직도 이 이야기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김용철의 증언에 따르면 어릴 적 아버지를 통해 63번지 일대가 전봉준 생가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마을주민이었던 조규택은 전봉준과 두 살 차이로 친구처럼 지냈다고 한다. 그리고 전봉준은 체구가 왜소했으나 마을에서 대장노릇을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김용철은 옛 당촌마을에 대한 모습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어릴 적 마을에는 약 20여호가 거주했다고 한다. 그리고 당시 거주했던 주요 성씨들로 조 씨, 정 씨, 송 씨, 김씨 등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당촌마을 토지대장에 나타난 이름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을의 대표적인 축제로 햇불싸움이 있었다고 한다. 정확한 방식은 모르나 전봉준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현재 햇불싸움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현 당촌권혁문화센터 바로 앞에는 느티나무 다섯 그루가 있었다. 이 곳에서 당산제가 이루어졌으나, 현재 세 그루는 죽고 두 그루만 남아있다. 근처 개천가와 그 끝에는 큰 소나무들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옛 진입로는 느티나무 밑으로 연결되었으나 최근 도로공사로 인해 현재의 마을도로가 조성되었다. 모정에는 두 아름 소나무가 있었고 나무 그늘 아래 마을 어르신들이 자주 모여 있었다고 전해진다.

공동우물의 경우 마을에 1개가 있었다. 공동우물을 통해 마을 주민들이 식수를 해결했다. 그리고 그 근처 우물에서 세어 나오는 물을 따라 미나리깁이 있었다. 우물위치는 현 당촌권혁문화센터 좌측, 마을 입구 쪽에 있었으나 현재 우물은 없고 그 자리에는 집이 세워졌다.

이외에도 맹무동(맥모동, 말무동)이라 불리는 고분식으로 크게

조성된 지형이 존재했다는 이야기, 고속도로가 나기 전 호암산 산맥이 당촌마을까지 연결되었고 이 곳에서 마을주민들이 땀감을 떼었다는 이야기, 당산나무 이야기 등을 김용철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었다.

○ 목차

1. <전봉준 생가터에 대한 증언>
2. <당촌마을 인물과 성씨>
3. <당촌마을 민속과 경관>
4. <한국전쟁 이야기>
5. <마을 가게>

○ 김용철 구술 전문

면담자: 선생님. 선생님 성함과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김용철: 김용철입니다. 47년생이고

면담자: 네, 당촌마을 주민이시지요, 여기서부터 언제부터 사셨어요?

김용철: 그러니까 나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

면담자: 본적지가?

김용철: 아버지 본적지는 아산면이고 아버지 때부터 사셨어요. 아버지가 이쪽 이사 오셔 가지고 나를 낳고 내 동생도 여기서 오남매를 낳았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산 거죠.

면담자: 아버님 형제는 몇분이신가요?

김용철: 아버님 형제가, 사형제.

면담자: 사형제군요. 그러면 아버님 죄송하지만 아버님 태어나신 해가?

김용철: 일찍 돌아가셔서. 잘 몰라

면담자: 그러면 47년생이시니까 선생님이. 그래도 한 뭐

김용철: 내가 왜 그러냐면. 아버님, 아버님 돌아가신지 몰라요, 57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님 연세 57세인데 그때 내 나이가 스물한 살인가. 내가 지금 군대에 그때 영장을 받았는데 내가 객지에 있어서 내가 몰랐어. 그런데 그때 나중에 이제 동네 친구들 통해서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렇다고 내려와서 보니까 아버님 상을 치려 버리고

면담자: 네 선생님께 전봉준 생가가 있었던 이 곳 마을에 대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김용철: 여기(전봉준 생가터) 바로 앞이 우리 집이야. 여기서 내가 75년 살았어. 호적에는 49년생인데 원래는 47년생이야. 옛날에는 다 그랬어

면담자: 네 그렇죠.

1. <전봉준 생가터에 대한 증언>

김용철: 이제 여기가 그 앞 동네 조기택씨라고 돌아가셨어. 그 양반 아버님이 살아 계실 때 그 양반하고 녹두장군하고는 두 살 차이요. 그 고증을 그냥 이기화씨도 그걸 왜 확실히 못 밝히냐 이 말이야 그래, 나는 그 얘기를,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다 들었고 또 어른들 통해서 다 들었어. 그건 사실인데 지금까지 전부 다 왜곡 돼가지고 멀리 어디 정읍이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이 사실은 전부 왜곡된 것이었어. 그 양반 산 증인이 있어서도. 왜냐하면 다 돌아가셔버리니까. 이제 누가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기는 어떻게 하나면 아버님이 이제 여기가 우리 집 옆에 가 전봉준 생가라 하더라.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아버님만 아는 것이 아니고 형철의 아버지. 형철이 아버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형철이 아버님 친구가 덕정의 조기택 씨, 그 양반 지금 연세 87세 돌아가셨어. 조기택 씨 아버지, 어 그 양반하고 전봉준장군하고 나이가 두 살 차이라고. 그래서 알았지 누가 뭐 아무도 몰라 이거는, 돌아가셨으니 뭐 증거를 어떻게 찾아. [조형철 조부 조유택 증언]

면담자: 그러니까 선생님 아버님이 들으셨다는 얘기죠

김용철: 아버님한테 제가 들었죠. 아버님은 그 얘기를. 아버님한테 듣기 들었기도 했지만. 여기 조형철이라고 그 아버지가 지금 치매 끼가, 그 양반이 지금 여든 여섯 살인데. 아니 야든 여덟 살이구나. 그 양반 친구가 조기택씨요. 덕정의 조기택씨 동창이고. 근데 그 양반 아버지가 조형철의 아버지 한테다가 그런 얘기를 한 거요, 그래서 여기가 그 양반하고 녹두장군은 두 살 차이다. 그리고 친구처럼 지냈다 여기서 그리고 이 앞에서 그 햇불이라고 하면 녹두장군이 대장노릇 했다고 채구가 쪼그만 한다.

면담자: 햇불싸움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해주세요

김용철: 어, 얘기 들어보면 나이가 10살 9살. 그때 그 양반들 그 얘기 들어보면. 그때도 대장군이었던구먼, 모든게. 있지. 월등히 뛰어나니까. 그러니까 여기 도산하고 여기서 이쪽하고, 죽림하고, 당시 햇불싸움을 했는데 근데 그쪽에 동네가 겁내 많네. 그런데 여기가. 여기 와서 이겨, 전봉준 진두지휘하고 어린 애들이 어린애들끼리, 어른들이 아니고 어렸을 때니까 열 살 그렇게 열두 살 때 뭐 이렇게 했는데 진두지휘를 이 전봉준장군이 했다 이거네요.

면담자: 혹시 전봉준 생가와 관련하여 말씀하실 부분은 없는지요?

김용철: 63번지가 지금 여기 일때지, 여기(생가터 앞 주차장 쪽) 내가 그래서 저기도 그전에 집을 크게 지었지 아시죠? 그런데 그때 군에서 크게 지었는데, 내가 이진 아니다, 쪼그만한 오막살이였었는데, 어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걸 그냥. 그랬더니 sbs 촬영 나와서 나는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진, 나는 거짓말 못한다. 저건 저런 집이 아니었다 하니 나중에 허물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요. 내가 더 이상 말씀드릴 것 없어.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나는 이런 생각 해 봐요. 참 동기는 좋았고 시작도 좋았고 그 탐관오리를 정부에서 그걸 저기를 했는데, 맨 마지막 전투 때 전투는 안 하고 그냥 항복했으면 수 많은 농민들이 안 죽었을거야, 이거. 그게 좀 아쉽더라고, 그런 생각

을 해봐, 그것 참 순진한 우리 농민들 힘도 없는 농민들 다. 그렇게 안 죽고도 할 일을 책임자들만 죽던지. 어째서 그게. 그때 그 마지막 전투만 안 했으면은 그것이 아쉬워요, 그걸 보면은 너무 많이 죽었어. 근데 그 사람들 유령은 지금 뭘 남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가슴 아픈 데

2. <당촌마을 인물과 성씨>

면담자: 선생님은 여기에서 쪽 살으셨나요

김용철: 아니, 객지에 나갔었지

면담자: 그래도 어렸을 때 마을에 대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김용철: 어렸을 때는 알죠. 그렇죠, 그건 알죠.

면담자: 선생님 기억에 선생님 어렸을 때 이 그 마을이 대개 몇 가호 정도 됐어요?

김용철: 그때는, 나 어렸을 때는 우리 집 있잖아요, 우리 집 여기. 그 뒤로 집이 네 채가 있었어. 저쪽 집도 하여튼 한 20호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집 뒤에 그 주변에만 네 채라니까. 내가 알기로는

면담자: 주로 어떤 성씨들이 살았나요?

김용철: 조씨, 정씨, 송씨, 김씨, 그런 사람 다

면담자: 혹시 기억에 나는 사람들이 있나요? 당촌마을 출신으로 알려진 사람도 좋구요?

김용철: 그때 시대 잘 나가는 집안이 정 씨들이 잘 나갔는데, 정학수 정학수가 우리 정수 아버지 고창 당촌 출신이요. 농산물 차관 하던 정학수, 고창군수 재작년에 나왔던 정학수가,

면담자: 무슨 정 씨예요?

김용철: 저 영성 정씨, 여기가. 그래서 그. 사형제가 살았어요. 학수 아버지가 여기서. 거기서 그랬고. 그 후로는 이제 정씨들이 좀 저기 되니까 형철이네들 조 씨들, 조씨들이 이제 성공하고. 지금까지는 잘 나가고 있지. 정씨들은 다 떠나고 한 집만 살아.

3. <당촌마을 민속과 경관>

면담자: 선생님이 어렸을 때 여기서 살았던 기억 중에 마을의 행사, 기억나는 이야깃거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김용철: 우리 저 그 양반이 돌아가셨어. 임오생인데, 지금 80인데. 그 양반들이 얘기는 해. 그때부터 쥐불놀이 햇불싸움을 시작했대야.

면담자: 네

김용철: 왜 그러냐. 그것이 이 녹두장군 때부터 시작된 것이 그렇게 이어왔다고. 같이 다. 그냥 이 주위에 전부 다, 그래 가지고 패싸움 식으로 해가지고, 패 나눠서 이기고 지고 그렇게 했다고 들었는데, 우리 때는 그게 없었어요.

면담자: 선생님 어렸을 때는 없었지만은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말씀이네요, 그런데 녹두장군 때 쥐불놀이가 시작됐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김용철: 모르지, 그 햇불싸움, 그런 그런 거 있었지. 그 얘기를 들었어. 그것도 그랬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면담자: 네네, 혹시 선생님 어렸을 때 기억하고 혹시 변화된 마을의 모습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김용철: 아니 왜, 이 앞에 우리 느티나무가 다섯 그루가 이 아름다리가 있었는데요. 세 그루가 이상하게 타의에 의해서 고사되어 버렸어요. 두 주만 살았죠.

면담자: 혹시 거기서 당산제도 했나요?

김용철: 어마 어마 했죠.

면담자: 그래요. 그 느티나무가. 그 느티나무에서

김용철: 그래가지고 길이 이 길이 이렇게 난 게 아니고 우리 동네 진입로가 그 나무 밑에서 이렇게 길이 났어, 옛날에는 지금 들어오는 길이 아니야 이 길은, 우리 몇 년 전에, 얼마 전에 우리가 서둘러서 앞으로 뚫은 거야. 그리고 지금 여기 개천가에 소나무가, 큰 소나무가 있어. 그것도 없어져 버리고, 개천가에 지금 이 길 따라서 내려가면 저 끝으로 가 이 나무 밑에를 쪽

따라서 끝에 그런 나무는 그것도 없어져 버렸지.

면담자: 그 한 그루가요? 아니면 여러 그루가?

김용철: 그건 한 그루고, 여기 모정에 소나무가 두 아름 되는 소나무가. 이 두 주가 정말 좋은 놈이 있었다니까. 그런데 다 없어지고 제일 못난이 갔다가 옮겨놔요. 심어놔지 여기.

면담자: 그럼 동학농민혁명 당시에도 그 나무는 있었겠네요?

김용철: 그럼 잇었겠지, 엄청나게 컸다니까, 그때 엄청나게 컸죠. 이가 이것이야. 그리고 그, 그 옆에 모정 옆에 두 개가 있었거든. 그놈 말고 두 개다. 그놈들 중에서 하나는 어떻게 잘못했고. 죽어서 하나가 지금 옮겨심은 거 그거야, 이거 옮겨 심은 거.

면담자: 어디 있어요?

김용철: 여기 바로 앞에, 그리고 이쪽, 이쪽 길가에, 모정이 있었어요. 여기가 모정이 있었고 거기에 소나무 두 아름 소나무가 있었고 궁계 여름에는 그 나무 무지 시원하잖아. 어릴 때 우리 거기 가서 그냥 모여서 얘기하고 먹고 그랬어.

면담자: 그렇지요, 나무 밑에 시원해서 어르신들도 모이고

김용철: 아 그렇죠.

면담자: 공동우물은?

김용철: 네 공동우물 있었어요.

면담자: 20여 가구에 하나 있어요?

김용철: 네 그렇죠. 물 퍼다가 다 실어다 먹고, 빨래도 하고, 빨래가 많으면 대충 넷가로 나가고

면담자: 네, 20여 가구에 사시는 분들의 생활 식수 및 간단한 빨래는 우물에서 해결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김용철 : 그렇지

면담자: 선생님 어머님은 어디 분이셨어요? 대개 마을에서 결혼은?

김용철: 어머님은 아버님은 한 마을에서 계시다가 만났지

면담자: 이 밖에 마을사람에 대한 기억은 없으신가요

김용철: 그거. 그거하고 우리 저 맥모둥 있던데 그 실은 맥모둥이 아니고 말무둥이라고 그러는데. 무덤이 아니고 말무둥. 그것이 지금도 어디 고분처럼 큰 왕릉처럼 그게 존재하고 있었는데

땅 주인이 소나무 키우고 묘쓰고, 그 형태가 그대로 있어요. 지금. 좀 돼 있어.

면담자: 이게 맣무둥이 지명인가요. 지명인데 그 형상을 따라서 맣무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김용철: 우리가 옛날부터 맣무둥으로 불려왔지, 근데 그것이 지금은 다 개간을 하고 땅을 좀절개 해서 없어졌어요. 호암산, 호암재, 호암재에서부터 우리도 여기 뒤에까지 산이 연결이 돼 있었다고, 지금은 없어요, 없어 전부 들판이야. 그 산이 산맥이 우리 동네까지 딱 연결이 돼. 뒤에까지 연결돼 있어. 고속도로 나기 전에 다

면담자: 위치가. 혹시. 지변이나 위치?

김용철: 24-14번지 옆에 가면 맣무둥이 있을 거야. 그걸 찾으면 그 맣무둥이 나올 거야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옛날에는 나무를 그때는 해다 떼었거든. 땀감이 없으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길 이 이곳으로 나기 전이니까. 이렇게 해서 맣무둥 길이 이렇게 호암산까지 연결되서(지도를 보며) 이게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이 호암산에서 땀감을 얻었지.

면담자: 우물은 어디 있지요

김용철: 우물은 동네 안에 있고. 이거, 이거 형철네 집이야.(지도를 보며) 이거 우물이야 우물, 57번. 57번지일 거야 57번지

김용철: 여기가 죽림리 57번지고, 샘이 있어 가지고. 그럼 샘이 그냥 댕 남고

사무국장: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지금 다 도로라, 국유지로 해서 다 이거, 이거 사이로. 다 지금 번지를 먹고 있잖아요, 지금 전부 다

김용철: 샘이 있어 가지고 구루마가 돌아다니고, 요 옆에 미나리깡 요 옆에 미나리깡

사무국장: 이 워낙 적었네. 이가 좀 넓은 데잖아요.

김용철: 그래서 그 시절은 그가 넓어. 그럼 여가 공동우물. 그리고 이 쪽 앞에 쪽이가 이 물이 나오고 스미잖아. 미나리를 해서 많이 키우고

면담자: 당촌마을 집은 초가집이었나요?

김용철: 기와집은 없었지, 당산나무는 고속도로 나면서 싹다 베어버렸지, 없어졌어, 당산나무 들어가는 돈을 받아 가지고 우리 동네에 좀 썼죠.

면담자: 당산나무는 무슨 나무였어요?

김용철: 소나무. 소나무가 이렇게. 소나무가 두 가지.

면담자: 아까 말씀하신 소나무는 아니죠?

김용철: 아녀, 당산나무는 이 시정(우물)에 있었고. 모정이 여가 있었다니까.

김용철: 형철이 땅으로 되어 있잖아. 바로 그 앞에 시정이었어, 모정 옆에니까. 똑같아요, 같아요. 고속도로로 들어가 봤다니까. 이거

면담자: 그 지번이 대충?

사무국장: 53번지구만

김용철: 아니야. 여기 이 집이 있지. 이 집, 하우스 이 부분이 있었당께. 이 부분이 요, 요 부분이 고속도로까지 들어갔어. 이 집하고 거리가 가까웠어.

사무국장: 이 집이 20번지, 20번지가 54번지구만

면담자: 그럼 53, 54, 91-2, 92-3번지

김용철: 산이 저 호암산까지 다 연결이 돼 있었다고, 그게 고속도로 나면서 저쪽에 절개를 싹 해버려 갖고 그가 별판이 되어버리지. 시상에 흙을 싹 빼 버려 갖고

면담자: 또 당촌마을 경관하면 생각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김용철: 요 앞에 냇가에 소나무, 실개천

사무국장: 이쪽으로 이렇고. 그전에 개천이 있었다는 거네요 지금. 지금 있는 자료에 이렇게 있고, 지금도 실개천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제 지금 여기 앞에 있는데

면담자: 실개천은 그대로예요? 실개천도 지번 비슷하게 한번 연결은 되겠지만..

사무국장: 이제 지금 도로인데

면담자: 10, 13번지 쯤 부분, 그럼 예전에 여기도 다 지금처럼 이렇게

논밭이었어요?

김용철: 여기가? 그전에 다 다랭이 논이었지. 지금 경지정리해서 그렇지, 실개천이 이렇게 흘렀지, 그전에 이렇게 흐르지 않았어. 여기서 하여튼 내는 물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렇게 동네 앞으로 돌아서 여기 지금 정자나무 밑으로, 이 그런데 이제 경지정리 하면서 반듯이 내버렸지, 지금도 있어. 이쪽으로는 좀 이렇게 서로가 경지정리하면서 반이 떨어버린 거야.

면담자: 선생님, 어렸을 때 뭐 해 드셨어요? 어떤 음식이 생각나세요?

김용철: 먹고 살기 다 힘드니까 시골에서 뻥하지요 뭐, 근데 국수가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가난한게 쌀밥은 생각도 못 하고, 저 이렇게 칼국수. 그게 더 많이 먹고 그랬어요.

면담자: 특별히 생일날이나 뭐 아니면 뭐 명절날 이거 맛있었다. 우리 마을에서 이런 게 생산되고 우리 마을만 가면은 이 음식이 생각나더라 타지에서?

김용철: 없었어. 그거 객지 생활하다 내가 여기 들어올 때는 이제 36세에 들어왔다. 군대제대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

면담자: 어렸을 때 재미있게 들은 이야기나 전설, 혹 전봉준 장군 이야기도 좋고. 생각나는 것 있으신가요?

김용철: 별 들은 것 없고, 지금 임오생들 얘기 들어보면 그 양반들이 나보다 5살 위 형들인데, 그 형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국군들이 불 싸움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

4. <한국전쟁 이야기>

면담자: 한국현대사, 한국 전쟁 등 여러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관련해서 들으신 것은 있나요?

김용철: 그 얘기는 어렸을 때 좀 들은 거. 호암산, 호암재 알지 저 호암재 알지. 그 안에 인민군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많이 죽었다고 인민군들을 죽여서 모가지들 들고 내려오고 있다고

면담자: 국군들이?

김용철: 그때 그 누구야 동네 돌아가신 경찰하던 양반이 그 양반이

그걸 들고 내려왔었어.

거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제 산에 나무를 하러 여기서 거기까지 다녔어. 그때는 다 모으고, 그러면 그 호암재 이제 넘어가면 유골 뼈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죽었다고 하더라고 그런 얘기는 들었어

5. <마을 가게>

면담자: 당촌마을에 가게는 있었나요?

김용철: 여기는 없고 덕정, 모정 앞에 그 가게는 지금까지 살아 있어요. 그 점방, 수십 년 점방이, 지금 그 할머니 한 분 계실 거야. 지금도 점방이지, 가게 쪼고만한게 있지

면담자: 생필품 같은 경우는 어느 시장으로 가요? 어떻게 다니셨어요?

김용철: 이거는 전부 다 걸어서, 읍내로 걸어가서. 그때는 차가 없으니까 걸어 다니지 읍내로. 읍내 시장. 지금 매일 시장이면 그때는 저쪽 경찰차고 있는데 위에 올라가 시장이 있었고.

면담자: 거기까지 몇 km 정도 되나요?

김용철: 여기서 한 3.3km 정도 되나요. 4km 쯤 못 되고, 30분, 1시간 걸어요

김용철: 그리고 다녔어요. 다 그렇게 그렇게 살았고 여기서

면담자: 당촌마을에서 가장 연세가 많이 드신 분?

김용철: 그 양반이 지금 계시는데. 치매와 있어, 형철이 아버지. 나하고 13년 차이 나니까 내가 지금 75이니깐 88세, 조병옥씨라고, 이분 친구 조규택씨 아버지가 전봉준하고 친구하고, 조규택은 돌아가셨지

김용철: 네, 그것도 있고. 내가 알기로는 정기갑씨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 양반이 그때 당시 전북일보 기자였었는데, 1972년도인가 73년도에 동아일보에다가 이걸, 당촌이라고 썼지 여기 마을 출신은 아니, 여기 같은 정 씨들인데 읍내 사람, 같은 집안이었어. 기갑 선생님 살아계셨을 때 여기가 확실히 전봉준이 여기서 태어났데, 그걸 자네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그런 얘길

하더라고

면담자: 당촌마을에서 태어난 것은 확실한데 그럼 63번지라는 것은 어떻게 확인하지요

김용철: 나도 그건 헛갈려, 그 자리라고 하니까, 그 자리가 63번지이니깐, 그렇게 알고 있지

면담자: 혹시 이제 선생님이 갖고 계신 것 중에. 옛날 사진, 마을 앞에서 어렸을 때 찍은 사진 같은 것은 있는지요?

김용철: 없어요,

면담자: 아 그래요, 선생님 지금 현재 이 당촌마을은 그때는 20여 호였지만 지금 몇 호네요? 지금은?

김용철: 14호 정도, 한 가구가 지금 전봉준 유품하고 뭐고 전시관 만든다고 했는데 뒤에 건축사업이 잘못 되어가지고, 좀 안타까워하는 게

면담자: 옛날 사진이나 마을 관련 기록물 같은 것은 없을까요?

김용철: 요즘은 다 없애고, 바꿔버렸어. 그리고 여기. 나이 먹은 사람 사는 집이 이상엽 씨라고. 그 양반하고 아까, 그 형은 나하고 띠동갑, 아까 그. 저 저 조병옥 씨는 34년생이고 나하고 그 양반하고 열세 살. 그 양반 말고는 없어. 다 60대지, 다

면담자: 지금 사시는 분은 여기가 연고지인가요?

김용철: 다 연고지지, 조형선이 살아 있어. 46년생, 나보다 한 살 더 먹었어요.

김용철: 그리고 당촌은 서당이 있어서 당촌, 호랑이 형국이고,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맥을 다 끊어서 그러지. 서산에 저쪽에 봉오리가 5개 있잖아. 사실재 오봉, 오봉에 정기가 내려와서 우리 마을에 와서 멈춘 거야 이것이. 그런데 그런 것은. 고속도로 난게 다 그냥 모든 게 다 끊긴거야

부이사장: 이 산맥 흐름도를 보면 저 오봉에서 쪽 한쪽이 흘러가고 서산산성으로 쪽 흘러오는데

면담자: 그러면 선생님이 말하시는 이 당촌마을의 풍수지리 내지는 옛 모습. 거기에다가 마을마다 마을의 역사가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 있지만 이게 산업화 근대화되면서 맥이 끊긴거지,

특pecially 일제 강점기에 끊겨지거나 그런 건 아니란 말씀이죠?

김용철: 그렇죠. 그것도 나면서 또 그 뒤에 전부 다 산을 받을 처
고, 개간해갖고 이렇게 산등이 있는데 산 하나를, 그 덤프트럭
하는 사람들이 흙을 퍼내놨대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저 저 말
무동이라고 나왔잖아. 거기까지 쭉 연결이 되는데. 저쪽으로는
전부 절개야. 전부 다

면담자: 생활권은?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김용철: 고창읍내지, 마을길도 다 바뀌고, 그랬지 그리고 전봉준은 대
장 노릇 했다고, 햇불싸움 때, 우리가 이겨, 숫자가 많아도 이
긴다고, 재목감이라고,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지

면담자: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V. 결론

1. 연구 내용 요약

- 1) 구수마을 1차 사료 분석 및 결과
- 2) 당촌마을 1차 사료 분석 및 결과
- 3) 구술 증언과 분석

2. 연구내용 활용 방안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 1) 연구의 의의
- 2) 연구의 한계

4. 연구의 과제

V. 결론

1. 연구 내용 요약

1) 구수마을 1차 사료 분석 및 결과

○ 고창군 구암리 구수마을 측량원도 분석

- 구암리 19번 지도의 528~625번지까지의 98개의 지번, 20번 지도 679~745번지까지의 67개의 지번, 총 165개의 지번의 지목, 소유주, 지형지모 분석
- 구수마을은 총 165개의 필지로 구성되어 있음. 필지별로는 전 73개, 답 60개, 대지 24개, 임야 7개, 묘 1개 순이며 전 44%, 답 36%, 대지 14.5%, 임야 4%, 묘 0.6%로 구성되어 있음면적별로는 답, 전, 대지, 임야 순임

○ 고창군 구암리 구수마을 토지대장 분석

- 측량원도를 기준으로 지번과 소유주를 목록화하여 토지대장 발급받아 구수마을의 지목별 현황, 면적별 현황, 개별 토지유 현황, 구수마을 거주인 토지소유 현황, 소출량 분석 등 시도
- 구수마을의 총 토지면적은 82,671평이며 국유지 임야 6,981평을 제외한 사유지 총면적은 75,690평임. 국유지를 포함한 비율은 전 31.9%, 답 48.7% 대지 3.8%, 임야 15.5% 묘 0.43%이며 사유지만을 대상으로 볼 때 전은 35.12%, 답은 53.69%, 대지 4.2%, 임야 7.85%, 묘 0.47%로 구성되어 있음
- 구수마을 전(田) 면적은 26,570평으로 73개의 필지 확인. 필지별 평균은 364평, 구수마을 전 소유주는 25명이며 그중 구수마을에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18명으로 파악함
- 구수마을 165개 지번 중 60개 지번은 답으로 총면적은 40,401평

며, 소유주는 33명으로 1인당 1,224평임, 구수마을의 토지 총면적과 비교하여 볼 때 답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9%임

- 구수마을의 대지는 총 2,450평으로 24개의 필지이며 소유주는 22명임

- 임야의 총면적은 12,892평으로 총면적의 15.6%를 차지하며 680번지는 국유지로 임야 6,981평이 구수마을에 편입, 이 밖에 1필지는 묘임

- 구수마을에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49명이며 국유지인 임야를 제외한 75,690평이 개인 소유로 김씨(18명), 최씨(15), 박씨(3) 황씨(3), 전씨(2), 신씨(1), 이씨(1), 민씨(1), 강씨(1), 고씨(1), 홍씨(1) 일본인 등촌오랑(1)·횡암도조(1) 등임

- 그중 구수마을에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22명으로 최(12), 김(4), 황(2), 전(1), 민(1), 강(1), 고(1) 씨임

- 구수마을 거주인의 소유 총 토지면적은 총 34,735평 거주자 1호당 소유면적은 평균 1,579평, 이 중 농업생산물을 수확할 수 있는 답과 전의 소유면적은 1호당 1,373평임

○ 구수마을 거주인 소출별 현황

- 구수마을 거주인의 전 소출량은 총 76섬으로 1호당 평균 3.454섬, 답 생산량은 54.222섬으로 1호당 평균 2.464, 2섬 4말 6두임

- 답과 전에서 수확된 농업생산물은 총 130.222로 1호당 5.918 곧 5섬 9말 1두 9홉임. 따라서 구수마을 거주인들의 대부분은 구수마을 내의 전을 경작하여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열악한 환경임

○ 토지소유 특징

- 성씨의 수와 총면적 크기는 대체적으로 비례하나 예외 있음. 개인별 면적으로 가장 넓은 면적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2필지의 답 6,517평을 소유한 신정균으로 필지당 1개 면적으로도, 6,100평으로 가장 큼

- 구수마을 거주인의 44%가 1,000~2,000평으로 1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3인으로 이들이 구수마을 거주인의 35%를 차지하고 있음

- 구수마을 거주인의 소유 토지면적은 1정보 미만으로 자소작을 하는 소농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개별적 차이가 있지만 이도 소농(小農)은 일부이며 토지 소유가 거의 3단보 미만의 세농(細農)은 27%임 토지가 없는 호는 9%로 이들은 농가의 노역에 종사하며 겨우 생활만 유지하는 궁농(窮農)의 처지임

- 다만 구수마을 자작농의 소작 현황과 소작농의 소작 규모 등을 알려주는 자료가 없어 이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음

- 2개 마을에 김성수, 김연수 등이 일제강점기 고창군에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됨

○ 고창군 구암리 구수마을 제적부 분석

- 지적도와 호적대장의 지번과 소유주를 근거로 확인된 제적부는 22명 중 15명임, 이들을 대상으로 1894년 당시 구수마을 거주인의 나이와 성씨, 본관, 통혼 관계, 호구 수, 수명 등을 짐작할 수 있음

- 12명의 거주인 최씨 중 제적부로 확인되는 사람은 9명임, 나머지 3명의 최씨도 경주 최씨일 가능성이 많음

○ 1차 사료를 바탕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최경철 분석

- 최경철은 경주 최씨이며 구암면 구암리 568번지 거주인으로 1857년(단기 4,190년)에 출생하였으며 1941년(단기 4,274년)에 사망함. 손자 진옥의 구술과 생몰연대가 맞지 않음. 따라서 제적부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구술 증언의 검토 필요

- 최경철은 답 2필지 1,598평, 전 5필지 1,587평을 합쳐 3,185평의 경작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작농으로 보임

- 답에서 13.735섬, 전에서 4.343섬을 생산, 도한 18.078섬임. 구수마을 거주인 평균 소출량 5.919섬에 비하면 경제적 상황은 좋음

○ 인구와 성씨

- 소유주 22명을 1호로 간주하고, 당시의 출산을 등을 고려하여 1호당 6인의 가족이 있었을 것으로 추산하면, 동학농민혁명 당시에는 적어도 150명 내외로 보이며 당시의 생활 거주 특성으로 보아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됨
- 1910년대 구수마을 거주인 성씨의 본관은 경주 최씨, 광산 김씨, 경주 김씨, 천안 전씨, 여흥 민씨, 창원 황씨, 진주 강씨, 해주 오씨, 장흥 고씨 등임. 이들은 수원 백씨, 김해 김씨, 남원 방씨, 밀양 박씨, 장택 고씨, 경주 이씨, 창원 홍씨, 전주 이씨, 진주 하씨, 진주 강씨 등과 통혼 관계를 맺고 있는데 특히 김해 김씨는 구수마을 17명의 대지 소유주 중 3명의 배우자이며 공음면 장곡리, 창원 황씨는 구수마을과 가까운 석교리의 세거 성씨로 지근거리에서 혼인을 맺은 것으로 보임.

2) 당촌마을 1차 사료 분석 및 결과

○ 고창군 죽림리 당촌마을 지적원도 분석

- 당촌마을은 74개의 필지로 전 32개, 답 18개, 대지 20개, 임야 3개, 묘 1개로 전 43%, 답 24.5%, 대지 27%, 임야 4%, 묘 1.3%로 구성되어 있음

○ 고창군 죽림리 당촌마을 토지대장 분석

- 당촌마을 총 토지면적은 58,047평이며 국유지인 임야와 고창군향교 소유의 답 8,213평을 제외한 사유지 총면적은 49,834평임. 사유지만을 대상으로 볼 때 전은 28.0%, 답은 36.0%, 대지 5.7%, 임야 29.9%, 묘 0.4%로 구성됨
- 당촌마을 거주인은 19명임
- 당촌마을 거주인이 가진 답, 전, 대지, 임야, 분묘지 등을 합해 토

지의 총면적은 16,290평임. 이 중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이권찬으로 5,462평을 소유하여 당촌마을 거주인의 약 34%를 차지함

○ 소출별 현황

- 수확물을 얻을 수 있는 답과 전의 거주인 소유면적은 13,256평으로 1호당 697평임.
- 전에서 26.566섬, 답에서는 39.732섬을 생산함, 전과 답을 합하여 66.298섬으로 거주인 평균 3.489섬으로 아주 열악한 형편임을 알 수 있음

○ 토지소유의 특징

- 마을 거주인 내의 사이에 경제적 격차가 큼
- 평균 생산량이 낮아 생계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고창군 구암리 당촌마을 제적부 분석

- 지적원도와 호적대장의 지번과 소유주를 근거로 거주인 19명 중 제적부가 확인된 사람은 10명임
- 성씨는 밀양 박씨, 천안 전씨, 고흥 유씨, 한양 조씨, 해주 오씨, 금성 나씨, 전주 이씨로 각성바지임을 알 수 있음

○ 전봉준의 생가터, 당촌마을 63번지 위치고증

- 관련 문헌 자료는 찾아볼 수 없으며 구술만 있음
- 이상현(1936년생, 47번지 거주) 씨로 고인이 된 송태희라는 이웃 노인으로부터 들었다고 함. 생가터의 바로 앞집에 살고 있었던 김용철(1949년생, 64번지 거주) 씨도 같은 증언을 하였음
- 이기화(전 고창문화원 원장) 선생도 여러 구술을 종합하여 63번지가 확실하다고 하였으며 역사 연구자들의 다년간 조사 끝에 63번지라는 결론에 이룸

○ 전봉준의 생가터, 당촌마을 59번지라는 오해

- 당촌마을 지역민의 구술과 연구자의 고증으로 63번지가 전봉준 생가터로 확인되고 전봉준 생가를 복원하기 위해 인근의 8필지를 59번지로 합병하면서 마치 생가터가 59번지인 것으로 착오가 생김. 이에 따라 59번지를 63번지로 다시 지번을 확정함
- 따라서 일부 홈페이지에 59번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내용 정정 필요

○ 당촌마을 인구와 성씨

- 1호당 6인의 가족이 있을 것으로 추산하면, 동학농민혁명 당시에는 적어도 130명 내외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당시의 초가의 크기와 대지를 소유하지 않아도 한 필지에 혈족 간 혹은 더부살이 등으로 인구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3) 구술 증언과 분석

○ 주민과 향토연구자 5인 구술채록

- 동학농민혁명 당시 마을 경관 재확인 증언, 특히 구수마을의 수구막이, 당산나무, 주막, 물방앗간 등 마을 경관 변화 및 위치 증언
- 일제강점기 지주 소작 관계, 농지개혁, 6.25 당시 구수마을의 학살과 갈등, 새마을 운동 등 근·현대 질곡의 시기마다 구수마을 사람이 겪은 이야기
- 동학농민혁명 진격로와 관련 유적지 구술
-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송문수 무덤 위치 고증 및 후손 찾기 노력 등에 대한 향토연구자의 활동과 그에 대한 아쉬움 구술
- 전봉준 생가 63번지 지번과 위치 재확인 및 구술 확보
- 결혼과 상장례 등 가족사 이야기 등 다양한 개인 생애사와 마을 사람들의 생활사 이야기 구술
- 마을의 지리, 지형과 지명의 의미, 사라져간 당산제, 샘굿 등 마을

의 행사 관련 구술

- 기타 우물과 효자비, 당골에 대한 구술

○ 구술자마다 다른 의견 확인

- 무장기포가 구수마을에서 일어난 이유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음, 신대리 구정마을의 전치관이라는 천안 전씨 천석꾼의 도움으로 물적 자원 확보했다는 구술과 고창지역 및 구수마을 동학농민혁명 관련자에 천안 전씨가 보이지 않으며 민중, 대중운동은 뜻과 의지가 맞아야 한다는 구술이 있음
- 또한 무장기포지가 훈련지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하천부지가 아니라 구적산이라는 구술과 주변 산은 해발이 높지 않아 훈련 장소로 용이하며 기포의 장소는 물을 공급할 수 있으며 사람을 모으기에 적당한 하천 주변이라는 의견
- 구수마을에서 사람이 모일 수 있던 이유에 대해 넓은 하천부지라는 지형적 입지조건에 대한 의견은 일치됨

2. 연구내용 활용 방안

○ 고창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

- 동학농민혁명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 및 인물의 성지인 2개 마을의 사회·경제적 실태를 이해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정신을 재인식하고 이를 선양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지역의 정체성 확립 자료로 활용

- 당시의 구수마을과 당촌마을의 옛 모습 복원을 통해 역사적 사건의 현장성을 체험할 수 있음. 이는 역사문화·컨텐츠로 활용 가능함

○ 마을 원형 복원을 통한 역사·문화컨텐츠 활용

- 당시 마을 모습 및 지역민의 생활상을 디오라마, 3D 애니메이션, 홀로그램 등으로 재현하여 역사·문화컨텐츠 및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이는 교육 및 전시자료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여기에 시간과 공간의 전이가 가능해지는 컨텐츠 곧, 메타버스로도 제작할 수 있음. 조사를 통한 결과물로 제작한 영상물은 시간 및 공간에서 자유로워 원하는 곳에서 언제든지 활용 가능함으로써 고창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음

○ 마을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자료로 활용

- 향후 마을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함. 사건과 인물 아카이브의 대상으로 2개 마을은 아주 적절한 대상임. 구술과 관련 자료 등은 당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임. 향후 체계적인 기록물 수집 방안과 서비스 방안을 마련하여 고창동학농민혁명 유적지와 연계하여 랜드마크화할 수 있음. 이는 마을 주민의 경제적 향상과 소통의 장으로 활용 가능함

○ 사건과 인물에 대한 스토리텔링화

- 2개 마을의 장소성을 통해 현장감을 주는 스토리텔링을 가능하게 함

○ 향후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기반

- 향후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의 마스터플랜의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함

○ 근현대 역사 전공자들에게 중요한 연구자료로 활용

- 1차 사료를 통한 분석 시도는 마을 연구의 사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동학농민혁명 시기 및 이후 일제강점기 경제의 연구자료로 활용 가능함.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1) 연구의 의의

○ 실증적 연구로 마을 단위의 1차 사료 면밀 분석 방법 마련

- 지적도와 토지대장의 소유주 확인, 이는 국가기록원 지적아카이브에서 최근에 서비스된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일부 소유주 이름 오류 등이 있는 것을 확인함
- 토지대장의 면적, 지가, 소출량, 소유 이전관계 등을 분석함으로 동학농민혁명 당시 2개 마을의 사회·경제적 모습 추론

○ 구술 증언

- 마을 역사에 관심이 있는 몇몇 분들의 증언들은 이미 알려진 사실로 새로운 내용은 별로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실들을 재확인하고 동영상을 채록하여 기록화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기록 수집된 기록물들은 향후 교육 및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 기반 마련

- 구술 증언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향후 자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함
- 근·현대 격동기의 고창지역 마을의 사건을 통해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으며 타 지역과 비교하여 고창지역 마을 단위의 특수성 이해
- 2개 마을 주민의 생활사를 고창지역 마을 단위의 생활 모습으로 일반화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수집 자료 정리하여 부록에 첨부

2) 연구의 한계

○ 1차 사료수집의 한계

- 구수마을과 당촌마을 『토지대장』 극히 일부가 빠져 있으며, 제적부의 경우 지번과 호주의 불일치, 정보공개 등의 이유로 일부만이 수집되어 인구수, 본관 등을 전제적으로 알 수 없음. 따라서 1호의 가족 수를 일률적으로 정하여 추산 가능케 하였음

○ 구술과 구술자의 한계

- 당시를 기억하고 증언할 마을 주민들은 현재 생존한 분이 거의 없으며 일부 주민들도 익히 들었던 내용에 대한 것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왜곡·변질될 우려가 있음

○ 기록물 수집의 한계

- 마을의 경관이나 당시를 기억할 수 있는 기록물은 찾을 수 없으며 특히 사진 등 개인 생활과 관련한 자료는 없거나 공개하기를 꺼림. 농촌의 특성상 꼭 필요한 것 외에 버리거나 소홀히 하여 남겨진 것이 거의 없으며 일부 생활 도구 정도만 간직하고 있음. 따라서 기록물 관련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음

○ 자료 분석의 한계

- 『토지대장』의 면적과 기타 가격은 1910년대의 것이나 소출량은 1950년이 기재되어 있음. 따라서 1910년대 과세기준을 1901년대 토지등급을 적용하므로 답의 경우 산출이 가능하나 전의 경우 콩, 조 등의 발작물을 재배하였을 것이나 보리로 일괄 통일하여 적용함. 따라서 수확물에 아주 작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1950년대 소출량과 비교하여 일제강점기 소출량 증감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로 유용함. 또한 소작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자소작농과 소작농의 경지면적을 확인할 수 없음

○ 마을 단위의 토지대장 분석은 처음 시도한 사례

-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마을 단위의 사회·경제적 자료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토지대장 등을 이용한 연구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도임. 그 간 토지대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일제강점기 면 단위의 토지생산량 증감에 관한 연구들로 한정되어 있음. 마을 단위의 분석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으나 이를 통해 기존 연구의 한계나 의미를 보완할 수 있음. 실증을 통해 어느 정도는 일반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처음 시도함으로써 여러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음

○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받음

- 보고서에 실명, 출생년도, 거주 지역, 인물 사진 등의 정보를 포함하게 됨. 따라서 「개인 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해 인터뷰를 수락한 정보 제공자들에게 설명한 뒤,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아 조사·구축한 자료의 여러 활용이 가능하도록 함

4. 연구의 과제

○ 수집된 관련 자료 아카이빙화 필요

- 당시를 기억하고 증언할 마을 주민들은 현재 생존한 분이 거의 없으며 일부 주민들도 구술할 만한 내용이 없음, 따라서 수집된 자료를 일괄 모으고 분류하여 계층별로 기록화할 필요가 있음

○ 송문수, 고창주 등 지역 출신 동학농민혁명참여자에 대한 상세 연구 필요

- 송문수, 고창주 등 지역출신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들에 대한 향토연구자들의 그간 연구 성과를 기록화하여 향후 관련 사실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명해야 할 것임

○ 지속적이며, 적극적인 관의 협력과 주민과의 소통 필요

- 동학농민혁명참여자 관련 자료 수집 및 관련 유적지 발굴 및 사실 규명에 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필요함

참고문헌

사료

「제적부」
「측량원도」
「토지대장」
『고종실록』
『大東輿地圖』
『大東地志』
『東輿圖』
『承政院日記』
『輿地圖』
『여지도서』
『靑邱圖』
『한국지리지총서』 「읍지」 5

단행본

2019 고창동학농민혁명 학술 발표회, 『무장기포지의 사적 지정과 역사자원 활용』, 연세대학교 원주 박물관, 2019.
고창군지편찬위원회, 『高敞郡誌』, 고창군지편찬위원회, 1992.
고창문화원, 『高敞郡古邑誌影印本』, 향토사료집 2권, 고창문화원, 1991.
국사편찬위원회, 『쌀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나』, 두산동아, 2009.
김양식 외, 『동학농민혁명의 기억과 역사적 의의』, 전북사학회, 2011.
김지하, 『남녘땅땀노래』, 두레, 1985.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황토재에서 우금재까지』, 동남풍, 1994.
배항섭 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귀하다: 전라도 고창지역의 동학농

민혁명』, 역사공간, 2011.
백원설, 안후상 등, 『19세기사상의 거처』, 도서출판기역, 2013.
서울대산학협력단,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고창군, 2021.
송정수, 『베일에서 벗어나는 전봉준 장군』, 해안, 2018.
신복룡, 『전봉준 평전』, 들녘, 2019.
신순철 외, 『고창지역 동학농민혁명사』, 신아출판사, 2010.
신순철 외, 『實錄東學農民革命史』, 東學農民革命紀念事業會, 2008.
신순철 외, 『전라도 고창지역의 동학농민혁명』, 고창문화원, 1998.
신용하, 「자료해제 - 동학농민군지도자 전봉준·손화중·최영창(경선) 판결선고서 원본」, 『한국학보』 11권 2호, 1985.
신용하, 『東學과 甲午農民戰爭研究』, 일조각, 2016.
역사문제연구소, 『동학농민군 후손 증언록-다시피는 녹두꽃』, 역사비평사, 1994.
오지영, 『동학사』, 대광문화사, 1984.
원도연, 편저 『고창군의 동학농민혁명과 현재적 계승』, 고창군·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2021.
이이화, 『발굴동학농민전쟁 인물열전』, 한겨레신문사, 1994.
이이화, 『전봉준, 혁명의 기록』, 생각정원, 2014.
이이화, 『과랑새는 산을 넘고』, 김영사, 2008.
이진영, 『全羅道高敞地域 東學農民革命 史料集』, 고창문화원, 1998.
최현식, 『갑오동학혁명사』, 금강출판사, 1980.
표율중 외, 『공음, 걸음마다 천년의 이야기』, 기역, 2015.
황현,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역사비평사(김종익 옮김), 2017.

논문

강길원, 「특집논문 : 동학농민혁명과 고부 ; 1898 - 1899 , 흥덕 (興

德) 고창 (高敞)의 농민봉기 (農民蜂起)」, 『全羅文化論叢』, 7권, 1994.

김건태, 「결부제의 사적 추이」, 『大東文化研究』, 제 118권, 2019.

김양식, 「동학농민혁명기 고창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 『동학학보』, 26호, 2012.

배항섭, 「제1차 동학농민전쟁 시기 농민군의 진격로와 활동양상」, 『동학연구』, 11호, 2002.

배항섭, 「동학농민군의 <무장기포>와 <무장포고문>에 대한 이해의 변천과정 고찰」, 『역사와 담론』, 79호, 2016.

사단법인고창연구회, 『고창의 마을: 제 2집』, 모로비리, 2011.

사단법인고창연구회, 『고창의 마을: 제 7집』, 모로비리, 2016.

성주현, 「동학농민혁명운동 이후 고창지역 동학농민군의 동향」, 『송실사학』, 30호, 2013.

송정수, 「『天安全氏丙戌世譜』를 통해서 본 全琫準 將軍의 家系와 出生地에 대한 再研究」, 『역사학연구』, 38호, 2010.

송정수, 「전봉준 장군의 유동생활과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 『전북사학』 39호, 2011.

신영우, 「1894년 고창지역 동학농민군의 진압과 민보군」, 『동학학보』, 26호, 2012.

이기화, 「전봉준의 가계와 태생설에 대한 재조명」, 『동학학보』, 8호, 2004.

이동희, 「동학농민혁명 직전 전라도 고창현 농민들의 경제 형편」, 『전북사학』 제23집, 전북사학회, 2000.

이병규, 「고창 무장기포지(茂長起包址)의 위치와 범위 검토」, 『동학학보』, 59호, 2021.

이승순, 「1920~30년대 전반기 조선의 농가경제분석」, 『사학연구』 119, 한국사학회, 2015.

이헌창, 「한국 개항장의 상품유통과 시장권」, 『경제사학』 9, 경제사학회, 1985.

임형진, 「백산대회와 동학농민혁명 - 논쟁점을 중심으로」, 『동학학보』, 25호, 2012.

정민영, 「무장의 동학농민운동」, 한국교원대 대학원 역사교육과 석사학위논문, 1995.

정성미,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현황과 기록학적 분석 시론」, 『기록학연구』, 50호, 2016.

정성미,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손화중의 지역적 기반과 활동」, 『동학학보』, 45호, 2017.

정승진, 「영광 독배기마을 신씨가의 장기동태(1830~1935)」, 『역사비평』, 2002.

정창렬, 「고부민란의 연구(상)」, 『한국사연구』, 48호, 1985.

조광환, 「全琫準의 生涯 研究」, 『동학연구』, 12호, 2002.

조석곤, 「토지대장」을 통해 본 토지생산성의 변화(1910~1961) 김제시 죽산면 사례연구」, 『농촌경제』, 제36권, 4호, 농촌경제연구원, 2013.

진윤식, 「高敞地域 東學農民軍 進擊路의 實證的 考察」, 『동학학보』, 26호, 2012.

최현식, 「동학혁명의 향토사적 연구 -갑오동학혁명에 있어서 손화중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학술세미나 강연초록』,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6.

웹사이트

동학농민혁명종합지식정보시스템 <http://www.e-donghak.go.kr/>
 디지털고창문화대전 <http://gochang.grandculture.net/gochang>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http://www.koreanhistory.or.kr/>

부록

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송문수 관련 자료

<그림 53> 동학농민지도자 참여자 송문수 관련자료-1

동학농민군지도자 송문수(宋文洙)와 변절자 이현숙(李賢淑)

고창동학농민혁명 연구소장 진 윤·식

1) 읍 접주들과 가병보의

김홍(金鴻植)이 천봉준장군을 처음 알게 된 것은 1893년 12월 10일, 무장군 동읍치면 당산리(현 고창군 공음면)의 송문수씨 댁에서 천장군이 잠시 몸을 피하면서 동학교 접주 손화중 김성철 정택현 송문수 등 네사람과 자리를 같이하고, 천장감사 김문현의 특정에 거의(舉義)할 것을 약속, 기포를 모의할 때였다. 그후 1894년(갑오)2월 19일에 당시 동읍치면 신촌리의 김용집에서 다시모여 행동준비를 구체화 했는데 여기 모인 사람은 천기 손·김·정·송씨 외에 김계남 서인주 임천서 김덕명 강경중 김영달 고영숙 박계행등 각읍의 접주들이었다.

동학관련 천봉준장군, 천중 측근과 고 정홍섭총의 회고담에서, 중앙일보 1965년 11월 5일(금요일)과

2) 전략, 의군이 교루성을 함락한 후 백산에 돌아와 집을 치고 계도의 저문을 발한 후로 요담 일대는 물론이요 천 조신장산이 교루 백산을 중심으로 하고 온돌산을 하였었다. 당시 백산에 모여진 사람은 누 군누구나, 중심 인물로는 천봉준 손화중 김계남 김덕명 최경선등 5인이었었다. 다섯 사람중에도 손화중 김계남 김덕명등 세 사람은 천과일도에 귀고 두류거으로 있던 사관들이었었고 그 와 두류으로 최경선 천봉준 2인도 있었던 사람이었었다.

다수한 도인을 영솔하고온 사람으로는 이리하다. 고창에 암영도 임천서 오서형 오하영 홍낙관 홍계관 등이요, 무장에 송경환 송문수 송건호 장두열 강경중등이요 교루에 정일서 김도삼 정종현 송대화 등이요 총덕에 고영숙이요 ...

사료중서 권1 p457 동학사(二) 농고본중에 기록된

3) 영광 악병장 이현숙은 동적의 거괴이다. 이현숙의 가동(家動) 김연손의 공초 내용에 이현숙은 송문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각 진과 읍의 부기를 탈취하기 위하여 천봉준 때 4척에 올라타고 홍봉 옥택전변(木津津邊 지금의 북평기포구)에서 출발하였다. 그런데 3척의 선박은 먼저 출발하고 이현숙이 탄 1척은 뒤처져서 칠산 앞바다에 다다랐는데 평강(平康)으로 가는 배를 만나 비급도(飛鳥島)에 정박시키고 그 배에 실려있던 쌀 2석과 총 1사부를 탈취하였다.

또 무장의 동적 18명을 만나 함께 그 섬의 박예중의 집에 들어갔다. 주인노인의 수척(壽表)로 쓸 병주와 북포(北布)등의 물건을 무장의 동적이 탈취하자 이현숙이 도르 찾아주었다.

주인이 은혜를 많이 입어 마포 2필을 이현숙에게 주고한 대가로 내어 주었다. 한편 이현숙은 무장의 동적에게 200냥을 탈취하였다.

도르도(道草島)로 들어가서 고형경의 돈 300냥과 섬사람들의 돈 100냥을 탈취 하였다. 다시 하리도(荷衣島)로 들어 갔는데 어떤 여인이 한명 있었다. 그녀는 그 섬에서 것을 만드는 장민(丈人)의 아내였으며 그녀의 남편은 쓸타하고 있었다. 이현숙은 그녀를 설득하여 '내 처남이 흠아미로 살고 있는데 당신이 그와 함께 살면 좋겠다'라고 말하고는 배에 태우고 왔으며, 또 하리도의 돈 200냥을 탈취 하였다.

안상도(安昌島)에 들어가서 범성의 동적을 만나 '기과전(起坐津)가의 뽕 48식과 미 40식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현숙은 즉시 그 나루로 가서 그 뽕과 벼를 모두 탈취 하였다. 무안의 백집주(白集主 배상속 서주인 등)라는 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현숙을 잡아다가 섬사람들을 못살게 하였다는 죄목으로 문책하였더니, 이현숙은 "이것은 전적으로 내가 주관한 것이 아니라 범성의 동적이 저지 하였기 때문에 탈취한

<그림 54> 동학농민지도자 참여자 송문수 관련자료-2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배 잡주는 "이 쌀과 벼는 내가 가져갈 필요 없으니 모두 내 배로 옮겨 실으라"고 하였다. 이현숙은 '쌀과 벼는 아깝지 않습니다. 특별히 남은 곡식을 살려 주시기를 간청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곡해를 하고 쌀13석과 벼 20석을 내어주었다.

이현숙은 이것을 싣고 홍봉 가마포(加麻浦)로 왔다. 그런데 이현숙은 "이는 권력으로 송문수의 저지를 따른 것이므로 혼자서 이익을 독점해서는 안된다"라고 하고는 쌀 12석과 벼 13석을 송문수의 집술에게 내어주었으며, 싣고 온 돈 가운데서 이현숙의 집술에게 각각 5-6냥씩 나누어 주고 나머지는 이현숙이 모두 가져다. 4척의 배가 피륙 함께 출발하였으나 이현숙의 배는 뒤처졌으며 먼저 출발한 3척의 배는 잔도의 수영(水營)등지에 들어가자 부기를 탈취하여 모두 송문수에게 주었다. 그런데 이현숙은 단지 총 13자루만을 가져고 있다가 무안의 동적에게 빼앗겼다.

근래에 왕사(王師 明宗의 군사)가 고창 등지에 도착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사창서(沙倉西 전남 장성)에 주둔하고 있던 송문수의 집술들은 갑자기 집을 먹고 시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그런데 송문수와 이현숙은 서로의 행선지를 알지 못하다가 갑자기 홍봉 땅에서 만났다. 이현숙은 송문수를 책망하면서, "너는 내가 살기 위하여 나를 버리고 갔으니 말이 매우 잘못 되었다"라고 하고는 총을 쏘아 죽였다. 그리고 그 시신을 영경교을 사경(射亭)으로 압송하여 와서 백정에게 그 머리를 자르도록 하여 관아에 바쳤다.

동학당 문록 동학농민혁명 국역중서 권10 p435

4) 이현숙이 의리를 내세워 괴수와 목을 켜 일은 들었는데 매우 가상하고 감탄스럽다. 마땅히 선보(轉報)하여 격려할 것이기니와, 우선 본진의 별군관속 파견하여 결발 권성하게 해서 마무리까지 잘하는 보람을 얻도록 하고, 병정을 조발하는 일은 지금 바야흐로 사장의 유전에 명칙 하도록 할 것.

5월 오시 장성읍에서 양호순부선봉

5) 전령(傳令) 출진한 영관 장용진에게 보냄 (12월 초 5일)

방금접한 영광교수의 첩첩의 내용에 "본군 홍봉면 이현숙을 많은 역병을 내어서 동학의 괴수 송문수를 활잡아 머리를 베어 바쳤으며 남은무리 10여명을 또한 활잡아 왔고, 이어서 잡사 섬을 지키고 있습니다. 세력이 의종교 악에서 화가 눈앞에 다가가 있으니, 병정 200명 정도를 발송하여 내일 오전에 본읍에 도착하게 하면 힘을 합쳐 조처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뜻으로 일본 피리와 더불어 상의하여 즉각 가서 구원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봉원현판각전 개국 503년 12월 5일자 국역중서 권8 p469

6) ... 옥에 갇힌 적인 별군관 영장사람 이현숙이 아뢰니다. 잡사 농도에 들들였던 것은 전설도 부득이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다시 농도를 등지고 별군원으로 차임되어 적지않은 노력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간질하는 자들의 험담은 말에 걸리어 이렇게 잡혀서 수감되었으니 선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절: 고을의 보고에 따르면 그해 격려하기 위하여 과연 군관으로 임명 하였다고 하는데, 장위진(莊衛進)이 조사한 사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면목에서 와서 주물하고 있는 무대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사실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라.

* 소적등서책(所迹等書冊) 1894년(갑오) 12월 14일 국역중서 권10 p466

7) 전략- 역만 조 3일에 이것이 시초가 되어 읍 밑에 있는 전사 김용선이 이교와 더불어 의거를 일으켜 방백회를 지시하고 가리켜주어 엄히 단속하여 섬을 지켰습니다. 이미 훔가서 붙잡은 적도가 많은데, 이른바 적의 괴수 양경수는 지금 겨우 잡아서 총살 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봉면의 적의 괴수 송문수

는 그 편이 이현숙이 의병을 거느리고 이날 초 3일에 잡아 들었기 때문에 이미 참수 하였습니다. 이현숙은 이미 별관관으로 임명한다는 차분이 있었는데도 일본군에게 붙잡힌바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현숙을 거괴라고 말하고 이현숙이 거괴란 의병은 김용선으로 하여금 함께 거느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초 9일 참읍(站邑)으로 부대가 행군해 갈 때 이현숙도 압송하여 갔다는 사경을 보고합니다. 제(匪) 최수 영경수가 또 어떻게 죽었다니 밝은 이치가 드러나는구나. 이현숙이 일흔, 본 권영은 다만 읍에서 보고한 것을 들은 것뿐이고, 일본 권영은 반드시 들은 바가 있어서 그러하였을 것이니, <이현숙을> 붙잡아 간일에 대해서는 실로 드물 수가 없다.

송문수전투기록(送門先鋒陣跡錄) 국역총서 권2 p535 갑오년 12월 21일자

8) 을미년(1895) 정월 초6일 행군할 때 교장 강세복과 병정 40명은 그대로 무장에 머물러 있었고, 나머지 군사들을 거느리고 여관읍에 이르러 석성을 선태매오니 이튿날 의병상어라는 이현숙이란 자는 관동도중에서 행패가 심했던 거괴(巨魁)였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포박해 와서 그 죄를 묻조하였더니, 열일이 자복하였습니다. 따라서 잡아들인 다른 동도 15명과 같이 진중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양호후진통일기4 1895년(을미) 정월 12일자 자료총서 권7 p281

9) 열광적의 송문수와 오태수는 12월 5일에 죽을 때에 경계하였다. 최문숙당 9명은 잡을 때에 쓰아 죽었고, 박인자등 10명은 압송하여 강원대관에게 넘겼다. 거괴 양경수는 잡을때에 쓰아 죽었고, 이현숙은 목을 베었음.

전라도각읍초차동도수요군소회집을발행한지 (全道各邑初差同都水要軍小會集發行後記) 국역총서 권7 p523 갑오년 12월 6일자

10) 동학당 진멸하던 자들

김경천(金敬天)이라는 자는 본래 전봉준의 집시며 입에 있던 자로서 그 정주되는 전봉준을 잡아준 자이다. 전봉준이 패하여 도로 요남으로 돌아와 순창 신중에서 제도(再圖)의 꾀를 꾀하던중, 이 가미를 안 김경천은 구구한 궁리를 열기 위하여 전봉과 연락을 위하여 전봉준을 잡아 주었고,

이봉우(李鳳宇)라는 자는 본래 생성에 있던 자로서, 갑오년에 교향읍에 들어와 순화군의 부하가 되었던 자이다. 갑오동에 이르러 동학군의 패를 보고 관병에게 부러하여 그 두경인 순화군을 끌어주고 증산군수를 얻었던 자이고,

강성지(姜成之)라 하는 자는 교향방의 일개 토호로서 갑오년에 거(聚)의 생명을 구원(救活)하기 위하여 동학에 입찰하여 집주의 입과 집장의 꾀에 있어 동학의 세력을 많이 부리던 자이다, 내중 동학군이 패함을 보고 다시 수성정이 되어 동학당은 무수히 잡아 죽인 자요.

이현숙(李顯淑)이란 자는 영경 별성포 권리로서 갑오년에 동학에 입찰하여 동학당 행세를 오히려 군(勤)보다 배승으로 하던 자인데, 갑오동에 지하여 그 두벌 '오시영'을 잡아 관병에게 주고 상여를 받아 받은 자이고, 라고 기록하고 있다. * 오시영이 아니라 송문수일 것이다.

이 외에도 권리측으로 전라관찰사 이도계, 권리감사 김문현, 김학전, 순무사 신정희, 풍주목사 이승우, 우성봉장 이두광등 많은 사람이 기록되어 있다.

동학사 (오4행 p170-175)

11) 송문수씨는 이곳(공음면 구수)에 세거했다. 동학군들을 장사판처럼 편복시켜서 송문수씨가 물레 훈련을 시켰는데, 현재 발상지 버있는 곳의 왼쪽 뒤편이 연병장이다. 지금의 큰 도로 위로 바드나무 10여 그루가 있었고 그 밑에 모래밭이 있었는데, 약 5~600명이 쉴 수 있는 곳이었다. 위에서 큰 분(분류물 손 화중 등을 적성 하는 듯)이 오면 송문수씨가 일부러 난장을 다시 드러나지 않게 했다. 내 부친이, 내가 국민학생일 때 송문수씨를 뵈고 가서 송문수씨의 묘지를 가르쳐 주어, 뒤에 나도 송문수씨 묘를 밟고 몇 번 왔다. 폭은 잘려 서쪽에 있고 몸채만 붙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송문수는 딸만 하나 있었는데, 장성으로 시집을 갔다. 그 딸이 밤에 와서 물레 밟조하곤 했는데, 안은지 약 20년이 되었다. 송문수는 키가 9척이나 되고 수염을 길러 위압감이 있었고 엄격했다고 한다. 송문수는 당산지역 총대장이었다고 하는데, 영평에서 잡혀 죽었다.

최재섭씨의 의뢰한, 송문수의 묘는 구수마을 뒷산편에 있는 장동마을 권중근씨 집 뒷산 30m지점의 대밭 초입에 있다. 조사님도 그 묘를 확인 하였다.

최재섭씨 의뢰한, 1945년경, 공음면 구수리 구수 563. 전라도 고령지역의 동학농민혁명, p55-56 신순철 아원형 원도연필, 교향 문화원 발행

필자는 2009년 8월 14일 구수마을의 진운오(무안형)씨와 더불어 장동마을 뒤에 있다는 송문수의 묘지를 답사 한바 있다. 그러나 송문(宋文)이라 불렀다는 묘지는 모두 개간이 되었는지 평지가 되어버렸고, 지금은 그 흔적도 찾을 길이 없었다. 그래도 송문수에 대한 미련이 있어,

2014년 1월 24일 구암리 장동마을의 나삼주(68년 무술년 구암 장동길 15)친구를 찾아가 문의 하였더니 장동마을에서는 송장군묘로 호칭되고 있으며, 특히 나삼주는 묘지 바로 옆에 살면서 묘지 주위에서 놀기도 하고 가을에는 나라 가래를 쌓아 놓기도 하여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그 나삼주씨 부인 이성녀(1936년 윤해생 구암 장동길 32)씨와 나삼주의 형 나이주(66년 병신생 구암 장동길 11)씨도 이처 잘 알고 있었다. 또한 나이준 드신 아버지 한분이 냇과 숲 읍서물을 구력에 붙여와서 밭조도 하고 아버지과 같이 이야기 하는 과정도 여러차례 보았다고 한다. 구수마을의 최재섭씨 아버지 최판길(무오년 1918년생)씨가 아니었다 생각이 든다. 2009년에 나삼주 친구를 찾지 않은 것이 후회 막급이었다.

묘지는 공음면 구암리 855-4번지내 마을뒤 언덕 위에 있으며 지금은 대나무 숲이 꽤 많이 있어서 사람이 들어 갈 수도 없을 정도인데, 간신히 헤치고 들어가 흔적만 확인을 하였으며, 좌명이 비상적인 것으로 판단 되는데, 나삼주 역시 그 좌향이 맞다하고 서쪽에 있는 최재섭씨 또한 명성쪽 뒤편한 산봉우리가 좌향이라 하였다. * (소유주, 이○○ 영평면 풍농읍 탄덕리 152)

문제는 송문수의 관향이 어디이며, 그의 선대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지금의 원안책은 어디에 살고 있는가, 필자는 송문수에 대한 자료를 나름대로 추적 해 보았다.

그의 뿌리가 뭇만한 공음면 용산마을에 여산송씨 직신공파(龍山宋氏 知申公派)가 있는데 송봉흥씨의 협조로 그 족보를 살펴보니 '수'자 항렬이 없을 뿐더러 송문수 혹은 송경수등의 이름도 없었다.

또한 해리던 수락의 은진송씨 모은공파(申隱公派 庚申派 1920, 乙未 1955) 족보도 송충로씨의 배려로 살펴 보았는데 22세에 수(洙)자 항렬은 있으나 문수 또는 경수의 이름은 없었으며, 명성을 월산리의 여산송씨중 송국대씨* 또한 천안이 공음면 석교리에 있어 시체를 모시러 다녔는데, 젊은시절 송장군이란 이름은 듣은 바 있으나 중권이란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한다. 여산송씨 서울 종친회(회장 송기홍, 송경관 지도자의 방계후손)도 찾아봤다. * (81세 2014, 2, 3, 영평읍 비룡요양원에서)

명성보감에 "석자 흙속으로 돌아가기 전에 백년의 몸을 보전하기 어렵고, 이미 석자 흙속으로 돌아가서는 백년의 무덤을 보전하기 어렵다"(未歸三尺土 難保百年身 已歸三尺土 難保百年墳)는 구경도 있거니와 율령도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지 120년, 농민혁명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무덤까지 간직하지

<그림 57> 동학농민지도자 참여자 송문수 관련자료-5

못한게 구원을 베풀는 외로운 영혼이 되버린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지난날 동학농민운동의 저명한 희생과 결코 무관할 수 없으며, 잊어서도 아니될 것
이다. 송문수의 본향을 찾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늘은 여기에서 줄어야 하
겠다. 우선 급한것은 대나무 숲속에 묻혀있는 송문수의 묘지를 정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 같다. ...

2014. 3.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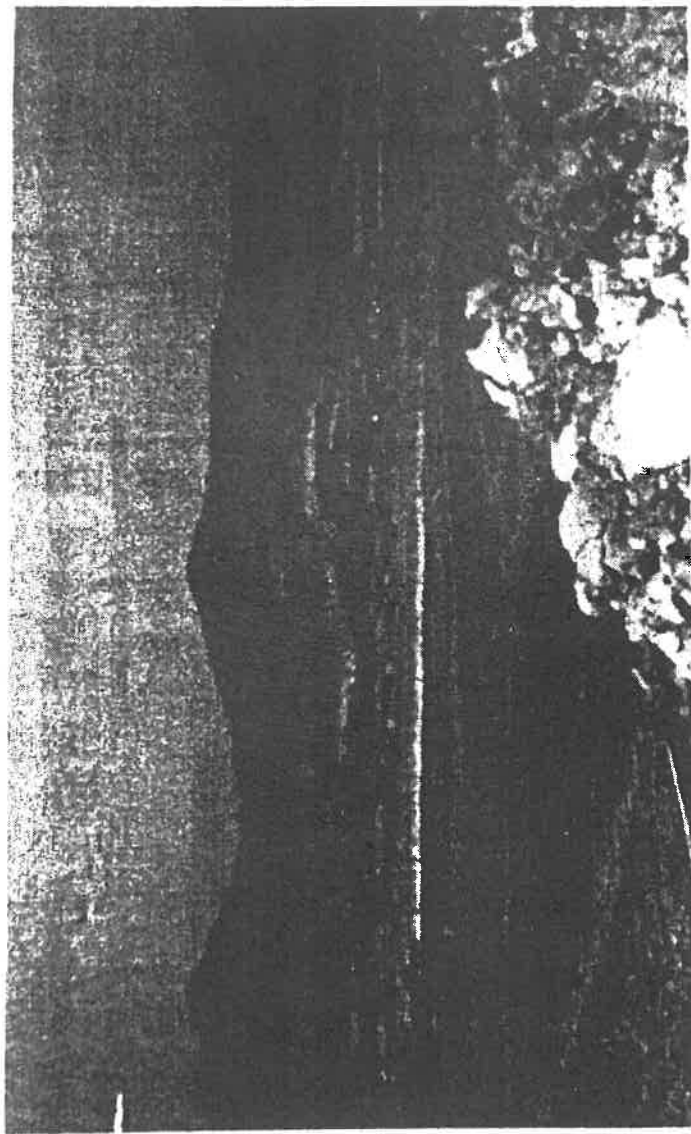
2. 전봉준 생가 당촌마을 고증 관련 자료

<그림 58> 전봉준 생가 당촌마을 고증 관련 자료-1

● 송문수의 出生地가 堂村郡落이라고 謄寫하는 趙鎭煥 (1899년생) 翁.

時來天地此同力
運去英雄不自謀
愛民正義我無雙
愛國丹心誰有知

매를 만나서는 천하도 내 뜻과 같았지만
시운 다하니 영웅도 스스로 이룰 수 없구나
백성을 사랑하고 정의를 위한 길이 무슨 허물이랴
나라위 한 일편단심 그 누구 있어 알아줄 것인가
충주독무장군 전봉준이 체포되어 처형되기 직전에 남긴 遺詩



● 全琬準의 생가가 있었다고 전해 내려오는地点.

一. 幼年時節

先生은 1855年(乙卯) 46년) 아버지 全彰赫과 어머니 光山金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字는 明眼, 號는 海亭. 實은 天安이며 本貫은 그 재구가 속한 땅했다하여 불리워진 별호.

天安金氏의 족보에 따르면 그는 三幸公派에 이르는 永準이요, 海亭은 愛敬이라는 것.

吳知泳(高敏出身으로 三兄弟가 선생과 生死를 같이 했고, 後에 敎職者)의 『東學史』(1940) [重刊] 卷의 『全準事實記』 崔玄植(文化財專門委員)의 『甲午東學革命史』(1980)에서 先生은 高敏郡 高敏面 德井里 舊村 胎生으로 父母를 따라서 全州 龜尾里와 井邑郡 泰仁面 居山里 旁지를 옮겨 다니며 살다가 다시 甘谷面 林峰里를 거쳐 18세경에 井邑郡 山外面 東谷里 莊南에서 13세 때 母를 右阜郡 宮東面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先生은 일찍 詩書百家語를 아니 본 것이 없고, 마을에 항상 만족치 못하여 不遇의 뜻을 품고 戊子年에 孫和申선생을 만나 東學에 參與하여 京城에 나아가 政局의 趣向을 엿보았고, 또 外勢를 살펴본 바가 있었다. (先生의 人物담은 人敎 6년인대 大提主 孫和申 金開雨를 總督領으로 湖南僞僑所 大提이 되고, 水雲敎祖이래 派系으로 南北接이 相경할 새 吳知泳을 海月先生께 보내 和解하여 北接 大提 孫秉熙가 스스로 머리 숙여 兄으로 모셨으며, 또 僞道首領 李裕尚이 東學討伐名儒로 數千軍을 이끌고 公州鎭所에서 初面에 將軍의 聲明과 義學의 壯함에 自然 感動되어 投書되고, 討伐大將 金允植이 또한 선생의 威嚴에 兄丈으로 모셨으니 그 人物을 짐작케 함이다.

二. 時代的 環境

가. 東學運動

水雲이 1861년에 敎을 일으킨지 3년만에 邪敎라 하여 處刑되니 1882년부터 二代敎祖 崔海月이 앞장서 줄기차게 싸웠으나 東學黨으로 指目되어 諸人이라면 生命과 財產에 甚大한 打擊을 받았으며

國사가 内外로 어렵고 政治가 썩으니 百姓들은 亡國歌를 부르며 依恃할 곳이라곤 東學黨이라고 救拯을 얻으며 모여드니 알으면 道義보다도 亂雜한 이야기가 많았고, 官吏의 侵虐은 不孝, 不睦, 雜罪보다도 東學黨가 가장 큰 罪가 되어 懲罰이 衡天했다.

나. 政府의 形便

勢道政治를 清算하고 外戚을 驅逐하려던 大院君의 攝政政治가 獨勢道를 차지하게 되자 宗親과 戚黨사이의 싸움에 政治는 腐敗되고 宮內에서도 別入侍, 內官, 宮女들의 放恣하고 不美한 일이 끊이지 않아, 官職과 科擧까지 勢道가 돈으로 左右되니 온전한 것이라곤 없었다. 數十가지 内外弊이 無法天地를 만들고, 訟事가 收奪의 方便으로 쓰여졌으니 죽어나는 것이 下級官吏요, 그를 補充上納하자니 苛徵課求라. 百姓들은 村村마다 哭聲이요, 사람마다 怨聲이었다. 甲申政變으로 要路大官들이 많이 죽고, 王黨은 播遷하고, 朴泳孝, 金玉均 등 親日派와 閔泳淵, 趙泳夏 등 親清派가 서로 충돌하여 變亂이 끊이지 않았다.

다. 民衆의 生活살이

癸巳년 10월에 農民들은 各種 稅金에다가 下級吏員, 下人들의 苛酷에 飢餓이 끊이지 않는데다가 古阜의 水稅米荒, (물餘不足再徵事件, 全州의 均田盜擄事件, 益山의 官吏의 橫領金再徵事件등은 그 代表的 사건이고 各地에서 民亂이 나자 官은 奸邪奸吏의 不正事件인데도 도리어 不平하는 亂民을 東學徒黨의 反亂이라 하여 불지어 中央에서 派道된 按察使마저 門吏의 便을 들어 죽어났다.

三. 甲午農民革命

1894년 3월(음) 金海準지휘하의 甲午農民革命軍이 第1次 蜂起가 일어난 첫 地域은 이제까지와 古阜가 아니고 茂辰임이 正說이다. (서울대 崔鍾夏교수) 이는 甲午農民革命의 總指揮者였던 全琬準과 指揮官 孫和申, 崔永昌 등의 死刑判決宣告書

<그림 61> 전봉준 생가 당촌마을 고증 관련 자료-4

(檢察廳保管)原本에서 發見되었고 그 檢閱過程도 밝혀졌다.

金瑞澤은 茂長에서 勝義하고 四千餘명의 農民을 이끌고 韓起해 右阜로 가서 農民軍을 大編 強化하여 찾아온 官軍을 격파한 다음 다시 興德, 고창, 茂長, 영랑, 長城 등지로 進軍했다.

(1) 古阜攻略

古阜고을은 1894년 5월 趙秉世가 郡守로 부임하면서 수탈과 학정의 도란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는 배를 평(梨坪) 동인들이 井邑川의 下流에 派(總洞派, 혹은 萬石派)를 쌓고 豐年農事를 지어왔음에도 不飽하고 必變치도 않은 新畝를 그 아래에 新造코, 過重한 水稅를 징수하여 七百餘石을 着服하고, 또 農民들에게 五年間 免稅해주마 하여 荒蕪地開墾을 시키고는 當年부터 徵稅하고 무고한 農民을 잡아들여 不孝, 不睦이니, 姪行, 雜技니 하는 허무맹랑한 罪名을 씌워 2萬餘兩의 財物을 勒奪했고, 泰仁縣監을 지냈던 채 아비 趙奎淳의 비자를 세운다며 強制로 일천 냥을 거두었고, 大同米를 民間에서는 精白米로 징수하고는 補庫에는 低質米를 納付하여 그 差額을 챙기며, 禁酒時 山主의 許可도 없이 數百年된 木을 마구 베어내는가 하면 勞役人夫에게는 糧食을 주지 않는 등 苛酷請求를 서슴치 않았다. (金瑞澤供稱)

1893년 가을 梨坪을 農民들은 違名訴狀을 古阜 郡守에게 올리며, 어의 是正을 要求했으나 趙奎甲은 되려 이들을 民民을 선동하는 亂民으로 몰아 主謀者榜인 장두 몇명을 붙잡아 두고 관장으로 다스렸다. 이 兇行으로 一編 益山郡守로 전보되었다가 가장스런게도 다음해 正月에 되돌아와 행패하니 農民들의 분노는 불꽃같았다. 當時 農民指導者는 「將頭」와 일컫는 金瑞澤, 金道三, 鄭益西였다.

鄭益西을 世上에 傳布하고 그날로 일어섰다. 甲午 正月 初三日밤에 泰仁 鼎山里 崔景善家에서 壯健者 三百名을 모아가자고 그 밤으로 古阜郡 北面 馬頭市 三十里를 달려가 마다 持機시켰는 古阜百姓 數千名과 合勢하여 北城안을 들이치니 趙奎甲은 도망갔으나 鄭益西數名을 截斷하고, 獄門을

열어 救恤하고 庫器庫倉 接收하고, 倉庫를 열어 貧民들을 救恤하고, 邑事를 整理한 후 三日만에 卓著하니 孫和申生 高敏頭領 吳河泳, 吳時泳, 林亨老, 林天瑞등 領率下 千五百명, 茂長頭領 宋敏贊, 姜永重등 領率下 千三百명, 興德頭領 高永叔 領率下 七百명, 井邑頭領 孫如玉, 車致九 領率하 千二百명이고, 金開南包, 泰仁頭領 金道三, 金文行, 領率下 千三百명, 金德明包 泰仁頭領 崔景善, 金堤頭領 金奉年, 金滿頭領 金士輝, 金鳳得, 劉廣錫 등 領率下 二千명, 都合 八千명으로 三日后 大軍을 몰아 古阜 白山에 진을 치 東望에 따라 金瑞澤이 大將이 되고, 孫和申, 金開南이 總督領이 되고, 金德明, 吳時泳이 總參謀가 되고, 崔景善이 領率將이 되고, 宋致玉, 鄭伯賢 등이 祕書가 되고, 大將前에는 補國安民四字를 人壽로 特筆하였고, 막에 다시 徽文을 지어 四方에 傳布하였다.

湖南福建大將所 在白山

徽文이 나간 후로 湖南一帶는 물론이요 全 朝鮮江山이 古阜白山을 中心하여 들끓었다. 動員된 地方軍은 高敏, 茂長, 古阜, 靈光, 井邑, 全州等地에서 달려와 全羅 53州가 진동하니 氣勢는 날로 擴大되고 白山의 地地는 人山人海 數萬群衆의 包圍中에 있었다. 立時 白山이요, 卽時 竹山이라는 絶決이 맞는 듯, 白衣를 입어 白山이 되고, 竹輪을 들고 있으니 竹山인데 실제로 白山 北면에 竹山이 있어 壯觀이 아니던가.

金瑞澤은 4월 9일 茂長에 入城하여 3일 동안 머물면서 휴식을 취하고, 全州에 당도한 中央政府軍에 對面하여 호산부에 전지를 받고 革命軍을 編成하여 全州를 攻略기로 하였다.

이때 全羅監司 金文鉉의 稟報에 應 政府는 清州兵使 洪啓憲을 招討使로 新式武裝軍 一千名을, 仁川港으로부터 軍艦에 태워 蔚山鎭에 上陸시켜 全州에 들러 殘兵과 함께 編成했다. 領率將은 李學永, 元世禮, 吳建泳, 吳元泳 등이었다. 意氣揚揚하고 外國의 殺人武器로 武裝하니 시골 百姓에겐 놀라게만 보였다. 數日만에 古阜白山에 달려 들어 砲를 쏘아 대어도 革命軍은 한발 앞서 退却하여 南으로 쫓아가니 無人之境이라, 革命軍은 진

<그림 62> 전봉준 생가 당촌마을 고증 관련 자료-5

地를 옮겨 營營으로 내려갈새 茂長村百姓들은 大半이 따라 나갔다. 官軍이 쫓아 쫓아 靈光 成平경지까지 내려갔어도 革命軍은 아랑곳 하지 않고 南進하며 그 고을을 陷落시키 事器를 걸우어 武裝을 補強하며 蔚安, 靈岩, 康津, 南方 끝까지 쫓아가 내려가니 別處 數百里다. 말다, 몇 백명으로 줄임, 돌림 빠져나와 그 종적을 감추었으니 洪將軍은 속마음에 헤아리되 저 무지몽라한 시골 어리석은 것들이 저승에 어떤 중으로 모여 그와 같은 亂暴한 행위를 했으나 官軍의 威風아래 무서운 洋鎗소리들 듣고 어찌 놀라지 아니했으리오. 洪將軍은 팔을 들어 크게 외치고 그날로 곧 狀文을 지어 서울로 戰捷報을 올리고, 勝戰報을 올리며 全州城을 향해 되돌아오는 동안 數百里 길가의 東寧所 小館은 모조리 짓밟아 버렸다.

이때 官軍을 흘리며 南端까지 끌고 갔던 革命軍은 사잇길로 全州로 北上하다가 長城地界에서 忽然 官軍을 마주 大團戰을 하여 勝捷했다. 한편 吳河泳, 李邦彦 등이 數百명의 軍士를 거느리고 靈光邑으로부터 夾路로 빠져 長城地界에 到達하자 北上길의 洪將軍軍 一隊가 古阜로부터 長城한재를 넘어 革命軍의 앞길을 막고자 南下차 萬龍江에서 만나 싸웠으나 전 長興府使 李邦彦의 發明武器 大장대에 混雜되어 敗亡하자 革命軍은 勝敗하고 四月 二十日頃에 全州에 集結하여 翌제히 풀고 일어나 官軍을 散退시키고 招議大將 金瑞澤은 宣化堂에 定座하여 百姓들을 慰撫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補國安民을 主張하는 사람들이다. 百姓을 위하여, 國家를 위하여 努力함이요, 決코 他意가 없으니 동포들은 各其 安心하라」 하였고 이에 前過를 뒤운천 者를 용서하고 獄門을 열어 放免하고, 倉庫를 열어 貧民을 救恤하고 平定했다.

(2) 革命軍의 全州入城

洪將軍은 計略에 따라 數百里를 끌려다니다가 擄取하니 中央政府는 새로 文籍된 金羅監司 金鶴謙과 接進使 嚴世永을 내려보내 議和한다.

예는 甲午 五月이라, 官軍은 中央으로 돌아가고 革命軍은 全羅道 五十三州에 執綱所를 設立하여 民間庶政을 處理케 하였다. 每邑에 執綱 一人을

두고, 議事員 若干人을 두었으며, 大小官吏들은 그를 방조하여 裁정개혁에 着手케 되었으며 그 裁정개혁은 아래 十 條이다.

• 裁정개혁 十二條

- 一. 招議所와 政府사이에는 宿議를 맺고 서정을 협력할 것
- 二. 謫官이라는 그 죄목을 조사하여 一切 免罪할 것
- 三. 舊豪는 엄격히 중계할 것
- 四. 不良했던 儒林과 양반들은 올바르게 處身할 것
- 五. 報復文書는 분간과 버릴 것
- 六. 七類人의 대우는 고치고, 백성들에게 세워 권대하던 平壤은 버릴 것
- 七. 禁酒과무의 改廢를 허가할 것
- 八. 無名雜稅는 全部 勿施할 것
- 九. 官吏 採用은 地閥을打破하고, 人材를 널리 登用할 것
- 十. 儒와 好通하는 者는 엄정할 것
- 十一. 公私債를 勿論하고 기왕의 것은 一切 勿施할 것
- 十二. 土地는 平均으로 나누어 줄 것

革命은一朝一夕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어서 어려움이 많았고 뿌리깊은 傳統의 癖新에는 時間이 必要했을 것이다. 天下가 呼應하여 人心을 集中시키기도 했으나 氣勢에 따라 潛人한 不良輩들의 不道, 不法한 사고, 貧富貴賤, 隨應奴主, 內外尊卑의 別을 革命하자는 口號에는 既得權者들의 反對도 無視키 어려운데 아직 城外抑壓된 階層의 覺醒도 모자라 革命軍에 대한 批評도 자못 紛紛했으나 革命氣勢는 衝天하여 殿后까지 抗擊한 蔚州, 南原, 雲峰이 收拾되니 全羅一田은 완전히 자리잡혀 民間庶政 執綱所에 把握되고 護衛軍이 治安을 確保했으며 南으로 慶尙一道가 흔들리고 北으로 忠清, 京畿, 黃海, 平安도까지 뻗어들어가는 形勢였다.

이때부터 政局은急變하기 시작했다. 清·日兩國軍이 상륙하여 어지러워지니 朝廷에서는 革命

〈그림 63〉 전봉준 생가 당촌마을 고증 관련 자료-6

軍에 和解를 要請했다. 除賊民과 輔國安民을 總
起의 大義로 삼았던 前鋒軍은 뜻밖의 事態에 直面
하자 대국을 制할하여 27개조의 軍政改革案을 提
示한 뒤 五月 八日 全州城을 包圍하고 和約을 받아
들었다. 이 改革案은 革命軍이 설치한 義勇所政治
에서 一時나마 實現되었으며 후일 甲午更張에 反
映되어 祖國近代化에 寄與했다.

(3) 革命軍 다시 일어나다

改革政治를 꾀하던 全瑬軍은 日兵이 公館에 入
입, 閨閣을 搜索하고, 清日兩國의 戰鬪을 일으켰
다는 소식에 接하고 나라가 어지러우니 軍政改革
을 論할 때가 아니라 抗日전쟁을 벌일 때가 왔다
고 判斷했다. 總兵과 軍務總長 崔龍을 위해 국식
이 어두운 九月에 접어들자 參議들에서 再起했다.
이때 政府에서는 全州和約을 깨고, 東學黨의 役
을 내세울지 政治는 自衛能力이 微弱하여 國權을
잡으려는 勢力다툼으로 심지어 外勢를 끌어들이
는데 서슴치 않아 먼저 親清派가 清軍을 上陸시키
니, 親日派는 親清派를 누르고 日軍을 끌어들이
니 洋條約違反(朝鮮出兵時는 清日兩國 事前協定이 있
어야)을 내세워 兩國軍이 서로 역위 清軍을 討伐
시키고, 官軍과 全勢軍 聯合軍을 내리보내니 이를
맞이 公州 牛場寺(公州는 金剛山)에서 싸웠으나 長
鎗武器로 武裝하고, 訓練된 正規軍에 맞고 대항으
로 대항하는 民衆이 이끌 수 있는 상대는 아니었
다. 崔大鳳, 姜宜漢이 이끈 全州軍(五丁), 朴正瑞,
林亨龍가 이끈 高靈軍(五丁), 崔景善이 이끈 奉仁
軍(七丁), 金開南이 이끈 南原軍(一萬), 金聖得이
이끈 金溝軍(五丁), 劉漢錫이 이끈 咸鏡(七丁), 宋
敬賢, 姜宜漢가 이끈 義勇軍이 이끈 茂長軍(七丁), 吳河
泳, 吳時泳이 이끈 靈光軍(六丁), 崔相五, 車致九가
이끈 莊昌軍(五丁), 金奉年이 이끈 金堤軍(四丁),
鄭一瑞, 金道三이 이끈 古阜軍(六丁), 姜應玉이
이끈 參議軍(五丁), 吳東英가 이끈 淳昌軍(千五百),
宋泰燮가 이끈 院坪軍(七丁), 李邦彦이 이끈 長興
軍(五丁), 金相泰가 이끈 海南軍(二丁), 崔奎仁이
이끈 務安軍(二丁), 許宇義이 이끈 義城軍(一丁),
吳勤善이 이끈 羅州軍(一丁), 李○○이 이끈 咸平
軍(一丁), 高永叔이 이끈 興德軍(二丁), 朴洛陽이

이끈 順天軍(一丁), 柳希道가 이끈 興陽軍(五丁),
文章衡이 이끈 寶城軍(三丁), 朴成泰이 이끈 光州
軍(四丁), 李龍泉, 李炳用이 이끈 任實軍(三丁),
金重華가 이끈 潭陽軍(三丁), 其數 十餘萬을 넘은
적과, 係和中和 金德明이 總指揮가 되고, 全瑬軍
이 大將이 되어 全羅一道의 大軍을 領率하고 全州
에 據守하니 이때 다시 湖南 五十三州의 江山을
흔들었고, 남은 마땅이 左便으로 嶺南一帶과 北便
으로 湖西一帶에 波及되었으나 東學은 水雲教祖
시절로부터 地域이나 黨派도 아닌 南北接이라 이
름이 있어 嶺南은 水雲이 불려준 北接이고 자기
는 南接으로 시작되더니 이것이 后日에 全瑬軍을
南接이라 이름하고, 忠清道를 北接이라 이름하여
서로 排斥하고 끝내는 全瑬道 忠清道 속에서도 南
北接이 따로 놓아 義勇하는 데도 큰 問題가 되었다.
처음에는 門閥에서 次次 肉迫戰으로 다시 戰鬪地
域에까지 이르러 再起兵하는 데도 큰 苦痛거리가
되어 마침내 南接의 總장미리엔 北接 사람들은 모
두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北接頭目 金滿
의 金邦瑞, 金滿의 徐水道, 許乃元, 沃溝의 張添
化, 扶安의 金錫允, 金洛品 등은 직접 곁에 義勇
을 의논하여 南北接調和策을 吳知泳에게 부탁하
였다. 吳知泳이 全人將에게 進門했다 바 道를 辟
해 나라를 亡할 수가 없다 하여 곧 全勢軍 내리 北接
에 대한 苦痛을 諷諭해 하고 吳知泳을 海月에게
보냈던 바 敎祖도 諷諭하는 論을 보내 崔大鳳 崔應
大 道所에 가서 諸將에게 相讓하라 하기에 그들을 만
났던 바 敎氣 充滿하여 「道로써 亂을 지우는 불가
하니 湖南의 全瑬軍과 湖西의 徐厚玉은 국가의 役
적이요, 師門의 亂賊이라, 우리는 빨리 모여 그
것을 공격하자」는 通文을 보이며 諸將軍을 南接軍
이라 指目하고 南接의 軍情만을 묻고 그들은 南接
을 미워하여 치리리 諸兵과 日兵을 이끈 官軍을
시켜 南接을 撲殺하려는 意圖임에 놀라 지간의 起
兵은 道를 위협이 아니요 국가의 興亡盛衰를 關
內憂와 外患을 직 觸리치지는 세움인데 우리 道는
누구를 위한 道인데 感情을 앞세워 억압받는 民衆
이 屠殺되는 것을 마음속에서 憎기려하는가? 하
면 正論을 앞세워도 反論이 紛粉했으니 崔秉熙만
이 同調하자 마침내 通文을 거두고 伐南賊을 꾀어

〈그림 64〉 전봉준 생가 당촌마을 고증 관련 자료-7

南賊과 輔國安民의 旗幟下에서 進退를 같이 하거
로 決定짓고 일어섰다. 이로써 吳知泳이 海月로부터
兩湖都察의 任務를 받아 北接을 益山에 會集케
하니 南北接이 盡心調和하여 大에 같이 일어섰
다.

이때는 甲午 九月 그믐이라, 全勢軍 北接軍으로
金邦瑞, 吳知泳의 咸鏡軍, 吳景道, 高濟興의 益山
軍, 張景化, 許龍의 沃溝軍, 陳寬三의 臨津軍, 金
錫允, 金洛品의 扶安軍, 金功善의 萬頃軍, 崔相善,
高德三의 鰲山軍, 林致章의 高山軍, 李應白의 茂
朱軍, 李炳任의 任實軍, 徐水道, 許乃元의 全州軍
등의 湖南軍과 湖西 以北에서는 孫天民, 李容九의
清州軍, 金演周, 黃河一, 樞東憲의 恩恩軍, 金福
用, 李熙仁의 木川軍, 鄭元俊, 姜彩西의 沃川軍,
朴寅植의 瑞山軍, 金敏三의 新川軍, 金一培의 德
山軍, 朴容石, 金順政의 唐津軍, 金東斗의 泰安軍,
金斗悅, 韓上夏의 洪川軍, 朴熙憲의 馬川軍, 朱炳
道의 安眠島軍, 洪秉賢의 羅州軍, 金知澤, 吳成大
의 公州軍, 鄭景泰의 安城軍, 高在聖의 臨智軍,
任學善, 洪秉賢의 羅州軍, 金士錫, 金仁謙의 利川
軍, 辛在根의 楊州軍, 金奎俊의 襄平軍, 李和卿의
原州軍, 尹冕鎬의 羅城軍, 沈相賢의 洪川軍 등의
數 十萬에 달한지라, 이는 崔秉熙가 領率했
다.

이에 湖南, 湖西, 嶺南, 江原, 京畿 등 各道의
革命軍의 大部分이 모두 한 곳에 모이니 恩津, 論
山을 中心으로 羅山, 魯城, 公州, 連山, 扶餘, 石
城, 益山, 咸鏡, 豐安, 韓山, 舒川, 林川, 鰲山
등 諸邑은 數 十萬으로 人山, 人海를 이루었고, 斷
絶絶光은 數百里의 山과 들을 뒤덮었고, 鼓砲, 鼓
角은 天地를 震動시켰었다.

論山의 大本營에서는 湖南의 全瑬軍과 湖西의
崔秉熙 兩 大將이 서로 만나 손을 잡으니 단번에
軒輊이 서로 通하여 志氣가 符合되는지라, 드디어
兄弟의 誼를 맺어 生死苦樂을 同調하니 全은 兄이
되고 孫은 아우가 되었었다.

이 외에도 德道首領 李相商이 東學 討伐軍을 組
織하여 論山 大本營의 議聘에서 全大將의 人品과
뜻에 感動하여 投合하여 兄弟의 義를 맺었고, 또
리伐大將 金允植도 官兵의 人將임에도 不附하고

全大將 앞에 感服하여 全을 던지고 머리 숙여 兄
으로서 섬겼다.

湖南의 全瑬軍, 湖西의 孫秉熙, 德道首領 李相
商, 討伐大將 金允植의 네 사람은 當時의 豪傑이
요 天下의 義俠이라 處地가 비록 같지 못하고, 宿
怨는 서로 없었으나 뜻이 있는 男兒는 만나면 바
로 벗이요 兄弟와 같았다. 過去의 일이 무슨 掛念
이 되었는가, 所爲 民官, 儒道니 또 湖南, 湖西
나 모두가 비열하고 狹隘한 생각이야 어찌 足히
異論할 바였으랴. 오늘의 地域感情도 사상이 없음
이겠고, 民族의 大復活이 될 나라의 統一이 自豫
의 利害 때문에 國體統一을 가로 막고, 南北의 統
一을 못이루고 五十年이 되어가니 全瑬軍 같은 偉
대한 人物이 빠져라게 그려워진다.

十月 崔秉熙 公州接戰에서는 그동안 각 고을에
서 官軍으로부터 擄取한 鎗砲는 多少間 있었어도
數 十萬大軍이라 主兵器는 鎗과 竹槍을 든 農民
民衆이요, 相對는 一年后 清日戰에서 예상을 뒤
엎고 老犬國 滿洲國을 물리치고, 다시 十年后에는
世宗의 猶太國 滿洲國을 戰鬪한 日本軍이 主力이었
으니 相對가 될 수 없었고 이를 말한으로 十五年
后 庚戌에 亡國하니 千秋에 恨을 남겼다.

(4) 偉대한 指導者 全瑬軍의 最後

政府軍은 巡撫使 申正熙의 先鋒將 李圭壽와 忠
清監司 朴濟純과 瑞山都守 咸夏永과 參謀部 朴元
喜와 領官 李珍鎬와 竹山府使 李平壤과 隊官 李謙
濟 樞東鎬 등이었다. 革命軍은 公州收戰 후에 論
山으로 本진을 옮겨 數日間 休息한 뒤 官軍을 맞
아 싸웠으나 다시 허물어져 全州城, 金溝, 院坪의
을과 井邑, 奉仁 등지에서 連戰連敗하자 長城直隸
下에서 再起를 약속하고 들어섰어도 各地에서 여
전히 싸움은 계속되어 三, 四十萬명의 損失을 보았
는데 官兵, 日兵, 守城軍 및 民間人 등에 의한 慘
殺은 湖南에서 제일 무심하였다.

이때 全瑬軍, 係和中和, 金德明, 崔景善, 金邦瑞
등의 首腦들은 再舉코저 笠岩山城으로 移진했다
기 (모래와) 森地日軍部隊과 李秉泰의 官軍의 追격
을 피하여 三十日 白羊峯을 거쳐 金開南이 守衛하
고 있는 山內面 宗聖里를 가는 도중 淳昌郡 覽源

所重性을 새삼 發見하는 것이다. 이 革命이 成功 되었다면 우리의 近代史는 大變 變遷한 發展이 이뤄졌을 것이다. 비록 失敗는 되었어도 歷史적으로 크게 評價할 意義가 있는 것이다.

이 革命에 대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대로의 評價를 못하고 歷代의 獨裁政權은 農民들과 薩外된 계층들의 革命主體勢力의 歷史的 當爲性마저 왜곡하여 東學亂이니 民亂이니 하여 왜곡되고 縮小化하려 하고 있다. 全瑋準先生이 내건 倡議文과 布告文, 改革政策속의 東學의 要素는 全無하다. 萬一 東學이란 글자가 붙어야만 했다면 東學教主 崔時亨과 大相所가 存在하는데 湖南僧侶所가 主體가 될 수 있었는가. 初期에는 團結되고 結集力 있는 道人들이 主體가 되었을망정 여기에는 農民이 主體가 되어 있고 改革의 源流는 農民民亂이며 社會改革, 政治의 修正, 外勢排除, 除族校民, 韓國安民을 緣起의 大義로 삼았고, 后日 改革更張도 革命 執綱所에서 一時나마 實現되었던 近代化政策이 그대로 反映되어 있음을 본다. 亂과 戰쟁이 아니고 全國에 걸쳐 絶對多數를 손쉽게 動員한 農民革命임을 알았다.

確證되지는 않았지만 裁判記錄에서 본 大院君의 對亂說에 대하여 吳知諤의 東學史에서 보는 바 우리는 大院君을 한마디로 鎖國主義者로 아작하고 있으나 機會를 잃고 天下의 英雄인 大院君이 腐敗한 政治는 改革으로, 薩外된 階級의 解放, 土地改革에 의한 農民政策, 外國侵略을 排除하려던 主體思想을 判處에서 엿본다. 外侮는 外勢를 막으려고 佛蘭西나 미국을 끌어들이려던 일이 있기도 했으나 天主教의 탄압을 가져오며, 西學을 反對하며 主體性을 갖고자 하는 東學, 大院君에게로 儒林이 反對勢力化했으니 廟社를 미워한 農民代表 全瑋準을 서울에서 面接 謁見을 當然한 일이 아니겠는가. 大院君을 찾은 全瑋準이 말없음을 보고 나를 찾은 이유를 캐며 科官이나 誚訟인가 하자. 答하여 나의 所懷는 말하기가 어려운데 大監의 뜻을 알아라기 어려워 觀望中이었는데 正히 말하라면 저의 所懷는 「나라를 위하여, 百姓들을 위하여 한변 죽고자 하는 바이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先生과 大院君의 사이에는 무슨

密約이 있었으리라고 하며 그의 序外의 文句가 共通 共通하고 京城서 내려오자 革命의 烽火를 올렸고, 그의 徵文中에 버림받고 薩外된 階級에서 一夫獨斷을 謀求한 勾節에서 그의 思想은 엿볼 수 있다.

이제 글을 맺으면서

첫째, 全瑋準先生의 出生地에 關하여는 高敞郡 高敞邑 德井里 堂村이 確實한 革命에 中樞的으로 參與했고 東學의 后身인 入道敎에 敎導으로 있었고, 또 東學史를 지은 吳知諤은 高敞사람으로 南北接調和를 成就시켜, 兩湖郡縣의 任에 있는 幹部이나 出生地를 詳實하게 없고, 現在 高敞邑 德井里에 生存하고 있는 古老 德奉 古德姓氏도 여러서 널리 물어 아는 事實이라면 의심의 餘地가 있겠는가.

둘째, 自由人將所와 古阜 德井과 官軍을 맞아 大勝한 高敞 德井里의 緣起의 始初인양 되어 內容도 整備되지 않은 古阜 現地의 遺跡地도 不過 吳知諤의 遺物로 外形을 꾸미는데 그치고 있는데 서울大 愼容庭敎授의 全瑋準 裁判記錄의 發見으로 첫 解放戰鬪勝利가 高敞郡 度良이라는 事實이 儼然하나 史跡도 새로운 考證으로 整備되어야겠다.

參考文獻

吳知諤 東學史 大光文化社(1964년)
自稱을 東學史 全北日報 (1968. 12. 12. 신문)
吳知諤 崔時亨 全瑋準 全北日報 (1968. 12. 12. 신문)
愼容庭 甲午농민혁명의 첫 勝利는 度良이다.

續:全瑋準은 高敞人이었다

高敞文化委員長 李起華氏資料提供

「전봉준장군은 고을출신」이라는 이 말은 지금 50대 이상의 고장사람이면 귀가 달도록 들어 온 傳來之談이다.

全瑋準도 1963년 「고향을 지키는 동산자기」를 自述하고 나서면서 부터 이 말을 꽤 많이 듣게 되었고 이후 수많은 證言과 考證을 찾아 약 20년 동안 執念을 두고 沒頭해 오고 있다.

그러나 「全瑋準의 高敞出生說」을 證明하는 作業을 本格的으로 시작한 것은 20년대 후반이 이후 10여년 간이었다.

그동안 資料蒐集 整理와 古老들의 證言 그리고 이 단기에 묻혀 살 것만 같은 全監군의 後孫들을 찾아 나섰다가 效果가 되어 이제는 心證의 由로는 두 말할 나위가 없고 實證의 由로도 그 範圍이 完成段階에 이르러 近間에 별도로 學術的인 次之에서 「全瑋準將軍과 高敞과의 關係」를 論證하기로 하고 紙面關係로 여기에서는 略說의 인 概況만으로 高敞出生說을 肯定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발표된 전봉준 장군의 出生說은 區區하여 分明하지 못하나 크게 알려진 出生說 몇가지를 놓고 그 眞狀을 說明해 보기로 한다.

먼저 그 내용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全州대생으로 어려서 泰仁縣 甘山面으로 移住하였다는 說.

둘째는 泰仁縣 山外面 東谷里 知琴谷(지금실) 대생인.

셋째는 古阜郡 宮洞面 長內里 (現 井邑郡 梨坪面 烏里里) 대생이라는 說.

넷째는 現 井邑郡 德川里 柿木里(감병기) 대생설 다섯째는 高敞縣 德井面 堂村에서 出生하여 少年期에 古阜로 移居하였다는 說 등이다.

여기에서 全州 대생설은 (張華善 주장) 뒷날 전주 사람들이 그를 崇慕하여 꾸며낸 말이라고 하며(全義煥 주장) 山外面 東谷里 대생설은 (崔玄植 주장) 全監군이 마지막 寓居한 사실 이외에는 分明치 못하고 (申福應 주장), 全瑋準將軍 古宅으로서 地方文化財 第19號로 指定되어 있는 井邑郡 梨坪面 烏里里 대생설은 (金庫善 金龍鎬 韓宇序 등 주장) 1974년 補修工事 때 1878(戊寅)年 2月 26日字의 上樑文이 나타나게 되어 生家라던 이 집은 全監군이 2살때 저온것이 確實해서 그 동안 술하게 生家로서 美化된 이야기들이 市井에 傳고 文化財 名稱도 生家에서 古宅으로 바꾸어지고 말았다.

德川面 柿木里 대생설은 그 信賴性을 韓國大 申福應敎授가 그의 著書에서 言及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당시 井邑에서 알려진 文庫후로 東學革命에 참여한 바 있는 崔宅室(1852-1929)의 孫子인 崔京源(1912年生, 井州市 永興里 172리2의)의 主張을 引用하고 있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崔京源이 그의 할아버지로 부터 分明히 柿木에서 태어났다는 말을 들었고 崔京源이 이렸을때 全將軍의 古宅에 차려진 晝宴에서 晝 公作한 事實」을 들고 있는데, 柿木대생을 말하면서 晝宴은 德島里 古宅을 指稱하는지 弄잡을 수 없어 曖昧模稜한 이야기가 되고 있다.

高敞 堂村 대생설은 다른 곳의 主張과는 달리 우선 記錄面에서 確實한 것을 엿볼 수가 있다.

吳知諤이 지은 東學史(1968)에서 「全瑋準은 全羅道 高敞縣 德井面 堂村대생으로 世代 士林家 사람으로 자라서 古阜 陽德里와 全州 龜尾里며 泰仁洞 口川 등 여러 곳으로 돌아 다니며 流動生活을 하였다」고 記錄하고 있다.

吳知諤은 本來 高敞出身이었는데 益山으로 移居

하여 살았다.

그는 「高敞」과 「全珍準」을 누구보다도 소상히 알고 있고 또한 기록할 수 있는 분이다.

그가 저술 「東學史」는 政變때문에 뒷날 出得(出得) 되었지만 東學革命에 직접 가담자가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생생하게 써낸 唯一한 朋이다.

그는 「東學史」에서 (1728) 自己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南陽郡에서 全福 忠道 南道사이에서 接(接)의 傳 南人 南道人 사이에서 이루어진 關係를 기반으로 한 組織으로서 地域組織의 發展과 統一的의 功과 道人사이의 일을 擔當하다가 公州에서 敗한 後 益山 全州사이의 事를 다 解散하고 西海邊으로 避居하여 다니다가 서울로 올라와 잠시 동안 楊州 妙寂庵에 隱居하여 歲月을 보내다가 마침내 入道敎 敎徒가 됨」.

또한 「天道敎自史」(1925)에는 「同學革命의 反封建的運動에서 反侵略的運動으로 方向轉換을 한 東學革命의 發端九月起부터 吳知沐은 益山에서 吳學道 高敞自道와 함께 峰起하였다」.

그의 自傳도 또한 高敞으로 始祖 吳學峰은 高敞中 興의 名人 崔鍾이 著述한 自傳의 「형리」중 하나로 翰林院 學士가 되어 매우 높은 學識을 남겼다.

그의 孫子 吳康文은 崔鍾의 「歷代」를 承 文學人으로 吳康文은 「自傳」의 承무엇으로 李奎 顯 李仁 등 當代學者들에게 學文과 思想으로 크게 영향을 끼친 大家였다.

이와같이 선비의식이 투철한 吳知沐의 家系는 할 상 義를 崇尙하는 高敞人의 氣質이 이어 오고 있어 東學農民革命이 일어났던 白山峰起때 高敞에서 1,500명의 農民軍을 이끌고 나선 主謀者 吳河泳 및 吳泳도 또한 그의 집안이었다.

오늘날 高敞에서 그의 집안이 한 世帶도 알지 못하고 있는 理由가 東學革命때 크게 가담 滅門之禍를 당하게 됨에 동지박산하는 바람에 멀리 慶尙道 高靈 慶州등지로 潛跡하였고 高敞과 附近에 남은 사람도 本質을 變遷하거나 이에 變性適應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지금은 찾을 길이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高敞吳氏의 始祖까지 失傳하고야 말았다. 高敞 新月里 京坊근처인데 逆賊으로 몰려 돌보는 후손들이 없고 墓石들이 紛失되어 확실한 地

점을 얻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는 筆者가 調査한 史料에 對한 考證을 提議하는 史料을 몇가지 提議하고자 한다.

첫째: 高敞의 依한 考證

먼저 高敞縣內에 살고 있는 仁安全氏들의 世居分佈를 보면 崔軒(文相公) 派系들이 孔丘面 新松 龍水上 下面 井面 大山面 德川等地에 (李公 派系는 新林面 益松一帶에 大堤學派는 高敞邑 洞山 龍山面(不甲)에 兎亭學派는 心元面 月山 茂茂面 茂長 星內面 富德에 判決事公派는 龍山面 九岩등에 散居하고 있다. 여기에서 筆者는 이와같은 集姓村外에 한 두집씩 묻혀사는 全氏를 찾아 나서기도 했다.

특히 高敞 堂村 德井을 중심으로 여기에 살다가 다른 곳으로 떠난 全氏를 集中的으로 調査해 나갔다.

德井里에 散居해오고 있는 崔鍾(自傳)의 族의 考證과 古老들의 이야기를 綜合해본 결과 德井에서 2代째 屋入살아온 하다가 新林面으로 떠난 全東根이라는 사람이었는데 自己 祖上代의 族譜를 숨겨 가지고 다닌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授所開한 결과 新林面 龍岩村에서 全良山(壬寅生: 1822)을 찾게 되었다. 良山을 통해 全東根을 만나게 된 筆者는 그 음지다닌 族譜가 全珍準將軍(生時年) 1835년 이후 1894년 이전에 附屬된 族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族譜에 의하면 全東根은 全將軍의 從曾祖·六代孫으로 全將軍과는 11代間 隔을 알 수 있었고 全良山과 全將軍과는 10代之間 그리고 全東根과 全良山은 8代間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全將軍은 李公派가 아니다.

지금까지 여러 史學者들이 떠낸 東學關係 書籍을 보면 全將軍은 天安全氏 (李公派)로 紹介되고 있는데 이는 明정년 誣曲으로 著作이 아닐 수 없다.

癸巳年(1853)에 發刊된 三幸公派書에 의하면 全將軍의 上系가 興德縣 一面(舊碧沙面) 碧松里 全氏로 내려오다가 祖父代부터 井邑 梨半面 島果里로 옮겨졌고, 그 어머니(1815)가 全將軍을 8才(1835)에 낳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뒤가 맞았고 조감하게 엮어진 내용을 筆者가 지금까지 一考의 余地도 없이 그대로 引用해오고 있는 것도 歷史적으로나 學術적으로 큰 誤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全將軍의 養孫(全萬吉: 井邑郡 北面 南山里)도

해서 碧松里 全氏와 같은 嚴格의 三幸公派 後孫으로 大跡시키고 있다.

그러나 逆賊으로 몰리면 三幸을 滅하는 罪에 非은에 살고 있는 三幸公派 후손들이나 碧松里 全氏들이 그렇게도 고스란히 無事할수가 있을까 疑問이 간다.

오히려 당시에 高敞에서는 唯一하게 堂村全氏(文相(崔軒)公)들만이 倖免이 된 것을 比較해 보면 과연 어느쪽이 全將軍의 眞인인가가 짐작될 수 있다.

셋째: 東學革命運動의 狀況의 判斷

全珍準 孫承幹等 東學革命運動의 指導者들의 死刑判決原本은 入手한 서울大 崔德範敎授의 主張(1895)에도 明示된 바와 같이 中世農民革命運動의 特徵인 亂暴은 古阜가 아니라 茂茂에 있음을 먼저 提起하고자 한다.

筆者가 調査한 바로는 中世革命運動이 일어났기 2-3년 전부터 全珍準은 茂茂에서 益山 九井에 移居한 것은 文孝公派 후손들 집안에 據點을 확보하고 孫承幹의 學士(崔)와 謀議를 이곳에서 準備해 온 것으로 古老들의 이야기를 串結할 수가 있다.

全將軍은 茂茂에서 4천7백여명의 農民軍을 이끌고 古阜로 가서 農民軍을 대폭 強化하여 白山起兵과 黃山의 官軍을 擊破하였다.

당시 東學의 勢로 보아도 茂茂는 孫承幹의 根據地로 全珍準內에서도 金剛山과 아울러 東學이 가장 得地하였던 점을 考慮해 보면 정작이 간다.

또한 全將軍의 學徒에 대해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되고 있는데 하나는 단순히 무장적인 亂亂이 아니라 그의 오랜 計劃과 野心에 이루어진 革命의 序幕이요, 다른 하나는 甲午年 正月의 첫 起兵은 東學과 無關係 亂亂으로 보려는 見解가 있는데 高敞 現地에서 資料調査하다 해보면 計劃적인 學事였음을 實施할 수 있다.

崔德範 洪啓薰이 이끄는 不定軍의 亂亂을 避하기 위해 甲午年 4月 7日 새벽 黃土堤 戰勝을 거둔 東學 農民軍은 이날로 井邑를 占領하고 古阜三巨里에 留陣하였다가 4月 8日 아침에 興德과 正午에 高敞을 襲奪 以後 金仁 東學徒를 放免하고 軍器를 거둔 후 官衙를 불지른 것으로 記錄하고 있으나 이는 官軍만을 意圖하고 農民軍을 過少評價한데서 오는 偏見으로 볼 수 밖에 없다. 不定軍의 接戰을 意圖적으로

農民軍이 避離하고서 南進한 것이 아니라 革命의 謀議의 場場이 茂茂였기 때문에 革命의 基盤構築을 위해 미리 內通이 되어 있는 興德 高敞 茂茂으로 進擊하여 農民軍을 結合 陣地를 整備하고 官衙를 占領 武器를 接収하여 火力을 強化함으로써 民心을 모으는 戰略적인 意圖을 意圖하게 進擊하는 것은 史上空論의 禁物이 아닐까 싶다.

高敞에서 하루밤을 묵으면서 結合된 農民軍은 1萬 名을 헤아리게 되었고 4月 9日 茂茂에 當面한 東學 農民軍은 縣衙公署를 打破하고 監獄에 있는 東學教徒 40 餘名을 석방하였다.

茂茂에서는 官衙들이 內通이 있었던 것으로 崔軒과 各속가 고스란히 살아 남게 되었다.

全將軍은 要所의 警備를 嚴重히 하여 官衙의 搜探과 京兵들의 捕獲에 대비해 나갔다.

그리고 萬一에 대비하여 防禦戰에 對한 地勢인 龍山面에 設陣하고 三日間을 高敞對峙하였다.

여기에서 有名한 歷史的인 崔德範을 滿天下에 發表하여 學徒의 趣旨을 闡明하고 亂政을 痛罵하여 國民 康濟를 위한 大義를 밝히었다.

그러하여 高敞郡內의 1-2次에 걸쳐 東學徒起에 가담한 連人員은 무려 2萬을 육박하게 되어 革命의 主軸을 이루었다.

또 한 가지는 全將軍의 親衛隊 編成에 관한 이야기를 덧붙이고자 한다.

1894.3.21의 白山峰起때 東學軍의 編成을 보면 崔義人將의 全珍準 總督領 孫承幹 金開南 總參謀 金德明 吳時泳 領軍將 崔景善 總書 宋萬玉 鄭伯賢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崔義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해 보면 崔義란 自己의 心腹이나 徹底한 信任이 없으면 採用하지 않는 것이 常例이듯이 宋萬玉은 全將軍의 家系의 再從姪이므로 그 信任이 두터운 處地이나 鄭伯賢은 孔 音而 九井사람으로 事實上 信任이 問題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서 革命의 謀議가 茂茂에서 相當한 期間을 두고 이루어졌음을 示證하는 事例을 發見할 수 있다. 勿論 秘密라면 두터운 信任의 推薦이 따를 줄 알지만 事前에 能力과 勢力 당시에는 그리고 後·短점이 充分히 檢討된 然後에 應擧의 節次가 따르는 것으로

忠烈公에 鄭의 贊을 받았는데 忠烈 諱 諱 諱 諱에서 全장군이 옆에 두고 補助軍務를 掌事하였으며 筆力과 文章이 絶等했던 점이 大히 功적이 大다.

鄭의 贊의 語는 松山 號는 松隱으로 貴鄉은 貴州이다. 254년 松隱가 된 그는 族叔인 竹史 鄭學淵閣下에서 修學한 才育이었으며 매우 敏捷하였다고 한다.

또 全장군의 陣中隨行員(贊護員)도 茂長面 院村里 松山出身이었다. 茂長 東學接主였던 金聲七의 長男인 金興發(1874~1899)이 張本人인데 그에게서 많은 實證을 들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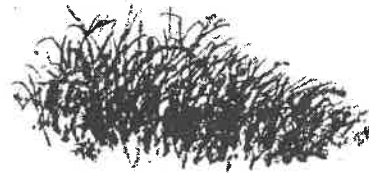
1893년 12월 10일 冬首時節(孔宣圖) 畫上 宋文殊宅에서 孫華仲에 의해 繪圖되었다고 한다.

宋興玉은 井邑出身으로 門族之親인 別다른 特權은 없었다는 예기이며 高敵出身들이 同族之親의 重任을 맡은 事例들을 놓고보면 全장군이 高敵에서 革命을 謀議하였다는 心證이 가고 위의 몇가지 事例들이 全장군의 生平說을 뒷받침하는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기대하면서 紙面關係로 이만 記述하고자 한다.

여기에 東學農民革命에 가담한 高敵出身人들을 參考삼아 收錄해 보면 다음과 같다.

○ 抄錄通文 署名人: 鄭宗赫(富安村山) 黃彰五(里

- 高敵 內 新里
- 高敵 將領: 吳河泳(고창읍) 吳時泳(고창읍) 林天瑞(고창읍) 林亨老(?)
- 茂長 將領: 宋敬發(?) 姜敬重(?)
- 興德 將領: 高永振(保內)
- 高敵軍長: 洪榮觀 洪桂觀
- 茂長軍長: 宋文殊(保內) 宋珍浩 張斗一 郭昌玉
- 東學接主: 金聲七(茂長) 李觀憲(海里莊村) 高永隆(興德 接主) 洪東寬(高敵接主)
- 革命關係人士: 金啓淳(上下 龍傍) 徐相殷(興德에서 死刑: 保內監禁) 金珍炳(東學起包將: 高敵出 保內) 李春京(高敵縣 都徒會: 東學內 趙人) 禹福祿(保化仲 趙包將 崔西仲의 馬夫: 光州에서 死刑) 崔西仲(茂長(?): 光州에서 死刑) 張東行(高敵東學起包將)



不滅의 義脈을 찾아서

續: 全瑋準(1855~1895)과 東學農民革命(1894. 甲午年)
全瑋準은 高敵人이며 東學農民革命의 發祥地는 古阜가 아니라 茂長이었다.

(一) 現地踏査와 取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의 일이다. 筆者는 1980년 5월 11일 井邑에서 있었던 東學農民革命 기념행사에 참석했다가 憤怒가 치밀고 自矜心이 여지없이 격이는 것을 自覺했다. 사실은 世界史의 기록에서도 그 類例를 찾아볼 수 없는 甲午農民革命을 主導한 인물인 바로 全瑋準장군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만하여도 外地사람들은 그분의 出生地가 古창邑을 肯定的으로 받아드리는 사람은 거의 없었으며 오히려 그분의 生居地와 革命의 發祥地가 井邑으로 굳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었다.

筆者가 全장군의 高敵 出生說에 대하여 첫번째로 心證을 얻은 것은 바로 10년전에 들은 金錫源(65세 雅山面출신 仁鏡기념사업회 監修위원장)氏의 證言이었다. 즉 內容인즉 日帝末인 14歲(1938년)때의 일인데 당시石谷舊常小學校(남산所在) 6학년 在學중에 “가니 마끼”란 日本人담당선생의 聲소 오만불만한 言行에 憤慨한 나머지 氏는 罵詈訕아 卽두 장군을 尊敬하는 마음으로 無言의 呼訴라도 하고싶은 충동을 받은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고 한다. 때마침 雲谷書院의 行事に 참석한 柳春錫(작고) 柳生圭(작고) 두先生의 踏家 길을 따라서 「堂村」마을에 있는 全장군의 生家를 가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때 兩분의 對話를 생생히 기억하는데 마을 뒷편에 있는 토담길을 가리키며 하는 말이 卽두장군이 지점에서 태어났으며 東學亂(그 당시의 表現)을 일으킨 굉장히 무서운 분이라고 ... 그리고 멀리 바라다 보이는 別峰(方丈山을 指目하면서)의 精氣를 타고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다. 筆者는 그동안 全장군의 태생지가 “堂村”임을 金錫源氏와 李起華(고창문화원장)氏를 비롯 여러 經路를 통하여 들었기 때문에 何等의 의심할 餘地가 없으나 百聞이 不如一見이란 말이 있듯이 眞實을 알기 위해서는 직접 現地를 踏査하는 것이 上策이라고 생각되어 本會 名譽顧問인 金相萬(동아일보사 명예회장)선생께 支援를 간청한 바 있었다. 그후 夏亞日報駐文化部 金次洙記者와 本會金得漢간사장 그리고 筆者와 같이 지난봄 3월 22일 9시에 서울을 떠나 당일 하오 1시경 井邑郡 梨坪面에 到着하여 숙련한 마음으로 鳥裏里所在의 全장군故宅을 찾아갔다. 建物은 옛農家の 모양새로 깨끗이 補修되어 있었으며 建物입구에는 記念碑가 세워져 있었다. 몇 년전만 하여도 全장군 生家라고 하면 文化財가 오늘에 있어서는(碑石, 看版, 案內板등) 모두 故宅 또는 古家로 고쳐져 있었다. 이 건물을 1974년 補修공사할 때에 1878(戊寅年)년2월 26일자인 上樞文이 발견되어 결국 全장군이 27歲때 지은집으로 確證된 文化財로 지정된 生家를 즉시 故宅으로 是正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經由로 因하여 “堂村의 出生說”은 더욱 굳어졌으며 再論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

다음은 全瑋準先生의 胎生地인 “堂村부락”의 상황을 紹介하고자 한다.



“全奉準 高敞태생 틀림없다

동학혁명 첫 발생도 古阜아닌 茂長

[illegible][illegible]

ॐ नमो भगवते वासुदेवाय
 श्रीकृष्णाय नमः
 श्रीगुरुभ्यो नमः

狐山條의 설명을 보아 한
고루한데다.
△高麗ニ金大湊기차▽



踏査班 一行이 찾아간 全瑛準先生의 故宅
이 家屋이 全瑛準 生家라고 하여 1974年 補修하다가
全瑛準27歲때 建築한 것으로 밝혀진 故宅

우리一行은 高敞邑에 도착하자마자 高敞府院은 諸里 金堂君一代의 史料를 不屈의 執念으로 追跡한 사실을 밝히려는 李起華氏에게 同行을 구하여 크고 높은 산을 背脊으로 둘러싸인 “堂村”을 찾아갔다. 이곳은 읍에서 西北쪽으로 약 4km 떨어진 곳으로 순수한 農事를 主業으로 하는 農村이었다. 甲午年 이전에는 金氏一族이 聚成한 마을로 傳해지고 있으나 지금은 滅門之禍로 幾稀만이 14世帶가 도며살고 있으며 金堂君의 生家(보통집)는 간조었고 약 200평 정도의 빈터에 비닐하우스 3.4개만 시설되어 있을뿐, 바로 그 두리 동쪽끝에 金氏一門의 墓 三基가 餘集되어 탄천지 모양사나물계 자리하고 있었다. 杜鰲洞으로부터 들으면 金堂君이 13歲때까지 이곳에서 살았다고 하며 어린이 大體으로 物慾이 강하여 突出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곳 “堂村”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 단川이 있는데 이대를 中心으로 약간씩 떨어진 곳에 兩洞은 道山이요, 仙窟은 “앵가리라고



하든 순창군이 살고 있는 堂村이었
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매년 正月보
름날이면 일종의 민속놀이로 팔매는
어른들이 뿔뿔싸움을 하고 낮에는
어린이들이 돌팔매싸움을 하였
다고 한다.

다음으로는 革命의 根源地인 茂長

全球準先生이 出生하여 13歲때까지 살았다고 하는 집터
원래 토담집이 있었던 곳(壽敬은 죽림 堂村邸所)

으로 잡들음을 옮겼다. 이때 당도한 곳은 茂原面新
村里에, 赤嶺은 福川縣(여성의)인데 이곳이 바로
甲午農民革命의 발상지로 처음 韓義文을 相告한
곳이다.

파천내 出擊승군이 떨어진지를 기다리는 數千農民軍앞에서 暗昧하는 全鎭군의 모습이 눈에 선했
으며 지금도 그 塹이 서려 있는듯 했다. 反常 反制 村老들이 주장하는 金氏一族의 惠三姜
鎭의 기치를 내 걸고 必死의 각오로 抗爭한 世紀 (惠三姜이 약간 남아있음)
의인 英雄이요 民衆의 革命家인 全鎭鎭장군이 革命의 첫 烽火를 올린 이곳을 밟고보니
實로 感慨無量하였다. 그리니가 이곳이 1894년 3월 全鎭군이 4천여의 農民軍을 이끌고
봉기했으니 다음으로 古阜로가서 대독 檄發하여 찾아온 官軍을 격파한 다음 다시 興德,
高敏, 茂長등지로 進軍하였다고 한다. 이같은 事實은 서울大學校 朴鍾夏교수가 당시 東學
農民軍의 總大將이었던 全鎭군과 그 지휘관 孫化中, 崔永昌등의 死刑判決선고서 原本을
獨立記念館主官자의 協助로 檢索함으로써부터 入手함으로써 世上에 알려진 것이다(동아일
보 1966년 5월 4일자)

이곳 布陣의 "역사적"을 中心으로 山岳은 丘陵地에 不過하며 樹林이 甚多인 우거진 곳, 頂上은 圓다란 平地로서 근방의 地理的條件을 살펴보면 茂長所在 地帶 中心으로 西南間은 法界 또는 靈光에 이르고 西北間은 海岸으로 通하고, 東北間은 高敞과 無總으로 連結되
는 概略의으로 重要한 要衝地고보면 그 당시에도 奇蹟이 續았던 것이 사실이다.

(二) 李起華(高敎文化院長)氏가 發掘한 자료와 經由紹介

1. 族譜의 考證

삼계공파야인 문중상파가 확실하다는 이야기인데 甲午農民革命 이후 天安全氏中에는 派에 따라 官의 驅迫을 받게 많은 派가 있는가 하면 滅門之禍를 면치 못한 派가 있었다. 즉 新林面松松에서 世居해 온 삼계공파가 前者에 속하고 이와 반대로 本來 堂村(世譜上에는 德井面堂村郡落)에서 世居하다가 甲午農民革命 이후 혼비백산이 된 全氏一族이 있었는데 그中 한사람인 文忠公과 金東根(扶安거주중 1988년사망)氏가 後裔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考證은 本人이 數10年間 남의집에서 雇傭살이 하면서 精誠스럽게 保管해 온 族譜上에 金瑞準과 11촌 사이로 밝혀지고 文忠公과 17대손에 해당되며 初名은 「鐵雄」字는 「瑞準」으로 불리어왔고 本名은 「炳鎬」라고 기록되었으며 前妻와 後妻 모두 신려있고 「東」이란 이름의 아들도 있었다. 이族譜는 總7권으로 현재 李起華氏가 保管하고 있으며 우리 一行에게 이를 公開하여 증으로서 確認하게 되었다.



2. 胎生地의 立證

前述한바와 같이 井邑 鳥梁里所在의 소위 全將軍 生家가 上樑文의 發見으로 故家로 是正되었음은 結局 堂村胎生을 強力히 뒷받침 해 주는 것이며 그 동안 村耆들의 證言과 逸話, 그리고 在高鄉人 50대以上이면 대부분 한변쯤 들어 아는 事實이며 金東根氏의 族譜등이 堂村 胎生을 立證하는 것이다.

3. 革命의 發祥地

前述한 서울大學校儒學履교수의 發表文 內容과 대부분 同一하기 때문에 省略한다. 다음으로는 東學革命의 가담자였던 “吳知冰”선생이 1940년에 쓴 「東學史」에 「전봉준은 고창현덕정면당촌대생」이라고 밝혔고 鄉土史學者이며 全北文化財專門委員인 “崔鉉植(井邑居住)”씨의 「甲午東學革命史」(1983년 改正版)에서도 高敎胎生으로 修正했으며 1985년에 간행된 「井邑郡誌」에도 全將軍이 高敎胎生임을 확인해주고 있다는 事實들을 들었다.

4. 結論

歷史上 가장 偉대한 民衆抗爭으로 꼽히는 東學農民革命100週年이 오는 1994年으로 다가오는 오늘에 있어서 各處에서는 學問的研究를 바탕으로 그 歷史的評價와 事實의 再照明 그리고 各種紀念行事 준비에 拍車를 加하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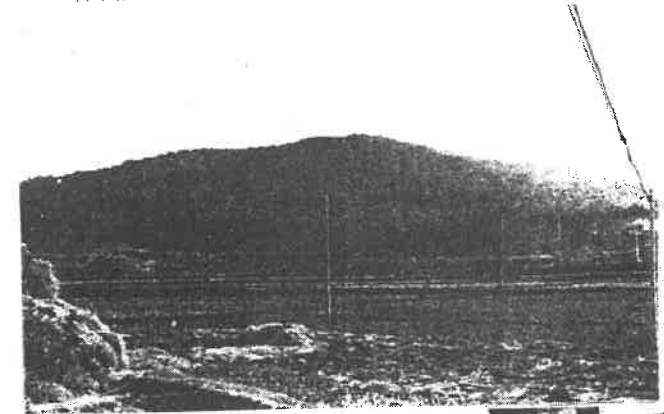
주 歷史問題研究所(서울)가 主體가 되어 결성된 東學農民戰爭100週年紀念事業推進委員會(會長 李隆和)와 韓國社會研究所(全州)가 主體되어 結成한 甲午農民戰爭100週年紀念事業會(會長 金允植)그리고 天道敎 主傳下에 東學農民革命100週年紀念事業會를 結成하여

24

종종5세년계책을 수립하였으며 따라서井邑郡은모든100주년을 기하여 郡單位의 行事에서 全國 規模로 擴大시키고 國樂, 農樂등 公演과 白日場과 學生大會를 거행하기로 準備中인 것도 既報의 事實이다. 그리고 井邑 黃土硯의 現況을 소개하면 德川面下鶴里一帶 4만 6천여坪이 史蹟第235號로 指定되어 지난 81년부터 88년까지 7년동안 總55억원을 投入, 이一帶를 聖域化하여 記念塔을 비롯 齊民堂, 銅像, 記念館등을 갖추어 놓고 있으며 이곳을 다녀간 人員이 每年 上半期만해도 19,500명에 달한다고 한다.

끝으로 우리高敎은 특히 革命의 發祥地요 全將軍의 生居地인데도 이렇게 百年이나 江 건너물이나도남의나라 일처럼 바라만 볼수 있었는지 有口無言이다.

이제라고 우리의 힘으로 定說로 公認化시키는 일도 重要하지만 내고장외 빛나는 傳統과 甲午農民革命의 歷史性을 깊이 인식하고 하루 빨리 聖地保存운동을 벌이는 일이 될 것이다.



全將軍장군은 必死의 각오로 決意를 闡明한 數千의 農軍앞에서 「韓國安民 廣濟蒼生」의 旗幟를 걸고 倡義文을 公布함으로써 이곳이 甲午農民革命을 일으킨 歷史的인 發祥地가 된것이다 茂長面新村里所在의 孤山峰(여사의)



全瑞準先生과 11寸사이가 되는 金東根氏가 數10年 동안 소중히 保存해온 唯一한 文忠公파族譜를 現在 保管하고있는 高敎文化院 院長 李起華氏가 우리 一行에게 公開說明하고 있는 場面



고창군